

해제로 보는 조선시대 생물자원 2  
조선중기(16~17세기)



# 해제로 보는 조선시대 생물자원 2

## 조선중기(16~17세기)

이화여자대학교 정종우, 정소연, 여성희, 이창숙  
서울대학교 이종석  
국립생물자원관 오경희, 최봉수, 남기흠, 김병직, 이지연,  
조수현, 김양선



국립생물자원관



## ❁ 발 간 사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 정서 8조(j)항에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적 이용이 적합한 전통지식 보전과 활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전통의학에서 포함하고 있는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지식 보유국인 개도국들은 특허법 내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통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용국인 선진국들은 특허법 외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예상되는 전통지식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문헌 속 전통지식의 체계적 데이터 구축 및 정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문헌 조사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주춘신방, 임원경제지 등 의서 및 산림 전통문헌 위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통문헌이 모두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수록된 생물종의 실체와 분류체계 검증을 위해서는 중국문헌자료와 상호비교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외 전통지식 자료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통문헌 생물지식 조사'를 통하여 조선시대 94종 1,685권 966책의 전통문헌에 수록된 생물자원과 생물종을 조사한 해제집을 발간

하였습니다.

해제집은 총 4권으로 시기별로 조선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①, 조선후기②로 발간하여, 각 시기의 문헌을 경전류, 농서류, 문학류, 어보류, 의서류, 유서류, 역사·지리서류, 문학류, 가정·조리서류로 구분하여 생물종을 수록하였습니다.

전통문헌에 나타난 생물지식을 확보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예상되는 국가 간 전통지식 분쟁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립, 전통지식의 현대적 수용과 계승 및 지방화 시대의 특성화 사업에 걸맞는 특산물 개발, 전통적인 유용생물자원의 발굴과 미래 산업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바랍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김 상 배

## ❁ 머리말

〈해제로 보는 조선시대 생물자원〉 시리즈 총 4권은 2015년 4월에서 11월까지 7개월동안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루어진 '전통문헌 생물지식 조사 연구'라는 과제의 성과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00여종의 선정된 문헌은 그간 국학이나 역사학, 지리학 등의 관심에서만 조명된 것들도 적지 않은데, 일반적인 고문헌 해제 방식을 취하되 생물지식에 주목해 이루어진 해제 작업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헌에 등장하는 동물과 식물, 균류를 대상으로 관련 생물자원과 생물종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통문헌에 나타난 생물지식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예상되는 전통지식 분쟁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생물 주권과 전통 지식의 계승과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작업을 기획한 국립생물자원관의 방향 덕분에 뜻깊은 기회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이 작업을 하는 데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선 연구책임자 정종우 교수님과 여성희, 이창숙, 이종석, 정소연 교수님, 경희대학교 양덕춘 교수님께 감사드

린다. 자문위원으로 큰 도움을 주신 이병훈, 배연재, 장유승, 김애경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해제 작업을 위해 함께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고전문학교육연구실의 박유진, 조성윤, 진영희, 권혜정, 황성혜, 전현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일일이 다 언급은 못하지만, 해제 작업에 참고한 수많은 문헌의 저자와 역자, 편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국문화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총 4권으로 이루어진 본서는 94종 문헌, 1685권 966책의 전통문헌을 모아 조선시대의 것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다만 이 중에서 〈이아주소〉, 〈주례고공기〉는 조선 훨씬 이전의 것이나 중국 고대의 생물 지식 참고를 위해 1권 마지막에 실기로 한다. 각 권에서 다루는 시대 및 문헌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권1: 15세기 (조선전기) 농서류, 의서류, 역사·지리서류, 문학류, 가정·조리서류, 경전류
- 권2: 16, 17세기 (조선중기) 농서류, 의서류, 유서류, 역사·지리서류, 문학류, 가정·조리서류
- 권3: 18세기 (조선후기①) 농서류, 의서류, 유서류, 역사·지리서류, 문학류
- 권4: 19세기 (조선후기②) 농서류, 어보류, 의서류, 유서류, 역사·지리서류, 문학류, 가정·조리서류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해제 작업

으로 향후 현대의 국명과 전통 문헌의 명칭이 문헌마다, 시대마다 다른 점을 조정하고 비교하여 이명(異名)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학명과의 대비를 통해 세계에 우리나라 생물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할 작업들이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를 기약한다.

2016년 1월  
저자 일동

## ❁ 차례

■ 발간사 .....	v
■ 머리말 .....	vii
■ 해제 대상문헌 유형 및 특성 .....	xii
■ 일러두기 .....	xiv

## 농서류

농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3
〈색경(穡經)〉 해제 .....	5

## 의서류

의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13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 해제 .....	15
〈구급이해방(救急易解方)〉 해제 .....	19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 외경편〉 해제 .....	24
〈벽온방언해(辟瘟方諺解)〉 해제 .....	34
〈벽온신방(辟瘟新方)〉 해제 .....	38
〈상마경(相馬經)〉 해제 .....	41
〈의림촬요(醫林撮要)〉 해제 .....	47

〈주촌신방(舟村新方)〉 해제 .....	55
-----------------------	----

**유서류**

유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65
〈고금설원(古今說苑)〉 해제 .....	67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해제 .....	70
〈삼재도회(三才圖會)〉 해제 .....	79
〈신편휘어(新編彙語)〉 해제 .....	91
〈역어유해(譯語類解)〉 해제 .....	97
〈유원총보(類苑叢寶)〉 해제 .....	109
〈지봉유설(芝峯類說)〉 해제 .....	116
〈한정록(閑情錄)〉 해제 .....	122

**역사지리서류**

역사지리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13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원도(江原道)〉 해제 .....	135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개성부(開城府)〉 해제 .....	14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京畿)〉 해제 .....	15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도(京都)〉 해제 .....	16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慶尙道)〉 해제 .....	17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全羅道)〉 해제 .....	19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충청도(忠淸道)〉 해제 .....	210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평안도(平安道)〉 해제 .....	22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함경도(咸鏡道)〉 해제	23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황해도(黃海道)〉 해제	247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해제	256
〈탐라지(耽羅志)〉 해제	262

## 문학류

문학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269
〈간이집(簡易集)〉 해제	271
〈도문대작(屠門大嚼)〉 해제	276
〈서애집(西厓集)〉 해제	283
〈용재총화(慵齋叢話)〉 해제	289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해제	296
〈패관잡기(稗官雜記)〉 해제	301

## 가정·조리류

가정·조리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305
〈규곤시의방(閩壺是議方)〉 해제	307
〈수운잡방(需雲雜方)〉 해제	311

- 해제 작성 대상 문헌 개관 ..... 317
- 참고문헌 ..... 337

## Ⅱ 해제 대상문헌 유형 및 특성 Ⅱ

종류	특성
유서 (類書)류	유서(類書)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동아시아에 퍼진, 편집된 책인데 백과사전에 비교되기도 한다. 다만 현대 백과사전과 같이 자세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반드시 주목적은 아니고 많은 사물을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설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관심 분야에 따라 일부 분야만을 다루기도 하고, 운자(韻字)에 따라 배열되기도 하며,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하기도 하고,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순으로 배열하기도 한다.
물명서 (物名書) · 어휘집 류	물명서나 어휘집은 사물의 명칭을 풀이한 책이다.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기본적으로 자서(字書)에 속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칭의 풀이에 그치지 않고, 사물의 정의, 이칭, 유래, 속성,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유서(類書)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사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명서류의 저작이 대거 산생되었다. 이가환(李嘉煥), 이재위(李載威) 부자의 『물보(物譜)』, 정약용(丁若鏞)의 『죽란물명고(竹欄物名攷)』, 유희(柳翊)의 『물명고(物名考)』, 이만영(李晩永)의 『재물보(才物譜)』 등이 대표적이다.
농서 (農書)류	농서(農書)는 종자의 선택과 논밭 같이, 작물의 재배 및 수확, 보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적이다. 농업 사회의 안정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식량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제작되었다. 이후에 시대에 따라 새로 재배되는 작물과 목적 및 주거와 일상생활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순수한 농업 서적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고, 농업 중심이나 사실상 백과사전화된 서적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의서 (醫書)류	의서(醫書)를 크게 나눈다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의서와 특수하고 쉽고 간단한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의서로 나눈다. 전통의서는 직접적인 수술법이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는 만큼 질병을 약으로 다스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질병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고 질병에 대한 대응법을 소개하고, 그 외에 여러 약재들의 효능, 복용법,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한 가지 약재로만 처리하는 것은 드물고 일반적으로 여러 약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일부 광물도 약재로 사용된다.
어보(魚譜)·수산서류	물고기 관계 문헌은 대체적으로 역사서, 지리서와 같은 관찰 편찬서와 농서, 의서, 유서, 그리고 일부 조리 관련 문헌 등에 개인저술의 일부 또는 하나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백

종류	특성
	과사전 성격의 문헌들이 다양하게 편찬되면서 물고기 관련 내용이 한 부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명고(魚名攷)나 어보(魚譜) 등과 같이 전문적인 문헌으로 편찬되기도 하였다. 수산업에 이용되는 양상이나 맛 등도 기록하고 있다.
역사서 (歷史書) 류	역사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대인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동서양에서 많이 저술되었다. 역사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이 작성한 역사, 국가적 차원에서 작성한 공적인 역사로 나눌 수 있으며 서술 방법에 따라 본기(本紀), 지(志), 열전(列傳), 연표(年表) 등으로 분류해서 작성하는 기전체(紀傳體), 사건에 중심을 두어 사건의 원인과 결말 위주로 작성하는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사기(史記)』에서 사용된 기전체 서술 방식이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적 차원 기술에 널리 사용되었다.
지리서 (地理書) 류	전통적인 지리서는 국가적으로 편찬되는 경우가 많다. 통치의 목적으로 지역별로 자연, 인물, 역사, 산물, 문학 등의 주제로 나뉘서 항목별로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수도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먼 곳으로 진행한다. 이외에 개인적으로 편찬되는 지리서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관심 있는 정보 위주로 기록되었다. 외국에 관한 기술이 있는 지리서도 있는데 제한된 정보 때문에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기행· 풍토록	어떤 지역의 지지(地誌) 일반에 관하여 적은 기록으로 지역의 지형, 산물, 인물, 동식물, 음식, 풍습, 인심 등을 기록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 또는 개인적 차원이 라도 관리들에게 부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와 달리 개인적인 여행, 또는 유배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기록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주로 생활하던 지역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여정에 따라서 기본적인 공식적인 일정을 기록하고 견문과 감상을 기록하였다.
문학류· 개인 문집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의 문장이나 시부(詩賦) 등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 별집(別集)과 총집(總集)으로 나뉜다. 어떤 개인의 문장·시부 등을 모아 편찬한 책을 별집이라 하고, 여러 사람의 시부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록(摘錄)한 것을 총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문집은 별집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문집의 앞부분에 운문이, 뒷부분에 산문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

## Ⅱ 일러두기 Ⅱ

문헌의 소속 시기는 저자가 분명할 때에는 저자의 저술 시기에 의거하였으나 그 이전의 저작일지라도 제작 시기가 조선시대인 것도 일부 포함시켰음을 밝혀둔다.

생물명 표기시 ‘국문명(한자)’가 기본 방식이나, 국문명과 한자의 발음이 다를 경우나 국문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자로 보일 때에는 ‘국문명[한자]’로 표기한다.

예) 은구어(銀口魚), 보리[麥]

원문의 표현을 최대한 존중해 한자의 발음을 그대로 생물명으로 표기하였으나 현재의 국명과 다를 경우는 괄호를 이용하여 소개한다.

예) 천문동(호라비꽃, 天門冬)

생물명만 대부분 소개하고 있으나, 생물자원으로 활용될 생물지식 소개를 위해서 해당 생물의 부위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예) 여우가죽[狐皮], 돼지털[豬毛]

한문 원본이 훼손되어 잘 안 보이거나 현재 한자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魚+旬)鱈: 디지털 변환이 어려운 한자인 경우.

▼(央/魚): 원문 훼손으로 판독이 어려운 경우.



# 농서류





농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색경(穡經)〉 해제

■ 원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성격

이 책은 농사에 관한 경서라는 뜻으로 색경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지방의 농경법을 연구하여 꾸민 농법기술서로서 서문과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는 임지(任地 : 작물종류에 따라 토질이 달라야 하는 것), 변토(辨土 : 토질의 특징과 보호법), 경지(耕地 : 봄갈이, 가을갈이를 때맞추어 하는 것)에 대한 총론적 풀이와 각종 개별작물·과일·화훼·가축·포유류·조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곡(種穀)이라 하여 논벼·밭벼·보리·밀·조·기장·수수·콩·팥·참깨·들깨·삼·모시·목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종제과채법(種諸瓜菜法)으로 오이·수박·박·동아·토란·아욱·가지·무·순무·겨자·생강·마늘·파·부추·상추·버섯·잇[紅花]·쪽 등의 재배법, 종제수법(種諸樹法)으로 대·송백·오동·피나무·닥나무·치자·백양 등의 재배법, 종제과법(種諸果法)으로 배·복숭아·오얏·살구·능금·대추·밤·감·모과·은행·포도 등의 재배법, 종제화법(種諸花法)으로 연꽃·국화·지황·회향·마·위포 등 화초와 약초의 재배법 그리고 과수의 접붙이는 법인 신접(身接)·안접(眼接)·피접(皮接)·지접(枝接)·압접(壓接)·탑접(塔接) 등 각 방법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돼지·닭·거위·오리 등을 기르는 방법과 양어·양봉에 관한 기술이 있다.

하권에서는 양상(養桑)과 양잠경(養蠶經)으로 크게 나누어, 세분된 항목에 따라 잠종처리로부터 고치실 뽑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세 히 서술하고 있다. 이에 이어서 전가월령(田家月令)·전가점험(田家占驗)·제주(製酒)·제초(製醋) 등이 첨부되어 있다. 전가월령은 12개월 농사의 월력이고, 전가점험은 월별로 농사를 점치고 천문류(天文類: 해·달·별·바람·비·구름·이슬·얼음·눈·서리 등)와 지리류(地理類: 산수의 모습 변화), 초목·조수(鳥獸)·간지 등과 연결시켜 일기·기후·농형 등을 예보하는 방법을 논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책은 농림축잡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양어·양봉 및 농산제조(술담그기, 초담그기 등) 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고, 농사를 점치는 법도 덧붙여 있다.

#### ■ 편저자

박세당(朴世堂) 조선 후기의 학자로 남원에서 태어났다. 현종 1년(1660)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예조좌랑·병조좌랑·정언·홍문관 교리 겸 경연시독관·북평사 등을 역임하였다. 1667년에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을 때는 응구언소(應求言疏)를 올려 신분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대부들의 무위도식을 비판하고,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실리주의 정책을 펼 것과 백성을 위한 법률의 혁신, 정치·사회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1668년에는 이조좌랑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있다가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후 당쟁에 혐오를 느껴 관료생활을 그만두고 양주(楊州) 석천동(石泉洞: 지금의 도봉산 아래 다락원)으로 물러났다. 그뒤 숙종 23년(1697) 4월에 한성부판윤을 비롯하여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 수차례 관직이 주어졌지만 모두 부

임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만 주력하였다.

■ 제작 시기 1676년(숙종 2)

■ 권수 책수 2권 2책

■ 판본 필사본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한반도 전역

방법 중국의 농서를 많이 섭렵하여 인용하고 취사선택과 분류를 적절히 하여 요령있는 설명으로 엮어놓았다.

■ 목차 〈상권〉

임지(任地)

변토(辨土)

경지(耕地)

종곡(種穀)

종제과채법(種諸瓜菜法)

종제수법(種諸樹法)

종제과법(種諸果法)

종제화법(種諸花法)

〈하권〉

양상(養桑)

양잠경(養蠶經)

전가월령(田家月令)

전가점험(田家占驗)

## ■ 내용

### 분류

수록 종 수 동물 : 8종

각지벌레[菊虎], 국우[菊牛], 돼지[豬], 닭[鷄], 거위[鵝], 오리[鴨], 꿀벌  
[蜜蜂], 소[牛]

식물 : 92종

보리(大麥), 쑥[艾], 조[粟], 기장[黍], 무청(순무 無青, 蔓青), 콩(大豆),  
밀(小麥), 밭벼[旱稻], 메기장[黍稷], 수수[蜀黍], 팥[小豆], 녹두(菘豆),  
완두(豌豆), 참깨[胡麻], 삼(암삼[麻子]), 삼[麻], 무[蘿蔔], 蘆菔, 물무(水  
蘿蔔), 큰무(大蘿蔔), 홍당무[胡蘿蔔], 모시풀[苧麻], 목화[木棉], 오이  
[瓜], 참외[甜瓜], 수박[西瓜], 동아[冬瓜], 박[瓠], 토란[芋], 아욱[葵], 가  
지[茄子], 유채(油菜), 배추[菘], 갯[芥子], 생강[薑], 마늘[蒜], 파[蔥], 부  
추[薤], 상추[萵苣], 들깨[荳蔻], 여뀌[蓼], 버섯[菌子], 닥나무[楮, 穀楮], 자  
충이[藟], 수정 파[水精蔥], 잇꽃[紅花], 쪽[藍], 전[靛], 배나무[梨], 팔배  
나무[杜], 산앵두나무[棠], 복숭아나무[桃], 오얏나무[李], 살구나무  
[杏], 능금나무[林禽], 대추나무[棗], 밤나무[栗], 개암나무[榛], 개다래  
나무[木蓼], 상수리나무[橡], 감나무[栲], 모과나무[木瓜], 포도(葡萄),  
대나무[竹], 소나무[松], 잣나무[栢], 오동나무[梧桐], 옷나무[漆], 해나  
무[槐], 치자나무[梔], 구기자나무[枸杞], 사시나무[白楊], 연꽃[蓮], 국  
화[菊], 지황[地黃], 결명자[決明], 회향[茴香], 참마[薯蕷], 마(산약, 山  
藥), 갈대[葦], 부들[蒲], 백부(百部), 형상(荊桑), 백상(白桑), 노상(魯  
桑), 오디[種], 지상(地桑), 꾸지뽕나무[栲], 누에[養蠶], 백미(白米), 교  
초(芡草), 뇌심[雷薹]

명칭 표기 중국 혹은 한자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나타내고 있다.

- 중국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오이를 ‘오이(황과, 黃瓜)’

라고 말한다.

- 참외는 한자말로 감과(甘瓜) 또는 진과(眞瓜)라고도 한다.

내용 기술 상권에서는 주로 심는 시기, 방법, 토지의 조건, 추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항목	내용
심는 시기	일설에 기장은 춘분 전후로 심는다고 하였다.
방법	보리가 나서 누런 빛깔을 띠면, 이것은 너무 촘촘하게 심은 데서 온 잘못이니 김을 매어 드물게 쉼아 준다.
토지 조건	검은 토양에는 기장이 잘 된다.
추수 시기	수확은 늦게 해야 하니, 그 성질이 잘 털어지지 않으므로 일찍 베면 오히려 손해다.

하권에는 뽕나무의 종류, 누에치는 방법을 다루고, 농가의 월중행사를 월별로 나열하고 있다.

항목	내용
2월	뽕나무(오디) 씨를 심는다. 기장을 심는다. 모든 과일 나무 가지는 큰 종자용 토란에 꽃는다....

인용문헌 《한서(漢書)》, 《범승지서》 등



# 의서류





의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 해제

■ 원전 출처 고려대학교 소장본 (대학원 貴 203A)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

### ■ 성격

의서를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의서와 특수하고 쉽고 간단한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의서로 나눈다면 간이벽온방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전염병의 창궐 같은 긴급 상황에 갑자기 다수의 의원(醫員) 투입이 어려울 때 신속한 치료를 하여 질병의 확산을 막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단한 치료법을 민간에 알려줘서 의원의 도입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의서 중의 하나가 간이벽온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을 독자로 예상하는 만큼 당시 언해의 필요성이 더 큰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 편저자

김순몽 외(金順蒙 外) 김순몽(金順蒙)은 생몰년은 미상이며,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조선부(朝鮮賦)』를 남긴 동월(董越)의 접빈사 역할을 했던 허종의 문하생이다. 1516년(중종 11)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가 되었으며, 당상관에 올랐다.

박세거(朴世舉)는 생몰년 미상이며, 왕실을 직접 진료한 공으로 유명했으며 벼슬이 가의대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이르렀다.

유영정(劉永貞)은 생몰년 미상이며, 대비 진료에 참여했으며 벼슬이 당상관에 이르렀다.

■ **제작 시기** 1524년(1578년 판)

■ **권수 책수** 1권 1책

■ **판본** 1524년 완성하고 1525년 언해를 붙여 간행했다고 하나 현재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고려대학교 도서관본으로 중간본이 전한다. 1578년 을해자본과 1613년 훈련도감자본이 있는데 훈련도감자본은 표기법의 혼란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내용 차이는 없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1524년 평안도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 편찬하게 되었다고 하나 특별히 그 지역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특별히 어느 지역을 조사한 결과 내놓은 치료법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방법** 기존의 의서에서 가려 뽑아서 전염병에 관한 사항만 뽑고 다양한 차원에서 심도 있는 서술을 한 것도 제외하여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식 위주로 편집하였다. 다만 단순히 약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특히 고을 수령)의 기원도 제시하고 있다.

■ **목차**

서(序)/소합향원(蘇合香元)/향소산(香蘇散)/십신탕(+神湯)/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도소주(屠蘇酒)/형화환(螢火丸)/호두살귀원(虎頭殺鬼元)/신명산(神明山)/뽕온단(暹瘟丹)

■ **내용**

**분류** 크게 직접적으로 빠른 처치를 위해 상비약 개념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과 세시풍속에서 1년 동안 질병이 없기를 기원하는 바람

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좁은 의미에서는 약이 아니다. 총 아홉 개의 약을 소개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 질병의 치료와 질병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나누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수록 종수 총 53종(식물 45종, 동물 8종)

향부자(香附子, 향부즈), 감초(甘草), 차즈기(자소엽, 紫蘇葉, 즈소엽), 삼주(창출, 蒼朮, 창틀), 천궁(川芎, 천궁), 마황(麻黃), 승마(升麻, 승마), 백지(白芷, 빅지), 적작약(赤芍藥, 적작약), 계요등(갈, 葛), 백작약(白芍藥, 빅작약), 대황(大黃), 도라지(길경, 桔梗, 길경), 초피나무(촉초, 蜀椒, 속초), 계(桂), 호장근(虎杖根, 호당근), 삼주(백출, 白朮, 빅틀), 오두(烏頭), 귀전(歸箭, 귀전), 질려(蒺藜, 질려), 은행나무(행, 잣, 살고), 귀구(鬼臼), 조협(皂莢), 무이(蕪荑), 죽도리풀(세신, 細辛, 세신), 측백(側柏, 측빅), 적소두(赤小豆, 붉근 팥), 송엽(松葉), 복숭아나무(도, 桃, 복성화), 쑥(애, 艾, 짝), 무청(蕪菁, 씌나무수), 파(총, 葱, 파), 구(韭, 염구), 산(蒜, 마늘), 해채(薺菜, 히치), 생강(姜,薑, 싱강), 고삼(苦參, 뿌너삼), 소산(小蒜, 효곤 마늘), 대나무(죽, 竹, 대), 창포(菖蒲, 창포), 백단향(白檀香, 빅단향), 강진향(降眞香, 강진향), 마제향(馬蹄香, 마데향), 천금초(千金草, 천금초), 고본(藁本)의 식물 45종

형(螢), 고양(羶羊), 응계(雄鷄, 수툽), 호(虎), 저(猪, 돼), 호(狐, 여스), 달(獺, 너구리), 구인(蚯蚓, 거위)의 동물 8종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문헌 특성상 속명 표기는 없다.

내용 기술 생물의 직접적인 약용, 세시풍속으로 기원의 의미를 전

달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주의사항의 설명도 없다.

항목	내용
① 약용	대를 태우면 요기(妖氣)로 나쁜 것을 없게 한다.
② 기원	제야에 뜰에 섰을 쌓고 불을 피우면 재앙을 없게 하며 양기를 돕는다.

인용문헌 辟瘟方 등

## 〈구급이해방(救急易解方)〉 해제

■ 원전 출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 성격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구급처방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세종 때의 《향약집성방 鄉藥集成方》과 《의방유취 醫方類聚》는 너무 호한(浩瀚)하고 세조 때의 《구급방》은 너무 간략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향리에서 산출되는 약재를 주로 하여 민간 구급에 필요한 간단한 방문(方文)들을 모아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서로 편집하였다고 한다.

■ 편저자

윤필상(尹弼商), 홍귀달(洪貴達), 정미수(鄭眉壽), 김흥수(金興壽) 홍귀달(洪貴達)의 서(序)와 권건(權健)의 발(跋)에 의하면 1498년 내의원(內醫院)의 도제조(都提調)인 윤필상(尹弼商)과 제조 홍귀달, 부제조 정미수(鄭眉壽), 내의(內醫) 김흥수(金興壽) 등이 왕명에 따라서 찬집하고 이를 또한 인쇄하여 1499년에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 반포하였다고 한다.

■ 제작 시기 1499년(연산군 5), 1523년(중종 18)

■ 권수 책수 1책

■ 판본 활자본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동방(東方)

방법 약을 조제할 때 필요한 생물 기록

## ■ 목차

1. 중풍(中風), 2. 중한(中寒), 3. 상한(傷寒), 4. 상풍(傷風), 5. 중서(中暑), 6. 중습(中濕), 7. 안질(眼疾), 8. 치병(齒病), 9. 인후구설(咽喉口舌), 10. 이병(耳病), 11. 비병(鼻病), 12. 두면(頭面), 13. 모발(毛髮), 14. 혈병(血病), 15. 제기(諸氣), 16. 퇴산(癩疝), 17. 심통(心痛), 18. 복통(腹痛), 19. 협통(脇痛), 20. 요각(腰脚), 21. 비위(脾胃), 22. 구토(嘔吐), 23. 격열(膈噎), 24. 현훈(眩暈), 25. 적취(積聚), 26. 해역(咳逆), 27. 해수(咳嗽), 28. 성음불출(聲音不出), 29. 학질(瘡疾), 30. 소갈(瘧渴), 31. 부종(浮腫), 32. 창만(脹滿), 33. 황달(黃疸), 34. 임질(淋疾), 35. 대소변(大小便), 36. 사리(瀉痢), 37. 제허(諸虛), 38. 허번경계(虛煩驚悸), 39. 제한(諸汗), 40. 전간(癩癩), 41. 중악(中惡), 42. 주병(酒病), 43. 고독(蠱毒), 44. 은진(癩疹), 45. 개선(疥癬), 46. 옹저(癰疽) 부(附) 단독정종(丹毒丁腫), 47. 나력(癩癧), 48. 영류(癭瘤), 49. 치질(痔疾) 부(附) 탈항(脫肛), 50. 변독(便毒), 51. 타박상손(打撲傷損), 52. 제창(諸瘡), 53. 탕화상(湯火傷), 54. 칠창(漆瘡), 55. 금창(金瘡), 56. 전촉제자(箭鏃諸刺), 57. 충상(蟲傷), 58. 수상(獸傷), 59. 동사(凍死), 60. 골경(骨鯁), 61. 탈양음축(脫陽陰縮), 62. 익수사(溺水死), 63. 자액(自縊), 64. 실흘함거차후(失欠額車蹉候), 65. 미목(眯目), 66. 해독(解毒), 67. 역절풍(歷節風), 68. 전풍(癩風), 69. 부인조경(婦人調經), 70. 유옹(乳癰), 71. 임신(妊娠), 72. 치난산(治難產) 부(附) 포의불하(胞衣不下), 73. 산후(産後), 74. 소아경간(小兒驚癇) 부(附) 설사(泄瀉), 75. 소아제(小兒啼), 76. 창진(瘡疹)

## ■ 내용

분류 생물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병에 대한 처방으로 약을 조제할 때 필요한 생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수룩종수 가자피(訶子皮), 갈근(乾葛), 갈화(葛花), 감초(甘草), 갑오징어뼈(烏賊魚骨), 강활(羌活), 개미(蟻), 건갈(乾葛), 건강(乾薑), 검은나팔꽃씨(黑牽牛), 검은콩(黑豆), 게(蟹), 계관화(鷄冠花), 계심(桂心) 계지(桂皮), 계피(桂皮), 고삼(苦蔘), 고양이(猫兒), 골쇄보(骨碎補), 과루(瓜蒌), 과루근(瓜蒌根), 곱향(藿香), 관계(官桂), 관중(貫衆), 괴화고본(槐花蘘本), 구맥(瞿麥), 권백(卷柏), 귤피(橘皮), 귤홍(橘紅) 도라지(길경, 桔梗), 나복자(蘿菴子), 남성(南星), 녹두(菉豆), 누로(漏蘆), 단삼(丹蔘), 단풍나무버섯(楓樹菌), 닭똥(雞糞), 당귀(當歸), 대극(大戟), 대두(大豆), 대두황권(大豆黃卷), 대모(玳瑁), 대복피(大腹皮), 대추(棗) 대향부자(大香附子), 대황(大黃), 도마뱀(蜥蜴), 도인(桃仁), 독초(惡菌), 독활(獨活), 동규자(冬葵子), 돼지염통(猪心), 두충(杜沖), 등심(燈心), 락풀의 꽃(白茅花)

마발(馬勃), 마아초(馬牙硝), 마인(麻仁), 마황(麻黃), 마황근(麻黃根), 만형자(蔓荊子), 말(馬), 매미허물[蟬退], 맥문동(麥門冬), 맥아(麥芽), 멍쌀[粳米], 모과(木瓜), 모려분(牡蠣粉), 목통(木通), 목향(木香), 몰석자(沒石子)

박하(薄荷), 반하(半夏), 반하국(半夏麴), 방기(防己), 방풍(防風), 삼주(백출, 白朮), 백강잠(白僵蠶), 백급(白芨), 백단향(白檀香), 백두구(白豆蔻), 백렴(白朮), 백복령(白茯苓), 백부근(百部根), 백선피(白鮮皮), 백자인(柏子仁), 백작약(白芍藥), 백지(白芷), 삼주(백출, 白朮), 뱀(蛇), 버드나무가지(桃柳枝), 버섯(菌), 벌(蜂), 범(虎), 벼(稻), 보리(麥), 복숭아가지(桃枝), 복신(茯神), 봉출(蓬朮), 부자(附子), 빈랑(檳榔), 뽕나무겨우살이(桑寄生)

숙지황(熟地), 사간(射干), 사슴(鹿), 사향(麝香), 산굼벥이(鱗鱒), 산수유(山茱萸), 마(산약, 山藥), 산자고(山茨菰), 산조인(山棗仁), 산치

자(山梔), 살구씨(杏仁), 샅(狸), 삼릉(三稜), 상백피(桑白皮), 상산(常山), 생강(生薑), 생마유(生麻油), 생지황(生地黃), 서각(犀角), 서각주사(犀角朱砂), 서점자(鼠粘子), 석곡(石斛), 석창포(石菖蒲), 선각(蟬殼), 죽도리풀(세신, 細辛), 삽주(창출, 蒼朮), 소(牛), 소엽(箇蘇), 소합향(蘇合香), 속수자(續隨子), 송진(松脂), 숙지황(熟地黃), 승마(升麻), 시체(柿蒂), 시호(柴胡), 식수유(食茱萸), 밀(신국, 神麴), 쑥(艾) 아교(阿膠), 아교주(阿膠珠), 안식향(安息香), 애엽(艾葉), 앵속각(鶯粟殼), 양(羊), 양강(良薑), 여우(狐), 연교(連翹), 연육(蓮肉), 연자(蓮子), 영릉향(零陵香), 영양각(羚羊角), 오가피(五加皮), 오령지(五靈脂), 오매(烏梅), 오미자(五味子), 오수유(吳茱萸), 오약(烏藥), 왕불류행(王不留行), 용골(龍骨), 용뇌(龍腦), 용치(龍齒), 천남성(우담남성, 牛膽南星), 우담남성(牛膽製), 밀(우슬, 牛膝), 우영씨(鼠粘子), 우여량(禹餘糧), 우황(牛黃), 곰(熊), 웅담(熊膽), 원지(遠志), 원청(芫青), 위피(蝟皮), 느릅나무(유백피, 榆白皮), 유향(乳香), 육계(肉桂), 으름덩굴(因入蘿蔔), 이분(膩粉), 익지인(益智仁), 인삼(人參), 인진(茵陳) 차즈기(자소엽, 紫蘇葉), 자완(紫菀), 작약(芍藥), 저령(猪苓), 적복령(赤茯苓), 적소두(赤小豆), 적작약(赤芍藥), 전갈(全渴), 전갈(全蝟), 전호(前胡), 정력자(葶藶子), 정분(定粉), 정향(丁香), 조협(阜莢), 죽력(竹瀝), 죽여(竹茹), 쥐(鼠), 지각(枳殼), 지골피(地骨皮), 지네(蜈), 거미(蜘蛛), 지네(蜈蚣), 지렁이(蚯蚓), 지모(知母), 지실(枳實), 진주(眞珠), 진피(陳皮), 질경이씨(車前子), 질경이(차전자, 車前子), 척촉화(躑躅花), 천궁(川芎), 천련육(川練肉), 천련자(川楝子), 천마(天麻), 천산갑(穿山甲), 천오(川烏), 청대(靑黛), 청유(靑油), 청죽엽(靑竹葉), 청피(靑皮), 초과(草果), 초목(椒目), 초오두(草烏頭), 총백(葱白), 축사(縮砂), 측백잎(側柏葉), 치자(梔子), 칩뿌리(葛根), 침향(沈香), 십

사리(택란, 澤蘭)

택란엽(澤蘭葉), 택사(澤瀉), 토사자(兔絲子)

파(蔥), 파고지(破古紙), 파두(巴豆), 판람근(板藍根), 패모(貝母), 편뇌(片腦), 포황(蒲黃), 필발(萼撥)

해조(玄胡), 행인(杏仁), 향부자(香附子), 향유(香油), 향유(香薷), 현삼(玄蔘), 현호색(玄胡索), 형개수(荊芥穗), 호두(胡桃), 호박(琥珀), 호분(胡粉), 호초(麥芽), 홍아대극(紅牙大戟), 홍화(紅花), 황과루(黃瓜蘖), 황금(黃芩), 황기(黃芪), 황랍(黃蠟), 황련(黃連), 황밤(黃栗), 회향(茴香), 후박(厚朴), 흑축(黑牽), 흰 닭의 쓸개(白鷄膽)

가자육(訶子肉), 구맥(瞿麥), 궁궁(芎藭), 당귀(當歸), 독활(獨活), 동규자(冬葵子), 목통(木通), 목향(木香), 방풍(防風), 삼주(백출, 白朮), 복분자(覆盆子), 봉출(蓬朮), 상기생(桑寄生), 서각방(犀角鎊), 석위(石葦), 원화(芫花), 정향(丁香), 진피(陳皮), 천초(川椒), 총백(葱白), 한련초(旱蓮草)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다른 문헌의 일반 생물의 표기와 같다. 이 문헌 안에서 이칭이나 별칭은 따로 발견되지 않는다.

내용기술 2. 중한(中寒)

[처방의 약재 구성]

중한으로 이를 악물고,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치료한다. 부자 <습지에 싸서 구운 것> · 인삼 · 백출 · 건강 <습지에 싸서 구운 것> · 감초 <구운 것> 각 1돈. 위의 약재들을 썰어 달여 복용한다. 어떤 처방은 오수유 · 육계 · 당귀 · 진피 · 후박을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더한다.

인용문헌 《동의보감》

##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 외경편〉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본

■ 성격

이 책은 원래 1596년(선조 29)에 태의(太醫) 허준이 왕명을 받아 유의(儒醫)인 정작(鄭瓘)과 태의 이명원(李命源)·양예수(楊禮壽)·김응탁(金應鐸)·정예남(鄭禮男) 등과 함께 찬집하였는데, 정유재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그 뒤 선조가 허준에게 다시 명하여 계속 편집하도록 하였으며, 내장방서(內藏方書) 500권을 내주어 고증하게 하였다. 허준이 전심전력하여 1610년에 마침내 완성하자, 왕은 곧 내의원(內醫院)에 명하여 인출(印出), 널리 반포하게 하였다.

책 제목의 ‘동의(東醫)’란 중국 남쪽과 북쪽의 의학전통에 비견되는 동쪽의 의학 전통 즉, 조선의 의학 전통을 뜻한다. ‘보감(寶鑑)’이란 “보배스러운 거울”이란 뜻으로 귀감(龜鑑)이란 뜻을 지닌다. 허준은 조선의 의학 전통을 계승하여 중국과 조선 의학의 표준을 세웠다는 뜻으로 ‘동의보감’이라 이름 지었다.

■ 편저자

허준 1539(중종 34)~1615(광해군 7). 조선 중기의 의관.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30여 년 동안 왕실병원인 내의원의 어의로 활약하는 한편,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8종의 의학서적을 집필하였다.

■ 제작 시기 1610년(광해군 2)

■ 권수 책수 25권 25책

■ 판본 활자본

## ■ 조사 지역 및 방법

### 지역 조선 전역

방법 기존 중국과 조선의학의 핵심을 잘 정리하였다. 허준은 중국의 한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200여 종의 문헌과 『의방유취』·『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림촬요(醫林撮要)』와 같은 수 종(種)의 조선의서를 참고한 내용을 자신의 학식과 경륜에 결합하여 『동의보감』 안에 녹여내었고, 의학의 경전인 『영추(靈樞)』와 『소문(素問)』의 정신에 따라 의학의 줄기와 가지를 잡고, 다양한 학설과 처방을 병의 증상·진단·예후·예방법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 ■ 목차

『동의보감』은 목차 2권, 의학 내용 2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학 내용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경편(內景篇)」(6권)·「외형편(外形篇)」(4권)·「잡병편(雜病篇)」(11권)·「탕액편(湯液篇)」(3권)·「침구편(鍼灸篇)」(1권)이다.

「내경편」: 신형(身形)·정(精)·기(氣)·신(神)·혈(血)·몽(夢)·성음(聲音)·언어(言語)·진액(津液)·담음(痰飲)·오장육부(五臟六腑)·포(胞)·충(蟲)·대소변(大小便) 등

「외형편」: 두(頭)·면(面)·이(耳)·비(鼻)·구설(口舌)·치아(齒牙)·인후(咽喉)·두항(頭項)·배(背)에서 흉(胸)·복(腹)·요(腰)·협(脇) 및 사지(四肢)·피(皮)·육(肉)·골근(骨筋)·모발(毛髮)·전후음(前後陰)

「잡병편」: 천지운기(天地運氣)·심병(審病)·변증(辨證)·진맥(診脈)·용약(用藥) 등 진단법으로부터 풍(風)·한(寒)·서(暑)·조

(燥)·화(火)·내상(內傷)·허로(虛勞)·곽란(霍亂)·구토(嘔吐)·해수(咳嗽)·적취(積聚)·부종(浮腫)·창만(脹滿)·소갈(消渴)·황달(黃疸)·온역(瘟疫)·괴질(怪疾) 등 내과질환과 응저(癰疽)·제창(諸瘡)·제상(諸傷) 등

「탕액편」: 채약법(採藥法)·건약법(乾藥法)·삼품약성(三品藥性)·수제법(修製法)·제약법·탕산환법(湯散丸法)·자약법(煮藥法)·복약법·오미약성(五味藥性)·기미승강(氣味升降)

「침구편」: 구침제법(九鍼制法)·연침법(鍊鍼法)·화침법(火鍼法)·점혈법(點穴法)·제애법(製艾法)·구법(灸法)·침보사법(鍼補瀉法) 등

## ■ 내용

분류 병에 대한 처방으로 약을 조제할 때 필요한 생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수록 종수 식물 437종.

가자피(訶子皮), 갈근(葛根), 갈호(蝟虎), 감각(蚶殼), 감국(甘菊), 감국화(甘菊花), 감란수(甘爛水), 감수(甘遂), 감자피(柑子皮), 감초초(甘草梢), 강활(羌活), 강황(薑黃), 개자[藜蘆], 개채자(芥菜子), 갱미(粳米), 건시(乾柿), 건칠(乾漆), 검인(芡仁), 견우자(牽牛子), 계두실(鷄頭實), 계지(桂枝), 계피(桂皮), 고감(古監), 고거(苦苴), 고련근(苦練根), 고본(藁本), 고삼(苦蔘), 고죽엽(苦竹葉), 고채(苦菜), 고희(苦瓠), 고희양(苦瓠瓢), 곤포(昆布), 골쇄보(骨碎補), 과루근(瓜蒌根), 과루실(瓜蒌實), 과루인(瓜蒌仁), 과저묵(鍋底墨), 과체(瓜蒂), 곽향(藿香), 관중(貫衆), 괴목상이(槐木上耳), 괴목이(槐木耳), 괴백피(槐白皮), 괴실(槐實), 괴화(槐花), 교맥(蕎麥), 교맥면(蕎麥麪), 구기자(枸杞子), 구맥(瞿麥), 구자(韭子), 구즙(韭汁), 구채(韭菜), 구해(韭薹),

궁궁(芎藭), 궤(蕨), 규채(葵菜), 귤피(橘皮), 귤핵(橘核), 근화(槿花),  
금앵자(金櫻子), 길경(吉梗)

나마초(羅摩草), 나미(糯米), 나복자(蘿蔔子), 나복즙(蘿蔔汁), 남엽  
즙(藍葉汁), 납월서(臘月鼠), 낭아(狼牙), 노화(蘆花), 녹각교(鹿角膠),  
녹두(菘豆), 뇌환(雷丸), 능검(菱莢), 능소화(凌霄花)

다(茶), 당귀(當歸), 대계(大薊), 대극(大戟), 대두(大豆), 대두황말(大  
豆黃末), 대료(大蓼), 대마자(大麻子), 보리(대맥, 大麥), 대맥면(大  
麩), 대맥묘(大麥苗), 대맥아(大麥芽), 대맥즙(大麥汁), 대부(大斧), 대  
산(大蒜), 대자(代赭), 대저제(大豬蹄), 대조(大棗), 대황(大黃), 도교  
(桃膠), 도근(桃根), 도노(桃奴), 도엽(桃葉), 도인(桃仁), 도지(桃枝),  
도화(桃花), 도화약(桃花膏), 독활(獨活), 동과(冬瓜), 동과등(冬瓜藤),  
동과즙(冬瓜汁), 동규(冬葵), 동규자(冬葵子), 두부(豆腐), 두시(豆豉),  
두충(杜沖), 등심초(燈心草)

마두령(馬兜鈴), 마인(麻仁), 마자(麻子), 마치현(馬齒莧), 마황(麻黃),  
마황근(麻黃根), 만려어(鰻鱺魚), 마린자(馬藷子), 만청자(蔓菁子),  
만형자(蔓荊子), 망초(芒硝), 맥문동(麥門冬), 모과(木瓜), 모정향(母  
丁香), 목근(木根), 목단피(牡丹皮), 목통(木桶), 목향(木香), 무이(蕪  
荑), 미초(米醋), 미후도(獼猴桃), 밀(密)

박로(博勞), 박하(薄荷), 반하(半夏), 방기(防己), 방풍(防風), 방해(螃  
蟹), 백개자(白芥子), 백갱미(白粳米), 백경구인(白頸蚯蚓), 백교(白  
膠), 백규화(白葵花), 백급(白芨), 백두구(白豆蔻), 백마경(白馬莖), 백  
매(白梅), 백모근(白茅根), 백부자(白附子), 백양목(白楊木), 백양수  
지(白楊樹枝), 백양수피(白楊樹皮), 백유마(白油麻), 백자인(柏子仁),  
백작약(白芍藥), 백지(白芷), 백질려(白蒺藜)

삼주(백출, 白朮), 벽려(薛荔), 벽전(壁錢), 변두(菘豆), 복분자(覆分

子, 부소맥(浮小麥), 부평(浮萍), 분저(糞蛆), 비마엽(萆麻葉), 비마자(萆麻子), 비실(榧實), 비해(萆薢), 민랑(檳榔)

사간(射干), 사과(絲瓜), 사군자(使君子), 사매(蛇莓), 사삼(沙參), 사상자(蛇床子), 사순(絲蓴), 사향(麝香), 삭조(蒴藋), 산(蒜), 산석류각(酸石榴殼), 산수유(山茱萸), 마(산약, 山藥), 산장초(酸醬草), 산조인(酸棗仁), 상기생(桑寄生), 상륙(商陸), 상목이(桑木耳), 상백피(桑白皮), 상시회(桑柴灰), 상실(橡實), 상실각(橡實殼), 상엽(桑葉), 상지다(桑枝茶), 상지차(桑枝茶), 생강(生薑), 생강즙(生薑汁), 생률(生栗), 생우즙(生藕汁), 생울(生栗), 생충(生蔥), 서각(犀角), 서과(西瓜), 서담(鼠膽), 서랑피(鼠狼皮), 서미(黍米), 서여(薯蕷), 석결명(石決明), 석곡(石斛), 석룡자(石龍子), 석류각(石榴殼), 석창포(石菖蒲), 선각(蟬殼), 선령비(仙靈脾), 선복근(旋菘根), 선복화(旋覆花), 족도리풀(세신, 細辛), 소계(小薊), 밀(소맥, 小麥), 소맥면(小麥麵), 소맥묘(小麥苗), 소산(小蒜), 속단(續斷), 속미(粟米), 속미감(粟米泔), 속미구(粟米糗), 속수자(續隨子), 송라(松蘿), 송연묵(松烟墨), 송엽(松葉), 송절(松節), 송지(松脂), 수근(水芹), 수질(水蛭), 순(蓴), 승마(升麻), 시호(柴胡), 목련(신이, 辛夷)

안방(鴈肪), 안식향(安息香), 애엽(艾葉), 앵속각(罌粟殼), 야국화(野菊花), 야명사(夜明砂), 연복자(燕覆子), 연시(燕屎), 연실(蓮實), 연자(蓮子), 염초(焰硝), 오가피(五加皮), 오배자(五倍子), 오수유(吳茱萸), 온천(溫泉), 완두(豌豆), 왕과근(王瓜根), 요실(堯實), 우(芋), 우(藕), 우방자(牛蒡子), 옥리근(郁李根), 울금(鬱金), 원지(遠志), 원화(芫花), 위령선(威靈仙), 느릅나무(유백피, 榆白皮), 유자(柚子), 육두구(肉豆蔻), 육종용(肉蓯蓉), 울(栗), 울초(葎草), 울피(栗皮), 음양곽(淫羊藿), 의이근(薏苡根), 이(梨), 익모초(益母草), 익지인(益智仁), 인동등(忍

冬藤), 인동초(忍冬草), 인삼(人蔘), 인유(人乳), 인중황(人中黃), 인진  
 (茵陳), 인진호(茵陳蒿), 인포(人脯), 임금(林檎), 임자(荇子)  
 자귀즙(煮葵汁), 차즈기(자소엽, 紫蘇葉), 자아(慈鴉), 자완(紫苑), 자  
 하거(紫河車), 작약(芍藥), 작육(雀郁), 장미근(薔薇根), 장수(漿水),  
 장청(醬淸), 저근백피(樗根白皮), 저목엽(楮木葉), 적마제(赤馬蹄),  
 적소두(赤小豆), 전라각(田螺殼), 전라즙(田螺汁), 전호(前胡), 절지  
 (竊脂), 정력자(葶藶子), 정향(丁香), 정화수(井華水), 제고취(鶉鴉嘴),  
 제자(祭子), 제채자(薺菜子), 제혈(諸血), 조각(皂角), 조협(阜莢), 종  
 러피(椶櫚皮), 죽력(竹瀝), 죽여(竹茹), 지각(枳殼), 지골피(地骨皮),  
 지마유(脂麻油), 지모(知母), 지부자(地膚子), 지부초(地膚草), 지실  
 (枳實), 지유(地榆), 지장(地漿), 직미(稷米), 진름미(陳廩米), 진애엽  
 (陣艾葉), 진자(榛子), 진창미(陳倉米), 진피(秦皮), 질려자(蒺藜子)  
 질경이(차전자, 車前子), 차전초(車前草), 차천초잎과뿌리(車前車葉  
 及根), 창이(蒼耳), 창이자(蒼耳子), 삼주(창출, 蒼朮), 천근(茜根), 천  
 남성(天南星), 천남성(우담남성, 牛膽南星), 천련자(川練子), 천마(天  
 麻), 천문동(天門冬), 천산갑(穿山甲), 천선자(天仙子), 천아육(天鵝  
 肉), 천초(川椒), 첨과(舘瓜), 첨과체(舘瓜蒂), 청대(靑黛), 청량미(靑  
 梁米), 청상엽(靑桑葉), 청상자(靑箱子), 청피(靑皮), 청호(靑蒿), 청호  
 자(靑蒿子), 초결명자(草決明子), 초두구(草豆蔻), 초룡담(草龍膽), 초  
 목(椒目), 촉규화(蜀葵花), 총백(蔥白), 축사(縮砂), 출미(秫米), 출촉  
 (秫薊), 충울(菴蔚), 취건반(炊乾飯), 측백엽(側柏葉), 치두(鴟頭), 치  
 자(梔子), 침향(沈香)  
 택사(澤瀉), 토과근(土瓜根), 통탈목(통초, 通草)  
 파고지(破古紙), 파두(巴豆), 파초유(芭蕉油), 패모(貝母), 패자미(稗  
 子米), 패천공(敗天公), 편축(篇蓄), 포곡(布穀), 민들레(포공영, 蒲公英)

英), 포황(蒲黃), 포황초(蒲黃草)

하고초(夏枯草), 하엽(荷葉), 학슬(鶴虱), 한련초(旱蓮草), 함환(合歡),  
해송자(海松子), 행인(杏仁), 향부자(香附子), 향유(香薷), 현호색(玄  
胡索), 형개(荊芥), 형개수(荊芥穗), 호도(胡桃), 호동루(胡桐淚), 호마  
(胡麻), 호마유(胡麻油), 호박(琥珀), 호분(胡粉), 호유(胡葵), 호유자  
(胡葵子), 호작(蒿雀), 호장근(虎杖根), 호초(胡椒), 홍시(紅柿), 홍촉  
규근경(紅蜀葵根莖), 홍화(紅花), 화피(樺皮), 황과루(黃瓜蔓), 황금  
(黃芩), 황기(黃芪), 황련(黃連), 황무이(蕪荑), 황백(黃柏), 황벽(黃  
蘗), 황송절(黃松節), 회향(茴香), 효목(鴉目), 후박(厚朴), 흰초(萱草),  
흰초근(萱草根), 흑상심(黑桑椹), 희렴(豨薺)

건강(乾薑), 나복(蘿菔), 도효(桃梟), 속새(木賊, 木賊), 삼릉(三稜), 왕  
사마귀(상표초, 桑螵蛸), 석위(石葦), 송채(崧菜), 애즙(艾汁), 오매  
(烏梅), 오미자(五味子), 용골(龍骨), 옥리인(郁李仁), 통탈목(통초, 通  
草), 해백(薤白), 해조(海藻)

동물 : 233종

강랑(蛻螻), 견간(犬肝), 견담(犬膽), 계란(鷄卵), 계시(鷄屎), 계자(鷄  
子), 계자백(鷄白子), 계장(鷄腸), 계장초(鷄腸草), 계칙(鶻鶻), 계포란  
각(雞抱卵殼), 고양각(羖羊角), 고양담(羖羊膽), 공어(魷魚), 관골(鶴  
骨), 교부조(巧婦鳥), 구간(狗肝), 구담(狗膽), 구두골회(狗頭骨灰), 구  
육(鳩鴿), 구육(龜肉), 구음경(狗陰莖), 구인(蚯蚓), 구인즙(蚯蚓汁),  
궤어(鰓魚), 궤육(麋肉), 귀갑(龜甲), 귀뇨(龜尿), 귀육(龜肉), 금선와  
(金線蛙)

나육(驢肉), 노봉방(露蜂房), 노자시(鷓鴣屎), 녹두육(鹿頭肉), 녹생  
육(鹿生肉), 녹수(鹿髓), 녹수지(鹿髓脂), 녹신(鹿腎), 녹용(鹿茸), 녹

육(鹿肉), 녹제육(鹿蹄肉), 누고(虻蛄)  
 단육(獐肉), 달간(獐肝), 달조(獐爪), 달육(獐肉), 담반(膽礬), 독두산  
 (獨頭蒜), 돈란(豚卵), 두견(杜鵑)  
 마두골(馬頭骨), 마린근(馬藺根), 마박아(馬剝兒), 마분(馬糞), 마아  
 초(馬牙草), 마야안(馬夜眼), 마통(馬通), 만리어(鰻鯉魚), 맹충(虻蟲),  
 모구음경(牡狗陰莖), 모려(牡蠣), 모려분(牡蠣粉), 모려육(牡蠣肉),  
 모서시(牡鼠屎), 모저분(牡猪糞), 묘아모(貓兒毛), 묘태의(貓胎衣)  
 반초(斑鱧), 발합(鶉鴉), 방육(蚌肉), 방합(蚌蛤), 백강잠(白蠶蠶), 백  
 백합(白百合), 백설조(百舌鳥), 백압(白鴨), 백어(白魚), 백오계(白鳥  
 雞), 백학(白鶴), 백화사(白花蛇), 별(鱉), 별갑(鼈甲), 별두(鱉頭), 별  
 육(鱉肉), 복익(伏翼), 부어(鮒魚), 부어회(鮒魚膾)  
 사고(蛇膏), 사태(蛇蛻), 석수어두중골(石首魚頭中骨), 선어(鱣魚),  
 선어(鱸魚), 섬여(蟾蜍), 송어(松魚), 순육(鶉肉), 시피(豹皮)  
 암순(鶉鶉), 야압(野鴨), 야저지(野豬脂), 야저황(野豬黃), 야합분(野  
 鶉糞), 양두(羊肚), 양분(羊糞), 양유(羊乳), 양육(羊肉), 양척골(羊脊  
 骨), 어구(魚狗), 어자(魚鮓), 어회(魚膾), 여어(鱻魚), 여어담(鱻魚  
 膾), 여회(藜灰), 연교(蓮翹), 연녹피(烟鹿皮), 연어(鱈魚), 연자육(蓮  
 子肉), 연작(練鵲), 영양각(羚羊角), 오계(烏雞), 오골계(烏骨雞), 오공  
 (蜈蚣), 오령지(五靈脂), 오매육(烏梅肉), 오아(烏鴉), 오약(烏藥), 오  
 우노(烏牛尿), 오적어골(烏賊魚骨), 오적어묵(烏賊魚墨), 와(蛙), 우  
 각새(牛角鯢), 우간(牛肝), 우노(牛尿), 우두(牛肚), 우락(牛酪), 우비  
 (牛卑), 우수(牛髓), 밀(우슬, 牛膝), 우시(牛屎), 우신(牛腎), 우연(牛  
 涎), 우외신(牛外腎), 우유(牛乳), 우육(牛肉), 우치(牛齒), 우황(牛黃),  
 울눌제(膾肭臍), 웅담(熊膽), 웅묘뇨(雄貓尿), 웅작분(雄雀糞), 웅작  
 시(雄雀屎), 웅지(熊脂), 웅호시(雄狐屎), 원앙(鴛鴦), 원잠아(原蠶蛾),

위피(狷皮), 은조어(銀條魚), 응육(鷹肉), 이골(狸骨), 이육(狸肉)  
 자고(鷓鴣), 작(鵲), 잠사(蠶沙), 잠퇴지(蠶退紙), 저간(豬肝), 저기고(豬鬃膏), 저담(豬膽), 저두(豬頭), 저령(豬箬), 저사제(豬四蹄), 저신(豬腎), 저실자(楮實子), 저심(豬心), 저유즙(豬乳汁), 저장(豬腸), 저폐(豬肺), 저포(豬脬), 저현제(豬懸蹄), 점어연(鮎魚涎), 제조(螻蛄), 즉어(鯽魚), 지룡분(地龍糞), 지주(蜘蛛), 지주사(蜘蛛絲), 진육(震肉) 창경(鶻鷁), 청두압(靑頭鴨), 청령(蜻蛉), 청어(靑魚), 초서사족(貂鼠四足), 축옥(鸚鵡), 추어(鮓魚), 치어(鱚魚), 치육(雉肉) 탁목조(啄木鳥), 토두골(兔頭骨), 토사자묘(兔絲子苗), 토육(兔肉), 토저(土猪), 팔초어(八稍魚), 표육(豹肉) 하마(蝦蟆), 하수오(何首烏), 할계(鷓鴣), 해달(海獺), 해돈(海豚), 해분(海粉), 현각(蜆殼), 현육(蜆肉), 호골(虎骨), 호골주(虎骨酒), 호두골(虎頭骨), 호육(狐肉), 호음경(狐陰莖), 활서(活鼠), 황갈후(黃褐候), 황구두골(黃狗頭骨), 황구육(黃狗肉), 황상어(黃鱸魚), 황우뇌수(黃牛腦髓), 황웅구두골(黃雄狗頭骨), 황자계(黃雌鷄), 회어(鮠魚), 후어(鱖魚), 홀육(鷓肉), 흑견우자(黑牽牛子), 흑두(黑豆), 흑우수(黑牛髓)

간류 : 3종

마발(馬勃), 백복령(白茯苓), 밀(神麴, 神麴)

명칭 표기 한자어로 쓰였다. 근화(槿花): 무궁화꽃 / 별(鰲) : 자라 /

도엽(桃葉) : 복숭아잎 / 어구(魚狗) : 물총새

내용 기술 초룡담(草龍膽) : 간과 담의 기를 보해준다.(본초)

황련(黃連) : 간을 진정시키고 열독을 없애준다. 가루내어 먹거나 달여서 먹거나 나 좋다.(본초)

밀(소맥, 小麥) : 간기를 자양해준다. 달여서 마신다.(본초)

인용문헌 〈본초〉(신농씨), 〈천금방〉(당 손사막), 〈활인서〉(송 주  
굉), 〈직지방〉(송 양사영), 〈의림집요〉(명 왕새), 〈의림촬요〉(정경  
선) 등

## 〈벽온방언해(辟瘟方諺解)〉 해제

■ 원전 출처 버클리대학교 소장본 (244099) ‘벽온방언해(辟瘟方諺解)’

### ■ 성격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처방이 없이 귀신이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지역에 전염병이 퍼지자 그 질병에 대한 처방을 긴급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약을 소개하면서도 약 이외에 민간 처방도 소개하고 있다. 민간 처방 특성상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으나 환자의 옷을 깨끗이 빨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지에 한자로 辟瘟方(벽온방)이라고 되어 있다. 판심(版心)에 한자로 벽온(辟瘟)이라고 되어 있다. 표기법의 특징으로 ‘ㅇ’이 사용된 점을 들 수 있다. ‘△’은 사용되지 않았다.

### ■ 편저자

김안국(金安國)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은 조선전기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로 참봉 연(璉)의 아들이며, 정국(正國)의 형이다.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사림과의 선도적 인물로 활동하였다. 성리학적 이념 보급에 힘썼으며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이륜행실도언해(二倫行實圖諺解)』,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 등을 간행했으며 『벽온방(辟瘟方)』, 『창진방(瘡疹方)』 등도 간행하여 질병의 창궐을 막도록 노력했다. 조광조 일파가 제거될 때 이천

에 내려가 후진을 양성하며 지내다 나중에 벼슬에 복귀하여 병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모재집(慕齋集)』이 있으며 저서로 『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이 있다. 이천 설봉서원(雪峰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 제작 시기 1518년

■ 권수 책수 1권 1책

■ 판본 편찬했다는 기록만 보이며 국내에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별히 지역을 정해서 조사한 것은 없어 보인다.

방법 특정 질병에 대한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목차 서문(序文)/소합향원(蘇合香元)/향소산(香蘇散)/십신탕(十神湯)/도소주(屠蘇酒)/형화환(螢火丸)/호두살귀원(虎頭殺鬼元)/신명산(神明散)/뽕온단(遍瘟丹)

■ 내용

분류 전염병(사실상 한 가지로 추정된다)에 대한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약 이외에 민간 처방도 소개하고 있다. 특별히 생물 정보가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수록 종수 총 54종(식물 47종, 동물 7종)

계(鷄), 우(牛, 소), 마(馬, 말), 모저(母豬, 암돼), 옹호(雄狐, 수여), 달(獾, 슈달), 호두(虎頭)

측백(側柏, 측백), 송(松, 솔), 복숭아나무(도, 桃, 복숭아), 쑥(艾, 艾, 葜), 무청(蕪菁, 쉼무우), 파(葱, 葱, 파), 구(韭, 엷교), 산(蒜, 마늘), 해(薤, 헛치), 생강(姜, 薑, 싱강), 고삼(苦參, 쓴너삼), 소산(小蒜, 효

근마늘), 대나무(대죽(竹)), 창포(菖蒲, 창포), 적소두(赤小豆, 붉은콩), 강진향(降眞香, 강진향), 조협(皂莢, 주엽), 감초(甘草), 삼주(창출, 蒼朮, 창틀), 승마(升麻, 승마), 향부자(香附子), 차즈기(자소엽, 紫蘇葉), 진피(陳皮), 천궁(川芎), 마황(麻黃), 건갈(乾葛), 백지(白芷), 적작약(赤芍藥), 백작약(白芍藥), 대황(大黃), 도라지(길경, 桔梗), 초피나무(촉초, 蜀椒), 계심(桂心), 호장근(虎杖根), 삼주(백출, 白朮), 오두(烏頭), 형화(螢火), 귀전(鬼箭), 귀구(鬼臼), 무이(蕪荑), 부자(附子), 죽도리풀(세신, 細辛), 백단향(白檀香), 마제향(馬蹄香), 45 천금초(千金草), 고본(藁本)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名’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오신(五辛)
葱韭蒜薤薑: 名五辛

### 내용 기술

항목	내용
① 일명	(오신(五辛)) 葱韭蒜薤薑: 名五辛
② 치료방법	(대나무(죽(竹)) 대를 터오면 도흐니라 / 爆竹辟妖氣
③ 민간처방	쑥(애(艾)) 수릿날 밖으로 사름 밍그라 문 우희 안치면 도흐니라 / 端午日 以艾爲人安門上辟瘟
④ 예방	(달(獾)) 슈달의 고기를 상네 먹드시 햏여 머그라 / 獾肉去疫氣瘟病治如食法食之

생물의 일명, 치료방법, 민간처방, 예방 등을 다루고 있다.

인용문헌 특별히 인용문헌이 보이지 않는다.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등 추정

## 〈벽온신방(辟瘟新方)〉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본

■ 성격

[辟瘟新方] 1653년 봄에 황해도에 여역(癘疫)이 크게 유행하였을 때 왕명을 받아 어의(御醫) 안경창이 편찬하였다. 이 책은 『벽온방』에서 약재의 난해한 것은 빼고, 속방의 쓰기 쉬운 것을 첨가하여 언해(諺解)를 붙여 간행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온역병(癘疫病)·온역표증(癘疫表證)·온역반표반리의화해(癘疫半表半裏宜和解)·온역발황(癘疫發黃)·대두온(大頭癘)·온역벽법(癘疫辟法)·부전염법(不傳染法)·금기(禁忌) 등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 편저자

안경창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자흥(子興). 경기도 여흥(驪興: 지금의 여주)출생. 1627년(인조 5) 23세로 정묘식년시에 9명을 뽑은 의과에 급제, 내의원 내의(內醫)로 있었으며 벼슬이 통정대부에 올랐다. 1653년(효종 4) 황해도 지방에서 질병이 크게 창궐하자 이를 다스렸다. 이때 많은 사망자가 있어 효종은 내의원에서 약재를 꺼내어 구료하게 하였으나, 약물만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어려워 치료법과 약물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언을 들었다. 당시 어의인 안경창에게 옛 『벽온방(辟瘟方)』들을 연구하여 쉽게 간략한 책으로 편찬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해하였는데 이 책이 『벽온신방(辟瘟新方)』 1책이다.

■ 제작 시기 1653년(효종 4)

■ 권수 책수 1권 1책

■ 판본 목판본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동방(東方)

방법 생물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병에 대한 처방으로 약을 조제할 때 필요한 생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 목차 없음

■ 내용

분류 분류 체계 없음

수록 종수 동물 4종 돼지[猪, 지렁이[地龍, 닭[雞, 양[羊]

식물 : 41종

감초(甘草), 개구리밥[浮萍, 건갈(乾葛), 겨자씨[芥菜子], 녹두(菉豆), 대나무[竹], 대추[棗], 대황(大黃), 반하(半夏), 백작약(白芍藥), 뱀딸기[蛇莓], 복숭아가지(桃枝), 복숭아나무잎(桃葉), 붉나무[千金木], 삼주(蒼朮), 생강(生薑), 생동찰[靑梁], 솔잎[松葉], 순채(蓴菜), 승마(升麻), 시호(柴胡), 쌀[米], 쑥[艾], 아욱[葵菜], 연꽃뿌리(藕), 이끼[苔], 인동(忍冬), 인삼(人參), 장군초(將軍草), 적작약(赤芍藥), 제비쑥(茵陳藥), 쥐엄나무 열매[皂莢, 지실(枳實), 쪽잎[藍葉, 참외[瓜], 측백(側柏), 치자(梔子), 칩뿌리[乾葛, 葛根], 파[蔥], 팥[小豆], 황금(黃芩)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다른 문헌의 일반 생물의 표기와 같다. 이 문헌 안에서 이칭이나 별칭은 따로 발견되지 않는다.

내용 기술 승마갈근탕 : 승마와 백작약과 감초 각각 한 돈, 건갈 두 돈. 이상의 약을 썰어서 한 번 먹을 분량을 지어 물 한 되 다섯 홉을

붓고 칠 흡이 되게 달여서 찌꺼기는 버리고 아무 때난 약간 데워서  
먹되 하루에 두세 번 먹을 분량을 먹기를 병이 낫고 몸의 열이 식을  
때까지 하여라.

인용문헌 없음

## 〈상마경(相馬經)〉 해제

■ 원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의산古9409-1) '상마경(相馬經)'

### ■ 성격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말의 외모를 보고 가치를 감정한다는 뜻인데 책의 전반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후반부의 말의 질병 치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행방식은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마경초집언해』는 그림이 많이 들어 있으나 이 책은 그림이 대부분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와 비교해 볼 때 일부 글자가 빠져있거나 다르게 되어 있거나 항목의 제목이 빠져 있거나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판단되기도 한다.

### ■ 편저자

미상(未詳) 서문조차 남아 있지 않아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 제작 시기 미상(『마경초집언해』를 참조해서 만들어졌다면 1634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 권수 책수 1권 1책

■ 판본 국립중앙도서관본이 있다.

###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정 지역 위주로 조사한 기록이 없다.

방법 일차적으로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를 참조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 ■ 목차

목차 전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빠진 부분은『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을 참조하여 보충한다.

논마유부모(論馬有父母)/상양마가(相良馬歌)/상양마법(相良馬法)/상노마법(相駑馬法)/상흉마법(相凶馬法)/변삼리오노법(辨三羸五駑法)/상마수요법(相馬壽夭法)/상마치법(相馬齒法)/상선모길흉가(相旋毛吉凶歌)/찰구색법(察口色法)/찰색법(察色法)/마무질가(馬無疾歌)/마유질가(馬有疾歌)/정오장형증가(定五臟形證歌)/마유천생삼병(馬有天生三病)/마유불치삼위(馬有不治三危)/변마팔상(辨馬八傷)/논마졸사(論馬卒死)/양마법(養馬法)/삼음삼외(三飲三喂)/마원회외양법(馬遠回喂養法)/방목법(放牧法)/사전마령경실법(使戰馬令硬實法)/수화이선법(水火二驅法)/획비법(畫鼻法)/방혈법(放血法)/골명(骨名)/육양육음(六陽六陰)/전면육문후면사문(前面六門後面四門)/침혈명(針穴明)/마유삼십육반기와병(馬有三十六般起臥病)/점통론(點痛論)/십육반제두통(十六般蹄頭痛)/사상(四傷)/창황양증부동론(瘡黃兩症不同論)/마환음신황(馬患陰腎黃)/마환심황(馬患心黃)/마환편신황(馬患遍身黃)/마환만장황(馬患慢腸黃)/마환속상황(馬患束額黃)/마환혼정충(馬患混睛虫)/마환골안(馬患骨眼)/마환내장안(馬患內障眼)/마환간경풍열(馬患肝經風熱)/마환간열전안(馬患肝熱傳眼)/마환번위토초질(馬患翻胃吐草疾)/마환냉통(馬患冷痛)/대장통(大腸痛)/마환비기통(馬患脾氣痛)/마환위냉토연(馬患胃冷吐涎)/마환숙수정질(馬患宿水停疾)/마환위한불식초(馬患胃寒不食草)/마환상수기와질(馬患傷水起臥疾)/마환냉상(馬患冷傷)/마환신구나사(馬患新駒妳瀉)/마환탈항(馬患脫肛)/마환강아(馬患薑芽)/마환열통(馬患熱痛)/마환설창(馬患舌瘡)/마환심경열(馬患心經熱)/마환심

통(馬患心痛)/마환계안풍(馬患揭鞍風)/마환폐풍미조(馬患肺風尾燥)/마환항척근(馬患項脊悽)/마환과상풍(馬患破傷風)/마환호골과과(馬患胡骨把胯)/마환심열풍사(馬患心熱風邪)/마환한상요과동(馬患寒傷腰)/마환냉타간(馬患冷地竿)/마환신냉요타(馬患腎冷腰拖)/마환비허습사(馬患脾虛濕邪)/마환폐한토말(馬患肺寒吐沫)/마환폐폐(馬患肺敗)/마환폐옹(馬患肺壅)/공소론(咳嗽論)/마환후골창(馬患喉骨脹)/마환흑한(馬患黑汗)/마환패혈응제(馬患敗血凝蹄)/마환흉박통(馬患胸膈痛)/마환신허(馬患腎虛)/마환신경통(馬患腎經痛)/마환포전(馬患胞轉)/마환닉혈(馬患溺血)/마환수루불수(馬患垂縷不收)/마환초에(馬患草噎)/마환두창(馬患肚脹)/마환상료(馬患傷料)/마환전결(馬患前結)/마환중결(馬患中結)/마환후결(馬患後結)/마환태기태풍(馬患胎氣胎風)/마환비충교수(馬患蟬虫咬袖)/정독(疔毒)/찰개방(捺疥方)/치마타과척량방(治馬打破脊梁方)/치마상제방(治馬傷蹄方)/치마부골저방(治馬附骨疽方)/치마접창방(治馬蝶瘡方)/치마개창방(治馬疥瘡方)/온역문(瘟疫門)/마유오십사반사증가(馬有五十四般死證歌)

## ■ 내용

분류 1차적으로는 말의 감정과 말의 질병을 기준으로 분류했다고 할 수 있다. 말의 색, 외형 등으로 말의 성격 및 능력을 예측하고 타는 사람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기술이 보인다. 말의 질병 치료에 대해서는 침과 약의 치료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질병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수록 증수 총 174종(균류 3종, 식물 146종, 동물 25종)

백복령(白茯苓), 저령(豬苓), 복신(茯神)의 균류 3종

연화(蓮花), 콩(豆, 豆), 도화(桃花), 회향(茴香), 인삼(人參), 방풍(防

風, 배풍(排風), 감초(甘草), 원지(遠志), 산치(山柅), 황금(黃芩), 황  
 련(黃連), 마황(麻黃), 패모(貝母), 진구(秦朮), 생강(薑, 薑), 지모(知  
 母), 천련자(川鍊子), 연교(連翹), 가자(柯子), 치자(梔子), 백작약(白  
 芍藥), 백급(白芨), 백렴(白斂), 대황(大黃), 마린화(馬蔞花), 형개(荊  
 芥), 밀몽화(蜜蒙花), 삼주(蒼朮, 蒼朮), 초룡담(草龍膽), 천궁(川芎),  
 청상자(靑箱子), 석결명(石決明), 선복화(旋覆花), 초결명(草決明),  
 국화(菊花), 속새(木賊, 木賊), 몰약(沒藥), 황기(黃芪), 익지(益智), 육  
 두구(肉荳蔻), 오미자(五味子), 빈랑(檳榔), 초과(草果), 족도리풀(세  
 신, 細辛), 당귀(當歸), 후박(厚朴), 계(桂), 사인(砂仁), 삼주(백출, 白  
 朮), 작약(芍藥), 백지(白芷), 지(枳), 귤(橘), 목통(木通), 인진(茵陳),  
 조각(皂角), 애(艾), 창포(菖蒲), 택사(澤瀉), 승마(升麻), 반하(半夏),  
 호초(胡椒), 운대(雲臺), 견우(牽牛), 파(蔥, 葱), 낭탕(萇蓉, 天  
 仙), 조(숙, 粟), 시(柿), 강황(姜黃, 울금(鬱金)), 보리(맥, 麥), 백부자  
 (白附子), 이스라지나무(옥리, 郁李), 마자(麻子), 강활(羌活), 화초  
 (花椒), 여로(藜蘆), 향유(香薷), 시호(柴胡), 천화(天花), 황백(黃柏),  
 청대(靑黛), 박하(薄荷), 도라지(길경, 桔梗), 해아차(孩兒茶), 산사자  
 (山査子), 우방자(牛蒡子), 자완(紫菀), 맥문동(麥門冬), 지황(地黃),  
 천문동(天門冬), 오두(烏頭), 고삼(苦參), 현삼(玄參), 단삼(자삼, 紫  
 參), 사삼(沙參), 하수오(何首烏), 취춘(臭椿), 만형자(蔓荊子), 위령선  
 (威靈仙), 완화(莞花), 무이(燕薹), 차즈기(자소, 紫蘇), 마두령(馬兜  
 鈴), 침과(舘瓜), 마(산약, 山藥), 은행나무(행, 杏), 천남성(天南星),  
 곱향(藿香), 독활(獨活), 파극(巴戟), 고본(藁本), 호로파(胡蘆芭), 대  
 나무(죽(竹)), 필징가(葶澄茄), 고량강(高良薑), 오수유(吳茱萸), 실새  
 삼(토사자, 菟絲子), 파고지(破古紙), 종용(菴蓉), 천마(天麻), 산장수  
 (酸漿水), 백합(百合), 목단(牡丹), 과루(瓜藟), 방기(防己), 백축(白

丑), 관동화(款冬花), 비파(枇杷), 구맥(瞿麥), 백부(百部), 홍화(紅花), 현호색(玄胡索), 등심(燈心), 속수자(續隨子), 향부자(香附子), 관중(貫衆), 정력(葶藶), 속단(續斷), 초오(草烏), 목별자(木別子), 천초(川椒), 천남성(天南星), 녹두(菉豆), 호도(胡桃), 마치현(馬齒莧), 백두옹(白頭翁), 학슬(鶴蝨)의 식물 146종

용(龍), 마(馬), 견(犬), 용구(龍駒), 용종(龍種), 유옹(兪膺), 적로(的顛), 대도(帶刀), 벌(鼈), 계(鷄), 해(蟹), 잠(蠶), 조(棗), 골(鶻), 부(鳧), 선(蟬), 지주(蜘蛛), 오사(烏蛇), 갈(蝮), 기린갈(麒麟蝮), 서(鼠), 천산갑(穿山甲), 맹충(蠱蟲), 모려(牡蠣), 랑(狼)의 동물 25종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물고기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曰’, ‘是謂’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말의 종류	말의 종류	여여
龍駒: 骨角 雙生號曰 龍駒	兪膺: 白從額上入口者 名曰 兪膺 又名的 顛	蘆茹: 卽茜草也

내용기술 물고기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뿐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다.

항목	내용
① 일명	(꼭두서니) 여여(蘆茹)는 곧 천초(茜草)이다.
② 노래	(상양마가(相良馬歌)) 32가지 상(相) 중 눈이 최우선이다/ 삼십이상안위선(三十二相眼爲先) // 다음으로 보건대 머리와 얼굴이 방원(方圓)이어야 한다 / 차관두면요방원

항목	내용
	(次觀頭面要方圓) // 말을 보는데 선대 근본을 보지 않으면 / 상마불간선대본(相馬不看先代本) // 곧 이는 맹인이 믿고 보행함이다 / 변시맹인신보행(便是盲人信步行)
③ 좋은 말의 조건 (일부)	배 아래에 거스른 털이 난다.
④ 둔한 말의 조건 (일부)	꼬리 밑이 높다.
⑤ 유래	천지가 처음 생길 때 용이 발생하였는데 하나는 이름이 굴강(屈強)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굴녀자(屈女子)인데 굴녀자가 비토(飛土)를 놓고 비토는 기린(麒麟)을 놓고 기린이 말(馬)을 낳았다. 천황(天皇)이 용구(龍駒)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후에 사람을 먹어서 동중선(董仲仙)이 말 쓸개즙을 따버리니 차고 물기를 그쳐서 다시 이름을 고쳐 마(馬)라고 했다.
⑥ 흉한 말의 조건 (일부)	머리가 희고 몸이 검다.
⑦ 속설	(적로(的顛) 종이 타면 객사하고 주인이 타면 시장을 잃으니 흉마(凶馬)이다.
⑧ 진단 기준	혀 색깔은 심장에 해당하고 입술색은 비장에 해당한다.
⑨ 질병 원인	심황(心黃)으로 매우 아프면 사람을 문다.

인용문헌 馬經抄集診解, 新編集成馬醫方, 新刻針醫參補馬經大全 등

## 〈의림촬요(醫林撮要)〉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본 (古 7608 8) 外 ‘의림촬요(醫林撮要)’

### ■ 성격

‘구급방(救急方)’ 또는 ‘간이(簡易)’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의서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이 적지 않은 편이다. 또 구급방의 성격에 해당하는 기술 비율이 낮은 편이다. 약재 하나하나를 들어 약효, 제작법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질병에 따라 발생 원인, 치료 원칙 등이 담긴 이론을 소개하고 개별 질환에 따라 대체로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참고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다른 설도 각주 등의 형식을 이용해서 소개하고 있다. 약에 관한 다양한 명칭도 소개하고 있다.

### ■ 편저자

양예수(楊禮壽) 양예수(楊禮壽? ~1597)는 조선 중기 의관으로 본관은 하음(河陰)이고 자는 경보(敬甫), 호는 퇴사옹(退思翁)이다. 박학하고 의술에 능하였으나 명종의 아들인 순희세자(順懷世子)를 치료하지 못한 책임으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고 명종이 승하할 때 책임 문제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 임진왜란 때 호종의관 역할을 수행했다.

■ 제작 시기 1635년

■ 권수 책수 13권 13책

■ 판본 전체 13권 13책 중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암고서박물관자료실, 경희대학

교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에 일부, 필사본 또는 활자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5, 10, 11책 없이 소장되어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3, 7책 없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1권 1책의 『의림촬요속집(醫林撮要續集)』이 소장되어 있다. 김신근 편저, 『한국한의학대계』 8~10(여강출판사, 1992)에 영인되어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5년 10월 현재 권1, 권2, 권3~4가 각각 번역, 출판되었다.

####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정 지역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방법 기존 문헌을 정리해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 ■ 목차

의학성씨(醫學姓氏)/중풍문(中風門)/통풍문(痛風門)/상한문(傷寒門)/온역문(溫疫門)/반진문(斑疹門)/내상문(內傷門)/서증문(暑證門)/습증문(濕證門)/중창문(腫脹門)/조증문(燥證門)/화집문(火熱門)/울증문(鬱證門)/비만문(痞滿門)/일격문(噎膈門)/구토문(嘔吐門)/탄산문(呑酸門)/해역문(咳逆門)/적취문(積聚門)/기증문(氣證門)/담음문(痰飲門)/해라문(咳喇門)/성음문(聲音門)/학질문(瘡疾門)/곽란문(霍亂門)/설사문(泄瀉門)/이질문(痢疾門)/탈항문(脫肛門)/삼소문(三消門)/각기문(脚氣門)/위증문(痿證門)/마목문(麻木門)/산증문(疝證門)/현훈문(眩暈門)/두통문(頭痛門)/제충문(諸蟲門)/위완통문(胃脘痛門)/복통문(腹痛門)/요통문(腰痛門)/협통문(脅痛門)/이통문(耳痛門)/비통문(鼻痛門)/면병문(面病門)/안목문(眼目門)/구설문(口舌門)/아치문(牙齒門)/후비문(喉痺門)/혈증문(血證

門)/치루문(痔漏門)/한증문(汗證門)/임폐문(淋閉門)/비결문(秘結門)/황달문(黃疸門)/제독교상문(諸毒咬傷門)/상손문(傷損門)/탕화문(湯火傷)/금창(金瘡)/옹저문(癰疽門)/나풍문(癩風門)/파상풍문(破傷風門)/액기문(腋氣門)/태전문(胎前門)/산후문(產後門)/소아문(小兒門)

## ■ 내용

분류 일반적으로 한의약 서적에 보이는 분류 체계,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약재, 약초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질병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증풍에서 시작해서 산부인과학(產婦人科學), 소아과학(小兒科學) 항목으로 끝나는 것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픈 부위, 아프게 된 원인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 일차분류에서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한 원인 또는 증상의 차이에 따라 이차분류되고 있다.

수록 증수 복령(茯苓), 백복령(白茯苓), 복신(茯神)의 균류 3종, 복숭아나무(도, 桃), 홍화(紅花), 대나무(죽(竹)), 생강(강, 薑), 부자(附子), 형(荊), 삼(參), 시(蓍), 계(桂), 과(瓜蒌), 보리(대맥, 大麥), 상(橡), 산(蒜), 조각(皂角), 소(蘇), 죽도리풀(세신, 細辛), 오매(烏梅), 반하(半夏), 여로(로, 蘆), 인삼(人參), 맥문동(麥門冬), 백작약(白芍藥), 삽주(출, 朮), 강활(羌活), 황금(黃芩, 조금(條芩)), 방풍(防風), 마(麻), 삼주(백출, 白朮), 비마(萆麻), 남성(南星), 용뇌(龍腦, 편뇌(片腦)), 송(松), 진구(秦艽), 비해(萆薢), 밀(우슬, 牛膝), 천오(川烏), 당귀(當歸), 구기(枸杞), 창이(蒼耳, 도인두(道人頭)), 동(桐), 대두(大豆), 흑지마(黑脂麻), 콩(두, 豆), 앵도나무(櫻桃), 령(苓), 호도(胡桃), 근채(芹菜), 토란(土卵), 교맥(蕎麥, 목맥(木麥)), 백지(白芷), 오약(烏藥), 감초(甘

草, 분초(粉草), 관중(貫衆), 람(藍), 계요등(갈, 葛), 청대(靑黛), 박하  
 (薄荷, 남박하(南薄荷)), 대황(大黃), 마황(麻黃), 방기(防己), 천궁(川  
 芎, 작뇌궁(雀腦芎)), 연교(連翹), 천남성(天南星), 치자(梔子), 도라지  
 (길경, 桔梗), 청죽(靑竹), 지(枳), 적작약(赤芍藥), 전호(前胡), 뽕나무  
 (상, 桑), 천마(天麻, 정풍초(定風草)), 형개(荊芥, 경개(京芥)), 목과  
 (木果), 독활(獨活), 지황(地黃), 지모(知母), 백매(白梅), 창포(菖蒲),  
 극(棘), 백(栢), 충(蔥), 단삼(丹參), 천문동(天門冬), 원지(遠志), 천귀  
 (川歸), 목향(木香, 광목향(廣木香)), 위령선(威靈仙), 질려(蒺藜), 빈  
 랑(檳榔), 백부자(白附子), 두충(杜沖, 후박(厚朴), 호본(蒿本), 감국  
 (甘菊), 만형자(蔓荊子), 마(산약, 山藥, 산우(山芋)), 적전(赤箭), 차즈  
 기(자소, 紫蘇, 조(棗), 침향(沉香), 향부자(香附子), 황련(黃連), 조각  
 자나무(저아조각, 豬牙皂角), 백선(白鮮), 산수유(山茶莢, 석조(石  
 棗)), 이스라지나무(옥리, 郁李), 실새삼(토사자, 菟絲子), 질경이(차  
 전자, 車前子), 유향(乳香, 훈육향(薰陸香)), 패모(貝母), 백급(白芨),  
 백렴(白斂), 괴(槐), 몰약(沒藥), 안식향(安息香), 나미(糯米), 귤(橘),  
 희렴(豨薺, 豨薺, 가파초(蚶蚶草)), 시호(柴胡), 삼주(창출, 蒼朮), 승  
 마(升麻), 소목(蘇木), 오수유(吳茱萸), 녹두(菘豆), 석창포(石菖蒲),  
 현삼(玄參), 목통(木通, 천련(川練), 금령자(金鈴子)), 차(茶), 적소두  
 (赤小豆), 오가피(五加皮), 속단(續斷), 황백(黃栢), 흑두(黑豆), 기린  
 갈(麒麟竭), 목별(木鼈), 태궁(台芎), 초롱담(草龍膽), 편금(片苓), 봉  
 출(蓬朮), 서과(西瓜), 수리(水梨), 오이(황과, 黃瓜), 밤나무(을, 栗),  
 매(梅), 오미자(五味子), 구(韭), 택사(澤瀉), 저령(豬苓), 초과(草果),  
 곽향(藿香), 정향(丁香), 호초(胡椒), 포(蒲), 향유(香薷), 산치자(山梔  
 子), 오두(烏頭, 초오(草烏)), 차전초(車前草), 마밭(馬勃), 우방자(牛  
 蒴子, 서점자(鼠粘子), 악실(惡實)), 인진(茵陳), 호장근(虎杖根), 감송

(간송(甘松), 삼내(三奈), 상산(常山), 파두(巴豆), 사간(射干), 추모(秋牟), 나복(蘿藦), 만청(蔓菁), 수임(水荏), 시(柿), 진자(榛子), 백유마(白油麻), 런(蓮), 검(芡), 갱미(粳米), 사삼(沙參), 삼릉(三稜), 고본(藁本), 초두구(草豆蔻), 산사(山査), 강남콩(백편두, 白扁豆), 의이(薏苡), 해송(海松), 황율(黃栗), 익지(益智), 홍두(紅豆), 고량강(高良薑), 양강(良薑), 회향(茴香), 핵도(核桃), 목단(牡丹), 구맥(瞿麥), 백단(白丹), 유(榆), 날계(辣桂), 비마(蓖麻), 고삼(苦參), 류(柳), 애(艾), 무궁(撫芎, 芎藭), 천궁(川芎)), 대복(大腹, 빈랑(檳榔)), 정력(葶藶), 흑견우(黑牽牛, 흑축(黑丑), 견우자(牽牛子)), 통탈목(通脫木), 원화(芫花), 감수(甘遂), 대극(大戟), 해(薤), 동과(冬瓜), 침과(舘瓜), 등심(燈心), 강황(薑黃), 곤포(昆布), 주령(朱苓), 천초(川椒, 화초(花椒), 남초(南椒)), 완화(莞花), 현호색(玄胡索), 울금(鬱金, 심황(深黃)), 자완(紫菀), 담죽(淡竹), 월치(越柅), 백두구(白豆蔻), 백합(百合), 모형(牡荊), 통탈목(동초, 通草), 광출(廣朮, 아출(莪朮)), 홍두구(紅豆蔻), 금은화(金銀花), 골쇄보(骨碎補), 칠(漆), 초(椒), 앵속(罌粟, 어미(御米)), 관동화(款冬花), 필발(葶撥), 가자(訶子), 선복화(旋覆花), 마두령(馬兜鈴), 금비초(金沸草), 가(茄), 육두구(肉荳蔻), 산자고(山茨菰, 순(蓴), 제채(薺菜), 교맥(蕎麥), 서여(薯蕷), 부평초(浮萍草), 저(檣), 사상자(蛇床子), 지유(地榆), 삭조(蒴藿), 청량미(靑粱米), 석류나무(류, 榴, 석류(石榴)), 임금(林擒), 승채(菘菜), 소초(小椒), 천화분(天花粉), 파고지(破古紙), 동규자(冬葵子), 마린(馬藺), 해조(海藻), 해대(海帶), 마치현(馬齒莧), 진초(秦椒), 비자(榧子), 학슬(鶴蝨), 사군자(史君子), 완청(莞靑), 연호색(延胡索), 백질러(白蒺藜), 백정향(白丁香), 저(楮), 속새(목적, 木賊), 지부(地膚), 청상(靑箱, 초결명(草決明)), 결명자(결명, 決明), 충울(芫薺), 중용(莖蓉), 곡정초(穀精草), 밀몽화(密蒙

花), 유인(蓼仁), 석곡(石斛), 파극(巴戟), 와거(萵苣), 민들레(포공영, 蒲公英), 조련초(早蓮草), 사인(砂仁), 축사밀(縮砂蜜), 천(茜), 소계(小薊), 측백(側柏), 모(茅), 왕불류행(王不留行), 편축(篇蓄), 모시풀(저, 苧), 속수자(續隨子), 영릉(零陵), 해채(海菜), 내(柰), 리(梨), 오룡초(五龍草, 오과룡(五瓜龍)), 형삼릉(荊三稜), 황기(黃芪), 음지귤(陰地蕨), 대풍자(大風子), 하수오(何首烏), 사설초(蛇舌草), 파초(芭蕉), 신화초(慎花草), 백두옹(白頭翁), 조휴(蚤休), 안은질박초(安隱叱朴草), 이질동질(伊叱冬叱), 풍(楓), 고음한초(古音閑草), 천엽천근초(千葉千根草), 한련초(旱蓮草), 발양(撥楊), 상육(商陸), 여로(藜蘆), 여여(蘭茹), 양제(羊蹄), 와송(瓦松), 촉규(蜀葵), 사매(蛇梅), 필징가(葍澄茄), 남칠(藍漆), 백부(百部), 백미(白薇), 흰초(萱草), 석위(石葦), 원삼(圓參), 포도(葡萄), 전(蓴), 개미취(자초, 紫草), 완두(豌豆), 사과(絲瓜), 단향(檀香, 백단향(白檀香)), 삼내자(三乃子), 합환(合歡)의 식물 335종

선어(鱸魚), 지주(蜘蛛), 백어(白魚), 사(麝), 작(鵲), 잠(蠶), 호(虎), 구(龜), 여어(蠶魚), 오계(烏鷄), 계(雞), 아(鵝), 저(豬), 토(兔), 압(鴨), 서(犀), 갈(蝸), 백화사(白花蛇), 전갈(全蝸), 영양(羚羊), 고(蠱), 오서(烏犀), 오사(烏蛇), 지룡(地龍, 하마(蝦蟆)), 마(馬), 견(犬), 백미(白麋), 룩(鹿), 가(狻), 서(鼠), 구인(蚯蚓), 형(螢), 선(蟬), 노자(鷓鴣), 제조(鱉), 석수어(石首魚), 치어(鱷魚), 담채(淡菜), 치(雉), 우(牛), 즉어(鯽魚), 봉(蜂), 이어(鯉魚), 단(貓), 모려(牡蠣), 오공(蜈蚣), 의(蟻), 천산갑(川山甲, 穿山甲), 서부(鼠婦), 저(豬), 문합(蚊蛤), 해(蟹), 별(蟹), 웅(熊), 녹두압(綠頭鴨), 백화사(白花蛇), 촌백충(寸白蟲), 회충(蛔蟲), 창승(蒼蠅), 마황(馬蟻), 유연(蚯蚓), 제고(鶉鴉), 청어(靑魚), 마봉(馬蜂), 위(蝟, 猬), 와우(蝸牛, 해양(海羊)), 라(螺), 강랑(蛻螂), 전라(田

螺), 구수(蠅蝮), 채(臺), 누고(蠅蛄), 수질(水蛭), 복(鰻), 복어(鰻魚),  
 이어(鰈魚), 원앙(鴛鴦), 안(鴈), 홍(鴻), 구(鳩), 장(獐), 섬여(蟾蜍),  
 몽충(蠨蟲), 호(狐), 리(狸), 교룡(蛟龍), 누서(鼯鼠), 광어(廣魚), 오적  
 어(烏賊魚), 수어(秀魚), 하(蝦), 만(鰻), 석화(石花), 토화(土花), 은구  
 어(銀口魚), 현(蜆), 창경(鶴鷄), 조(蚤), 슬(蝨), 반묘(斑貓)의 동물 98  
 종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  
 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卽’,  
 ‘名’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속명 표기는 질병, 약재 표기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오룡초	금은화	고동	국화
五龍草: 卽五瓜 龍	金銀花: 卽忍冬	海羊: 卽蝸牛也	剪刀草開黃花者: 名黃花

내용 기술 생물의 일명, 원료, 일반 처방, 맛, 고사, 주의사항, 약용  
 자격, 치료방법, 가공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항목	내용
① 일명	지정(地丁)은 곧 대계(大薊)이다. / 일설에 전도초(剪刀草) 가 노란 꽃을 피운 것을 황화(黃花)라고 한다. 지정(地丁)이 자색 꽃을 피운 것을 자화지정(紫花地丁)이라고 한다.
② 원료	(형삼릉(荊三稜)) 세 가지 맛이 갖추어져 있다. 술을 만든 다.
③ 일반 처방	인삼(人參)을 속방(俗方)에 자주 삼주(백출, 白朮)처럼 쓴 다.
④ 맛	남성(南星), 반하(半夏), 둘은 맛이 같다.
⑤ 고사	(송백엽(松栢葉)) 종남산(終南山)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의

항목	내용
	복이 없고 몸이 다 검은 털로 뒤덮여 굴을 넘고 골짜기를 넘기를 새처럼 했다. 포위하여 잡으니 한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진나라 궁인인데 관동의 적인 진(秦)에까지 와서 왕이 나아가 항복하니 놀라 산으로 들어갔는데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었다. 어떤 한 노인이 나에게 송백엽을 먹으라고 가르쳤다. 처음에는 쓰고 뚫었으나 뒤에는 먹으니 드디어 다시 배고프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았다.” 진나라 때부터 한(漢) 성제(成帝, 기원전52~기원전7) 때이니 삼백 여 년이다.
⑥ 주의사항	(섬소(蟾酥)) 두꺼비 진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사람 눈에 들어가면 눈이 먼다.
⑦ 약용 자격	(현(蜃)) 양에 구애 받지 않고 산 것을 물에 5일 동안 길러 쓴다.
⑧ 치료방법	(선어(鱧魚)) (중풍의 치료) 머리 위를 찢어서 피를 흘린다. 왼쪽으로 기울여 오른쪽에 바르고 오른쪽으로 기울여 왼쪽에 바른다. 안정되면 씻고 선어는 놓아준다.
⑨ 가공방법	(천문동(天門冬)) 뿌리를 취해 썰 익혀서 껍질을 벗겨 먹으면 향기가 매우 좋다. 흉년에 먹으면 죽히 곡식을 끊고 배고픔을 그치게 할 수 있다.

인용문헌 常用經驗方, 醫學正傳, 世醫得效方, 御藥院方, 衛生寶鑑, 鄉藥集成方, 千金方, 醫方類聚 등

## 〈주촌신방(舟村新方)〉 해제

###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

### ■ 성격

고방(古方)의 탕(湯) · 산(散) · 환(丸) 중에서 긴묘(緊妙)한 제(劑)를 고르고, 구하기 어려운 약재는 생략하고, 향리(鄉里)의 성질에 맞는 것을 골라 엮은 책이다.

### ■ 편저자

신만 1620(광해군 12)~1669(현종 10). 조선 중기의 학자.

자는 만정(曼情), 호는 주촌(舟村). 본관은 평산(平山). 영의정 흠(欽)의 증손이다. 시직(侍直) 익룡(翼隆)의 아들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36년(인조 14)에 일어난 병자호란(丙子胡亂)이 굴욕적인 강화(講和)로 끝나게 되자 당시 회덕(懷德)에 있던 송시열을 찾아가 학업에 정진하였다.

1658년(효종 9) 송시열이 다시 등용되어 효종과 함께 북벌(北伐)을 논의할 때 그의 요청으로 조정에 들어가 이에 관한 의견을 내놓아 반영시켰으나, 이듬해 효종이 죽자 그의 계획은 와해되고 말았다. 1665년(현종 6) 원자(元子)의 탄생으로 경과(慶科)가 설치되자 송시열의 지시로 이를 비난함으로써 남인(南人)과 논쟁을 벌였으나 마침내 송시열이 우찬성(右贊成)에서 사직하자 낙향하였다.

그는 학문에도 뛰어나 어려서 신동(神童)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낙향한 후 벽촌(僻村)의 빈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급질(急疾)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촌신방(舟村新方)』이라는 의서를 편찬하여 보급하였다. 시호는 효의(孝義)이다.

■ 제작 시기 1687년(숙종 13, 저술), 1930년(간행)

■ 권수 책수 3권 2책(연활자본), 1책(필사본)

■ 판본 연활자본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조선 전역

방법 고방(古方)의 탕(湯) · 산(散) · 환(丸) 중에서 긴묘(緊妙)한 제(劑)를 고르고, 구하기 어려운 약재는 생략하고, 향리(鄉里)의 성질에 맞는 것을 골라 엮은 책이다.

■ 목차 주촌신방 서(舟村新方 序)

舟村新方 卷之一

소아편(小兒編) : 운기가 유행하는 법(運氣流行法)/ 소아병원총론(小兒病源總論)/ 소아용약법(小兒用藥法)/ 초생예치방(初生預治方)/ 단제법(斷臍法)/ 세아법(洗兒法)/ 초생위증(初生危症)/ 삼관맥법(三關脈法)/ 관형찰색법(觀形察色法)/ 소리 듣는 법(聽聲法)/ 태열(胎熱)/ 경풍의 징후(驚風之候)/ 급경풍(急驚風)/ 만경풍(慢驚風)/ 만비풍(慢脾風)/ 천조(天弔)/ 객오(客忤)/ 중악(中惡)/ 치경(瘵瘵)/ 간(癩)/ 전광(癲狂)/ 담결(痰厥)/ 시결(尸厥)/ 중풍(中風)/ 부(附)/ 풍습 불인불굴증(風濕不仁不屈症)/ 변증(變症)/ 단독(丹毒)/ 주마(走馬)/ 비시(飛尸)/ 골저(骨疽)/ 태종(胎腫)/ 정종(疔腫)/ 제창(諸瘡)/ 부(附)/ 감창(疔瘡)/ 나력(癰癰)/ 부(附)/ 연주창(連珠)/ 영류(癭瘤)/ 도상(刀傷)/ 파상풍(破傷風)/ 경선피합(經先皮合)/ 복통(腹痛)/ 회충통(蛔蟲痛)/ 반장내조(盤腸內弔)/ 복창(腹脹)/ 부(附)/ 부종(浮腫)/ 토사(吐瀉)/ 부(附)/ 적백리(赤白痢)/ 탈항(脫肛)/ 감질(疳疾)/ 벽적(癰積)/ 학모(瘡母)/ 황수(黃瘦)/ 발병(魘病)/ 온돌위황(溫突痿黃)/ 제서(諸暑)/

부(附)/ 서설(暑泄)/ 풍한(風寒)/ 해로(解顛)/ 부(附)/ 신전(顛填)/ 신함(顛陷)/ 두항연경(頭項軟梗)/ 발불생(髮不生)/ 안질(眼疾)/ 작목(雀目)/ 양목졸부(兩目猝浮)/ 이(聽耳)/ 충입이중(蟲入耳中)/ 부(附)/ 콩, 팔이 들어간 것(豆太入)/ 비연(鼻淵)/ 비색(鼻塞)/ 부(附)/ 부상(腐傷)/ 비눅(鼻衄)/ 부(附)/ 제혈증(諸血症)/ 순부제병(唇部諸病)/ 구부제병(口部諸病)/ 치구불생(齒久不生)/ 인후종통(咽喉腫痛)/ 야제(夜啼)/ 실음(失音)/ 해천(咳喘)/ 담음(痰飲)/ 진흙을 먹으려 함(愛喫土泥)/ 오탄잡물(誤吞雜物)/ 부(附)/ 착자(着刺)/ 오식독물(誤食毒物)/ 사람이 문 것(人咬)/ 광견이 문 것(狂犬咬)/ 고양이 문 것(貓咬)/ 뱀이 문 것(蛇咬)/ 지네가 문 것(蜈蚣咬)/ 봉식독(蜂螫毒)/ 체이(滯頤)/ 신연(身軟)/ 수연(手軟)/ 각연(脚軟)/ 첩지(疊指)/ 구흉증(龜胸症)/ 구배증(龜背症)/ 요부제병(腰部諸病)/ 제풍(諸風)/ 외신부상(外腎腐傷)/ 퇴산증(癩疽症)/ 항문피색(肛門皮塞)/ 하감창(下疳瘡)/ 치질(痔疾)/ 임력(淋瀝)/ 대소변불통(大小便不通)/ 은진(癩疹)/ 희두법(稀痘法)/ 홍역(紅疫)/ 약방(藥方)/

舟村新方 卷之二

부인편(婦人編) : 산전(產前)/ 산후(產後) / 후손을 얻는 처방(求嗣方)/

舟村新方 卷之三

대인편(大人編) : 상한(傷寒) / 더위에 맞은 경우(中暑) / 중풍(中風)  
 부(附) 풍단(風丹) / 내상(內傷) / 귀(耳) / 혀(舌) / 코(鼻) / 치아(齒) / 눈(眼) / 인후(咽喉) / 해수(咳嗽) / 복부(腹) / 흉부(胸) / 광란(霍亂) / 혈(血) / 부종(浮腫) / 황달(黃疸) / 여러 학질(諸瘡) / 충(蟲) / 대변(大便) / 소변(小便) / 임질(淋疾) / 전음(前陰) / 후음(後陰) / 종창문(腫瘡門) / 여러 독(諸毒) / 전염병(瘟疫) / 허로(虛勞) / 담병(痰病) / 잡병(雜病) / 잡방

(雜方)/ 약성가(藥性歌)/

舟村新方筆寫本

기(氣)/ 혈(血)/ 몽(夢)/ 성음(聲音)/ 담(痰)/ 간(肝)/ 심(心)/ 신(腎)/ 위(胃)/ 충(蟲)/ 소변(小便)/ 대변(大便)/ 이질(痢)/ 탈항(脫肛)/ 두(頭)/ 안(眼)/ 이(耳)/ 비(鼻)/ 구(口)/ 설(舌)/ 치(齒)/ 인후(咽喉)/ 흉(胸)/ 복(腹)/ 수(手)/ 족(足)/ 한(汗)/ 풍(風)/ 한(寒)/ 서습(暑濕)/ 열(熱)/ 식상(食傷)/ 광란(霍亂)/ 토(吐)/ 해(咳)/ 갈(渴)/ 노(勞)/ 달(痘)/ 학(瘡)/ 염병(染病)/ 채병(瘵)/ 간질(癩)/ 역(疫)/ 제진(諸診)/ 양(痒)/ 흑자(黑子)/ 종(腫)/ 제상(諸傷)/ 제독(諸毒)/ 구급(救急)/ 부인(婦人)/ 소아(小兒)/ 신침법(神針法)/ 잡방(雜方)/ 잡법 주방(雜法 酒方)/ 약방(藥方)/ 보익방(補益方)

#### ■ 내용

분류 병에 대한 처방으로 약을 조제할 때 필요한 생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수록 종수

식물 : 303종

가자(茄子) 가죽나무(楮) 가지(茄子) 갈근(葛根) 감송향(甘松香), 감수(甘遂), 감초(甘草), 강활(羌活), 강황(薑黃), 개암(榛子), 건강(乾薑), 건칠(乾漆), 검실(芡實), 겨자(芥菜), 견우자(牽牛子), 결명자(決明子), 계지(桂枝), 계피(桂皮), 고련근(苦練根), 고본(藁本), 고사리(蕨菜), 고삼(苦蓼), 곤포(昆布), 과루인(瓜蒌仁), 과체(瓜蒂), 광향(藿香), 관동화(款冬花), 괴화(槐花), 구기자(枸杞子), 구맥(瞿麥), 국화(菊花), 금불초(金佛草), 금은화(金銀花), 기장(黍米), 길경(吉梗) 나복자(蘿藦子), 남성(南星), 노회(蘆薈), 녹두(綠豆), 누로(漏蘆) 다시마(海帶), 단삼(丹蔘), 단향(檀香), 당귀(當歸), 당귀신(當歸身),

대극(大戟), 대부자(大附子), 대추(大棗), 대회향(大茴香), 도인(桃仁),  
독활(獨活),冬瓜(冬瓜), 등초(燈草)

마늘(蒜), 마두령(馬兜鈴), 마아초(馬牙硝), 마유(麻油), 마황(麻黃),  
만형자(蔓荊子), 망초(芒硝), 맥문동(麥門冬), 맥아(麥芽), 머루(蓼蘘),  
메밀(蕎麥), 모과(木瓜), 모근(茅根), 모려(牡蠣), 목단피(牡丹皮), 속  
새(木賊, 木賊), 목통(木通), 목향(木香), 몰약(沒藥), 미나리(水芹), 미  
역(海菜), 미하(米蝦), 밀(小麥), 밀몽화(密蒙花)

박하(薄荷), 반하(半夏), 밤(栗), 방기(防己), 방풍(防風), 배(梨), 배추  
(菘菜), 백개자(白芥子), 백급(白及), 백단향(白檀香), 백두구(白豆蔻),  
백렴(白蘘), 백부자(白附子), 백양목(白楊木), 백자인(柏子仁), 백지  
(白芷), 삼주(백출, 白朮), 백출산(白朮散), 백한련(白旱蓮), 백합(百  
合), 버드나무(柳), 보리쌀(大麥), 복룡간(蓮根汁), 복분자(覆分子),  
복숭아나무(桃), 부자(附子), 부평(浮萍), 봉사(礪砂), 비자(榧子), 비  
해(萆薢), 빈랑(檳榔), 뽕나무(桑)

사간(射干), 사군자(使君子), 사삼(沙參), 사상자(蛇床子), 사시나무  
(白楊), 사인(砂仁), 산두근(山豆根), 산사(山楂), 산수유(山茱萸), 마  
(산약, 山藥), 산조인(酸棗仁), 삼릉(三稜), 삼씨(麻仁), 상기생(桑寄生),  
상륙(商陸), 상백피(桑白皮), 상산(常山), 상심자(桑椹子), 상추  
(萵苣), 생강(生薑), 생은행(生銀杏), 생지황(生地黃), 서점자(鼠黏子),  
석곡(石斛), 석류피(石榴皮), 석밀(石蜜), 석웅황(石雄黃), 석창포(石  
菖蒲), 선모(仙茅), 죽도리풀(세신, 細辛), 소목(蘇木), 소자(蘇子), 소  
합향(蘇合香), 소회향(小茴香), 속단(續斷), 솔방울(松子), 수박(西瓜),  
수세미오이(絲瓜), 순무(蔓菁), 승마(升麻), 시호(柴胡), 신곡(神穀)  
아교(阿膠), 아위(阿魏), 아출(菝葜), 안식향(安息香), 애엽(艾葉), 앵  
두(櫻桃), 야당근(野棠根), 양강(良薑), 여지(荔枝), 연교(蓮翹), 연육

(嚙肉), 연초(煙草), 오가피(五加皮), 오령지(五靈脂), 오매(烏梅), 오미자(五味子), 오배자(五倍子), 오수유(吳茱萸), 오약(烏藥), 오얏(李實), 완화(莞花), 용뇌(龍腦), 용담초(龍膽草), 용안육(龍眼肉), 우방자(牛蒡子), 밀(우슬, 牛膝), 울금(鬱金), 원지(遠志), 위령선(威靈仙), 유자(柚子), 유향(乳香), 육계(肉桂), 육두구(肉豆蔻), 육종용(肉蓯蓉), 의이인(薏苡仁), 익모초(益母草), 익지인(益智仁), 인동(忍冬), 인진(茵陳)

자단향(紫檀香), 차즈기(자소엽, 紫蘇葉), 자완(紫菀), 개미취(자초, 紫草), 자하거(紫河車), 잣(해송, 松子), 잣나무(柏), 저근(樗根), 저담즙(豬膽汁), 저아조(豬牙皂), 적석지(赤石脂), 적소두(赤小豆), 전호(前胡), 정력자(荳蔻子), 정향(丁香), 제비쑥(燕艾), 좁쌀(粟米), 주사(朱砂), 죽력(竹瀝), 죽순(竹筍), 죽여(竹茹), 죽엽(竹葉), 지골피(地骨皮), 지부자(地膚子), 지유(地榆), 진교(秦艽), 진삼엽(眞參葉), 진피(秦皮), 질려(蒺藜), 질경이(차전자, 車前子)

참외꼭지(眞瓜帶), 참쌀(粳米), 삼주(창출, 蒼朮), 천련육(川鍊肉), 천마(天麻), 천문동(天門冬), 천오(川烏), 천초(川椒), 천화분(天花粉), 청각(鹿角菜), 청대(靑黛), 청목피(靑木皮), 청상자(靑箱子), 청피(靑皮), 초결명(草決明), 초과(草果), 초두구(草豆蔻), 초롱담(草龍膽), 충백(蔥白), 침향(沈香)

콩(大豆)

십사리(택란, 澤蘭), 택사(澤瀉), 토란(芋子), 실세삼(토사자, 菟絲子), 통탈목(통초, 通草)

파고지(破古紙), 파극(巴戟), 파두(巴豆), 패모(貝母), 편두(扁豆), 편축(篇蓄), 포도(葡萄), 포황(蒲黃), 피(稷), 피마자(蓖麻子), 필발(葎芑), 필징가(葎澄茄)

하고초(夏枯草), 하수오(何首烏), 학슬(鶴虱), 해동피(海桐皮), 해조(海藻), 해표초(海蝶硝), 행인(杏仁), 향부자(香附子), 향유(香薷), 현삼(玄蔘), 현호색(玄胡索), 혈갈(血竭), 형개(荊芥), 형개수(荊芥愁), 형화(荊花), 호도육(胡桃肉), 호로파(胡蘆巴), 호마인(胡麻仁), 호박(南瓜), 호박(琥珀), 호초(胡椒), 호황련(胡黃連), 홍귤나무(柑子), 홍화(紅花), 황국(黃菊), 황금(黃芩), 황기(黃芪), 황련(黃連), 황정(黃精), 회나무(槐), 회향(茴香), 후박(厚朴)

대황(大黃), 백작약(白芍藥), 숙지황(熟地黃), 인삼(人蔘), 적작약(赤芍藥), 지각(枳殼), 지실(枳實), 천궁(川芎), 치자(梔子), 황백(黃柏)

동물 : 76종

가물치(鱻魚), 가자미(比目魚), 개고기(犬肉), 개머리골수(狗頭骨), 거머리(水蛭), 거위고기(鶩肉), 게(蟹), 계내금(鷄內金), 계자황(鷄子黃), 고동(螺), 구갑(龜甲), 구인(蚯蚓), 굼벵이(蠕蟻), 꿩고기(雉肉), 노봉방(露蜂房), 녹각교(鹿角膠), 녹용(鹿茸), 농어(鱸魚), 누고(蝮蝨), 누에번데기(蠶蛹)

대구(大口), 대복피(大腹皮), 대합(蛤), 돼지(豬), 두꺼비(蟾蜍), 두더지(地鼠), 두충(杜沖), 드렁허리(鰱魚), 들쥐(土鼠)

메기(鮎魚), 메뚜기(螽), 메추라기고기(鶉肉), 목별(木鼈), 문어(八腕目), 미꾸라지(鰍魚)

반묘(斑貓), 방어(魴魚), 백강잠(白僵蠶), 뱀장어(鰻鱺), 뱀어(白魚), 벌(蜂), 벌갑(鼈甲), 붕어(鮪魚)

사향(麝香), 상어[沙魚], 새우(蝦), 서각(犀角), 선퇴(蟬退), 수탉(雄雞), 송어(鱒魚), 쏘가리(鰻魚)

암컷뱀가죽(陰蛇皮), 야명사(夜明砂), 양육(羊肉), 연어(鱒魚), 영양

각(羚羊角), 오공(蜈蚣), 오리고기(鴨肉), 오소리고기(獐肉), 오징어 [烏賊魚] 우각새(牛角鯉), 우렁이(田螺), 우육(牛肉), 우황(牛黃), 웅담(熊膽), 은어(銀魚), 잉어(鯉魚)

저육(豬肉), 전갈(全蠍), 조기(石魚), 쥐며느리(鼠婦蟲), 지네(蜈蚣), 지렁이(地龍)

참새 알(雀爛), 참새고기(雀肉), 참조개(蜆), 천산갑(穿山甲), 청개구리(青蛙)

토끼고기(兔肉)

해삼(海蔘), 호골(虎骨), 홍합(紅蛤), 화사(花蛇)

균류 : 5종

복신(茯神), 복령(茯苓), 송이버섯(松栢), 저령(猪苓), 적복령(赤茯苓)  
명칭 표기 음차, 훈차, 혼합 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음차	훈차	한자어
해삼(海蔘), 호골(虎骨), 홍합(紅蛤)	개고기(犬肉), 개머리골수(狗頭骨)	드렁허리(鱧魚), 뱀장어(鰻鱺), 두꺼비(蟾蜍), 가물치(鱘魚), 송어(鱒魚)

내용기술 소아가 태어났을 때 낮빛이 과량고 몸이 차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경우는 바로 산모가 임신 전에 생·냉한 찬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한기가 태로 옮겨서 그러한 것이다. 급히 인삼, 백강잠, 감초 각 두세 톨을 끓여 마시도록 한다.

가시가 목구멍에 걸려 빼내기 어려우면, 생강을 찢어 떡으로 만들어 약간 불에 쪄어서 목 바깥쪽 해당하는 곳을 다림질해 준다. 떡이 차가와지면 다시 쪄어서 붙이면 가시가 절로 솟아 나온다.

인용문헌 제중신편 <濟衆新編>

# 유서류





유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고금설원(古今說苑)〉 해제

- 원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G002+AKS-CI20\_76082-02) ‘고금설원(古今說苑)’

- 성격

천지만물에 관한 사항의 정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기록된 항목의 수로만 따지면 결코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서술의 방식도 표제어를 설정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 일부 문장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교양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남성 양반들이 장차 학문을 하거나 벼슬 등을 할 때 알아야 할 만한 정보를 정리해서 특정 용어가 어떤 표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생물 관련 항목은 난이도가 낮지 않다.

- 편저자

오명리(吳命釐) 특별히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 제작 시기 1594년(서문의 끝에 백졸(百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졸재(百拙齋) 한응인(韓應寅, 1554~1614)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제작 연도 갑오년을 1654년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권수 책수 10권 10책

- 판본 장서각본이 유일하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별히 어떤 지역에 국한하고 있지는 않다.

방법 실제 현장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존 문헌을 정리 인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 ■ 목차

[권1] 천지일월성신음양오행풍운뇌우(天地日月星辰陰陽五行風雲雷雨)

귀신(鬼神)/사시(四時)/초목(草木)/조수충어(鳥獸蟲魚)/산천(山川)/강역원정(疆域園亭)/조석(潮汐)/중출제구(重出第九)/성궐(城闕)/군현(郡縣)/부(附)/관록지제(官祿之制)/인민(人民)/사제(四制)[실제로는 전제(田制)]

## ■ 내용

분류 초고본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분류 기준이 명확한 편은 아니다. 천지인(天地人)과 물(物)을 다루려고 한 것 같은데 목차가 정확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물(物)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항목은 적고 유학(儒學), 정치, 행정 제도에 대한 항목이 많다. 대체로 지식, 정보를 기준으로 분야별 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수록 총수 총 60종(식물 12종, 동물 48종)

오(梧), 가(檟), 형극(荊棘), 비파(枇杷), 수선(水仙), 매화(梅花), 갈매(臘梅), 규(葵), 석류나무(류, 榴), 하(荷), 리(梨), 준(隼), 봉(蜂), 양(羊), 치(雉), 이(鮠), 타(鱠), 고(鮎), 엽(魚+葉), 타(魚+朶), 령(鯉), 리(鯉), 망(魴), 려(魚+戾), 협(魚+睪), 로(鱸), 점(鮎), 청(鯖), 타(魚+也), 鮐, 교(鱠), 점(鰈), 루(鱧), 편(鰻), 종(鰻), 타(鮓), 인(魚+刃), 돈(鮓), 준(鱒), 졸(鮓), 시(豺), 호(虎), 서(鼠), 상(象), 분봉(奔蜂), 광촉(藿蠋), 명령(螟蛉), 월계(越鷄), 곡(鵠), 노계(魯鷄), 창포(菖蒲), 조슬(蚤蝨),

유정(虬蜓), 한(寒, 어속(魚屬)), 혜(慧, 인(蚓)), 비(甍, 웅(熊)), 아(蛾), 곤계(鶡鷄), 작(鵠), 달(獺), 음해(陰諧), 시(鳴)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別名'으로, 또는 별도 표기 없이 직접 표기하고 있다.

병합	곰	지렁이
鶡鷄: 鳳凰別名	甍: 熊	慧: 蚓

내용 기술 생물을 인간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부분도 보인다. 생물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생물을 통해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목	내용
① 인(仁)	새(까마귀)가 부모를 먹이는 것은 인(仁)이다.
② 의(義)	새매가 태(胎)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의이다.
③ 예(禮)	벌이 왕이 있는 것은 예이다.
④ 지(智)	양이 풀어앉아 젖을 먹이는 것은 지(智)이다.
⑤ 신(信)	꿩이 다시 짝을 접하지 않는 것은 신(信)이다.
⑥ 숨은 능력	승냥이 허가 비록 좁으나 호랑이를 죽일 수 있고 쥐 어금니가 비록 뾰족하나 코끼리를 깨물어 상처 입힐 수 있다.
⑦ 능력 차이	분봉(奔蜂)이 관촉(藿蠋)이 될 수 없으며, 명령(螟蛉)이 될 수 있으며, 월계(越鷄)가 곡(鵠)의 알을 품을 수 없고 노계(魯鷄)가 품을 수 있다.
⑧ 날씨 파악	뱀꾸기는 비 오는 것을 감지해서 온다.

인용문헌 呂氏春秋, 譚子化書, 劉子新論, 東崗柯子, 淮南子 등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해제

■ **원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朝41-31)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 **성격**

백과사전적 저술이라고 하나 각종 정보를 표제어로 삼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원나라 음시부(陰時夫)가 지은 『운부군옥(韻府群玉)』의 체제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정 운자를 제시하고 해당 운자가 들어 있는 한자어를 제시하고 주로 기존 문헌의 기록을 인용하여 설명을 붙여서 일단 자전의 성격이 있다고 하겠는데 인물, 역사, 생물,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정보가 등장한다. 『운부군옥(韻府群玉)』에 없던 효자, 열녀 항이 추가되어 있고 대체로 반절음이 표기되지 않았다. 번거로운 정보 제거의 목적과 함께, 중국어와 달리 우리의 한자음은 한문 시대의 음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힘써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거의 200권에 가까운 서적을 참고했으며 『수이전(殊異傳)』 등 현재는 전하지 않는 문헌도 참고했다는 점과 중국의 고사를 대폭 줄이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 크다고 하겠다.

■ **편저자**

권문해(權文海) 권문해(權文海, 1534~1591)는 조선 중기 문관으로 본관은 예천(醴泉), 자는 호원(灑元), 호는 초간(草澗)이다. 이황의 문인으로 김성일 등과 친분이 있었다. 좌부승지(左副承旨)·관찰사를 역임하고 사간(司諫)이 되었다. 대구부사로 있을 때 『대동운부군옥』의 편집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천의 봉산서원(鳳山書

院)에 제향(祭享)되었고, 문집으로는 『초간집(草澗集)』이 있다.

■ **제작 시기** 1589년(1812~1836년)

■ **권수 책수** 20권 20책

■ **판본**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개인 소장도 있다. 1589년 완성하고 어람을 거쳐 간행하려다 임진왜란으로 실행하지 못했고 필사본이 전해지다가 1798년 정범조의 서문을 붙여 1812년부터 1836년까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1913년 활자본으로 최남선에 의해 출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 1950년 정양사에서, 1977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되었다. 2003년에 1차, 2007년 2차로 번역사업이 진행되어 전체가 번역되었다. 현재 일부 고본이 남아있으며 19세기 간행된 것과는 다소 체계가 다르다. 예천군청에서 인터넷에 필사본과 목판(본)이 공개되어 있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필사본은 제목이 한자로 ‘新編大東韻玉(신편대동운옥)’이라고 되어 있고 목판본은 한자로 ‘大東韻府群玉(대동운부군옥)’이라고 되어 있다. 판심(版心)은 모두 한자로 ‘大東韻玉(대동운옥)’이라고 되어 있다. 표제어를 그대로 적느냐(목판본) 배경만 검게 해서 반전해 놓느냐(필사본)의 차이도 있지만 그 외에 내용 상의 차이는 없다. 고본이 목판과 함께 1986년 10월 15일 보물 제878호로 지정되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정 지역을 현장 조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문헌을 검토하여 종합한 결과로 보인다.

방법 기존 문헌에서 해당 표제어가 등장하는 곳을 찾아 인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항목별 기술 균형을 맞추기 필요도 있고 또 항목별 설명 자체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는지 간략하게 줄여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편이다.

■ 목차

- 대동운부군옥서(大東韻府群玉序)/
- 대동운부군옥발(大東韻府群玉跋)
- 해동잡록발(海東雜錄跋)
- 상평성(上平聲) 동(東) 동(冬) 강(江)
- 지(支) 미(微) 어(魚)
- 우(虞) 제(齊) 가(佳) 회(灰)
- 진(眞) 문(文) 원(元) 한(寒) 산(刪)
- 하평성(下平聲) 선(先) 소(騷) 효(肴) 호(豪)
- 가(歌) 마(麻) 양(陽)
- 경(庚) 청(靑) 증(蒸)
- 우(尤) 침(侵) 담(覃) 염(鹽) 함(咸)
- 동(董) 동(腫) 강(講) 지(紙) 미(尾) 어(語)
- 경(慶) 제(薺) 해(蟹) 회(賄) 진(軫) 물(吻)
- 완(阮) 한(旱) 잠(潛) 선(銑) 소(篠) 교(巧) 호(皓) 가(珂) 마(馬)
- 양(養) 경(梗) 형(迥) 유(有) 침(寢) 감(感) 염(琰) 콩(豆, 豆) 겸(兼)
- 거성(去聲) 송(送) 송(宋) 강(絳) 치(寘) 미(未) 어(御)
- 우(遇) 제(霽) 태(泰) 괘(卦)
- 대(隊) 진(震) 문(問) 원(願) 한(翰) 간(諫)
- 산(霰) 소(嘯) 효(效) 호(號) 개(箇) 마(禡)
- 양(漾) 경(敬) 경(徑) 유(宥) 필(泌) 감(勘) 염(豔) 함(陷)
- 입성(入聲) 옥(屋) 옥(沃) 각(覺) 질(質)

물(物) 월(月) 갈(曷) 힐(詰) 설(屑) 약(藥)

맥(陌) 석(錫) 직(職) 집(緝) 합(合) 엽(葉) 흡(治)

## ■ 내용

분류 운별로 정리된 책인 만큼, 1차적으로는 운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2차적으로 운에 따라 정리된 글자가 포함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지리(地理), 국호(國號), 성씨(姓氏), 인명(人名), 효자(孝子), 열녀(烈女), 수령(守令), 선명(仙名), 목명(木名), 화명(花名), 금명(禽名) 등 11항으로 되어 있는데 문학 창작, 운별 지식 정리, 단순 읽을 거리 제공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수록종수 총 428종(식물 230종, 동물 198종)

상평성(上平聲)

오동(梧桐), 두충(杜沖), 송(菘, 무청(燕菁)), 구(韭), 궁(芎), 무궁(無窮), 목근(木槿), 궁(菊), 풍(楓, 섭(攝)), 추(楸), 회(檜), 모(茅, 자(茨)), 백일홍(百日紅, 자미화(紫微花)), 여로(蘿, 蘆), 홍(葶), 대나무(죽(竹)), 동생초(冬生草), 목숙(苜蓿), 마(산약, 山藥), 산계(山薺), 삼주(췌, 朮), 황정(黃精), 당귀(當歸, 신감채(辛甘菜, 신감초(辛甘草)), 자강(自薑), 흰초(萱草, 망우초(忘憂草), 의남초(宜男草), 흰(諼)), 홍요(紅蓼), 파(蔥, 葱), 종(稷), 봉(蓬, 호(蒿)), 송(松), 노송(老松), 만년송(萬年松), 부용(芙蓉, 하(荷), 함담(菡萏), 부거(芙蓉), 봉(葑, 만청(蔓菁)), 궁(筍), 태(筴, 선(蘚)), 치(梔, 담복(蔞蔔)), 화(樺), 기장(藜, 黍), 리(籬, 강리(江籬)), 의(椅), 자(棗, 피(穉, 稷)), 시(蓍), 리(梨, 리(梨)), 질려(蒺藜), 규(葵), 비(稗), 지(芝), 이(榑), 장미(薔薇), 저(樗), 사춘(似春), 산춘(山春), 호목(虎木), 유(楡), 수유(茱萸, 櫟), 포(蒲), 포류(蒲柳), 창포(菖蒲), 석창포(石菖蒲), 고(菰, 고(菘)), 목단(牡丹), 벽오(碧梧), 로(櫨), 소(蘇), 려(藜), 사초(莎草), 해(楷), 괴(槐), 매(梅),

오매(烏梅), 매(莓), 태(苔, 태(苔), 선(蘚)), 감태(甘苔), 래(萊), 빈(蘋),  
 춘(椿), 순(荀), 순(蓴, 순(蓴)), 진(榛), 운(芸), 훈(薰, 훈(熏)), 근(芹, 초  
 규(草薺)), 번(蘩, 백호(白蒿)), 방손(芳蓀), 출단화(黜壇花, 지당화(地  
 棠花)), 단(檀), 란(蘭), 완(莞), 란(欒), 오죽(烏竹), 반죽(斑竹), 관(菅)  
 의 식물 87종

우(牛), 마(馬), 종(蟲), 와(蛙), 웅(熊), 홍(鴻), 안(雁), 룡(龍), 봉(蜂),  
 마봉(馬蜂), 우봉(牛蜂), 공(蛩, 실솔(蟋蟀), 촉직(促織), 공(蝨)), 방  
 (獐, 방(尙)), 총(驄), 계(鷄, 계(雞)), 해표(海豹), 려(驪), 리(鸕), 지(蜘蛛,  
 지주(蜘蛛)), 사(獅, 준예(俊猯), 백택(白澤)), 비(貔, 비(貍)), 치(鴟, 연  
 (鳶)), 괴치(怪鴟), 시(鴟), 구(龜), 미(麋), 추(騅), 기린(麒麟), 기(騏),  
 리(狸), 노자(鷓鴣), 희(猗), 견(犬, 가희(家豨)), 수어(水魚, 수어(秀  
 魚)), 저(狙, 저(雎), 려(驢), 저(蛆), 여(蛛), 구옥(鸚鵡, 鷓鴣), 부(鳧),  
 호(狐), 호(鵠), 자고(鷓鴣), 로(鱸), 로(獺, 한로(韓獺)), 오(烏), 제(鶻),  
 결제(駃騠), 혜(騏), 예(鶩), 예(鮓), 서(犀), 미(麕), 와우(蝸牛), 시랑  
 (豺狼), 래(駉), 태(鮐), 진(螻), 균(麀, 균(麋), 균(麕), 장(獐, 獐)), 순(鶉,  
 암(鶉)), 문(蚊, 문(蚤), 문(蠹)), 원(鼯), 원(猿, 원(猿)), 원앙(鴛鴦), 곤  
 (鯢), 돈(豚, 돈(狍)), 란(鸞), 환(鰓), 한(鵠, 백한(白鵠))의 동물 70종  
 하평성(下平聲)

복령(茯苓)의 균류 1종

연(蓮), 목련(木蓮), 청련(靑蓮), 전(旆, 단향목(檀香木)), 전(荃, 손  
 (蓀)), 위(葦, 대가(大葭)), 초(苕, 초래(苕萊), 능소화(凌霄花), 초(椒),  
 지초(地椒), 산초(山椒), 파초(芭蕉), 추요(芻蕘), 표(瓢), 요(蓼), 교맥  
 (蕎麥), 포(苞), 포(匏), 호(蒿, 번(蘩), 소(蕭), 울(蔚), 아(莪), 복숭아  
 나무(도, 桃), 우도(牛桃, 앵도나무(櫻桃)), 포도(葡萄), 라(蘿), 여라  
 (女蘿), 토사(兔絲), 가(軻), 화(禾), 과(藹), 마(麻, 시(臬), 모마(牡麻)),

과(瓜), 오이(黃瓜, 黃瓜), 가(菘), 차(茶), 비파(枇杷), 사(楂, 楂), 사(查, 查), 량(梁), 장(樟), 생강(薑, 薑), 강(薑), 광랑(桃榔), 뽕나무(桑, 桑, 상(桑)), 갱(稭, 稭), 평(荊), 형(荊, 초(楚)), 등(橙, 橙), 귤(柑, 柑), 정(浬), 명래(萇菜), 개구리밥(萍, 萍, 평(萍)), 능(菱, 능(菱)), 등(藤), 석류(石榴), 수(菟, 모수초(茅菟草)), 모(麩, 보리(대맥, 大麥)), 삼(蔘), 남(柁, 남(楠)), 람(藍), 유(蓀)의 식물 59종, 현(蚊), 초(貂), 두견(杜鵑), 편복(蝙蝠), 선서(仙鼠), 복익(伏翼), 비서(飛鼠), 전(鷄, 요(鷄)), 전(鱷), 선(蟬), 편(編), 조(鵬), 조당(蝸蟻), 효(梟), 초요(鷓鴣, 교부(巧婦)), 묘(貓, 묘(猫), 오원(烏圓)), 치효(鴟鵂), 교(蛟), 교(蛟), 고(羔), 오(螫), 조(蝟), 노(獠), 낙타(駱駝, 탁타(囊駝)), 타(鼉), 아(蛾), 아(鵝), 나마(騾馬, 영(羸)), 라(螺, 영(羸)), 과(蝟), 하마(蝦蟆), 사(蛇), 양(羊), 봉상(鳳翔), 랑(娘), 방(魴), 과(驕), 가(猓), 아(鴉, 아(鴉)), 파(狔), 사(鯊), 장(蟹), 창경(鶻鷂), 충황(蟲蝗), 책맹어(蚱蜢魚), 봉황(鳳凰), 맹(蟲, 맹(虻)), 성(猩), 경(鯨, 경(鱣)), 앵(鴛, 앵(鴛)), 앵무(鸚鵡), 교청(鸚鵡), 성(驛), 청정(蜻蛉), 척령(鶴鶴), 명령(螟蛉), 형(螢), 경(駟), 우(麀), 류(騶, 류(駟)), 응(鷹), 승(蠅), 봉(鵬), 독추(禿鶯), 추(鰵, 추(鰵)), 부유(蜉蝣), 구(鳩), 비휴(貔貅, 휴(貅)), 비부(虻), 미후(獼猴), 구(鷗), 루(虻), 추(鰵), 규(虻, 규(虻)), 담(蟬), 잠(蠶, 견(繭)), 섬(蟾), 점(鮎, 언(鰻)), 삼(杉), 곱(鷓, 비익조(比翼鳥))의 동물 75종  
 상성(上聲)

균(菌), 송균(松菌), 석균(石菌)의 균류 3종

류(藎), 비(稗), 지(芷), 백지(白芷, 채(菹)), 의이(薏苡, 이(苡)), 자두나무(리, 李), 기(杞, 구기(枸杞)), 기(芑, 박량숙(白梁粟)), 시(柿, 시(柿)), 재(梓, 예장(豫章), 추(楸), 기장(서, 黍), 거서(秬黍), 촉서(蜀黍, 당서(唐黍)), 저(楮), 거(苮), 우(麌, 우(麌)), 허(栩), 도(稌), 두(杜), 호(楛),

제(薺, 미초(靡草)), 근(菴), 자완(紫苑), 소(篠), 조(蒿), 료(蓼, 신채(辛菜)), 묘(茆, 부규(鳧葵)), 도(稻), 조(藻), 조(棗), 고(栲, 산저(山樗)), 아(雅, 초오(楚烏)), 가(檟, 산추(山楸), 가(榎), 하(夏)), 상(橡, 역(櫟實)), 허실(栩實)), 탕(蕩, 소탕(篠蕩)), 행(荇, 행채(荇菜), 행(荳)), 명(茗), 류(柳), 뉴(柎), 구(韭, 구(菹)), 구(枸), 유(莠, 낭유(稂莠)), 부(藟), 임(莅), 계임(桂荑), 검(芡), 염(檠), 여(荔, 여지(荔支), 벽려초(薛荔草))의 식물 48종, 주(麀), 호(虎), 녹이(駱駝), 리(鯉), 조(蚤), 기슬(蟻蝨, 슬(蝨)), 독회(毒虺), 서(鼠), 팽려(彭蠡), 해(蟹), 자해(紫蟹), 해치(獬豸), 인(蚓, 인(蝸), 구인(蚯蚓)), 분(鼫), 언(鶻), 보(鴉, 나라(螺贏), 망(蟒), 두(蚪), 구(狗), 멸몽(蠓蠃), 해계(醞鷄), 용(蝮), 방(蛙, 합(蛤), 신(蜃), 의(蟻, 의(螳)), 시(豕), 유(鮪), 치(雉)의 동물 28종

거성(去聲) 기(芟), 납매(臘梅, 아위화(阿魏花)), 서(蕒, 저서(藟蕒), 서(薯), 여(蕓), 우(芋, 준치(蹲鴟), 우(芎), 토(菟, 토사(菟絲)), 계(桂), 피(柞, 稜, 기장(苳, 黍)), 애(艾), 내(柰, 내(奈)), 회(檜, 원백(圓柏), 채(蔡, 자채(自蔡)), 패(稗), 개(芥, 산개(山芥), 해(薤), 백채(白菜), 송채(松菜), 산(蒜, 대산(大蒜)), 란(亂, 천(茜, 천(苳, 泝), 자(柘, 자(蔗), 감자(甘蔗)), 화(樺), 백양류(柏樣榴), 유(柚), 콩(豆, 豆, 두(菹), 두구(荳蔻))의 식물 27종

부(鮒), 로(鷺, 용서(春鉏), 속옥(屬玉)), 비(翳, 적우작(赤羽雀), 취(翠, 청우작(靑羽雀)), 위(蝟), 두(蠹), 예(螭), 채(鼈), 패(狙, 낭패(狼狙)), 인(麟, 형화(螢火)), 관(鶴), 안(鴈, 양조(陽鳥)), 안(鶻, 안작(鶻雀)), 연(燕, 현조(玄鳥), 연(鶻)), 요(鷓, 집오(鷓烏)), 표(驃, 표(豹), 사(麝), 취(鷺), 유(豺, 유(狝)), 유(猶), 짐(鴉, 짐(猓)), 립(獫)의 동물 22종

입성(入聲)

곡(穀), 복(菴, 부(菴)), 육(陸), 국(菊, 국(菊)), 치장(治牆), 오홍(烏紅), 학정홍(鶴頂紅), 규심홍(閨深紅), 하련홍(下輦紅), 금은황(金銀黃), 하련황(下輦黃), 콩(속, 菽, 콩(두, 豆), 속(水)), 목속(苜蓿), 척족(躑躅), 조(속, 粟), 밤나무(을, 栗), 필(苾), 수수(출, 秫), 귤(橘), 귤(蕨), 자귤(紫蕨), 말(芡), 괭(栝), 질(甗), 작(柞), 괭(藿), 백(柏, 백(栢)), 산다화(山茶花, 동백(冬柏)), 춘백(春柏), 보리(맥, 麥), 벽(檉, 황목(黃木)), 렉(檉), 적(荻, 추(菴)), 극(棘), 피(稭, 稷), 강직(姜稷), 역(械)의 식물 36종

록(鹿), 목(鶩), 복(鵬, 복(蝮, 복사(蝮蛇)), 곡(鵠), 을(駘, 乙), 복(鰻, 석결명(石決明)), 질(蛭, 수질(水蛭)), 홀(鷓), 갈(蠍, 갈(蝎)), 골(鶻), 횡운골(橫雲鶻), 갈(鶻), 달(獺), 제결(鶻鳩), 별(鶻), 별(鼈, 어별(魚鼈), 별(鶻)), 작(雀), 작(鶻), 락(駱), 악(鵝), 악(鰐), 학(鶴), 학(貉), 척확(尺蠖), 누괴(蝮蝮), 석척(蜥蜴), 언정(蝮蜓), 익(鶻, 수조(水鳥), 익(鱸)), 적치(翟雉), 함(鶻, 발함(鶻鶻)), 점(鰈, 비목어(比目魚)), 점(鰈), 압(鴨, 서부(舒鳧))의 동물 34종

생물 표기 물고기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물고기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語’, ‘謂之’, ‘方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냉이	송어	개
薺: 謂之靡草	秀魚: 俗語水魚	犬: 高麗人方言以犬爲家豨

내용 기술 생물의 일명, 형태, 습성, 맛, 종류, 냄새, 주의사항, 유사종, 이용법 등을 다루고 있다.

항목	내용
① 일명	(석결명(石決明)) 일명 복각(鰾殼)이라고 한다.
② 형태	(석결명(石決明)) 밝은 껍질로 되어 있고 안은 돌이 붙어 있다.
③ 습성	(홍(鴻)) 별을 따르는 새이다.
④ 맛	(자궤(紫蕨)) 자주 고사리 맛이 유독 산나물 중에 뛰어나다.
⑤ 분류	한 줄기에 한 송이 꽃이 피고 향기가 많은 것을 난(蘭)이라 하고 한 가지에 여러 송이 꽃이 피고 향기가 부족한 것을 혜(蕙)라 한다.
⑥ 냄새	(운(芸)) 향기 나는 풀이다. 그 잎이 극히 향기롭다.
⑦ 주의사항	(요벽(蓼漿)) 술을 빚을 때 여뀌 잎과 황벽 잎을 사용하면 술맛이 매우 좋지 않게 된다.
⑧ 유사종	(운(芸)) 목숙(苜蓿)과 비슷하다.
⑨ 약용	(운(芸)) 옷이나 책에 붙여서 좀벌레를 물리친다.

인용문헌 桂苑筆耕, 東國李相國集, 西河集, 一齋集, 益齋亂藁, 稼亭集 등

## 〈삼재도회(三才圖會)〉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본 (奎宗 4148) '삼재도회(三才圖會)'

### ■ 성격

기본적인 목차 구성은 다른 유서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크게 보면 천지인물(天地人物)의 4개 항목이고 물의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항목은 모두 그림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영상, 사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주변 사물이 아닌 이상 직접 접하기 어려운 시대에 시각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가 없지 않지만 그림 한 면, 설명 한 면의 방식으로 설명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게 쉽게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 ■ 편저자

왕기(王圻) 왕기(王圻, 1529~1612)는 명나라 후기 정치인이자 학자로 자(字)는 원한(元翰), 호(號)는 보시(普始), 자호(自號)는 매원거사(梅源居士)로 상해시(上海市) 출신이다. 1565년 진사에 급제해서 청강현(淸江縣) 지현(知縣)으로 근무했고 만안현(萬安縣) 지현을 거쳐 어사(御史)가 되었다. 직언을 잘 해서 재상 장거정(張居正)과 의견이 맞지 않아 대립하다가 복건성(福建省)의 첨사(僉事)가 되었다가 공주(邛州) 판관(判官), 진현현(進賢縣) 현령(縣令) 등을 거쳐 섬서성(陝西省) 포정사(布政使) 참의(參議)의를 역임했다. 책을 많이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며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홍주유고(洪洲類稿)』, 『삼재도회(三才圖會)』, 『양절염지(兩浙鹽志)』, 『해방지(海

防志』, 『시법통고(諡法通考)』, 『패사유편(稗史類編)』 등의 저서를 지었다.

■ 제작 시기 1607년

■ 권수 책수 106권 106책

■ 판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완본, 영본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민속원에서 2004년 6권으로 영인 출판했고 2014년 1~3권은 『삼재도회(三才圖會)』, 4~5권은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의 총 5권으로 영인 출판했다. 2015년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총 3책으로 출판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중국 전역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방법 기존의 문헌에 새로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목차

천문(天文)/지리(地理)/인물(人物)/시령(時令)/궁실(宮室)/기용(器用)/신체(身體)/의복(衣服)/인사(人事)/의제(儀制)/진보(珍寶)/문사(文史)/조수(鳥獸)/조류(鳥類)/수류(獸類)/인개류(鱗介類)/초목(草木)/초류(草類)/목류(木類)/소류(蔬類)/과류(菓類)/화훼류(花卉類)

■ 내용

분류 큰 차원으로는 천지인물(天地人物)로 되어 있으며 천지인(天地人)은 각각 하나의 항목, 물(物)은 총 11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11개 항목 중에서 조수(鳥獸)는 조류(鳥類), 수류(獸類), 인개류(鱗介類)로, 초목(草木)은 초류(草類), 목류(木類), 소류(蔬類), 과류(菓類), 화훼류(花卉類)로 다시 분류된다. 조(鳥), 수(獸), 초(草), 목(木) 등

생물 정보 중에 항목 명칭으로 쓰이지 않는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넣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 수록 종수

#### 조수(鳥獸) 1권 조류(鳥類)

봉(鳳), 란(鸞), 공작(孔雀), 비익조(比翼鳥), 정위(精衛), 현학(玄鶴), 세락조(世樂鳥), 학(鶴), 계(鷄), 앵무(鸚鵡), 황조(黃鳥), 로(鷺), 응(鷹), 준(隼), 연(燕), 계칙(鷦鷯), 척령(鵲鵲), 안(鴈), 작(鵠), 관(鶴), 오(烏), 보(鴉), 구옥(鸚鵡), 도조(鷦鳥), 작(雀), 자고(鷓鴣), 노자(鷓鴣), 격(鴝), 탁목조(啄木鳥), 아(鶯), 창괄(鶻鵒), 필방(畢方), 순(鴝), 함(鶻), 골(鶻), 예(鶯), 목(鶯), 치(雉), 조(鷓), 치효(鷓鴣), 역(鴝), 상호(桑扈), 숙상(鷓鴣), 시구(鳴鳩)의 동물 45종.

#### 조수(鳥獸) 2권 조류(鳥類)

두견(杜鵑), 백한(白鵬), 화미(畫眉), 추(雛), 굴구(鷓鴣), 립(鳩), 효(梟), 천아(天鵝), 제(鶻), 갈(鷓), 추(鶯), 도충(桃蟲), 짐(鳩), '민+문'?모(民+民+民 [蟲?母], 견(鴈), 전(鷓), 납취(蠟嘴), 비취(翡翠), 창계(彰雞), 수금조(嗽金鳥), 금계(錦雞), 연작(練雀), 청춘(鶻春+鳥), 원앙(鴛鴦), 백포(白票+鳥), 아(鴉), 죽계(竹鷄), 고천(告天), 백두옹(白頭翁), 봉(鷓), 악취(鴛鴦), 수사(數斯), 주(鴉), 지도(駢鷄), 청경(靑耕), 요(鳩), 결조(潔釣), 두옹(蠹邕), 당옹(當邕), 별(鷓 付+鳥), 기도(鷓鴣), 락(樂+鳥), 야(鴉), 자서(此/虫 鼠), 우(禺+鳥), 구여(鸚如), 반설(反舌), 소사(蹠斯), 부계(鳧溪), 정(正), 곡(鷓), 침조(鷓鳥), 안(鷓), 저구(睢鳩), 치요(鷓鴣), 별치(鶯雉), 흘(鷓), 부(鷓), 대임(戴鴛), 속왕(屬王), 곤계(昆雞), 요계(鷓鴣), 연(鶻), 묘두옹(貓頭鷹), 비렴(飛廉), 만화(謾畫), 해동청(海東靑), 초명(鷓鴣)의 동물 68종.

#### 조수(鳥獸) 3권 수류(獸類)

기린(麒麟), 산예(狻猊), 해치(獬豸), 해마(海馬), 추우(騶虞), 서(犀), 상(象), 호(虎), 토(兔), 록(鹿), 우(牛), 려(驢), 견(犬), 활(獲), 마(馬), 시(豕), 능리(鯪鯉), 양(羊), 웅(熊), 균(鬮), 서(鼠), 달(獺), 오(鼯), 여인(如人), 라(羸), 호(狐), 분(貃), 린(麀), 사(麋), 용마(龍馬), 기(夔), 령(麤), 묘(猫), 수마(水馬), 표(豹), 타(駝), 미(麋), 후(猴), 동(狹), 시(豺), 적표(赤豹), 추(狸), 주(麀), 응(狨), 초(貂), 연(豸+然), 한(豸), 비(貔), 궤(麀)의 동물 49종.

조수(鳥獸) 4권 수류(獸類)

도올(檮杌), 려(閭), 랑(狼), 흑호(黑狐), 맹시(猛豨), 녹축(鹿蜀), 백택(白澤), 맥(獾), 교(狡), 궁기(窮奇), 맹괴(猛槐), 총롱(葱龍), 현학(玄獮), 환소(臙跖), 류(類), 마장(馬腸), 장체(長鬣), 환(羆), 백원(白猿), 유서(鼬鼠), 시(兕), 박(駮), 구환(狗獾), 저환(猪獾), 만(蠻), 쟁(狨), 당경(當庚), 겸양(羶羊), 호저(毫猪), 청웅(青熊), 각수(角獸), 양/늑? 비서(飛鼠), 혼마(馬+軍馬), 모마(旄馬), 비(羆), 정우(旌牛), 승황(乘黃), 한수(旱杻), 적리(赤狸), 현표(玄豹), 사루(士羊+婁), 제견(諸犍), 환(獮), 폐(弊), 농질(蠱蜚), 주누(朱獮), 천견(天犬), 비견수(比肩獸), 유액(幽頽), 병예(屏翳), 효(鴞), 표견(鮑犬), 활충(狝衷), 고조(蟲雕), 천마(天馬), 염화수(厭火獸), 천구(天狗), 휘(彙), 리(犛), 삼각수(三角獸), 강량(強良), 흑인(黑人), 신발(神魃), 효(鬻), 맹이(齒耳), 양거(梁渠), 구미호(九尾狐), 학(貉), 원(猿), 만(獲), 도발(挑拔), 유(雌), 도찬(饕餮), 성성(猩猩), 리(狸), 완(獼), 산혼(山豸+軍)의 동물 78종.

조수(鳥獸) 5권 인개류(鱗介類)

용(龍), 응룡(應龍), 교(蛟), 리(螭), 두우(斗牛), 진(蜃), 원(鼈), 타(鼉), 오(鼇), 별(鱉), 귀(龜), 대모(玳瑁), 휴구(蟪龜), 현구(玄龜), 주별(珠鼈), 망어(莽魚), 능(能), 역(蜚), 사(蛇), 파사(巴蛇), 비유(蜚虫+遺),

장사(長蛇), 청사(靑蛇), 등사(騰蛇), 이두사(二頭蛇), 휘(虺), 언정(鰕  
 蛭), 석척(蜥蜴), 경(鯨), 꺨(鰻), 부(鮒), 종(鰩), 규(鰈), 레(鱧), 리(鯉),  
 이(鰈), 오즉(烏鰂), 비목어(比目魚), 만(鰻), 선(鱣), 악어(鰐魚), 사어  
 (鯊魚), 노어(鱸魚), 늑어(鰵魚), 시어(鱒魚), 유(鮪), 상(鱉), 진(鱮), 가  
 어(嘉魚), 후(鰲), 과개어(鍋蓋魚), 탄도(彈塗), 왕여(王餘, 회잔(膾  
 殘)), 옥근어(玉筋魚), 미어(米魚), 창어(鰓魚), 방(魴), 꺨추(鰻鱺), 제  
 어(鱗魚), 서(鰓), 아라어(阿羅魚), 습습어(鰓鰒魚), 활어(鱒魚), 조어  
 (鯧魚), 유어(魚+遺魚), 방어(蚌魚), 치어(鱖魚)의 동물 69종..

조수(鳥獸) 6권 인개류(鱗介類)

육어(鮭魚), 비어(飛魚), 문요(文鱈), 화상어(和尚魚), 합어(鯰魚), 인  
 어(人魚), 조어(鰈魚), 교어(鮫魚), 추(鱈), 침구어(針口魚), 용어(龍  
 魚), 강돈(江豚), 하(蝦), 해(蟹), 방(蚌), 수모(水母), 라(羸), 패(貝), 각  
 채(殼菜), 구각채(龜殼菜), 백현(白蜆), 합리(蛤蜊), 감(蚌), 토철(土  
 鐵), 정(蛭), 황현(黃蜆), 섬여(蟾蜍), 하마(蝦蟆), 축(鼃), 민(鼃), 접(蝶  
 蛸), 봉(蠶), 청령(靑蛉), 채(蠶), 지주(蜘蛛), 당랑(螳螂), 형  
 (螢), 복익(服翼), 누고(螻蛄), 승(蠅), 조(蠅), 문(蚊), 강랑(蜣螂), 아  
 (蛾), 비(蜚), 척확(蚻蝻), 맹(蟲), 잠(蠶), 의(蠟), 와우(蝸牛), 질(蛭), 즉  
 저(蝨蛆), 부유(蜉蝣), 몽(蠓), 진(蠓), 명령(螟蛉), 향(蠶), 창랑(蒼蠅),  
 사계(莎鷄), 사동(斯螽), 초충(草蟲, 부종(阜蟲)), 실솔(蟋蟀), 명(螟),  
 유연(蚰蜒), 이위(蜘蛛), 서부(鼠婦), 구인(蚯蚓), 기거충(寄居蟲), 비  
 제(蝨蟻), 점사(蝨蟻), 담(蟬), 백어(白魚), 과두(科斗), 용슬(龍蝨), 수  
 조(水蚤), 백슬(白虱), 조슬(蚤蝨), 취슬(臭蝨)의 동물 76종.

초목(草木) 1권 초류(草類)

황정(黃精), 창포(菖蒲), 인삼(人蔘), 천문동(天門冬), 감초(甘草), 지  
 황(地黃), 삼주(菴, 朮), 실새삼(토사자, 菟絲子), 밀(우슬, 牛膝), 충울

자(莞蔚子), 위유(萎蕤), 방규(防葵), 시호(柴胡), 맥문동(麥門冬), 독활(獨活), 강활(羌活), 승마(升麻), 질경이(차전자, 車前子), 목향(木香), 서여(薯蕷), 택사(澤瀉), 단삼(丹參), 원지(遠志), 용담초(龍膽草), 죽도리풀(세신, 細辛), 석곡(石斛), 파극(巴戟), 백호(白蒿), 적전(赤箭), 암려자(菴藷子), 절명(荝蕒), 시실(蓍實), 권백(卷栢), 남실(藍實), 궁궁(芎藭), 황련(黃連), 낙석(絡石), 질려자(疾藜子), 황기(黃耆), 육종용(肉苁蓉), 방풍(防風), 포황(蒲黃), 속단(續斷), 누로(漏蘆)의 식물 43종.

초목(草木) 2권 초류(草類)

천명정(天名精), 결명자(결명, 決明), 천(茜), 오미자(五味子), 선화(旋花), 사상(蛇床), 지부자(地膚子), 천세류(千歲藥), 경천(景天), 인진(茵陳), 두약(杜若), 사삼(沙參), 서장경(徐長卿), 운실(雲實), 장구채(왕불류행, 王不留行), 도꼬마리(시이, 葇耳), 계요등(갈, 葛), 지부용(地不容), 괭루(括樓), 고삼(苦參), 통탈목(통초, 通草), 타래붓꽃(여실, 蠡實), 현삼(玄參), 당귀(當歸), 마황(麻黃), 지모(知母), 패모(貝母), 백지(白芷), 음양곽(淫羊藿), 황금(黃芩), 구척(狗脊), 석룡예(石龍芮), 모(茅), 자완(紫菀), 개미취(자초, 紫草), 전호(前胡), 패장(敗醬), 백선(白鮮), 산장(酸漿), 두형(杜衡), 단삼(자삼, 紫參), 고본(藁本)의 식물 42종.

초목(草木) 3권 초류(草類)

석위(石韋), 비해(萆薢), 백미(白薇), 발계(菝葜), 대청(大靑), 애엽(艾葉), 악실(惡實), 수평(水萍), 옥과(玉瓜), 지유(地榆), 소계(小薊), 해조(海藻), 습사리(택란, 澤蘭), 방기(防己), 고량강(高良薑), 천마(天麻), 아위(阿魏), 백부(百部), 회향자(藜香子), 관동화(款冬花), 홍람(紅藍), (경)삼릉((京)三稜), 강황(薑黃), 필발(葶撥), 구장(藟醬), 울금

(鬱金), 노회(蘆薈), 육두구(肉荳蔻), 보골지(補骨脂), 영릉향(零陵香), 축사밀(縮沙蜜), 봉아(蓬莪), 적설초(積雪草), 백전(白前), 모시대(제니, 薺芑), 백약(百藥), 홍초(紅草), 사초(莎草), 필징가(華澄茄), 호황련(胡黃連), 시라(蒔蘿), 감송향(甘松香), 부규(鳧葵), 예장(鱧腸), 모향(茅香), 사군자(使君子)의 식물 46종..

초목(草木) 4권 초류(草類)

부자(附子), 반하(半夏), 호장(虎掌), 대황(大黃), 정력(葶藶), 도라지(길경, 桔梗), 양탕자(莨菪子), 초호(草蒿), 선복화(旋覆花), 사간(射干), 여라(藜蘆), 사함(蛇含), 촉칠(蜀漆), 감수(甘遂), 백렴(白斂), 청상(靑箱), 백급(白芨), 대극(大戟), 인우(茵芋), 관중(貫衆), 아자(牙子), 양척축(洋躑躅), 하수오(何首烏), 상륙(商陸), 위령선(威靈仙), 견우(牽牛), 피마자(蓖麻子, 蓖麻子), 천남성(天南星), 양제독(羊蹄朮), 고근(菰根), 편축(蔞蓄), 낭독(狼毒), 희렴(豨薟), 마편초(馬鞭草), 저근(苧根), 백두옹(白頭翁), 여로(蘿, 蘆), 귀구(鬼臼), 마두령(馬兜鈴), 선모(仙茅)의 식물 40종..

초목(草木) 5권 초류(草類)

유기노(劉寄奴), 골쇄보(骨碎補), 연교(連翹), 속수자(續隨子), 산두근(山豆根), 여여(蘭茹), 금성초(金星草), 울초(菴草), 학슬(鶴虱), 밀휴(蜜休), 적지리(赤地利), 자갈(紫葛), 육영(陸英), 곡정초(穀精草), 으름(예지자, 預知子), 호로파(葫蘆巴), 속새(목적, 木賊), 포공초(蒲公英), 우편(牛扁), 작장초(酢醬草), 하고초(夏枯草), 경실(尙實), 지금초(地錦草), 해금사(海金沙), 수영(水英), 여춘초(麗春草), 좌노초(坐拏草), 자근(紫堇), 행엽초(杏葉草), 수감초(水甘草), 지백(地柏), 자배룡아(紫背龍牙), 반도증(攀倒甌), 불갑초(佛甲草), 백유초(百乳草), 활석합초(撮石合草), 석현(石莧), 백량금(百兩金), 소청(小青), 곡절초

(曲節草)의 식물 40종..

초목(草木) 6권 초류(草類)

독각선(獨脚仙), 노근초(露筋草), 홍무초(紅茂草), 견종소(見腫消), 반천회(半天回), 용아초(龍牙草), 고개자(苦芥子), 야란(野蘭), 도관초(都管草), 소아군(小兒群), 보살초(菩薩草), 선인장(仙人掌), 자배금반(紫背金盤), 석소요(石逍遙), 호근초(胡蘆草), 무심초(無心草), 천리광(千里光), 구우초(九牛草), 자호(刺虎), 생과채(生瓜菜), 건수초(建水草), 자포(紫袍), 노아안정(老鴉眼睛), 천화분(天花粉), 석수(石垂), 경전초(瓊田草), 자금우(紫金牛), 계항초(鷄項草), 권삼(拳參), 근자(根子), 적손(赤孫), 전모초(田母草), 철선(鐵線), 천수근(天壽根), 백약조(百藥祖), 황료즉(黃療卽), 최풍사(催風使), 음지궤(陰地厥), 천리급(千里急), 지부용(地芙蓉)의 식물 40종..

초목(草木) 7권 초류(草類)

백두구(白豆蔻), 료(蓼), 담죽엽(淡竹葉), 길상초(吉祥草), 지초(芝草), 열절(烈節), 두경산(杜莖山), 황화료(黃花了), 포리초(布里草), 향마(香麻), 반변산(半邊山), 화탄모초(火炭母草), 아마수마(亞麻水麻), 울조위(鴉烏威), 묘질한(茆質汗), 지가자(地茄子), 지오공(地蜈蚣), 심마(蓴麻), 산강(山薑), 마접각(馬接脚), 마장근(馬腸根), 대목피(大木皮), 애중(崖稜), 아포(鶯抱), 계옹등(鷄翁藤), 야저미(野猪尾), 칠성초(七星草), 석남등(石南藤), 독용등(獨用藤), 과등(瓜藤), 금릉등(金陵藤), 혈등(血藤), 토홍산(土紅山), 함춘등(含春藤), 기파등(祈婆藤), 백릉등(百稜藤), 석합초(石合草), 개심초(芥心草), 당구자(棠毬子), 초림자(醋林子), 천선등(天仙藤)의 식물 41종.

초목(草木) 8권 목류(木類)

초(椒), 조협(皂莢), 가리륵(訶梨勒), 파두(巴豆), 랑(榔), 런(棟), 춘

(椿), 저(樗), 망초(莽草), 황약(黃藥), 해약(檉若), 백양(白楊), 광랑(桃榔), 남촉(南燭), 재(梓), 상(橡), 석남(石南), 목천료(木天蓼), 익지(益智), 서리(鼠李), 야자(椰子), 남등(南藤), 삼목(杉木), 접골목(接骨木), 난형(欒荊), 목별(木鼈), 조등(釣藤), 난화(欒華), 매목자(賣木子), 중려(櫻欄), 원화(莞花), 차수(茶樹), 야합(夜合), 동청(凍靑), 날추(刺楸), 상수(桑樹), 당리(棠梨), 저(도)수(楮(桃)樹), 균계(菌桂), 복우(伏牛), 밀몽(蜜蒙)의 식물 40종.

초목(草木) 9권 목류(木類)

송(松), 괴(槐), 백(栢), 유(榆), 산조(酸棗), 벽목(藥木), 칠수(漆樹), 오가피(五加皮), 모형(牡荊), 만형(蔓荊), 두중(杜仲), 풍수(楓樹), 유(蕤), 정향(丁香), 심향(沈香), 광향(藿香), 금앵(金櫻), 낙안목(落雁木), 대나무(죽(竹)), 오수유(吳茱萸), 빈랑(檳榔), 산치(山柅), 기린갈(麒麟竭), 용뇌(龍腦), 무이(燕薹), 지수(枳樹), 후박(厚朴), 태피(秦皮), 산수유(山茶莢), 저령(猪苓), 백극(白棘), 오약(烏藥), 몰약(沒藥), 암마륵(菴摩勒), 위모(衛矛), 해동피(海桐皮), 호장(虎杖)의 식물 42종..

초목(草木) 10권 소류(蔬類)

생강(薑, 薑), 동규(冬葵), 현(莧), 무청(燕菁), 과(瓜), 개(芥), 송채(菘菜), 용규(龍葵), 파(蔥, 葱), 구해(韭薤), 백양하(白蘘荷), 가소(假蘇), 소(蘇), 수소(水蘇), 향유(香薷), 박하(薄荷), 호(葫), 산(蒜), 번루(蘘蕪), 즈채(菹菜), 마란두(馬蘭頭), 가(茄), 쥬(蕨), 동호(苘蒿), 파채(菠菜), 호유(胡荽), 목숙(苜蓿), 와거채(萵苣菜), 녹각채(鹿角菜), 순채(蓴菜), 호(瓠), 변두(菹豆), 참채(蔄菜), 자강두(紫豇豆), 도두(刀豆), 고매(苦苣), 수근기(水斬薺), 지과아(地瓜兒), 제채(薺菜), 여호(藹蒿), 아이장(鶩兒腸), 불지갑(佛指甲), 사포도(蛇葡萄), 철소추(鐵掃帚),

모시풀(저, 苧), 야호나복(野胡蘿蔔), 야산약(野山藥), 계퇴아(鷄腿兒), 사과(絲瓜), 노아산(老鴉蒜), 감로(甘露), 자과(慈菰), 우(芋), 천과아(天과兒), 야낙리(野落籬), 안자채(眼子菜), 부장(浮薔), 우미온(牛尾溫), 수채(水菜), 구각적(狗脚跡), 오람담(烏藍擔), 썰미제(碎米齋), 등아아(燈鶯兒)의 식물 63종..

초목(草木) 11권 과류(菓類)

용안(龍眼), 호도(胡桃), 여지(荔枝), 리(梨), 이스라지나무(옥리, 郁李), 매(梅), 은행나무(행, 杏), 복숭아나무(도, 桃), 자두나무(리, 李), 석류나무(류, 榴), 동자(桐子), 련(蓮), 귤유(橘柚), 조(棗), 포도(葡萄), 밤나무(울, 栗), 복분자(覆盆子), 마름(릉, 菱), 앵도나무(櫻桃), 계두(鷄頭), 목과(木瓜), 시(柿), 비과(枇杷), 감자(甘蔗), 임금(林檎), 감람(橄欖), 온발(檳榔), 등(橙), 진자(榛子), 내(柰), 양매(楊梅), 송자(松子), 비자(檳子), 유감(乳柑), 호마(胡麻), 도미(稻米), 양미(粱米), 의이인(薏苡仁), 단서미(丹黍米), 보리(맥, 麥), 직미(稷米), 마분(麻蕒), 유마(油麻), 콩(두, 豆), 녹두(菘豆), 작맥(雀麥)의 식물 46종.

초목(草木) 12권 화훼류(花卉類)

목단(牡丹), 작약(芍藥), 국(菊), 란(蘭), 하(荷), 수선(水仙), 옥란(玉蘭), 말리(茉莉), 해당(海棠), 산다(山茶), 계화(桂花), 두견(杜鵑), 자미(紫薇), 백합(百合), 매괴(玫瑰), 서향(瑞香), 치자(梔子), 추규(秋葵), 구기(枸杞), 자형화(紫荊花), 산단(山丹), 목련(신이, 辛夷), 금봉화(禁鳳花), 석창포(石菖蒲), 계관화(鷄冠花), 전춘라(剪春羅), 장미(薔薇), 월계화(月季花), 능소화(凌霄花), 차매(茶梅), 파초(芭蕉), 흰화(萱花), 부용(芙蓉), 금경화(金莖花), 노소년(老少年), 옥잠화(玉簪花), 목향화(木香花), 자오화(子午花), 차미(茶藨), 금대화(錦帶花), 맥리화(麥李花), 보상화(寶相華), 수구화(繡毬花), 앵속화(鶯粟花), 전

지 목단(纏枝牡丹), 금등화(金燈花), 금사도(金絲桃), 추해당(秋海棠), 서번국(西番菊), 자동화(刺桐花), 추모단(秋牡丹), 석국(石菊), 만년청(萬年青), 악단화(渥丹花), 장춘국(長春菊)의 식물 55종..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俗呼’, ‘卽’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봉황	비익조	복어
鳳: 俗呼鳥王	比翼鳥: 謂之鸛鷗	鰻: 卽河豚

내용 기술 생물의 명칭, 형태, 습성, 맛, 설화, 색깔, 능력, 유사종, 약용, 명칭유래, 산지 등을 다루고 있다.

항목	내용
① 일명	흰화(萱花)는 일명 의남(宜男), 일명 망우(忘憂), 일명 연홍(緣笏)이라고 한다. / 萱花 一名宜男 一名忘憂 一名緣笏
② 형태	(동(棘)) 모습이 양과 같은데 하나의 뿔, 하나의 눈이며 눈에 귀 뒤에 있어서 동(棘)이라고 한다. / 狀如羊一角一目在耳後名曰棘
③ 습성	(학(鶴)) 항상 밤에 우는데 그 울음이 고랑해서 팔구 리에서도 들린다. / 常夜半鳴其鳴高亮聞八九里
④ 맛	(도꼬마리(시이, 葇耳)) 맛이 쓰다 / 味苦 // (갈근(葛根)) 맛이 달다 / 味甘
⑤ 설화	(합(鶻)) 이 새는 암컷이 날면 수컷이 따른다. 매달 새끼를 친다. 고로 서방 책에 음란한 사람이 벌을 받아 그 결과로 됐다고 한다. / 此鳥雌飛雄逐 月有子故西方之書以爲淫人受果其報
⑥ 색깔	(공작(孔雀)) 공작은 꼬리가 색이 많이 변한다. 혹은 홍색, 혹은

항목	내용
	은 황색으로 그 색이 정해지지 않는다. / 孔雀尾多變色或紅或黃其色無定
⑦ 능력	(지도(鶡鶩)) 유양산에 새가 있는데 모습이 새와 같다. 그 발이 붉은 색이라 지도라 한다. 가히 불을 막을 수 있다. / 柵陽山有鳥狀如鳥 其足赤色名曰鶡鶩 可以禦火
⑧ 유사종	(조(鵬)) 매와 비슷하며 짙은 흑색이고 민간에서 조조(皂雕)라고 한다. / 鵬似鷹而大黑色俗呼皂雕
⑨ 약용	(운실(雲實)) 기를 모아 통증을 멈추게 하고, 한열(寒熱), 소갈(消渴)을 없앤다. / 結氣止痛除寒熱消渴
⑩ 명칭 유래	(도꼬마리(시이, 藁耳)) 삼가 생각하건대, 시인이 권이(卷耳)라고 하고 이아(爾雅)에서 창이(蒼耳)라고 하고 광아(廣雅)에서 도꼬마리(시이, 藁耳)라고 하는데 다 열매로 이름을 얻은 것 같다. / 謹按詩人謂之卷耳 爾雅謂之蒼耳 廣雅謂之藁耳 皆以實得名也
⑪ 산지	(장구채(왕불류행, 王不留行)) 왕불류행은 태산 산골짜기에서 나는데 지금은 강절(江浙), 황하 근처를 아울러 다 있다. / 王不留行生泰山山谷 今江浙及並河近處皆有之

인용문헌 博物志, 爾雅, 說文解字, 禽經, 三蒼, 左傳, 淮南子, 廣雅 등

## 〈신편휘어(新編彙語)〉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6564) ‘신편휘어(新編彙語)’

### ■ 성격

『예문유취(藝文類聚)』, 『태평어람(太平御覽)』 등의 기술방법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옥해(玉海)』와 상대적으로 더욱 유사하다. 대략 천지(天地), 만물(萬物), 인(人)에 대해 이전에 주요 단어, 기록된 문헌의 이름을 먼저 들고 해당 문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상(詳)’, ‘호(互)’ 글자가 포함된 곳은 서로 다른 항목 설명 중 참조할 만한 곳을 기록하고 있다. 특정 항목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한자어 자체를 다수 나열하여 기록하는 방식은 아니고 항목 별로 주요 표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보 자체를 검색하는 용도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한 예전 문헌의 기록 확인이나 문학 작품창작 등의 목적으로 참조하는 데 편찬 목적이 있는 도서라고 할 수 있다.

### ■ 편저자

김진(金摺) 김진(金摺, 1585~?)은 조선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기중(起仲), 호는 추담(秋潭)·훈재(訓齋)·영재(詠齋)이다. 아버지는 부사(府使) 윤국(潤國)이며, 어머니는 우성정(禹成鼎)의 딸이다. 1610년 과거에 급제했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났다. 1630년 예안현감(禮安縣監)이 되었다가 적에게 항복했었다는 탄핵을 받는 등의 문제로 삭탈되고 충군(充軍)되었다가 풀려나 고향에서 학문에 매진했다고 한다.

■ 제작 시기 1653년

■ 권수 책수 59권 20책

■ 판본 필사본과 목판본이 전한다. 김진이 직접 편찬한 원본 휘어(彙語)는 전하지 않고, 1653년 심택(沈澤)과 권우(權嶠)가 『신편휘어(新編彙語)』를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59권 23책(목록 별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필사로 보충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684년 『신보휘어(新補彙語)』를 간행했는데 제목만 다를 뿐이고 내용상 차이는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59권 12책이고 추가 1책은 목록이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별히 어느 지역에 국한하거나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정보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 보인다.

방법 기존 문헌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목차

건도문(乾道門)/곤도문(坤道門)/만물문(萬物門)/백금(百禽)/백수(百獸)/인충(鱗蟲)/치충(多蟲)/백곡(百穀)/채(菜)/백수(百樹)/백과(百果)/백화(百花)/백초(百草)/지란(芝蘭)/인륜문(人倫門)/유도문(儒道門)/군도문(君道門)/신도문(臣道門)/천관문(天官門)/지관문(地官門)/

춘관문(春官門)/사례문(四禮門)/하관문(夏官門)/추관문(秋官門)/동관문(冬官門)/백용문(百用門)/인사문(人事門)/복식문(服食門)

## ■ 내용

분류 1차 분류로는 천지(天地), 만물(萬物), 인(人)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천문, 지리에 관한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는지 17개의 대항목 중에 천지는 각 한 개씩에 불과하다. 만물에 생물 등의 정보가 들어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간 생활의 항목이다. 육관(六官)에 관한 항목이 종류별로 각각 있고 그 외에도 사례(四禮), 복식 등의 항목이 들어 있다.

### 수록종수

#### (백금(百禽))

붕(鵬), 자규(子規), 학료(鶴鷄), 구옥(鸚鵡), 치(鴟), 효(鴛), 격(鴟), 제(鴉), 구(鳩), 추(鴛), 앵(鴛), 鴛, 학(鴛), 검(鴟), 반설(反舌), 흘(鷓), 비(蜚), 목(鴛), 학(鶴), 전어(鱸魚), 활(鷓), 계칙(鸚鵡), 꾀(鷓), 자고(鷓鴣), 흥(鴻), 황조(黃鳥), 연(燕), 한(鵠), 척령(鶴鷄), 안(鷓), 사(蛇), 청조(靑鳥), 응(鷹), 추(鷓), 마(馬), 곤(鷓), 두견(杜鵑), 초료(鷓鴣), 현(鰓), 란(鷓), 공작(孔雀), 앵무(鸚鵡), 악작(鴛鴦), 곡(鷓), 전(鷓), 효(梟), 산계(山鷄), 누(螻), 의(蟻), 작(雀), 로(鷓), 부예(鳧鷖), 원앙(鴛鴦), 저(豬), 압(鴨), 노자(鷓鴣), 연(鴛), 요(鷓), 골(鷓), 악(鴛), 휴(鷓), 아(鷓), 승(鷓), 구(狗), 작(鷓)의 동물 64종.

매(梅), 극(棘), 진(榛), 위(葦), 복숭아나무(도, 桃), 오동(梧桐), 대나무(죽(竹)), 지(枳), 피(稂, 稷), 호로(胡蘆), 조(棗), 봉래(蓬萊), 국(菊), 소(蘇), 저(樽), 보리(맥, 麥), 양(楊), 뽕나무(상, 桑) 등 식물종이 보인다

#### (백수(百獸))

시랑(豺狼), 성성(猩猩), 묘(貓), 호리(狐狸), 전서(田鼠), 서(鼠), 기린(麒麟), 호(虎), 표(豹), 시(兕), 웅(熊), 록(鹿), 장(獐), 토(兔), 산예(狻)

猊(猊), 균(麋), 미(麋), 주(麋), 경(麋), 예(麋), 여라(驢騾), 준(駿), 기(驥),  
려(駟), 마(馬), 우(牛), 양(羊), 돈(豚), 섬(蟾), 교(蛟), 악어(鰐魚)

(인충(鱗蟲)) 식물 : 1종

별(鼈), 하(蝦), 리(鯉), 교구(鮫鱈), 납(納), 부어(鮒魚), 철탕(虫+折  
蛻), 역(蝨)의 동물 8종. 식물은 1종 조(藻)

(갑충(甲蟲)) 동물 : 13종

해(蟹), 신향(蜃蛤), 경(鯨), 오(鼈), 별(鼈), 라(螺), 타(鼈), 윈(龜), 구  
(蚯), 구(龜), 방(蛙), 언정(蝦蛭), 휘(虺)

(치충(多蟲)) 동물 : 19종

접(蝶), 실솔(蟋蟀), 주(蛛), 문(蚊), 조슬(蚤蝨), 부유(蜉蝣), 선(蟬), 승  
(蠅), 형(螢), 와섬(蛙蟾), 연(蝸), 명령(螟蛉), 청령(蜻蛉), 당랑(螳螂),  
몽예(蠓蚋), 현(虻), 병(蛎), 맹(蝮), 하마(蝦蟆)

(백곡(百穀)) 식물 : 8종

벼(미, 米), 조(속, 粟), 낭유(稂莠), 콩(숙, 菽), 피(제, 稭), 보리(맥,  
麥), 밀(소맥, 小麥), 보리(대맥, 大麥), 기장(서, 黍)

(채(菜)) 식물 : 8종

창포(菖蒲), 여로(로, 蘆), 규(葵), 구(韭), 파(총, 葱), 해(薤), 려(藜), 과  
(瓜)

(백수(百樹)) 식물 : 10종

풍(楓), 려(櫟), 괴(槐), 유(榆), 극(棘), 송백(松柏), 기재(杞梓), 계(桂),  
회(檜), 류(柳)

(백과(百果)) 식물 : 8종

은행나무(행, 杏), 도리(桃李), 귤유(橘柚), 귤(감, 柑), 석류나무(류,  
榴), 여지(荔枝), 앵도나무(櫻桃), 시(柿)

(백화(百花)) 식물 : 4종

목단(牧丹), 작약(芍藥), 당(棠), 련(蓮)

(백초(百草)) 식물 : 9종

개구리밥(淸, 萍), 모(茅), 태(苔), 계요등(갈, 葛), 파초(芭蕉), 소애(蕭艾), 봉호(蓬蒿), 흰(萱), 형개(荊芥)

(지란(芝蘭)) 식물 : 2종

란(蘭), 죽순(竹筍)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曰’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새	꿩
二足而羽 謂之禽	山雞: 曰雉

### 내용 기술

항목	내용
① 일명	남방에 비익조(比翼鳥)가 있는데 짝을 이루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 그 이름은 겸(鵲)이다.
② 본성	(성선설적 관점 반영)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 그 울음이 슬프다.
③ 정의	다리가 둘이고 깃털이 있으면 금(禽, 날짐승)이라고 한다.
④ 시후	오월에 격(鵲, 때까치)은 비로소 울기 시작한다. 반설(反舌, 지빠귀)는 울음이 없다.
⑤ 고사	무창(武昌)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바뀌었다. 왕돈(王敦, 266~324)이 난을 일으켰다. (왕돈이 무창에서 암탉이 수탉으

항목	내용
	로 바뀐 것을 보고 하늘이 자기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 판단해서 난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보인다. 왕돈이 병사하여 난은 결국 실패했다.)
⑥ 대중 선호도	산예(狻猊) 털이 가장 좋다.
⑦ 기질	어별(魚臙)은 깊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⑧ 형태	(청령(蜻蛉)) 잠자리는 다리는 여섯이고 날개는 넷이다. 천지간에 날아다닌다.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 뿐 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다.

인용문헌 詩經, 書經, 易經, 吳越春秋, 文選, 六韜, 孫子, 老子, 墨子 등

## 〈역어유해(譯語類解)〉 해제

■ 원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323-3) ‘역어유해(譯語類解)’

### ■ 성격

『역어유해』는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된 한어(漢語)와 우리말의 분류 대역(分類 對譯) 어휘집이다. 우리 역관들이 만들 때 중국인 역관을 통해 확인을 거쳤다고 한다. 한어를 표제어로 하여 두 가지 한어 음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말이 대역되어 있다. 특별히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 특별한 경우에는 주석의 형태로 속음(俗音)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어 특별히 순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한자에 ‘丨’와 같이 한자의 옆에 ‘丨’ 표시를 해놓았다. 1775년에 빠진 어휘들과 차이가 발생한 어휘들을 모아서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가 간행되었다.

### ■ 편저자

신이행(愼以行) 특별히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 제작 시기 1690년

■ 권수 책수 2권 2책

■ 판본 현존하는 어떤 본도 서문이나 발문 등이 전혀 없어서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이 없는 것이 없어 보인다. 현재 다수의 이본이 전하고 있다. 필사본, 목판본이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목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은 다른 판본에 비해 내용이 적다. 목판본도 대체로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자획의 굵기의 일정함, 가로 세로의 비율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목판본은 내용상 차이는 거

의 없다.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새로 새기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소 있다. 가람문고본, 일사문고본, 규장각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장서각본, 연세대학교 도서관본, 일본 경도대 도서관본 등이 있다. 아세화문화사에서 1974년, 대제각에서 1986년, 홍문각에서 1995년 영인, 출판하였다.

####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중국 지역마다 다른 단어, 우리나라에서 다른 단어 등을 일부 기록하고 있으나 대체로 특정 지역 위주로 서술된 것은 아니다.

방법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단어를 기록하고 중국인 역관의 확인을 거쳤다고 알려져 있다.

#### ■ 목차

권상: 천문(天文)/시령(時令)/기후(氣候)/지리(地理)/궁궐(宮闕)/관부(官府)/공식(公式)/관직(官職)/제사(祭祀)/성곽(城郭)/교량(橋梁)/학교(學校)/과거(科擧)/옥택(屋宅)/교열(教閱)/군기(軍器)/전어(田漁)/관역(館驛)/창고(倉庫)/사관(寺觀)/존비(尊卑)/인품(人品)/경중(敬重)/매욕(罵辱)/신체(身體)/잉산(孕産)/기식(氣息)/동정(動靜)/예도(禮度)/혼취(婚娶)/상장(喪葬)/복식(服飾)/소세(梳洗)/식이(食餌)/친속(親屬)/연향(宴享)/질병(疾病)/의약(醫藥)/복서(卜筮)/산수(算數)/쟁송(爭訟)/형옥(刑獄)/매매(買賣)

권하: 진보(珍寶)/잠상(蠶桑)/직조(織造)/재봉(裁縫)/전농(田農)/화곡(禾穀)/채소(菜蔬)/기구(器具)/안비(鞍轡)/주선(舟船)/차량(車輛)/기희(技戲)/비금(飛禽)/주수(走獸)/곤충(昆蟲)/수족(水族)/화초(花草)/수목(樹木)/쇄설(瑣說)/

## ■ 내용

분류 정확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분류의 순서는 일단 유서(類書)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지인물(天地人物)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술통역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지(天地)에 관한 항목은 적고 대부분 인과 물(物)에 관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항목을 설정해서 단어를 정리하고 자주 사용된다고 판단한 문장은 항목별로 후반부에 몰아 둔 경우가 많다. 제일 마지막 항목으로 ‘쇄설’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앞에서 다루지 못한 표현들을 모아두었다.

수록 종수 (화곡(禾穀) 식물 : 33종

도자(稻子, 벼), 도미(稻米, 니발), 대미(大米), 수도미(水稻米, 논에 난 쌀), 한도미(旱稻米, 산도미), 도화미(桃花米, 불근쌀), 보리(대맥, 대麥, 보리), 밀(소맥, 小麥, 밀), 교맥(蕎麥, 메밀), 미자(麻/黍, 기장), 서자(黍子), 황점미자(黃粘麻/黍子, 출기장), 곡자(穀子, 것조), 소미(小米, 조쌀), 대황미(大黃米, 기장쌀), 황소미(黃小米, 태조쌀), 흑점곡미(黑粘穀米, 청낭미), 패자(稗子, 피), 촉촉(葛葛, 슈슈), 고량(高粱), 옥촉촉(玉葛葛, 옥슈슈), 황두(黃豆, 누른콩), 흑두(黑豆, 가문콩), 소두(小豆, 팥), 녹두(菘豆), 완두(莞豆, 광장이), 강두(豇豆), 장두(長豆), 옥미주자(玉米珠子, 울모쌀, 옥아미(玉兒米)), 잠두(蚕豆, 누에함피먹는콩), 지마(芝麻, 참깨), 소자(蘇子, 들깨), 영대맥(零大麥, 귀우리)

(채소(菜蔬) 식물 : 80종

두아채(豆芽菜, 녹두기름), 요아채(蓼兒菜, 역피기름), 규채(葵菜, 아혹), 와거채(蒿苳菜, 부로), 정자(莖子, 부룻대), 백채(白菜, 빈지), 나

복(蘿蔔, 땃무우), 만청(蔓菁, 씯무우), 수라복(水蘿蔔, 물한땃무우),  
 호라복(胡蘿蔔, 노른땃무우), 갓(개채, 芥菜, 갓), 수근채(水芹菜, 미  
 나리), 총채(葱菜), 산채(蒜菜, 마늘), 구채(韭菜, 엄구), 해채(薺菜, 부  
 치), 적근채(赤根菜, 시근치), 우방채(牛蒡菜, 우왕), 우두(芋頭, 토  
 란), 우내(芋妳, 토란알), 원유(芫荽, 고식), 형개(荊芥, 덩가), 박하(薄  
 荷), 차즈기(자소, 紫蘇, 츄조기), 동과(冬瓜, 동화), 오이(黃瓜, 黃瓜,  
 외), 삼판과(三瓣瓜, 세골외), 사판과(四瓣瓜, 네골외), 침과(蛄瓜, 침  
 외), 향과(香瓜), 서과(西瓜, 슈박), 초과(稍瓜, 소과), 사과(絲瓜, 수세  
 외), 천과(天瓜, 하늘타리), 토과(土瓜, 쥐참외), 호로(葫蘆, 박), 호로  
 사(葫蘆絲, 박고지으), 호로선(葫蘆旋), 가자(茄子, 가지), 수가자(水  
 茄子), 조가자(早茄子), 곡곡채(曲曲菜, 샤라부로), 전청(田菁, 샨태  
 을), 고채(苦菜), 낙려(洛藜, 도트랏), 현채(莧菜, 비름), 인행(荳苳,  
 제채(薺菜, 나히), 동호(尚蒿, 동고치), 마제채(馬蹄菜, 곰들리), 산장  
 (酸蔣, 승아), 양제채(羊蹄菜, 솔웃), 황화채(黃花菜, 넙늬물), 구각종  
 채(狗脚腫菜, 곶다대), 창출채(蒼朮菜, 삼뉘), 자화채(紫花菜, 도아  
 리), 용규채(龍葵菜), 권두채(拳頭菜, 고사리), 참나물(산근채, 山芹  
 菜, 참늬물), 우채(藕菜, 년근치), 관중채(貫衆菜, 회춤이), 요두채(搖  
 頭菜, 들읍), 군달채(君蓬菜, 근대), 청각채(靑角菜, 청각), 녹각채(鹿  
 角菜), 황각채(黃角菜, 듨북이), 필관채(筆管菜, 멸), 용수채(龍鬚菜),  
 균(菌, 버섯), 마과(磨果), 목이(木耳, 남젓버섯), 향심(香蕈, 표고), 송  
 마과(松磨果, 송이(松耳)), 야산(野蒜, 족지), 목숙(苜蓿, 겨우목), 길  
 경(菘萹, 도랏), 산삼(山蔘, 더덕), 모시대(제니, 薺萹, 겨류기), 마(山  
 藥, 마), 누호(萹蒿, 을뼉), 총필두(葱筆頭, 파종자)

(비금(飛禽)) 동물 : 94종

가계(家鷄, 닭), 공계(公鷄, 수닭), 모계(母鷄, 암닭), 초계(驃鷄, 순계

(
 筍鷄, 연계), 선계(驪鷄, 불아은둑), 화계(花鷄, 구수둑), 합팔계(哈八鷄, 화왓둑), 봉두계(蓬頭鷄, 두거머리둑), 아(鵝, 거유), 아추(鵝雛, 거유삿기), 압(鴨, 집울히), 합자(鴿子, 비둘기), 발합(鴿鴿), 반구(班鳩, 뫼비둘기), 해청(海靑, 희동청), 아골(鴉鵒, 나친이), 황웅(黃鷹, 갈지계), 황전자(黃鷓子, 구겨내), 농투아(弄鬪兒, 되롱태), 송아(馘兒), 외추웅(窩雛鷹, 익두매), 야웅(野鷹, 피히무근매), 토골(兔鷓, 익더귀), 노웅(老鷹, 댕두럭기), 백황웅(白黃鷹, 튀곤), 백각웅(白角鷹, 권진), 추웅(秋鷹, 보라매), 화보(花鵝, 걸피여기), 백웅(百雄, 파하), 조웅(皂鷹, 수리), 조조(皂鷓, 흑웅(黑鷹), 요자(鷄子, 새매), 청전(靑鷓, 공작(孔雀, 봉황(鳳凰), 앵가(鸚哥, 잉무), 선학(仙鶴, 학), 원앙(鴛鴦, 노사(鴛鴦, 하야로비), 노관(老鸛, 한새), 자로(鶯鶯, 두로미), 노아(老鴉, 가마괴, 老駝), 한아(寒鴉, 환아(環鴉, 굴가마괴), 수로아(水老鴉, 가마오디), 오귀(烏鬼), 요웅(鷄鷹, 쇼로기), 아로교(鵝老鵝), 희작(喜鵲, 가치), 영작(靈鵲, 야계(野鷄, 썩), 황계(黃鷄, 꿩고리), 황록(黃鷄, 탁목관(啄木官, 더구리), 호연(胡鷺, 명막이), 교연(巧鷺, 줄연(拙燕, 저비), 안(鴈, 기러기), 야압자(野鴨子, 뫼울히), 소압자(梳鴨子, 비울히), 천아(天鵝, 곤이), 도하(陶河, 사드새), 마작(麻雀, 춤새), 가작(家雀, 암순(鸚鵡, 뫼츠라기), 창경(鸛鷄, 알이새), 규천자(叫天子, 취작(翠雀, 쇠새), 차조(茶鳥, 콩새), 홍학(紅鷄, 다와기), 나전자(羅甸子, 더뒤), 수찰자(水札子, 도요새), 보자(鴿子, 너시), 휴류(鴝鵒, 부형이, 狼呼), 마포랑(馬布郎, 개가마리), 조화(造化, 舊譯 종다리), 동자(銅鴉, 수동다리), 납자(蠟鴉, 암종다리), 강웅(江鷹, 굴머기), 해묘아(海貓兒), 청용(靑春+鳥, 오가리), 석전아(石錢兒, 고지새), 찬목아(鑽木兒, 종고비), 편복(蝙蝠, 뽕쥐), 수불자(水不刺, 할미새), 설고아(雪姑兒), 두견(杜鵑, 두견이), 한화충(寒火蟲), 야묘(夜貓,

옷밤이), 독각(禿角), 계칙(鶻鷄, 꾀뚝, 듄부기), 초료(鶴鷄, 법새)

(주수(走獸)) 동물 : 119종

황마(黃馬, 고라뉘), 적마(赤馬, 절싸뉘), 백마(白馬, 빅설아뉘), 은갈  
마(銀褐馬, 설아뉘), 옥정마(玉頂馬, 쇼티녕마), 흑마(黑馬, 가라뉘),  
홍사마(紅絲馬, 부루뉘), 표비마(豹臂馬, 구블자할), 분취마(粉嘴馬,  
거헝뉘), 백검마(白臉馬, 잠블뉘), 청마(靑馬, 총이뉘), 조류마(棗騮  
馬, 즈류마), 울색마(栗色馬, 굴헝뉘), 사명마(四明馬, 스족빅), 오명  
마(五明馬, 간자스족빅), 해류마(海驢馬, 가리운뉘), 흑종마(黑驄馬),  
화마(花馬, 율라뉘), 환안마(環眼馬, 골희눈뉘), 수비마(繡脾馬, 쇠느  
래브트뉘), 토황마(土黃馬, 곱믈뉘), 회마(灰馬, 추마뉘), 청충마(靑  
驄馬, 털총이), 안생마(眼生馬, 놀라눈뉘), 아마(兒馬, 아질개뉘), 선  
마(驪馬, 악대뉘), 대마(大馬), 과마(果馬, 암뉘), 마구자(馬駒子, 미야  
지), 은종마(銀鬃馬, 표뉘), 활비마(豁鼻馬, 코뉘), 나마(癩馬, 비르  
모른뉘), 개마(疥馬), 가마(癩馬, 저눈뉘), 점적마(點的馬, 가탈ㅎ는  
뉘), 찬마(馬+竄馬, 것눈뉘), 세점적(細點的, 세가탈), 살가적(撒癩  
的, 거티는뉘), 전첨마(前尖馬, 앞미티는뉘), 숙가마(熟癩馬, 들피딘  
뉘), 살제마(撒蹄馬, 굽ㄴ리는뉘), 약궤마(掠蹏馬, 빼는뉘), 제마(蹄  
馬, 츠는뉘), 약제(掠蹄), 교인마(咬人馬, 사릅무는뉘), 구경마(口硬  
馬, 아귀센뉘), 구연마(口軟馬, 아귀무른뉘), 나마(懶馬, 뵤뉘), 둔마  
(鈍馬), 급성마(急性馬, 성손뉘), 할마(瞎馬), 표마(驢馬, 슬진뉘), 비  
마(肥馬), 수마(瘦馬, 여윈뉘), 창마(瘡馬, 헝뉘), 광당마(光當馬,  
덜녕이는뉘), 염군마(念羣馬, 벗지는뉘), 향주마(響走馬, 넀이뉘는  
뉘), 망우(牛+莽牛, 한쇼), 대건(大犍), 건우(犍牛, 악대쇼), 건자(犍  
子), 모우(牡牛, 암쇼), 고우(牯牛), 유우(乳牛), 독아(犢兒, 쇠야지),  
화우(火牛, 어릉쇼), 여자(驢子, 나귀), 규려(叫驢, 수나귀), 초려(驢

驢, 암나귀), 여구자(驢駒子, 나귀삿기), 쾌려(快驢), 나려(懶驢, 뜬나  
 괴), 나자(驢子, 노새), 규라(駟驢, 수노새), 과라(騾驢, 암노새), 구라  
 자(駒驢子, 삿기노새), 아저(兒豬, 수돛), 모저(母豬, 암돛), 저저(猪  
 豬, 돛삿기), 향구(香狗, 내맛논개), 장자구(獐子狗, 동경개), 녹미  
 구(鹿尾狗), 합팔구(哈八狗, 아래더론개), 사안구(四眼狗, 네눈개),  
 사자구(獅子狗, 더펄개), 화구(花狗, 어롱개), 아구(牙狗, 수개), 공구  
 (公狗, 초구(驛狗, 암개), 모구(母狗), 풍구(風狗, 미친개), 낙사구(絡  
 絲狗), 자위(刺蝟, 고슴돛), 저양(羝羊, 수양), 조양(臊羊), 모양(母羊,  
 암양), 갈양(羈羊, 악대양), 양고아(羊羔兒, 양의삿기), 면양(綿羊, 소  
 움티양), 고력(殺糶, 양염흘뽀나흔것), 산양(山羊, 염소), 고아(羔兒,  
 염소삿기), 묘아(猫兒, 괴), 낭묘(郎猫, 수괴), 아묘(兒猫), 여묘(女猫,  
 암괴), 화묘(花猫, 아롱괴), 표화묘(豹花猫, 금괴), 금사묘(金絲猫),  
 흑묘(黑猫, 거먼괴), 백묘(白猫, 쉼괴), 회묘(灰猫, 지괴), 모자(耗子,  
 쥐), 노서(老鼠), 분서(鼯鼠, 두더쥐), 사자(獅子, 사지), 상(象), 웅(熊,  
 곰), 노호(老虎, 범), 대충(大虫), 금사표(金絲豹, 표범), 낙타(駱駝, 약  
 대), 초서(貂鼠, 돈괴), 낭(狼, 일히), 각록(角鹿, 수사슴), 미록(麋鹿,  
 암사슴), 포자(麴子, 고라니), 향장(香獐, 사향노로), 아장(牙獐, 엄노  
 로), 초장(驛獐, 암노로), 장고아(獐羔兒, 놀니삿기), 산달(山獺, 녀우  
 리), 토표(土豹, 시라손), 흰자(獾子, 오소리), 토저(土猪), 호리(狐狸,  
 여으), 화호리(火狐狸, 불여으), 사호리(沙狐狸, 흰털섯썩여으), 수  
 달(水獺, 해룡(海龍), 야묘(野猫, 숭), 토아(兔兒, 툃기), 호손(獼猴,  
 납), 황서(黃鼠, 족저비), 산서(山鼠, 드라미, 송서(松鼠), 화서(花鼠))  
 (곤충(昆蟲)) 동물 : 73종

호접아(胡蝶兒, 납이), 홍아아(紅蛾兒, 불근납이), 백아아(白蛾兒, 흰  
 납이), 당랑(螳螂, 물뚱구우리), 촉직충(促織虫, 뱀장이), 직아(織兒,

귀도라미), 왕손(虹虫+孫), 청정자(蜻蛉子, 존자리), 추량아(秋涼兒, 미암이), 추선아(秋蟬兒), 반묘(斑猫, 갈외), 형화충(螢火蟲, 반되), 명화충(明火蟲, 초라자(草螺子, 들팡이), 와우(蝸牛), 수라자(水螺子, 골왕이), 전라(田螺, 지주(蜘蛛, 거미), 회주아(螭蛛兒, 말간거미), 희모(蟾母), 저충(蛆虫, 귀더기), 저조(蛆蟻), 오공(蜈蚣, 진에), 유연(蚰蜒, 자차리), 오조(蜈蚣, 놀여기), 다각충(多脚虫, 구더기), 백각충(百脚虫, 구인(蚯蚓, 디렁이), 지룡(地龍), 곡선(蚰蟻), 참충(饑虫, 거위), 회충(蛔虫), 곡척충(曲尺虫, 자자히, 곡곡충(曲曲虫)), 토구(土狗, 도로래), 납고(蠟蝱), 슬자(虱子, 니), 기자(蟻子, 혀), 도조(跳蚤, 벼룩), 구조(狗蚤, 개벼룩), 취충(臭虫, 빈대), 벽슬(壁虱), 벽어(壁魚, 빈대줄), 서어(書魚), 초묘충아(焦苗虫兒, 닥장벌레), 주충(蛀虫, 줌), 두충(蠹虫, 목중충(木中虫)), 제조(蟻蟻, 굼병이), 승자(蠅子, 파리), 창승(蒼蠅), 문자(蚊子, 모기), 하맹(夏蟲, 등의), 구승(狗蠅, 개파리), 봉자(蜂子, 벌), 세요봉(細腰蜂, 바드리벌), 장랑(蜚蠊, 박희), 금포충(金包虫, 부반(負蟻, 쥐며느리), 습생충(濕生蟲), 마책(螞蚱, 뭇도기), 마의(螞蟻, 개야미), 황충(蝗虫), 마황(馬蝗, 거머리), 과두(蝻蚪, 올챙이), 청와(青蛙, 청개구리), 전계(田鷄, 머구리), 흑마(黑蠶, 뚝터비), 섬여(蟾蜍), 나하마(癩蝦蟆, 움뚝터비), 구수(蠶嫂, 그리매), 음생충(陰生虫, 흐르사리), 초비(草蠶, 진되), 정도충(釘倒虫, 장고아비), 양라자(癢癩子, 쇠야기), 웅작아(瓮雀兒, 백저(白蛆, 식), 백사(白蟻), 마사자(馬蛇子, 도마비암), 영원(蠨蛸), 복사(蝮蛇, 독사), 토반사(土蟠蛇), 언정(堰蜓, 되룡), 혈자(蠟子, 전갈)의 동물 77가지 명칭이 보인다.

(수족(水族))동물 : 77종

팔초어(八梢魚, 문어), 팔대어(八帶魚), 소팔초어(小八梢魚, 낙디),

대구어(大口魚, 대구), 화구어(吳口魚), 이어(鯉魚), 늑어(肋魚, 준티),  
 찰도어(鋸刀魚), 연어(鱧魚, 년어), 오적어(烏鰽魚, 오증아), 방어(魴  
 魚, 방어), 오어(烏魚, 가물티), 화두어(火頭魚), 흑어(黑魚), 점어(鮎  
 魚, 머유기), 옥판어(玉板魚, 전어), 황어(黃魚, 황티), 상양어(湘洋魚,  
 가오리), 이자어(梨子魚), 홍어(洪魚), 사어(鯊魚, 상어), 도초어(刀梢  
 魚, 위어), 여자(蠣子, 굴), 여황(蠣蝗, 여방(蠣房), 정장(蛭腸, 가리  
 맛), 복어(鰻魚, 싱포), 석결명(石決明), 합랄(蛤蜊, 이혹), 붕가(朋蚶,  
 금조개), 면조어(麵條魚, 비어), 민어(民魚), 발어(拔魚, 망어), 망어  
 (芒魚), 수어(秀魚, 수어), 사어(梭魚), 석수어(石首魚, 조괴), 소어(蘇  
 魚, 반당어), 장구어(樟口魚), 고도어(古道魚, 고도리), 즉어(鰱魚, 붕  
 어), 노어(鱸魚, 룡어), 중순어(重唇魚, 닷티), 구취어(狗嘴魚), 니추  
 어(泥鰱魚, 밧그리), 추생어(秋生魚, 은구어), 돈어(鮑魚, 복), 하돈(河  
 鮑), 군대어(裙帶魚, 갈티), 황선(黃鱸, 비얌당어), 왕팔(王八, 자라),  
 단어(團魚), 오귀(烏龜, 거북), 방해(螃蟹, 게), 첨제(尖臍, 수게), 단제  
 (團臍, 암게), 자고(刺古, 가재), 석오(石螯, 도충(倒虫), 해게(海鷄,  
 곱게), 하아(蝦兒, 새오), 양자(昂刺, 자가사리), 강돈(江鮓, 몰아치),  
 켈어(鰻魚, 소과리), 금린어(錦鱗魚), 선정어(缸頂魚, 상필이), 선어  
 (鱸魚, 드렁허리), 사골락(沙骨落, 모래므디), 경자어(鏡子魚, 가자  
 미), 혜저어(鞋底魚, 혀대), 가계어(家鷄魚, 도미), 은어(銀魚), 해삼  
 (海參), 담채(淡菜, 홍합), 나사(螺螄, 소라), 토라(土螺, 우렁이), 청어  
 (靑魚)

(화초(花草)) 식물 : 96종

모단(牡丹, 모란), 작약(芍藥, 작약), 해당(海棠, 히당), 장미(薔薇), 우  
 화(藕花, 년꽃, 부용(芙蓉), 홍련화(紅蓮花), 연봉(蓮蓬, 년송이), 연방  
 (蓮房), 연자(蓮子), 능각(菱角, 마람), 수울(水栗), 규화(葵花), 국화



리), 포방(蒲栴, 부돌주지), 갈등(葛藤, 좃), 등자(藤子, 出鬚倚蔓), 호  
마(蒿麻, 삼), 선마(線麻, 조라삼), 경마(鏡麻, 어저귀, 백마(白麻)), 야  
마(野麻, 들삼)

(수목(樹木)) 식물 : 59종

차조수(茶條樹, 신나모), 색목(色木), 발리수(撥羅樹, 녀갈나모), 작  
목(柞木, 가랑나모), 철력수(鐵櫟樹, 소리춤나모), 청강수(靑杠樹),  
곡목(榭木), 역실(櫟實, 도토리), 조두(皂斗), 조각수(皂角水, 주염나  
모), 과송수(果松樹, 소나모), 송탑자(松塔子, 솔방울), 자송(刺松, 노  
가즈), 백송(栢松, 측백), 편송(匾松), 회송(檜松, 짓나모), 유리목(榆  
理木, 오리나모), 질러목(蒺藜木), 가목(椴木, 피나모), 우근목(牛筋  
木, 박달나모), 곡리목(曲理木, 들피), 고리목(苦理木, 무프레), 상수  
(桑樹, 뽕나모), 상심(桑椹, 오디), 괴수(槐樹, 회화나모, 청괴수(靑槐  
樹)), 춘수(椿樹, 튕나모), 오동수(梧桐樹, 머피나모), 청양수(靑楊樹,  
청양목), 백양수(白楊樹, 비양목), 황양목(黃楊木), 추등수(醜橙樹,  
팅즈나모), 산초수(山椒樹, 분디나모), 옥리수(郁李樹, 뫓이스랏나  
모), 귀전수(鬼箭樹, 회나모), 포화목(炮火木, 다릅나모), 수고리(水  
苦梨, 들외나모), 자유수(刺榆樹, 스피나모), 자추수(刺楸樹, 엄나  
모), 사목(沙木, 즈작나모), 압각수(鴨脚樹, 은항나모), 백과수(白果  
樹), 난목(暖木, 황벽나모), 황벽목(黃檗木), 취춘수(臭椿樹, 개독나  
모), 호목수(虎目樹), 산춘(山椿), 삼목(杉木, 익개나모), 화피목(樺皮  
木, 붓나모), 소목(蘇木, 다목), 형조(荊條, 팔리), 계수(桂樹), 추경(秋  
景, 단풍(丹楓)), 백유수(白榆樹, 르릅나모), 황괴수(黃槐樹, 느티나  
모), 황유수(黃榆樹), 화리목(花梨木), 류수(柳樹, 버들나모)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  
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대체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一云’, ‘一作’, ‘俗稱’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박고지	오징어	뜸부기	자벌레	삼목
葫蘆絲: 云葫 蘆條	老鴉: 一云 老鴉	鶻鶻: 一名 뜸부기	曲尺虫: 一作 曲曲虫	杉木: 我俗稱 익개나모

내용 기술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別種,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 뿐 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다. 어느 용어든 자세한 설명이 붙어있는 경우는 없다.

항목	내용
① 일명	(연꽃) 부용(芙蓉)이라고 한다.
② 새끼 명칭	오리, 비둘기, 곤줄박이 모두 추(雛)를 쓴다.
③ 중국어 발음	(편복(蝙蝠)) 혹은 ‘벼부’라고 한다.
④ 색깔	(홍련화(紅蓮花)) 색깔이 다양하다.
⑤ 방언	(취춘수(臭椿樹)) 강동(江東)에서는 호목수(虎目樹)라고 한다.

인용문헌 老乞大, 朴通事, 老朴集覽 등

## 〈유원총보(類苑叢寶)〉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奎6508) ‘유원총보(類苑叢寶)’

### ■ 성격

조선 전기 『고사촬요(攷事撮要)』가 있으나 특정 분야에 치우치고 양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는데 이를 계승 발전시킨 본격적인 유서로 평가된다. 김육의 서문에 송대에 나온 『사문유취(事文類聚)』를 중심으로 하여 『예문유취(藝文類聚)』, 『당유함(唐類函)』, 『천중기(天中記)』, 『산당사고(山堂肆考)』, 『운부군옥(韻府群玉)』 등을 참조하여 완성했다고 한다. 대체로 천지인(天地人) 만물(萬物)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항목별로 중요한 용어, 문장 등을 인용하고 관련 문헌의 표현, 설명을 정리하고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관직문 자체만으로도 양적으로 적지 않은 편인데 하위 항목도 있는 만큼 비슷한 종류의 다른 문헌들보다 관직문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 ■ 편저자

김육(金堉) 김육(金堉, 1580~1658)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청풍(淸風)이며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광해군 때에 청금록(靑衿錄)에서 대북파의 정인홍의 이름을 삭제한 사건의 주동자로 인정되어 대과 응시를 금지 당하고 가평 잠곡에 은거하였다. 인조 반정으로 진출했으며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시문을 모은 『잠곡유고(潛谷遺稿)』와 『잠곡별고(潛谷別稿)』, 『잠곡유고보유(潛谷遺稿補遺)』, 『잠곡속고

(潛谷續稿)』가 전한다.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辟瘟方)』을 편찬했고 『인조실록(仁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 제작 시기 1643년

■ 권수 책수 47권 30책

■ 판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로 47권 20책, 47권 30책, 47권 22책, 46권 22책, 44권 20책, 47권 23책 본 등의 이본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일부 결본인 46권 20책, 47권 25책 본이 있다. 일부 이본은 전반부의 목차에 차이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유원총보초(類苑叢寶抄)』가 소장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47권 29책, 47권 20책 본이 있다. 1980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했으며 2010년부터 번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관직문(官職門)까지 번역되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별히 어느 지역에 국한하거나, 어느 지역 현지 조사를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방법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정리해서 편집하였다.

■ 목차

천도문(天道門)/천시문(天時門)/ 지도문(地道門)/ 제왕문(帝王門)/  
관직문(官職門)/ 인륜문(人倫門)/ 인도문(人道門)/ 인사문(人事門)/  
문학문(文學門)/ 필문문(筆墨門)/ 새인문(璽印門)/ 진보문(珍寶門)/  
포백문(布帛門)/ 기용문(器用門)/음식문(飲食門)/ 관복문(冠服門)/  
미곡문(米穀門)/ 초목문(草木門)/ 조수문(鳥獸門)/ 충어문(蟲魚門)/  
부록(附錄)

## ■ 내용

분류 1차 분류로는 천지인물(天地人物)의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천, 지, 인, 물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천의 항목이 2개, 지의 항목이 1개, 인의 항목이 5개, 물의 항목이 12개라고 할 수 있다. 인륜 항목 앞에 제왕과 관직이 먼저 등장하고 특히 관직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수가 많으며 이호예병형(吏戶禮兵刑)의 하위 항목을 다시 두고 있다. 관직문과 그 하위 항목인 이호예병형부가 양적으로 가장 많다.

### 수록 종수

#### (미곡문(米穀門))

피(직, 稷), 수수(출, 秬), 기장(서, 黍), 도(稻), 마(麻), 대소두(大小豆), 보리(대맥, 大麥, 모(麩), 숙맥(宿麥)), 밀(소맥, 小麥, 래(稈)) 콩(숙, 菽), 량(梁), 고(菰), 은행나무(행, 杏), 자(棗), 마(麻), 사(師), 호유(胡蘆, 향유(香蘆)), 호두(胡豆, 국두(國豆)), 거승(巨勝), 백작약(白芍藥), 구(韭), 가자(茄子, 자과(紫瓜)), 파(총, 葱), 해(薤), 만청(蔓菁), 개(芥), 나복(蘿菔), 순(蓴), 래(萊), 밤나무(을, 栗), 화(禾)의 식물 31종. 황명(蝗螟), 곡(鶻), 달(獺)의 동물 3종.

#### (초목문(草木門))

지(芝, 영지(靈芝)), 석지(石芝), 목지(木芝, 자지(紫芝)), 초지(草芝), 계수(桂樹), 청운지(靑雲芝), 금란지(金蘭芝), 용선지(龍仙芝), 자주지(紫珠芝), 주지(朱芝), 월지(月芝), 산지(山芝), 화지(火芝), 적송(赤松), 인지(人芝), 월정지(月精芝), 흑지(黑芝, 현지(玄芝)), 금지(金芝, 황지(黃芝)), 만년지(萬年芝), 야광지(夜光芝), 백운지(白雲芝), 운모지(雲母芝), 화지(華芝), 귀지(鬼芝), 적지(赤芝, 단지(丹芝)), 청지(靑芝, 용지(龍芝)), 백지(白芝, 옥지(玉芝)), 택칠(澤漆), 균(菌), 상지(上

芝), 하지(下芝), 포(匏), 복숭아나무(도, 桃), 봉뇌지(鳳腦芝), 오덕지(五德芝), 란(蘭), 방풍(防風), 춘란(春蘭), 추란(秋蘭), 숭란(崇蘭), 봉미란(鳳尾蘭), 죽란(竹蘭), 석란(石蘭), 의이(薏苡), 마린(馬藷), 자국(紫菊), 구맥(瞿麥, 소국(小菊)), 원앙국(鴛鴦菊), 선복화(旋覆花, 애국(艾菊)), 감국(甘菊), 과(瓜), 백편과(白瓢瓜), 서과(西瓜), 자(蔗), 감자(甘蔗), 곤륜자(崑崙蔗), 죽자(竹蔗, 납자(蠟蔗)), 적자(荻蔗), 창포(菖蒲, 요구(堯韭), 창양(昌陽), 난손(蘭蓀)), 평(苹,萍, 표(藻), 수화(水花), 수소(水蘇, 수렴(水簾, 부채(芡菜)), 양(楊), 우(芋, 토지(土芝), 우거(芋渠, 우괴(芋魁), 거(莒)), 파초(芭蕉, 파저(芭苴), 감초(甘蕉)), 부거(芡蕒, 수지단(水之丹), 택지(澤芝, 수화(水花)), 마름(蓐, 菱, 룡(陵, 기름(芰菱), 수표(水票), 해구(薜荔)), 자름(紫菱, 고(菰), 상(橡), 온조(蘆藻), 태(苔, 석발(石髮), 수의(水衣), 원소(圓蓼), 녹전(綠錢), 녹해(綠薺), 녹태(綠苔), 석사(昔邪), 오구(烏韭), 원영(垣贏), 천구(天韭), 서구(鼠韭), 해조(海藻, 해태(海苔), 해라(海羅)), 감초(甘草), 제(薺), 고초(苦草), 정력(葶藶), 명래(蓂菜), 황정(黃精), 용추(龍芻), 영떡(嬰蓂), 빈초(蓴草), 훈초(薰草), 오색초(五色草), 삼백초(三白草), 운초(芸草), 여향(女香), 토사(兔絲), 천문동(天門冬), 서여(薯蕷), 삼주(출, 朮), 익지(益智), 송(松), 백(栢, 즈백(汁栢, 국(掬)), 뽕나무(상, 桑), 괴(槐), 풍(楓), 회(檜), 오동(梧桐), 대나무(죽(竹)), 순(筍, 맹(萌), 약죽(籊竹), 태(筴), 죽태(竹胎), 죽아(竹牙), 줄(笛, 초황(初篁)), 매(梅), 앵도나무(櫻桃, 주수(朱茱), 맥영(麥英), 애밀(崖蜜), 복숭아나무(도, 桃), 이내(李柰), 석류(石榴), 구기(枸杞, 선인장(仙人掌), 해당(海棠), 조(棗), 리(梨, 쾌과(快果)), 은행(銀杏, 압각(鴨脚)), 여지(荔枝), 포도(葡萄, 마유(馬乳), 흑수정(黑水精), 모단(牡丹), 작약(芍藥), 천세(千歲), 향개(香蓋), 수룡(垂龍), 반혼(返魂), 무환(無患), 불회(不

灰), 멸영(滅影), 석로(釋勞), 오향(五香), 광랑(桃榔), 백정(白櫻), 황양(黃楊), 봉미초(鳳尾焦)의 식물 125종.

육지(肉芝), 섬여(蟾蜍), 황룡지(黃龍芝), 산호(珊瑚), 마(馬), 창응(蒼鷹), 구(鳩), 려(驢), 사자(獅子), 서(鼠), 계(鷄), 기린(麒麟), 란(鸞)의 동물 13종.

(조수문(鳥獸門))

조(鳥), 봉(鳳), 비취(翡翠), 어호(魚虎), 어사(魚師), 홀(鷓), 홀수조(鷓水鳥), 학(鶴), 공작(孔雀), 홍안(鴻雁), 주조(朱鳥), 홍곡(鴻鵠), 아(鵞), 서안(舒雁), 가(駝), 압(鴨), 서부(舒鳧), 목야부(鶩野鳧), 계(雞), 촉야(燭夜), 토수계(吐綬雞, 진주계(珍珠雞)), 하마(蝦蟆), 산계(山鷄), 구(鷗), 수호(水鴨), 치(雉, 요(鷄), 치(鷓), 희(鷓), 준(鷓), 두견(杜鵑, 두우(杜宇), 자규(子規), 주주(周周), 연(燕, 천안(天安), 양백을(梁白乙), 의이(鷓鷃), 작(雀, 가빈(嘉賓)), 응(鷹, 상구(鷓鳩), 응준(鷹隼)), 요(鷓), 해요(海鷓), 앵무(鸚鵡, 능언조(能言鳥), 구옥(鸚鵡), 오(烏, 효조(孝鳥)), 작(鷓, 비박(飛駮), 신녀(神女), 추니(芻尼)), 합(鵠, 비노(飛奴, 구(鳩, 자관(自關, 낭역(郎翟)), 백구(白鳩), 앵(鶯, 황리(黃鸝), 창경(倉庚), 황조(黃鳥), 이류(鸚鵡), 상경(商庚), 여황(鶯黃), 초작(楚雀), 박서(搏黍), 관서(關西)), 원앙(鴛鴦), 진길료(秦吉了), 포곡(布穀), 매귀(買銳), 노자(鷓鷃), 역(鴉), 한호충(寒號蟲), 죽계(竹鷄), 납취(蠟嘴), 기도(鷓鷃), 지작(鷓鷃), 금오(金吾), 귀비(歸飛), 서조(瑞鳥), 타조(駝鳥), 오택(鶩澤, 제호(鷓鷃)), 상(鷓), 비렴(飛廉, 용작(龍雀), 신천옹(信天翁), 기린(麒麟), 추우(騶虞), 사(獅, 산예(狻猊), 백택(白澤), 서(犀), 상(象), 시(兕), 호(虎, 대충(大蟲), 응(態), 록(鹿), 원후(猿猴), 호리(狐狸), 시랑(豺狼), 우(牛), 양(羊, 염수(髻鬚)), 구(狗), 시(豕, 체(彘)) 여라(驢騾), 묘(猫), 서(鼠), 낙타(駱駝), 토(兔), 초

(貂), 비견(比肩), 야과(野婆), 산혼(山 狝+軍)의 동물 71종.

(충어문(蟲魚門))

용(龍), 귀(龜), 어(魚), 비목어(比目魚), 오적(烏賊, 오족(烏鯽)), 제어(蟹魚), 시어(鮒魚, 전어(箭魚)), 우어(牛魚), 구사(狗鯊, 구두어(狗頭魚)), 선어(鱗魚), 호두어(虎頭魚, 사호(鯊虎), 어호(魚虎)), 요어(鯨魚), 윈별(黿鼉), 별(鰲), 해(蟹), 방합(蚌蛤), 라(螺, 러(蠶)), 하(蝦), 선(蟬), 봉(蜂), 의(蟻), 형(螢, 휘야(暉夜), 린(燐, 단량(丹良), 야광(夜光), 소촉(宵燭), 승(蠅), 창승(蒼蠅), 문(蚊, 예(蚋)), 지주(蜘蛛), 하(蝦), 와(蛙), 실슬(蟋蟀), 황(蝗), 접(蝶, 험접(蛺蝶), 야야(野蛾), 풍침(風蝶), 호접(胡蝶)), 편복(蝙蝠), 강랑(蜚螂), 당랑(螳螂), 청정(蜻蛉, 제승(諸乘), 강이(螻蛄), 청령(蜻蛉), 낭령(螂蛉), 구인(蚯蚓, 근인(蝻蚓), 완선(蜿蟪), 토룡(土龍), 지룡(地龍), 당인(蟪螻), 구인(胸臆), 한헌(寒蟪), 슬(蝨), 사(蛇), 벽전충(壁錢蟲), 멸몽(蟻矇, 멸연(蟻烟), 무예(舊蚋), 마황(馬蟻), 누고(螻蛄), 비아(埤蛾), 반묘(斑猫), 수마(水馬, 수민(水貍)), 청부(青蚨, 어백(魚伯)), 목점시(黽蛄嘶), 백랍(白蠟), 동물 45종.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名曰’, ‘號’, ‘俗號’, ‘俗謂’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	기장	보리
++師: 扶海洲上有草焉 名曰 ++師	黍: 說文以大暑而鍾故 謂之黍	麥者: 繼絕續乏之穀 隔歲種麥故號宿麥

내용 기술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

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을 다루고 있다.

항목	내용
① 일명	국화는 일명(一名) 절화(節花), 일명 전공(傳公), 일명 연년(延年), 일명 백화(白花), 일명 일정(日精), 일명 갱생(更生), 일명 음위(陰威), 일명 주영(朱贏), 일명 여화(女花), 일명 여경(女莖)이라고 한다.
② 명명 이유	보리는 끊어짐을 잇고 없어짐을 잇는 곡식으로 가을에 심는다. 고로 숙맥(宿麥)이라 부른다.
③ 종류	포박자(抱朴子)에 이르기를 지(芝)에 석지(石芝), 목지(木芝), 초지(草芝) 등 백 여 종이 있다고 한다.
④ 고사	도자장(陶子鑿) 어머니가 순채를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마침내 순채를 맛보지 않았다.
⑤ 비교/약용	마름은 차고 가시연은 따뜻하다. / 자릉(紫菱)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
⑥ 원산지, 맛	여진국(女眞國)에 백작약(白芍藥)이라는 꽃이 많다. 모두 야생이고 그 싹을 캐서 채소로 삼는다. 밀가루로 전을 부쳐 먹는데 그 맛이 부드럽고 좋다.
⑦ 주산물	동방에는 보리와 벼가 많고 서방에는 마(麻)가 많고 북방에는 콩(菽, 菽)이 많고 중앙에는 나무가 많다.
⑧ 대표성	콩(菽, 菽)은 모든 콩의 총명이다.
⑨ 주의사항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그 사람이 살찌서 장수하지 못한다. 본성을 길러주는 방법은 항상 곡기가 적어 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⑩ 외형	(시어(鱒魚)) 일명 진어(箭魚)라고 한다. 배 아래에 가는 뼈가 있는데 화살 같다.

인문문헌 事文類聚, 藝文類聚, 唐類函, 天中記, 山堂肆考, 韻府群玉, 周書 등

## 〈지봉유설(芝峯類說)〉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본 (奎7043) '지봉유설(芝峯類說)'

### ■ 성격

평소 여러 문헌을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1614년에 탈고한 후 서문을 추가했는데 아들 이성구(李聖求), 이민구(李敏求)가 1633년 의령에서 『지봉집(芝峯集)』을 간행하면서 함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천문, 지리, 군도(君道), 관직(官職) 등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백과사전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경서(經書), 문장(文章)의 비중이 높다. 권2의 제국부(諸國部)에서 외국의 문물과 『천주실의(天主實義)』 등의 내용을 소개하며 성리학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실학의 초기 저술로 평가되며 이후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자주 언급된다.

### ■ 편저자

이수광(李睟光)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전주, 자는 윤경(潤卿)이고, 호는 지봉(芝峯)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578년 초시에 합격했다. 세 차례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다른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게 되었다. 벼슬로는 이조판서, 대사헌 등을 역임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홍주(洪州), 순천(順天)에서 근무하였다. 광해군이 인목대비 폐비를 시도하자 은거하며 『지봉유설』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작 시기 1614년

■ 권수 책수 20권 10책

■ 판본 규장각(奎7117),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91-50),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초간본, 초간후쇄본, 중간본, 필사본 등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와 조선연구회(朝鮮研究會)에서 각각 1915년, 1916~1917년에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남만성, 『지봉유설』(상하)(을유문화사, 1994)로 번역되었다. 정혜림 역주, 『지봉유설정선』(현대실학사, 2000)으로 편역되었다.

####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자신이 직접 근무,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 그 외에 자신이 직접 근무한 적이 없더라도 해당 지역의 소문 같은 것도 일부 거론하였다.

방법 경험을 통한 일부 지식의 반영도 있으나 대부분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자기 나름대로 서술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추가하였다.

#### ■ 목차

지봉유설서(芝峯類說序)

지봉유설범례(芝峯類說凡例)

권1 천문부(天文部) : 시령부(時令部), 재이부(災異部)

권2 지리부(地理部) : 제국부(諸國部)

권3 군도부(君道部) : 병정부(兵政部)

권4 관직부(官職部)

권5 유도부(儒道部) : 경서부일(經書部一)

권6 경서부이(經書部二)

권7 경서부삼(經書部三) : 문자부(文字部)

권8 문장부일(文章部一)

권9 문장부이(文章部二)

- 권10 문장부삼(文章部三)
- 권11 문장부사(文章部四)
- 권12 문장부오(文章部五)
- 권13 문장부육(文章部六)
- 권14 문장부칠(文章部七)
- 권15 인물부(人物部) : 성행부(性行部), 신형부(身形部)
- 권16 언어부(語言部)
- 권17 인사부(人事部) : 잡사부(雜事部)
- 권18 기예부(技藝部) : 외도부(外道部)
- 권19 궁실부(宮室部) : 복용부(服用部), 식물부(食物部)
- 권20 훼목부(卉木部) : 금수부(禽蟲部)

■ 내용

분류 목차에서 보이는 분류를 살펴보면 다른 유서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지인물(天地人物)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총20권 중에서 권1은 천, 권2는 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경서, 문장에 관한 것이다. 물(物) 중에서 생물 정보는 권20에 식물과 동물로 이차분류되어 있다.

수록 중 수 매(梅), 강매(江梅), 납매(臘梅, 황매(黃梅)), 목단(牡丹), 장미(薔薇), 연(蓮), 국(菊), 호애(蒿艾), 동백(冬柏, 산다화(山茶花)), 해홍화(海紅花), 감국(甘菊), 백국(白菊), 치자(梔子, 지자(支子), 목단(木丹), 담복(薔蔔), 선우(禪友), 산치자(山梔子, 월치(越梔)), 두견(杜鵑), 척축(躑躅), 백모단(白牡丹), 봉선화(鳳仙花, 금봉화(金鳳花)), 울창(鬱鬯, 울금(鬱金)), 홍람(紅藍), 시(蓍), 규(葵), 콩(菽, 菽, 대두(大豆)), 향초(香草), 오우(烏芋, 부자(鳧茨), 오매(烏昧)), 창포(昌蒲), 포류(蒲柳), 포(蒲), 용편초(龍鞭草), 목숙(苜蓿, 수율미(木粟米)), 번

(藥, 백호(白蒿)), 소(蕭, 향호(蕙蒿)), 울(蔚, 모호(牡蒿)), 아(莪, 나호(蘿蒿)), 긴(藪, 청호(靑蒿)), 개구리밥(萍, 뇌호(賴蒿)), 해로(薙露, 염교(厭藹)), 구(韭), 사면(絲綿), 목면(木綿, 반기(班枝)), 초면(草綿), 흑응이(墨應耳), 개미취(자초, 紫草, 지초(芝草)), 능감(菱芡), 감화(芡花), 근죽(董竹, 왕죽(王竹)), 담죽(淡竹, 면죽(綿竹)), 고죽(苦竹, 오죽(烏竹)), 의이(薏苡), 약목(若木), 송(松), 백(栢), 압각수(鴨脚樹), 은행(銀杏), 유삼(油杉), 익가목(益佳木), 회(檜), 심향(沈香), 청계(靑桂), 계골(雞骨), 마제(馬蹄), 전향(煎香), 무환목(無患木), 소방목(蘇方木), 천금목(千金木, 안식향(安息香), 오배자(五倍子)), 백단(白檀), 합환목(合歡木, 야합화(夜合花)), 오동(梧桐), 침(檉, 태(泰), 번계목(樊鷄木), 심(榑), 수청목(水靑木)), 소철(蘇鐵), 초(椒), 왜계자(倭芥子), 부평(浮萍)의 식물 71종.

대황(大蝗), 호표(虎豹), 청봉(靑鳳, 갈(鶡)), 적봉(赤鳳, 악(鶯)), 취봉(翠鳳, 언(鸕)), 자봉(紫鳳, 작(鶯)), 백봉(白鳳, 숙(鶡)), 오공(蜈蚣), 계(雞), 한계(寒鷄), 관(鶴), 사(蛇), 골(鶻, 해동청(海東靑), 송골(松鶻)), 응(鷹), 호(鴉, 梟, 복(鵬)), 탁목(啄木), 연(燕), 연작(練鵲, 산작(山鵲), 당작(唐鵲)), 지작(鴉鵲), 합(鵠), 오(烏), 원앙(鴛鴦), 아(鵝), 천아(天鵞), 전서(田鼠), 안(鴛, 가(鴛), 순(鶉), 척안(斥鴹)), 하마(蝦蟆), 호연(胡燕), 자연(紫燕, 해연(海燕), 윈연(越燕)), 호작(蒿雀), 견(犬), 룡(龍), 마(馬), 의(蟻, 마의(馬蟻), 현구(玄駒)), 과하마(果下馬), 려(驢, 위자(衛子)), 결제(駃騠), 라(騾), 맥(駟), 박(駮), 호(狐), 묘(猫), 퀘자(麋子, 우(虞)), 서(獐, 토저(土猪)), 토(兔), 후(猴, 화(化), 가학(狻猊)), 각단(角端), 야저(野猪), 서(鼠), 웅(熊), 치(雉), 구(龜), 노어(鱸魚), 이어(鯉魚, 적홍공(赤緋公)), 해돈(海豚), 별(鼈), 꺾어(鰈魚, 금린어(錦鱗魚, 금문(錦紋)), 천자어(天子魚)), 치어(鱷魚, 수어(秀魚)), 복(鮓),

석수(石首), 시어(時魚), 문어(文魚, 팔대어(八帶魚), 팔초어(八梢魚)), 소팔초어(小八梢魚), 장거어(章擧魚), 석거(石距), 낙체(絡締), 오적어(烏賊魚), 이항(飴項, 여항어(餘項魚)), 중순(重唇, 눌어(訥魚)), 은구어(銀口魚), 담채(淡菜, 동해부인(東海夫人), 주모(珠母), 홍합(紅蛤), 해각(海殼)), 태(鮐), 제어(鰲魚, 도어(刀魚)), 비목어(比目魚, 접(鰈), 검(鰻), 판어(板魚), 좌개(左介), 개(鮓), 가좌어(加佐魚)), 광어(廣魚), 설어(舌魚), 대구어(大口魚), 가사어(袈娑魚), 해삼(海蔘), 니(泥), 문요(文繻), 학어(鶴魚), 해(蟹), 강요주(江瑤柱), 순(肫, 강저(江猪)), 청어(靑魚), 리(狸), 추(鰈), 선(鱗), 경어(鯨魚, 왕유(王鮪)), 아(鮠), 구인(蚯蚓), 장(獐), 학(鶴), 교청(鳩鵲), 로(鷺), 공작(孔雀), 등사(騰蛇), 사계(莎鷄, 축직(促織), 낙위(絡緯), 실솔(蟋蟀)), 솔(虱), 한단(邯鄲), 시슬(豕蟲), 망(蟒), 벽슬(壁蝨)의 동물 100종.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作’, ‘所謂’, ‘曰’, ‘云’, ‘卽’, ‘俗名’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치자	봉선화	토란
梔子: 出漢書 本草作支子 一名木丹 佛書所謂簞蔔是也	鳳仙花: 宋人號爲金鳳花	烏芋: 卽薺茨也 今俗名烏味

내용 기술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 뿐 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다.

항목	내용
① 일명	(치자(梔子)) 『본초(本草)』에서 지자(支子)라고 하고 일명 목단(木丹)이라 했다. 불서에서 이른바 담복(舊葡)이 이것이다.
② 종류	국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자줏빛 줄기에 향기롭고 맛이 달며, 잎은 국을 끓여먹을 수 있는 것을 국화라고 한다. 푸른 줄기에 키가 크고 쭉과 같으며 맛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의(薏)라고 하며 참국화가 아니다.
③ 개화 시기	(영산홍(映山紅)) 꽃이 피기는 두견(杜鵑)보다 뒤이고 척족(躑躅)보다 이른다.
④ 색, 향기	(치자(梔子)) 꽃은 흰 빛깔로 여섯 개가 피는데, 매우 향기롭다.
⑤ 속설	(시초(蓍草)) 옛날 어느 부인이 시초를 베어다가 빨감으로 써서 시초의 씨가 없어졌다고 한다. 醫方에 보면, 시초는 실로 약에 들어간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풀이 밭에 많았으나 사람들은 이것이 시초인 줄을 알지 못했다.
⑥ 고증	범석호(范石湖)의 『매보(梅譜)』에 보면, "蠟梅(납매)는 본래 매화 종류가 아니다. 매화와 같은 때에 꽃이 피지만 그 빛이 꿀벌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에 말하는 황매(黃梅)인데, 세상에서 가매(假梅)를 납매(蠟梅)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⑦ 원산지	(울금(鬱金)) 울금향(鬱金香)은 대진국(大秦國)에서 난다.
⑧ 가공	(향포(香蒲)) 이것을 씹으면 달고 무르며, 매우 맛이 좋아서 김치를 만들 수 있고, 또 젓갈로도 쓴다.
⑨ 약용	『本草』에 말하기를, 오우(烏芋)는 사람의 위(胃)를 두껍게 해주어 배고프지 않게 한다. 흉년에 이것을 따다가 양식에 보충한다고 했다

인용문헌 梅譜, 漢書, 韻府群玉, 東閣雜記, 淮南子, 本草蒙筌, 禽經, 稗史, 續博物志, 酉陽雜俎, 爾雅, 蠡海集, 朝鮮賦 등

## 〈한정록(閑情錄)〉 해제

■ 원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본(古貴1570-11-1) ‘한정록(閑庭錄)’

### ■ 성격

1618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범례에 갑인(1614)·을묘(1615) 북경에 두 번 가서 약 4천 권의 책을 구입해왔고, 그 중에서 한정(閑情)에 관계되는 부분을 모아 두었는데 남의 고발을 당해 죄인의 몸이 되자 (적극적으로) 옮겨 쓰게 되었다고 하며 자신이 산림(山林)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더욱 드러났다고 하고 1. 은둔(隱遁) 2. 고일(高逸) 3. 한적(閑適) 4. 퇴휴(退休) 5. 유흥(遊興) 6. 아치(雅致) 7. 숭검(崇儉) 8. 임탄(任誕) 9. 광회(曠懷) 10. 유사(幽事) 11. 명훈(名訓) 12. 정업(靜業) 13. 현상(玄賞) 14. 청공(淸供) 15. 섭생(攝生) 16. 치농(治農) 17. 병화사(瓶花史)·상정(觴政)·서헌(書憲)·서화금탕(書畫金湯)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은둔에 중점을 두면서도 도피적이지 않고 기존의 지식을 정리하면서 은거하는 삶의 지침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치농(治農) 부분은 특히 생물 지식, 농업과 관련이 있다.

### ■ 편저자

허균(許筠) 허균(許筠, 1569~1618)은 1569년 강릉 출생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호는 교산(蛟山), 학산(鶴山), 성소(惺所), 성수(惺叟) 등이다. 부친은 허엽, 이복형 허봉, 허성, 누이는 허난설헌으로 모두 문학에 뛰어났다. 수안군수(遂安郡守)로 재직 시 불교를 숭상한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고 형조 참의로 재직 시 조카를 급제시켰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함열현(咸悅縣)으로 유배되었다.

진주사(陳奏使),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중국에 다녀오면서 서적을 구입해왔다. 1617년 반역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1618년 처형되었다.

■ 제작 시기 1618년

■ 권수 책수 17권 4책

■ 판본 허균은 역모 혐의로 탄핵을 받던 1617년에 자신의 문집 원고를 사위 이사성(李士星)의 집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618년 허균이 처형되면서 공식적으로 간행되지 못했다. 현존하는 사본들은 국립중앙도서관본, 규장각본, 연세대학교소장본이 있으며 사본에 따라 일부 편목에 차이가 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원문 영인 및 번역할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한정록서(閑情錄序)를 보면 특정 지역에 유배 가거나 특정 지역을 방문하면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은 아니고 세설신어(世說新語), 와유록(臥遊錄), 옥호빙(玉壺氷) 등을 보면서 거기 담긴 서정이 소산(蕭散)하여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는 정도만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자료를 정리하면서 위안거리로 삼는 것으로 특정 지역과 특별히 관련은 없다.

방법 서문에 따르면 유의경(劉義慶)·하양준(何良俊)·여백공(呂伯恭)·도현경(都玄敬), 네 사람의 차록(筴錄)을 합하고, 그 사이에 자신이 보고 기록한 바를 덧붙여 책 1권을 만들고, 또 거기다 고인(古人)의 시부(詩賦)나 잡문(雜文)에서 한일(閑逸)에 대해 읊은 것을 가져와 후집(後集)을 만들었는데, 모두 10편(編)으로 《한정록(閑情錄)》이라 이름하고는 내 스스로 반성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문헌에서 은거와 관심 있는 내용을 뽑아 정리했다고 하겠다.

## ■ 목차

[한정록서(閑情錄序)]

제16권 치농(治農)

택지(擇地)/자본(資本)/정거(定居)/종곡(種谷)/종소(種蔬)/수식(樹植)/잠소(蠶繅)/목양(牧養)/순시(順時)/무근(務勤)/습검(習儉)

양잠(養蠶)

-십체(十體)

-이광(二光)

-팔의(八宜)

-면사실의(眠飼失宜)

-삼희(三稀)

-오광(五廣)

-잡기(雜忌)

양우(養牛)

의치급용단방(醫治急用單方)

-우장(牛瘴)

-우일(牛噎)

-개라(疥癩)

-난견(爛肩)

-누제(漏蹄)

-상열(傷熱)

-해소(咳嗽)

-요혈(尿血)

- 신상생충(身上生虫)
- 우미초불식수초(牛尾焦不食水草)
- 우홀복창광주촉인(牛忽腹脹狂走觸人)
- 우끼잡충복창(牛喫雜虫腹脹)
- 우생백막서안(牛生白膜遮眼)

양계(養鷄)

양어(養魚)

## ■ 내용

분류 생물 지식이 주로 등장하는 제16권 치농(治農)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물 분류만 따로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농촌에서 은거하면서 사는 데 필요한 지식 중의 하나로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과 질병 치료에 대한 생물 지식이 정리되어 있다. 곡식 심기, 채소 심기, 나무 심기, 누에치기, 가축 기르기, 소 약 주기 등의 항목에서 생물 지식을 볼 수 있다. 분류, 기술이 완전히 허균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진계유(陳繼儒)의 『치부전서(致富全書)』에서 참조한 것이라고 한다. 수도(水稻)를 선(秈), (粳), 나(稷)로 2차 분류하고 있다.

### 수록 종수

은둔(隱遁)

송(松, 松), 균(筠), 도화(桃花), 대나무(죽(竹)), 수수(출, 稷)의 식물 5종, 독(犢), 봉(鳳), 돈(豚), 린(麟), 호접(蝴蝶)의 동물 5종

고일(高逸)

두(荳), 밤나무(을, 栗), 매화(梅花), 복숭아나무(도, 桃), 은행나무(행, 杏), 우(芋), 해(薤), 구(韭)의 식물 8종, 호(狐), 토(兔)의 동물 2종  
한적(閒適)

송(松), 대나무(죽(竹)), 오(梧), 황량(黃梁), 목숙(苜蓿), 모(茅), 계요  
등(갈, 葛), 위(葦), 규화(葵花), 근화(槿花), 산초(山椒), 려(藜), 이화  
(梨花), 차(茶), 련(蓮), 검(茨), 순(蓴), 도(稻)의 식물 18종, 학(鶴), 러  
(驢), 해(蟹)의 동물 3종

퇴휴(退休)

곶(고사리, 蕨), 송(松), 국(菊), 대나무(죽(竹)), 오(梧)의 식물 5종, 학  
(鶴)의 동물 1종

유흥(遊興)

대나무(죽(竹)), 여자(荔子)의 식물 2종, 묘(貓), 견(犬)의 동물 2종

아치(雅致)

도(稻), 송(松)의 식물 2종, 선(蟬), 오(烏), 학(鶴)의 동물 3종

숭검(崇儉)

수수(출, 秫), 갱(稭), 리(梨), 밤나무(을, 栗), 조(棗), 시(柿), 여곽(藜  
藿), 콩(숙, 菽), 노복(蘆菔), 개(芥)의 식물 10종, 호(狐), 록(鹿), 잠(蚕)  
의 동물 3종

임탄(任誕)

대나무(죽(竹)), 국(菊)의 식물 2종

광회(曠懷)

산(蒜), 계요등(갈, 葛), 란(蘭)의 식물 3종, 사(蛇), 갈(蝸), 계(鷄), 저  
(猪), 학(鶴), 앵(鶯), 선(蟬)의 동물 7종

유사(幽事)

형극(荊棘), 부용(芙蓉), 매(梅), 모(茅), 우(芋), 밤나무(을, 栗), 송(松)  
대나무(죽(竹)), 복령(茯苓), 등(藤), 벽(薛), 란(蘭), 혜(蕙), 련(蓮), 척  
족(躑躅), 수선(水仙), 석류(石榴), 차(茶)의 식물 18종, 학(鶴), 견(犬),  
러(驢), 우(牛), 와(蛙)의 동물 4종

명훈(名訓)

차(茶)의 식물 1종

정업(靜業)

차(茶), 운(芸), 혜(蕙), 송(松), 대나무(죽(竹))의 식물 5종, 학(鶴)의  
동물 1종

현상(玄賞)

부용(芙蓉), 송(松), 기(杞), 국(菊), 차(茶), 대나무(죽(竹)), 매(梅), 은  
행나무(행,杏), 리(梨), 해당(海棠), 복숭아나무(도,桃), 자두나무  
(리,李), 모단(牡丹), 작약(芍藥), 계(桂), 란(蘭)의 식물 16종, 학(鶴),  
원(猿)의 동물 2종

청공(淸供)

류(柳), 노화(蘆花), 부용(芙蓉), 차(茶), 노송(老松), 백(栢), 풍(楓), 비  
마(萆麻), 촉규화(蜀葵花), 규곽(葵藿), 포화(蒲花), 자죽(字竹), 방죽  
(方竹), 기류(杞柳), 난화(蘭花), 등(藤), 영지(靈芝), 반죽(斑竹), 련  
(蓮), 검(莢), 고(菰), 순(蓴), 규(葵), 대나무(죽(竹)), 우(芋), 계(桂), 국  
(菊), 매(梅), 녹규(綠葵), 노복(蘆葍), 구(韭), 송(松), 산우(山芋), 자형  
화(紫荊花), 미(薇), 쥬(蕨), 모단(牡丹), 담복(蔞蔔), 구기(枸杞), 콩  
(豆,豆), 파(葱,葱)의 식물 41종, 표(豹), 천산갑(穿山甲), 아(鵝), 리  
(鯉), 해(蟹)의 동물 4종

섭생(攝生) 없음

치농(治農)

기장(서,黍), 피(직,稷), 수수(출,秫), 도(稻), 마(麻), 맥(大麥), 밀(소  
맥,小麥), 대두(大豆), 소두(小豆), 창이자(蒼耳子), 애(艾), 매(梅), 복  
숭아나무(도,桃), 유(柳), 뽕나무(상,桑), 삼(杉), 양(楊), 은행나무  
(행,杏), 유(榆), 괴(槐), 리(李), 형(荊), 마시(麻蕒), 울(栗), 작맥(爵

麥), 교맥(蕎麥), 녹두(菘豆), 완두(豌豆), 잠두(蠶豆), 백두(白豆), 강  
 남콩(백편두, 白扁豆, 연리두(沿籬豆)), 지마(芝麻), 강(姜), 우(芋), 나  
 북(蘿菔), 호나북(胡蘿菔), 갓(개채, 芥菜), 백채(白菜), 침채(擘菜), 오  
 송채(烏松菜), 함채(葎菜), 와거(蒿苴), 왕과(王瓜), 동과(東瓜), 남과  
 (南瓜), 호유(葫蘆), 충(蔥), 산(蒜), 구(韭), 해(薤), 가(茄), 마(山藥),  
 저마(苧麻), 면화(綿花), 전(靛), 족(蒻), 당귀(當歸), 홍화(紅花),  
 대황(大黃), 백지(百芷), 황련(黃連), 촉서(蜀黍), 수유(茶葉), 람(藍),  
 빈(蘋), 조(藻), 파초(芭蕉), 조(棗), 선(稔), 갱(粳), 나(稷), 호(瓠), 나  
 (菰), 매두(梅豆), 적두(赤豆), 위(葦), 안식향(安息香), 파초(芭蕉)의  
 식물 77종, 마(馬), 자방(野苳), 잠(蠶), 아(蛾), 오공(蜈蚣), 우(牛), 양  
 (羊), 별(鱉, 신수(神守)), 저(猪), 달(獺), 계(鷄), 아(鵝), 압(鴨), 모리  
 (牡蛎), 하(蝦), 리(螺), 초어(草魚), 연어(連魚)의 18종

#### 병화사(瓶花史)

대나무(죽(竹)), 매(梅), 해당(海棠), 모단(牡丹), 작약(芍藥), 안석류  
 (安石榴), 목서(木樨), 련(蓮), 국(菊), 납매(蠟梅), 서향(瑞香), 산다(山  
 茶), 빈바(頻婆), 임금(林禽), 정향(丁香), 민괴(玫瑰), 장미(薔薇), 목  
 향(木香), 앵속(鶯粟), 촉규(蜀葵), 자미(紫薇), 대홍련(大紅蓮), 천엽  
 목근(千葉木槿), 산반(山礬), 옥잠화(玉簪花), 부용(芙蓉), 황백산다  
 (黃白山茶), 추해당(秋海棠), 수선화(水仙花)의 식물 29종, 미록(麋鹿)  
 의 동물 1종

#### 상정(觴政)

비자(榧子), 순(荀), 구(韭)의 식물 3종, 양(羊, 고(羔)), 아(鵝), 합(蛤),  
 감(蚶), 해(蟹), 웅(熊)의 동물 6종

#### 서헌(書憲)

차(茶), 태(苔), 보리(맥, 麥)의 식물 3종

서화금탕(書畫金湯)

차(茶), 순(筍), 등귤(橙橘), 전단목(旣檀木)의 식물 4종, 서(鼠)의 동물 1종

총 식물 242종, 동물 63종

명칭 표기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모든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별도 용어 없이 나타내기도 한다.

강낭콩	지라
白扁豆, 一名 沿籬豆	神守者, 鰲也

내용 기술 동식물의 분류, 식물 파종 시기, 김매기, 저장, 수확 방법, 음식, 맛, 주의 사항, 치료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항목	내용
① 분류	오자(五籽 다섯 종류의 암가축)를 기르는 법에 의하면, 첫째는 양어(養魚)이고, 둘째는 양양(養羊), 셋째는 양저(養猪), 넷째는 양계(養鷄), 다섯째는 양아압(養鵝鴨)인데, 오자(五籽) 가운데 오직 수축(水畜)의 이문[稗]이 가장 크다.
② 파종 시기	3월에 심어서 6월에 따는데, 더딘 것은 4월에 심는다. 적두(赤豆)
③ 김매기	벼의 뿌리를 잘라준 뒤에는 재거름이나 혹은 참깨묵·콩깨묵 가루를 눈에 뿌려 넣고 잡초를 말끔히 매서 없앤다.
④ 저장	삼복(三伏) 날씨에 바짝 잘 말려서 보리알이 뜨끈뜨끈한 채로 거두어 담되, 먼저 벼짚재를 향아리 밑에 깔고 보리를 담은 다음 다시 벼짚재로 덮어주면 좀벌레가 일지 않는다.
⑤ 수확방법	보리가 누렇게 익었을 때는 좋은 날씨를 포착하여 긴급하

항목	내용
	게 베어서 거두어야 한다. 대개 5월에 가장 바쁜 농사는 누에치는 일과 보리 수확하는 일을 덮을 것이 없다. 속담에 이르기를, “보리 수확하기를 마치 불을 끄듯이 하라.” 하였으니, 이 일이 더디게 되면 수재(水災)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⑥ 음식	이는 1년에 두 번씩 익는 콩으로 두분(豆粉) 및 두아채(豆芽菜 콩나물)를 만들 수 있다. 녹두(菘豆)
⑦ 맛	일명(一名) 황독(黃獨)이라고도 하는데 그 맛이 마(산약, 山藥)과 같다.
⑧ 주의사항	재거름이나 참깨묵으로 복돋아 주어야 하고 인분(人糞)은 절대 금한다. 마(산약, 山藥)
⑨ 치료법	무릇 닭의 잡병(雜病)에는 참기름을 먹이면 당장에 나으며, 오공(蜈蚣 지네)의 독(毒)을 맞았을 때는 수유(菜莢)를 갈아서 먹인다.

인용문헌 사기(史記), 한서(漢書), 소창청기(小窓淸記), 하씨어림(何氏語林), 지비록(知非錄), 미공비급(眉公秘笈), 암서유사(巖棲幽事) 등

# 역사·지리서류





역사·지리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원도(江原道)〉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1)</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

1)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경도 상(京都上)

경도 하(京都下)

한성부(漢城府)

개성부 상(開城府上)

개성부 하(開城府下)

경기(京畿)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황해도(黃海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평안도(平安道) 제44권 강원도(江原道)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제45권 평해군(平海郡)  
간성군(杆城郡)  
고성군(高城郡)  
통천군(通川郡)  
울진현(蔚珍縣)  
흡곡현(歙谷縣)  
제46권 원주목(原州牧)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정선군(旌善郡)  
영월군(寧越郡)  
평창군(平昌郡)  
인제현(麟蹄縣)  
횡성현(橫城縣)  
홍천현(洪川縣)  
제47권 회양도호부(淮陽都護府)  
철원도호부(鐵原都護府)  
금성현(金城縣)

양구현(楊口縣)

낭천현(狼川縣)

이천현(伊川縣)

평강현(平康縣)

금화현(金化縣)

안협현(安峽縣)

## ■ 내용

분류 각 도의 연혁과 총론·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혁,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關防)·봉수·누정·학교·역원·교량위치·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名宦)·인물·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물 속에는 호자·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목·부·군·현의 ‘토산’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설명을 하였다.

수록종수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총 33종(식물 13종, 동물 19종, 균류 1종)

모시[苧], 궁간상(弓幹桑),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회양목[黃楊], 지치[紫草], 송이[松蕈],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산무애뱀[白花蛇], 해달(海獺), 미역[藷], 참가사리[細毛], 김[海衣], 해삼(海蔘), 전복[鮑], 홍합(紅蛤), 문어(文魚), 삼치[麻魚], 방어(魴魚), 넓치[廣魚], 적어(赤魚), 고등어[古刀魚], 대구[大口魚], 황어(黃魚), 연어(鱒魚), 송어(松魚), 은어[銀口魚],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순채[蓴], 회세합(回細蛤)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총 26종(식물 10종, 동물 15종, 균류 1종)  
모시[芻], 궁간상(弓幹桑), 안식향(安息香), 오미자(五味子), 회양목  
[黃楊], 인삼(人蔘), 송이[松蕈], 복령(茯苓), 지황(地黃), 산무애뱀[白花  
蛇], 김[海衣], 미역[藷], 전복[鮑], 홍합(紅蛤), 문어(文魚), 방어(魴魚),  
연어(鱧魚), 송어(松魚), 대구(大口魚), 송어(秀魚), 황어(黃魚), 고등  
어[古刀魚], 은어[銀口魚], 넓치[廣魚], 적어(赤魚), 해삼(海蔘)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총 26종(식물 7종, 동물 15종, 균류 2종)  
모시[芻],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지황  
(地黃), 복령(茯苓), 은어[銀口魚], 황어(黃魚), 방어(魴魚), 고등어[古  
刀魚], 광어(廣魚), 농어[鱸魚], 송어(秀魚), 쌍족어(雙足魚), 해삼(海  
蔘), 송이[松蕈], 산무애뱀[白花蛇], 김[海衣], 미역[藷], 전복[鮑], 홍합  
(紅蛤), 문어(文魚), 대구(大口魚), 송어(松魚), 연어(鱧魚)

평해군(平海郡): 총 26종(식물 5종, 동물 18종, 균류 3종)  
방어(魴魚), 광어(廣魚), 문어(文魚), 대구(大口魚), 송어(松魚), 적어  
(赤魚), 고등어[古刀魚], 연어(鱧魚), 황어(黃魚), 은어[銀口魚], 삼치[麻  
魚], 복어[鮑], 홍합(紅蛤), 회세합(回細蛤), 자해(紫蟹), 해삼(海蔘), 미  
역[藷], 김[海衣], 해달(海獺), 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 지치[紫草],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산무애뱀[白花蛇]

간성군(杆城郡): 총 24종(식물 7종, 동물 15종, 균류 2종)  
웃[漆],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송이[松  
蕈], 산무애뱀[白花蛇], 김[海衣], 미역[藷], 복어[鮑], 홍합(紅蛤), 문어  
(文魚), 대구(大口魚), 연어(鱧魚), 송어(松魚), 방어(魴魚), 은어[銀口

魚, 도루묵[銀魚], 황어(黃魚), 광어(廣魚), 고등어[古刀魚], 뱀어(白魚), 해삼(海蔘), 하수오(何首烏)

고성군(高城郡): 총 24종(식물 7종, 동물 15종, 균류 2종)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송이[松蕈], 산무애뱀[白花蛇], 미역[藷], 우뭇가사리[牛毛], 참가사리[細毛], 복어[鰻], 해삼(海蔘), 홍합(紅蛤), 문어(文魚), 대구[大口魚], 연어(鱒魚), 송어(松魚), 방어(魴魚), 도루묵[銀魚], 고등어[古刀魚], 황어(黃魚), 승어(秀魚), 삼치[麻魚], 넙치[廣魚], 순채[蓴菜]

통천군(通川郡): 총 20종(식물 4종, 동물 14종, 균류 2종)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蕈], 미역[藷], 복어[鰻], 홍합(紅蛤), 방어(魴魚), 문어(文魚), 송어(松魚), 광어(廣魚), 황어(黃魚), 연어(鱒魚), 대구[大口魚], 고등어[古刀魚], 승어(秀魚), 은어[銀口魚], 도루묵[銀魚], 해삼(海蔘)

울진현(蔚珍縣): 총 28종(식물 9종, 동물 16종, 균류 3종)

궁간상(弓幹桑), 옷[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지초[紫草], 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산무애뱀[白花蛇], 황어(黃魚), 문어(文魚), 연어(鱒魚), 대구[大口魚], 은어[銀口魚], 방어(魴魚), 넙치[廣魚], 고등어[古刀魚], 적어(赤魚), 송어(松魚), 도루묵[銀魚], 복어[鰻], 꽃게(紫蟹), 홍합(紅蛤), 미역[藷], 김[海衣], 해삼(海蔘)

흡곡현(歙谷縣): 총 19종(식물 3종, 동물 14종, 균류 2종)

연어(鱣魚),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황어(黃魚), 도루묵[銀魚], 방어(魴魚), 송어(松魚), 고등어[古刀魚], 삼치[麻魚], 넓치[廣魚], 은어[銀口魚], 복어[鰻], 홍합(紅蛤), 해삼(海蔘), 석이버섯[石蕈],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옷[漆]

원주목(原州牧): 총 9종(식물 4종, 동물 4종, 균류 1종)  
영양(羚羊),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석이버섯[石蕈], 인삼(人蔘),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총 13종(식물 6종, 동물 4종, 균류 3종)  
옷[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영양(羚羊), 지치[紫草], 석이버섯[石蕈],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송이[松蕈]

정선군(旌善郡): 총 15종(식물 8종, 동물 5종, 균류 2종)  
옷[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회양목[黃楊], 궁간상(弓幹桑), 지치[紫草], 송이[松蕈],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영월군(寧越郡): 총 14종(식물 6종, 동물 5종, 균류 3종)  
회양목[黃楊],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 잣[海松子],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평창군(平昌郡): 총 15종(식물 5종, 동물 5종, 균류 1종)

옷[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안식향(安息香), 지치[紫草], 석이버섯[石蕈], 인삼(人蔘), 지황(地黃), 복령(茯苓),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송이[松茸]

인제현(麟蹄縣): 총 11종(식물 6종, 동물 5종)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옷[漆]

횡성현(橫城縣): 총 10종(식물 4종, 동물 4종, 균류 2종)

옷[漆],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蕈],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홍천현(洪川縣): 총 11종(식물 4종, 동물 5종, 균류 2종)

옷[漆],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복령(茯苓),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석이버섯[石蕈], 잣[海松子]

회양도호부(淮陽都護府): 총 14종(식물 6종, 동물 5종, 균류 3종)

옷[漆], 애기씨[弓軒桑],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송이[松茸], 석이버섯[石蕈],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철원도호부(鐵原都護府): 총 9종(식물 4종, 동물 3종, 균류 2종)

옷[漆],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송이[松茸], 복령(茯苓), 지황(地

黃), 산무애뱀[白花蛇], 쏘가리[錦鱗魚], 누치[訥魚]

금성현(金城縣): 총 10종(식물 4종, 동물 4종, 균류 2종)

웃[漆], 인삼(人蔘), 잣[海松子], 복령(茯苓), 산무애뱀[白花蛇], 석이버섯[石蕈], 오미자(五味子),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양구현(楊口縣): 총 11종(식물 4종, 동물 5종, 균류 2종)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蕈], 잣[海松子],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낭천현(狼川縣): 총 11종(식물 5종, 동물 4종, 균류 2종)

웃[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영양(羚羊),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석이버섯[石蕈]

이천현(伊川縣): 총 14종(식물 6종, 동물 5종, 균류 3종)

웃[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복령(茯苓), 지황(地黃), 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지치[紫草],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평강현(平康縣): 총 10종(식물 4종, 동물 4종, 균류 2종)

웃[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蕈],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금화현(金化縣): 총 11종(식물 5종, 동물 4종, 균류 2종)

욱[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복령(茯苓), 안식향(安息香),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쏘가리[錦鱗魚], 여항어(餘項魚), 석이버섯[石蕈]

안협현(安峽縣): 총 10종(식물 4종, 동물 4종, 균류 2종)

욱[漆],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蕈], 영양(羚羊), 산무애뱀[白花蛇],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훈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훈차	해당 한자 표기
여항어(餘項魚), 송어(松魚)	우뫼가사리[牛毛], 참가사리[細毛]	순채[蓴], 석이버섯[石蕈], 영양(羚羊)

내용 기술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하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생물별 부연 설명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해당 지역	내용
① 생산 지역	강릉대도호부 (江陵大都護府)	궁간상(弓幹桑): 우계현에서 산출한다.
	삼척도호부 (三陟都護府)	궁간상(弓幹桑) 활재료 뽕나무: 부 남쪽 노곡산(蘆谷山)에서 산출된다.
	울진현(蔚珍縣)	궁간상(弓幹桑): 삼척(三陟) 땅 경계에서 난다.
	정선군(旌善郡)	궁간상(弓幹桑): 강릉 지경에서 난다.

인용문헌 《동국여지승람》, 《팔도지리지》, 《동문선》 등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개성부(開城府)〉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2)</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

2)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경도 상(京都上)

경도 하(京都下)

한성부(漢城府)

개성부 상(開城府上)

개성부 하(開城府下)

경기(京畿)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황해도(黃海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평안도(平安道)

■ 내용

분류 개성부는 다른 도와 달리 ‘토산’ 항목이 없고, 건치연혁, 군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성곽, 봉수, 궁실, 학교, 역원, 교량, 부방, 공해, 불우, 사묘, 능침,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제영이로 이루어져 있다.

수록 종수 생물 없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기(京畿)〉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衍)·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

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경도 상(京都上)

경도 하(京都下)

한성부(漢城府)

개성부 상(開城府上)

개성부 하(開城府下)

경기(京畿)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황해도(黃海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평안도(平安道) 제 6권 광주목(廣州牧)

제 7권 여주목(驪州牧)

제 8권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양근군(楊根郡)/지평현(砥平縣)/음죽현(陰竹縣)/

양지현(陽智縣)/죽산현(竹山縣)/과천현(果川縣)

제 9권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안산군(安山郡)

제 10권

안성군(安城郡)/진위현(振威縣)/양천현(陽川縣)/용인현(龍仁縣)/김포현(金浦縣)/

금천현(衿川縣)/양성현(陽城縣)/통진현(通津縣)

제 11권

양주목(楊州牧)/과주목(坡州牧)/고양군(高陽郡)/영평현(永平縣)/포천현(抱川縣)/

적성현(積城縣)/교하현(交河縣)/가평현(加平縣)

제 12권

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제 13권

풍덕군(豐德郡)/삭녕군(朔寧郡)/마전군(麻田郡)/연천현(漣川縣)/교동현(喬桐縣)

## ■ 내용

분류 각 도의 연혁과 총론·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혁,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關防)·봉수·누정·학교·역원·교량위치·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名宦)·인물·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물 속에는 효자·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목·부·군·현의 '토산'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설명을 하였다.

수록종수 광주목(廣州牧) : 총 5종(식물 1종, 동물 4종)

삼[麻]/은어[銀口魚]·눌어[訥魚]·쏘가리[錦鱗魚]·계[蟹]

여주목(驪州牧) : 총 2종(동물 2종)

쏘가리[錦鱗魚]·누치[訥魚]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 : 식물 3종, 균류 1종

지평현(砥平縣) : 총 4종(식물 4종)

송이[松茸]·신감채(辛甘菜)·산개(山芥)·오미자(五味子)

음죽현(陰竹縣) : 총 1종(식물 1종)

순채(蓴菜)

양지현(陽智縣) : 토산x

죽산현(竹山縣) : 생물x

과천현(果川縣) : 토산x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 총 25종(동물 25종)

밴댕이[蘇魚] · 병어[兵魚] · 홍어[洪魚] · 조기[石首魚] · 참조기[黃石首魚] · 농어[鱸魚] · 민어[民魚] · 뱀어[白魚] · 송어[秀魚] · 준치[眞魚] · 오징어[烏賊魚] · 호독어[好獨魚] · 조개[蛤] · 가무락조개[黃蛤] · 맛조개[竹蛤] · 토화[土花] · 굴[石花] · 낙지[絡縮] · 해파리[海膽] · 대하[大蝦] · 중하[中蝦] · 곤쟁이[紫蝦] · 게[蟹] · 청해[靑蟹] · 부레[魚鱧]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 총 11종(동물 11종)

조기[石首魚] · 토화[土花] · 굴[石花] · 부레[魚鱧] · 낙지[絡縮] · 맛조개[竹蛤] · 소라[小螺] · 청해[靑蟹] · 게[蟹] · 곤쟁이[紫蝦] · 중하[中蝦]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 총 29종(식물 1종, 동물 28종)

감[柿] / 밴댕이[蘇魚] · 송어[秀魚] · 전어[錢魚] · 준치[眞魚] · 조기[石首魚] · 참조기[黃石首魚] · 호독어[好獨魚] · 민어[民魚] · 농어[鱸魚] · 홍어[洪魚] · 뱀어[白魚] · 은어[銀口魚] · 오징어[烏賊魚] · 낙지[絡縮] · 조개[蛤] · 가무락조개[黃蛤] · 토화[土花] · 굴[石花] · 소라[小螺] · 해파리[海膽] · 대하[大蝦] · 중하[中蝦] · 쌀새우[白蝦] · 곤쟁이[紫蝦] · 게[蟹] · 청해[靑蟹] · 부레[魚鱧] · 맛조개[竹蛤]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 : 총 32종(동물 32종)

농어[鱸魚] · 홍어(洪魚) · 넓치[廣魚] · 밴댕이[蘇魚] · 조기[石首魚] ·  
참조기[黃石首魚] · 호독어(好獨魚) · 민어(民魚) · 상어[鯊魚] · 붕어  
[鯽魚] · 전어(錢魚) · 망둑어(魷魚) · 승어[秀魚] · 준치[眞魚] · 병어  
(兵魚) · 오징어[烏賊魚] · 낙지[絡縮] · 조개[蛤] · 가무락조개[黃蛤] ·  
맛조개[竹蛤] · 해파리[海鬣] · 토화(土花) · 굴[石花] · 소라(小螺) ·  
게[蟹] · 청게[靑蟹] · 대하(大蝦) · 중하(中蝦) · 쌀새우[白蝦] · 곤쟁  
이[紫蝦] · 부레[魚鰓] · 사자족애(獅子足艾)

안산군(安山郡) : 총 30종(동물 30종)

밴댕이[蘇魚] · 승어[秀魚] · 조기[石首魚] · 참조기[黃石首魚] · 뱀어  
[白魚] · 은어[銀口魚] · 병어(兵魚) · 농어[鱸魚] · 홍어(洪魚) · 준치  
[眞魚] · 민어(民魚) · 전어(錢魚) · 호독어(好獨魚) · 오징어[烏賊魚]  
· 낙지[絡縮] · 해파리[海鬣] · 조개[蛤] · 가무락조개[黃蛤] · 맛조개  
[竹蛤] · 굴[石花] · 토화(土花) · 소라(小螺) · 게[蟹] · 청해(靑蟹) · 대  
하(大蝦) · 중하(中蝦) · 쌀새우[白蝦] · 곤쟁이[紫蝦] · 부레[魚鰓] ·  
사자족애(獅子足艾)

안성군(安城郡) : 총 3종(식물 3종)

삼[麻] · 안식향(安息香) · 지황(地黃)

진위현(振威縣) : 총 3종(식물 1종, 동물 2종)

지황(地黃)/붕어[鯽魚] · 게[蟹]

양천현(陽川縣) : 총 6종(동물 6종)

뱅어[白魚] · 웅어[葦魚] · 면어(綿魚) · 붕어[鯽魚] · 송어[秀魚] · 게[蟹].

용인현(龍仁縣) : 총 2종(식물 2종)

삼[麻] · 지황(地黃).

김포현(金浦縣) : 총 9종(동물 9종)

송어[秀魚] · 웅어[葦魚] · 면어(綿魚) · 굴[石花] · 토화(土花) · 게[蟹]  
· 청해(靑蟹) · 부레[鰓] · 뱅어[白魚]

금천현(衿川縣) : 총 2종(동물 2종)

붕어[鯽魚] · 게[蟹].

양성현(陽城縣) : 총 2종(식물 1종, 동물 1종)

지황(地黃)/웅어[葦魚]

통진현(通津縣) : 총 18종(동물 18종)

토화(土花) · 송어[秀魚] · 낙지[絡繹] · 진어[眞魚] · 뱀뎡이[蘇魚] ·  
굴[石花] · 황어(黃魚) · 붕어[鯽魚] · 웅어[葦魚] · 농어[鱸魚] · 오징어  
[烏賊魚] · 조기[石首魚] · 호독어(好獨魚) · 게[蟹] · 청해(靑蟹) · 중하  
(中蝦) · 쌀새우[白蝦] · 곤쟁이[紫蝦].

양주목(楊州牧) : 총 4종(식물 2종, 균류 1종, 동물 1종)

삼[麻] · 잣[海松子]/송이[松茸]/은어[銀口魚].

과주목(坡州牧) : 총 5종(식물 1종, 동물 4종)

석창포[石菖蒲]/은어[銀口魚] · 게[蟹] · 웅어[葦魚] · 승어[秀魚]

고양군(高陽郡) : 총 3종(동물 3종)

웅어[葦魚] · 게[蟹] · 은어[銀口魚].

영평현(永平縣) : 총 7종(식물 5종, 균류 2종)

안식향(安息香) · 인삼(人蔘) · 오미자(五味子) · 산개(山芥) · 신감채(辛甘菜)/송이[松蕈] · 석이버섯[石蕈]

포천현(抱川縣) : 총 3종(식물 2종, 균류 1종)

산개(山芥) · 신감채(辛甘菜)/송이[松蕈]

적성현(積城縣) : 총 4종(동물 4종)

누치[訥魚] · 쏘가리[錦鱗魚] · 게[蟹] · 산무애뱀[白花蛇].

교하현(交河縣) : 총 4종(동물 4종)

승어[秀魚] · 웅어[葦魚] · 붕어[鰱魚] · 게[蟹].

가평현(加平縣) : 총 5종(식물 3종, 균류 1종, 동물 1종)

잣[海松子] · 산개(山芥) · 신감채(辛甘菜)/버섯[蕈]/승어[秀魚]

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 : 총 9종(식물 2종, 균류 1종, 동물 6종)

삼[麻] · 석창포[石菖蒲]/송이[松蕈]/웅어[葦魚] · 누치[訥魚] · 쏘가리[錦鱗魚] · 승어[秀魚] · 은어[銀口魚] · 게[蟹]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 : 총 18종(식물 2종, 동물 16종)

천초(川椒) · 감(柿)/홍어(洪魚) · 쌀새우(白蝦) · 조개(蛤) · 토화(土花) · 굴(石花) · 낙지(絡締) · 소라(小螺) · 부레(魚鰓) · 송어(秀魚) · 중하(中蝦) · 맛조개(竹蛤) · 파리(海虻) · 참조기(黃石首魚) · 게(蟹) · 청게(靑蟹) · 사자족애(獅子足艾)

풍덕군(豐德郡) : 총 10종(동물 10종)

조기(石首魚) · 송어(秀魚) · 농어(鱸魚) · 붕어(鯽魚) · 낙지(絡締) · 굴(石花) · 토화(土花) · 조개(蛤) · 게(蟹) · 쌀새우(白蝦)

삭녕군(朔寧郡) : 총 5종(식물 3종, 동물 2종)

삼(麻) · 오미자(五味子) · 파(蔥) 『신증』 누치(訥魚) · 쏘가리(錦鱗魚)

양근군(楊根郡) : 총 7종(식물 2종, 균류 1종, 동물 4종)

신감채(辛甘菜) · 오미자(五味子)/송이(松茸)/쏘가리(錦鱗魚) · 누치(訥魚) · 산개(山芥) · 산무애뱀 [白花蛇]

마전군(麻田郡) : 총 4종(식물 1종, 동물 3종)

삼(麻)/누치(訥魚) · 쏘가리(錦鱗魚) · 게(蟹).

연천현(漣川縣) : 총 6종(식물 4종, 동물 2종)

삼(麻) · 오미자(五味子) · 지치(紫草) 『신증』 순채(蓴菜)/『신증』 쏘가리(錦鱗魚) · 누치(訥魚).

교동현(喬桐縣) 총 9종(동물 9종)

조기(石首魚) · 송어(秀魚) · 굴(石花) · 토화(土花) · 조개(蛤) · 낙지(絡締) · 쌀새우(白蝦) · 청해(靑蟹) · 부레(魚鰓).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해당 한자 표기
병어(兵魚), 민어(民魚), 승어[秀魚], 전어(錢魚), 백어[白魚]	감[槲], 대[竹], 전복[鮑], 미역[藷], 조개(蛤), 차[茶], 대추[棗]

### 내용 기술

항목	해당 지역	내용
① 생산지역	음죽현(陰竹縣)	순채(蓴菜) 추택(楸澤)에서 나온다.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	감[槲] 국원(國苑)에서 난다.
② 문헌기록	삭녕군(朔寧郡)	파[薺] 고을 사람들이 파를 많이 심어 이익을 본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도(京都)〉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衍)·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3)</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sup>4)</sup>,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3)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4) 조선인들은 漢城에 대하여 국왕이 거주하며 중앙의 핵심 관서들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차별 지위를 갖는 장소라는 의미로서 ‘京都’라는 위상을 부여하였다. 이때 ‘경도’는 지리적인 실체라기 보다는 정치의 중심지이며 국가의 통치를 상징하고 역사 속 역대 수도들의 맥락 속에 연속되어 있는 추상적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한성부는 지리적 실체로서 구체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장지연(2013), 조선 전기 개념어 분석을 통해 본 수도의 성격,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정은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愷)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서울학연구52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목차

		경도
연 혁	이 지역 형승의 훌륭한함과 '수도'로서 지녀온 내력 서술 (신증) '국도' 항목 신설	
항 목	권1. 경도 상	성곽城郭(京城, 宮城) 궁궐宮闕 단묘端妙 원유苑囿
	권 2. 경도 하	문직공서文職公署 무직공서武職公署

■ 내용

분류 분류 체계 없음

수록 종 수 식물(57종) : 벼(禾), 삼(麻), 콩(菽), 보리(麥), 버드나무(柳), 이끼(爛), 미나리(芹), 운초(芸草), 멥쌀(秣米), 수수(秣米), 자귀(紫蕨), 고사리(蕨), 난초(蘭), 필관(筆管), 산장(酸漿), 황정(黃精), 자근(紫芹), 백고(白蒿), 수료(水蓼), 당귀(當歸), 송부(松膚), 무(蘿), 쑥(艾), 장미(薔薇), 칠쭉(躑躅), 작약(芍藥), 모란(牡丹), 차꽃(醪), 정향(丁香), 작미(雀眉), 산반(山礬), 앵두꽃(櫻桃), 당리화(棠梨花), 연꽃(芙), 배(梨), 밤(栗), 대추(棗), 감(柿), 개암(榛), 송화(松花), 살구(杏), 복숭아(桃), 감자(柑), 귤(橘), 매실(梅), 오얏(李), 석류(石榴), 포도(葡萄), 인삼(蔘), 벗나무(樺), 닳나무(楮), 오동나무(桐), 소나무(松), 가시나무(棘), 노송(老松), 잣나무(栢), 자채(紫菜)

동물(44종) : 매미(蝮), 소(牛), 양(羊), 돼지(豕), 말(馬), 이리(狼), 쥐(鼠), 누에고치(繭), 범(虎), 표범(豹), 고라니(麋), 사슴(鹿), 여우(狐),

담비(貂), 들고양이, 돈피(檄), 고라니(麋), 사슴(鹿), 노루(麋), 포(麋), 거위(鵝) 꿩(雉), 비둘기(鳩), 참새(雀), 매추라기(雉), 황새(鶴), 곤포(昆布), 김(海衣), 굴(蠃), 조개(蛤), 금문(錦紋), 이항(飴項), 중순(重唇), 팔초(八稍), 붕어(鱖), 피라미(鱈) 조기[石首魚], 망조(望潮), 잉어(鯉), 즉어(鰯魚), 대합조개(蛤), 결명자(결명, 決明), 석결명(石決明), 복어(鰻魚)

표기 표기는 한자의 뜻을 쓰는 것과 한자의 음을 빌려 쓰는 것이 공존한다.

훈차	음차	해당 한자 표기
삼(麻), 쑥(艾) 콩(菽), 감(柿)	운초(芸草), 자궤(紫葳), 필관(筆管), 산장(酸漿), 황정(黃精), 자근(紫芹)	살구(杏), 벼(禾), 보리(麥), 대추(棗)

한자 표기가 특이한 예 : 이끼(爛 문채 란), 매미(蝻 쓰르라미 조), 김(海衣 해의), 수수(秣米 력미), 과하마(果下馬)

내용기술 (서경은) 벼(禾)나 삼(麻)이나 콩(菽)이나 보리(麥)를 심기에 적당하며 그 풀(草)은 무성하고 그 나무(木)는 키가 크다. 이때에 와서야 중국에서처럼 높은 버드나무(柳)가 있게 되었다.

(기자묘에는)알록달록한 이끼(爛)가 끼어 있어, 마치 무늬가 있는 비단옷을 입은 것과 같다.

(개성에서)미나리(芹)는 반수에서 향기를 피우고 운초(芸草)는 묵은 책 속의 썸을 물리친다.

(중국 사자가 와서 연회를 할 때) 장조림과 젓갈을 섞으며, 술은 멧쌀(秣米)로 빚는데 수수(秣米)는 쓰지 않는다. 희생에는 소(牛), 양(羊), 돼지(豕), 거위(鵝)의 네 종류가 있는데 모두 익힌 것이다.

어떤 짐은 가시나무(棘) 가지가 도리어 처마 끝에까지 나왔고 어떤

집은 겨우 동그란 소반만하다.

(평안도에서 황해도까지) 집에서 돼지(豕)를 기르지 않고 채소밭에는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끄는 데에는 오직 소(牛)나 말(馬) 외에는 쓰는 것이 없고, 말(馬)을 부리는 사람은 많고 소(牛)를 부리는 사람은 적다. 목축에는 전혀 양(羊)을 볼 수 없다.

새로는 꿩(雉), 비둘기(鳩), 참새(雀), 메추라기(雉)가 많고 짐승으로는 고라니(麋), 사슴(鹿), 노루(麋), 포(麇)가 많다. 포(麇)는 노루(麋)와 같은데 뿔이 하나이고, 그 고기는 매우 맛나다. 산에는 포(麇)가 나지 않는다.

해산물로는 곤포昆布, 김海衣, 굴蠔, 조개이고, 곤포는 종려나무잎과 같은 녹색이다. 김은 자채(紫菜)와 같은데 크다. 금문(錦紋)은 붕어(鱣)와 비슷한데 몸이 둥글고, 이항(飴項)은 피라미(鱻)와 같은데 훌쭉한 것 밖에 볼 수 없다. 중순은 중국의 눈이 붉은 고기와 같은데 입술은 말코 같고 살은 매우 맛나며 그 새끼는 조기 새끼 같은데 잘고도 많다. 팔초(八稍)는 곧 절강(浙江)의 망조(望潮)인데 맛은 그다지 좋지 못하고 길이는 45척이 된다. 잉어鯉와 즉어(鯽魚)는 내와 못 어디서나 모두 잡을 수 있다. 청천, 대정, 임진, 한강의 여러 물에 다 있고, 즉어(鯽魚)는 길이가 한자쯤 되는 것도 있다. 황새(鶴)는 정원(庭院)에도 그 보금자리가 많이 보인다. 대합조개(蛤) 같은 결명자(결명, 決明)은 그 맛이 해산물에서 제일 맛나고 석결명(石決明)은 약에 넣는 것이다. 그 살이 밖으로는 껍질에 붙고 속은 돌이 붙었는데 복어(鰻魚)라고도 한다. 껍질은 바닷가의 구멍이나 바다 복판에 있다. 주먹 같은 자귤(紫蕨)은 그 맛이 산채(山菜) 중에

서 제일 낫다. 고사리(蕨)에는 푸른빛과 자줏빛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 나는 것과 같다. 그 지방 사람들은 잘 썰 줄을 모른다.

시내나 육지에서 나는 기이한 물건에 있어서는 난초(蘭) 향기를 피우는 것은 필관(筆管), 산장(酸漿)과, 필관은 썩을 먹는데 맛이 부드럽고 달다. 그 잎은 알 수 없는데 혹은 황정(黃精) 썩이라 한다. 산장의 잎은 뽕죽하고 즐기는 푸르거나 붉으며 맛은 달고 시다. 자근(紫芹)과 백고(白蒿)가 있다. 왕도와 개성 사람들 집의 작은 못에는 다 미나리뿌를 심는다. 수료(水蓼)의 썩 당귀(當歸)의 썩·송부(松膚)의 떡·산삼(山蔘)의 떡은 소나무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희고 부드러운 속껍질을 벗겨 멍쌀을 섞어 찜어서 떡을 만든다. 산삼(山蔘)이란 약에 쓰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이는 손가락만 한데 형상은 무와 같다. 요동사람들은 그것을 산무라 하고, 거기에 멍쌀을 섞어 찜고 구워서 떡을 만든다.

과실로는 배(梨), 밤(栗), 대추(棗), 감(柿), 개암(榛), 송화(松花), 살구(杏), 복숭아(桃), 감자(柑), 귤(橘), 매실(梅), 오얏(李), 석류(石榴), 포도(葡萄)이고, 배, 대추, 개암이 가장 많아서 어디에나 있고 감자와 귤은 전라도에서 난다.

가죽으로는 범(虎), 표범(豹), 고라니(麋), 사슴(鹿), 여우(狐), 담비(貂), 들고양이, 돈피(犴)이니 토인들은 담비를 돈피라 하고, 들고양이의 가죽은 알지 못한다.

꽃으로는 장미(薔薇), 철쭉(躑躅), 작약(芍藥), 모란(牡丹), 차꽃(酴), 정

향(丁香), 작미(雀眉), 산반(山礬)이 있다. 2월이 한창인데 앵두꽃(櫻桃)은 다 지고, 늦봄이 다 가지 않았는데도 오얏꽃(李)이 모두 시들었다. 내가 3월 8일 그 나라에서 떠날 때에 당리화(棠梨花)가 거의 떨어졌는데, 또 며칠을 걸어 압록강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막 피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 나라가 동남쪽에 가까울수록 따듯했기 때문이다.

풀은 대부분 무성하게 우거졌으며, 나무는 대부분 둥글고 고불고 불하다. 산에 모래와 돌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노송(老松)은 단단 하기가 잣나무(栢)와 같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등불 기름을 만들려 하나 송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소나무의 껍이 가장 단단 하고 누른 빛이 잣나무와 같으나 기름이 적다. 어디를 가나 있다. 그 향기로운 꽃은 한번 봄이 지나면 모두 마고, 맺은 열매는 2년 만에야 먹는다.

소나무(松)에는 두 종류가 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껍질이 그다지 거칠지 않고 가지와 잎은 위로 치솟았으며, 맺은 열매는 2년 만이라야 딸 수가 있다. 경기도에 가서야 있었다. 작은 것은 시내의 다리를 만들고, 큰 것은 묘당(廟堂)의 기둥이 된다. 대개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이 있으면 모두 소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고, 그 가지를 잘라서는 난간을 만들며 잎을 가지고서는 좌우의 흠을 막는다. 보산관(寶山館)에 가까운 한 시내는 저탄(猪灘)이라 하는데, 넓이가 20여 길이나 되며 소나무로 다리를 놓았다. 들보나 마룻대를 만들려면 곧은 것을 얻기가 어렵고, 만일 다락 기둥으로 쓰려면 아래 위의 두 동강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 종류가 같지 않으므로 그

것을 씌에는 각각 알맞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志)》에 실린 것은 이리(狼) 꼬리로 만든 붓이고, 《일통지(一統志)》에, 생산되는 것에 이리 꼬리로 만든 붓은 그 대롱은 작기가 화살 같고, 수염 길이는 한 치 남짓하며 붓 끝이 자루에 들어 둥글다고 하였다.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누런 쥐(鼠)의 털로 만든 것이고 이리 꼬리가 아니었다. 무인(武人)이 숭상하는 것은 뱃나무(樺) 껍질로 만든 활이다. 활은 중국의 제도에 비하면 조금 짧다. 그러나 화살은 매우 잘 나간다. 베는 삼(麻)으로 짜는데 모시로 이름 지은 것은 잘못 전해들은 데서 나왔고, 종이는 닥나무楮로 만드는데 누에고치(繭)로 만든다고 하니, 인식하는 것은 도련(搗鍊)한 것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또 《일통지》에, “백제에서 과하마(果下馬)가 나는데 그 키는 석자로써 과실나무 밑에서도 탈 수 있다.” 하였다.

오직 오엽(五葉)의 인삼(蔘)과 만화석(滿花席)이 있어서 오엽의 인삼이란, 즉 《본초(本草)》에서 말한 인삼이다. 만화석의 풀빛은 누르고 또 부드러워 아무리 접어도 꺾어지지 않으니, 소주(蘇州)의 것에 비하면 훨씬 좋다. 해마다 중국에 조공으로 바치고 때때로 상국(上國)에도 공물로 바친다.

(경회루(慶會樓)에) 연꽃(芙蓉)을 심었으며, 그 못 속에 두 개의 섬이 있다.

고려 때 오얏나무(李)를 한양에 심어 오얏나무가 무성해지면서 번

번이 배어버려서 지기를 눌렀었는데, 이때 와서 과연 경험하였다.

인용문헌 《지(志)》 《일통지》 《본초(本草)》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慶尙道)〉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5)</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

---

5)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정은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경도 상(京都上)

경도 하(京都下)

한성부(漢城府)

개성부 상(開城府上)

개성부 하(開城府下)

경기(京畿)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황해도(黃海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평안도(平安道) 제 21권

경주부(慶州府)

제 22권

울산군(蔚山郡)/양산군(梁山郡)/영천군(永川郡)/흥해군(興海郡)

제 23권

동래현(東萊縣)/청하현(淸河縣)/영일현(迎日縣)/장기현(長鬐縣)/기  
장현(機張縣)/언양현(彦陽縣)

제 24권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청송도호부  
(靑松都護府)/예천군(醴泉郡)

제 25권

영천군(榮川郡)/풍기군(豐基郡)/의성현(義城縣)/영덕현(盈德縣)/봉  
화현(奉化縣)/진보현(眞寶縣)/군위현(軍威縣)/비안현(比安縣)/예안  
현(禮安縣)/용궁현(龍宮縣)

제 26권

대구도호부(大丘都護府)/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청도군(淸道郡)

제 27권

경산현(慶山縣)/하양현(河陽縣)/인동현(仁同縣)/현풍현(玄風縣)/의  
흥현(義興縣)/신녕현(新寧縣)/영산현(靈山縣)/창녕현(昌寧縣)

제 28권

상주목(尙州牧)/성주목(星州牧)

제 29권

선산도호부(善山都護府)/김산군(金山郡)/개령현(開寧縣)/지례현(知禮縣)/고령현(高靈縣)/문경현(聞慶縣)/함창현(咸昌縣)

제 30권

진주목(晉州牧)/합천군(陝川郡)/초계군(草溪郡)

제 31권

함양군(咸陽郡)/곤양군(昆陽郡)/남해현(南海縣)/거창군(居昌郡)/사천현(泗川縣)/삼가현(三嘉縣)/의령현(宜寧縣)/하동현(河東縣)/산음현(山陰縣)/안음현(安陰縣)/단성현(丹城縣)

제 32권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창원도호부(昌原都護府)/함안군(咸安郡)/거제현(巨濟縣)/고성현(固城縣)/칠원현(漆原縣)/진해현(鎭海縣)/웅천현(熊川縣)

■ 내용

분류 각 도의 연혁과 총론·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혁,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關防)·봉수·누정·학교·역원·교량위치·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名宦)·인물·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물 속에는 호자·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목·부·군·현의 ‘토산’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설명을 하였다.

수록 종수 경주부(慶州府) : 총 25종(식물 11종, 균류 1종, 동물 14종)

갯[海松子], 옷[漆], 천문동(天門冬), 하수오(何首烏), 오수유(吳茱萸),

김[海衣], 미역[藪], 곤포(昆布), 다시마[塔士麻]

산수유(山茱萸), 왜저(倭楮)/송이[松蕈]/전복[鮑], 연어(鱒魚), 넙치[廣魚], 은어[銀口魚], 대구(大口), 홍합(紅蛤), 청어(靑魚), 방어(魴魚), 황어(黃魚), 홍어(洪魚), 산무애뱀[白花蛇]. 『신증』 농어[鱸魚], 문어(文魚), 송어(松魚)

울산군(蔚山郡) : 총 32종(식물 12종, 균류 1종, 동물 19종)

심중청(深中靑), 대나무(죽[竹], 차[茶], 오맥문동(麥門冬), 해조(烏海藻), 백복령(白茯苓), 방풍(防風), 천문동(天門冬), 김[海衣], 미역[藪], 우모(牛毛). 『신증』 왜저(倭楮)/표고[香蕈]/ 전자리상어[占察魚], 황어(黃魚), 연어(鱒魚), 넙치[廣魚], 대구(大口), 전복[鮑], 홍합(紅蛤), 청어(靑魚), 홍어(洪魚), 상어[鯊魚], 해삼(海蔘), 굴[石花], 은어[銀口魚], 고등어[古刀魚], 방어(魴魚), 해달(海獺), 전어(錢魚). 『신증』 낙지[絡繹], 문어(文魚)

양산군(梁山郡) 총 9종(식물 3종, 균류 2종, 동물 4종)

대나무(죽[竹], 천문동(天門冬). 『신증』 차[茶]/송이[松蕈], 표고[香蕈]/ 은어[銀口魚], 황어(黃魚). 『신증』 웅어[羣魚], 수어(秀魚).

영천군(永川郡) 총 13종(식물 19종, 균류 2종, 동물 2종)

왕골[莞草], 입초(笠草), 산수유(山茱萸), 인삼(人蔘), 잣[海松子], 지치[紫草], 옷[蓀], 지황(地黃), 맥문동(麥門冬)/복령(茯苓), 송이[松蕈]/은어[銀口魚], 황어(黃魚)

흥해군(興海郡) 총 18종(식물 3종, 균류 1종, 동물 14종)

대나무(죽[竹]), 김[海衣], 미역[藿]/『신증』송이[松蕈]/우모(牛毛), 전복[鮑], 대구(大口), 청어(靑魚), 홍합(紅蛤), 넙치[廣魚], 방어(魴魚), 상어[鯨魚], 고등어[古刀魚], 해삼(海蔘), 참가사리[細毛], 『신증』송어(松魚), 홍어(洪魚), 은어[銀口魚].

동래현(東萊縣) 총 21종(식물 8종, 균류 1종, 동물 12종)  
석류(石榴), 유자(柚), 대나무(죽[竹]), 오해조(烏海藻), 김[海衣], 미역[藿], 곤포(昆布), 다시마[塔士麻]/표고[香蕈]/전자리상어[占察魚], 대구(大口魚), 청어(靑魚), 홍어(洪魚), 전어(錢魚), 전복[鮑], 굴[石花], 홍합(紅蛤), 해삼(海蔘). 『신증』은어[銀口魚], 농어[鱸魚], 넙치[廣魚].

청하현(淸河縣) 총 10종(식물 2종, 균류 1종, 동물 7종)  
김[海衣], 미역[藿]/석이[石蕈]/방어(魴魚), 전복[鮑], 대구(大口), 청어(靑魚), 홍합(紅蛤), 백조어(白條魚), 넙치[廣魚].

영일현(迎日縣) 총 10종(식물 3종, 균류 1종, 동물 16종)  
대나무(죽[竹]), 김[海衣], 미역[藿]/송이[松蕈]/해달(海獺), 방어(魴魚), 연어(鱒魚), 전복[鮑], 방풍(防風), 넙치[廣魚], 대구(大口), 홍합(紅蛤), 은어[銀口魚], 청어(靑魚), 황어(黃魚), 전어(錢魚), 상어[鯨魚], 송어(松魚), 홍어(洪魚), 고등어[古刀魚].

장기현(長鬐縣) 총 16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11종)  
뇌록(磊錄), 마황(麻黃), 미역[藿], 김[海衣]/송이[松蕈]방풍(防風), 넙치[廣魚], 해삼(海蔘), 상어[鯨魚], 대구(大口), 방어(魴魚), 청어(靑魚), 송어(松魚), 전복[鮑], 홍합(紅蛤), 해달(海獺)

기장현(機張縣) 총 21종(식물 8종, 동물 13종)

석류(石榴), 감[栲], 유자[柚], 오해조(烏海藻), 대[竹], 김[海衣], 미역[藪], 방풍(防風)/넙치[廣魚], 전자리상어[占察魚], 청어(靑魚), 대구(大口), 홍합(紅蛤), 전복[鮑], 홍어(洪魚), 상어[鯊魚], 전어(錢魚), 고등어[古刀魚], 가사리(加士里), 참가사리[細毛], 해삼(海蔘).

언양현(彦陽縣) 총 10종(식물 4종, 균류 3종, 동물 2종)

지황(地黃), 참외[苳], 석류(石榴), 『신증』 대나무(죽[竹]/표고[香蕈], 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은어[銀口魚], 황어(黃魚)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총 11종(식물 6종, 균류 3종, 동물 2종)

인삼(人蔘), 잣[海松子], 설면(雪綿), 왕골[莞草], 오미자(五味子), 지황(地黃)/적복령(赤茯苓), 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은어[銀口魚], 신무애뱀[白花蛇]

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 총 18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11종)

대나무(죽[竹]), 인삼(人蔘), 김[海衣], 미역[藪], 석류(石榴), 청각(靑角)/송이[松蕈]/망어(魴魚), 대구[大口魚], 홍어(洪魚), 문어(文魚), 송어(松魚), 넙치(廣魚), 연어(鱒魚), 자해(紫蟹), 고등어[古刀魚], 홍합(紅蛤), 전복[鮑], 참가사리[細毛]

청송도호부(靑松都護府) 총 10종(식물 5종, 균류 2종, 동물 3종)

웃[漆], 잣[海松子], 왕골[莞草], 개미취(자초, 紫草), 인삼(人蔘)/석이버섯[石蕈], 송이[松蕈]/웅담(熊膽), 산무애뱀[白花蛇], 영양(羚羊)

예천군(醴泉郡) 총 11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3종)

개미취(자초, 紫草), 왕골(莞草),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잣(海松子), 닥종이[楮/송이(松蕈)/은어(銀口魚), 붕어(鯿魚), 산무애뱀(白花蛇)]

영천군(榮川郡) 총 10종(식물 6종, 균류 3종, 동물 1종)

종이[紙], 잣(海松子), 인삼(人蔘), 옷[漆], 지황(地黃), 왕골(莞草)/석이버섯(石蕈), 복령(茯苓), 송이[松蕈]/은어[銀口魚]

풍기군(豊基郡) 총 8종(식물 5종, 균류 2종, 동물 1종)

인삼(人蔘), 잣(海松子), 지치(紫草), 왕골(莞草), 닥종이[楮/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은어(銀口魚).

의성현(義城縣) 총 4종(식물 3종, 균류 1종)

지치(紫草), 인삼(人蔘), 옷[漆]/송이[松蕈]

영덕현(盈德縣) 총 23종(식물 8종, 동물 15종)

대나무(죽(竹), 잣(海松子), 지치(紫草), 애끼찌(弓幹木, 미역[藷], 인삼(人蔘), 김(海衣), 자해(紫蟹)/송어(松魚), 전복(鮑), 방어(魴魚), 연어(鱒魚), 대구(大口), 문어(文魚), 상어(鯊魚), 청어(靑魚), 백조어(白條魚), 홍합(紅蛤), 넓치(廣魚), 황어(黃魚), 은어(銀口魚), 해삼(海蔘), 참가사리(細毛)

봉화현(奉化縣) 총 7종(식물 2종, 균류 2종, 동물 3종)

잣(海松子), 인삼(人蔘)/석이버섯(石蕈), 송이[松蕈]/수달(水獺), 산무애뱀(白花蛇), 은어(銀口魚)

진보현(眞寶縣) 총 6종(식물 3종, 균류 3종)

지치(紫萁), 인삼(人蔘), 지황(地黃)/백복령(白茯苓), 송이[松藓], 석이버섯[石蕈].

군위현(軍威縣) 총 4종(식물 3종, 균류 1종)

옷[漆], 지치(紫萁), 목화씨[綿子]/송이[松藓]

비안현(比安縣) 총 3종(식물 3종)

옷[漆], 지치(紫萁), 인삼(人蔘).

예안현(禮安縣) 총 9종(식물 5종, 균류 3종, 동물 1종)

인삼(人蔘), 지치(紫萁), 오미자(五味子), 잣[海松子], 옷[漆]/백복령(白茯苓), 석이버섯[石蕈], 송이[松藓]/은어[銀口魚]

용궁현(龍宮縣) 총 5종(식물 3종, 동물 2종)

왕골[莞草], 배[梨], 잣[海松子]/은어[銀口魚], 산무애뱀[白花蛇]

대구도호부(大丘都護府) 총 18종(식물 11종, 균류 2종, 동물 5종)

감(柿竹), 잣[海松子], 대나무(죽[竹], 호두[胡桃], 입초[笠草], 지황(地黃). 『신증』 지치(紫萁), 옷[漆], 석류(石榴), 구기자(枸杞子), 인삼(人蔘)/백복령(白茯苓), 송이[松藓]/붕어[鯽魚], 은어[銀口魚], 황어(黃魚). 『신증』 잉어[鯉魚], 쇠무릎(牛膝)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 총 19종(식물 11종, 균류 3종, 동물 5종)

종이[紙], 차[茶], 잣대[笛竹], 대나무(죽[竹]), , 석류(石榴), 밤[栗], 옷[漆], 지황(地黃), 『신증』 삼[麻], 천문동(天門冬), 닥종이[楮]/복령, 송

이[松藪], 석이버섯[石藪/은어[銀口魚], 황어(黃魚), 붕어(鯽魚). 『신증』 웅어[葦魚], 농어[鱸魚]

청도군(淸道郡) 총 13종(식물 9종, 균류 3종, 동물 1종)  
종이[紙], 짓대[笛竹], 감[柿], 밤[栗], 옷[漆], 호두[胡桃], 석류황(石硫黃), 지황(地黃), 닥종이[楮/석이버섯[石藪], 송이[松藪], 복령(茯苓)/ 은어[銀口魚]

경산현(慶山縣) 총 6종(식물 3종, 균류 1종, 동물 2종)  
입초(笠草), 대추[棗], 매실(梅實)/백복령(白茯苓)/은어(銀魚), 붕어[鯽魚]

하양현(河陽縣) 총 4종(식물 2종, 동물 2종)  
대추[棗], 입초(笠草)/붕어[鯽魚], 은어[銀口魚].

인동현(仁同縣) 총 5종(식물 3종, 동물 2종)  
호두[胡桃], 감[柿], 지황(地黃)/은어[銀口魚], 붕어[鯽魚]

현풍현(玄風縣) 총 8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3종)  
지치[紫草], 오매(烏梅), 대나무[竹], 석류(石榴)/복령(茯苓)/붕어[鯽魚], 잉어[鯉魚], 산무애뱀[白花蛇]

의흥현(義興縣) 총 8종(식물 5종, 균류 2종, 동물 1종)  
인삼(人蔘), 지치[紫草], 옷[漆], 입초(笠草), 지황(地黃)/석이버섯[石藪], 송이[松藪]/산무애뱀[白花蛇]

신녕현(新寧縣) 총 5종(식물 5종)

인삼(人蔘), 옷[漆], 입초(笠草), 지황(地黃), 맥문동(麥門冬).

영산현(靈山縣) 총 9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2종)

대[竹], 대나무(죽[竹]), 매실(梅實), 감[柿], 석류(石榴). 『신증』 감초(甘草)/복령(茯苓)/붕어[鯽魚], 잉어[鯉魚]

창녕현(昌寧縣) 총 6종(식물 3종, 균류 1종, 동물 2종)

대나무(죽[竹]), 석류(石榴), 오미자(五味子)/백복령(白茯苓)/붕어[鯽魚], 산무애뱀[白花蛇]

상주목(尙州牧) 총 10종(식물 6종, 균류 2종, 동물 2종)

호두(胡桃), 감[柿], 밤[栗], 왕골[莞草], 인삼(人蔘), 안식향(安息香)/석이버섯[石蕈], 송이[松蕈]/은어[銀口魚], 산무애뱀[白花蛇]

성주목(星州牧) 총 6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1종)

지치[紫萼], 옷[漆], 안식향(安息香), 잣[海松子]/송이[松蕈]/은어[銀口魚]

선산도호부(善山都護府) 총 9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3종)

잣[海松子], 밤[栗], 왕골, 옷[漆], 감[柿]/백복령(白茯苓)/붕어[鯽魚], 잉어[鯉魚], 산무애뱀[白花蛇]

김산군(金山郡) 총 4종(식물 1종, 균류 1종, 동물 2종)

지황(地黃)/송이[松蕈]/은어[銀口魚], 산무애뱀[白花蛇]

개령현(開寧縣) 총 3종(식물 3종)

대추[棗], 안식향(安息香), 지황(地黃)

지례현(知禮縣) 총 5종(식물 2종, 균류 2종, 동물 1종)

잣[海松子], 석류(石榴)/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은어[銀口魚]

고령현(高靈縣) 총 6종(식물 5종, 동물 1종)

감[槲], 대[竹], 비자(榧子), 지황(地黃), 매실(梅實)/은어[銀口魚].

문경현(聞慶縣) 총 6종(식물 1종, 균류 2종, 동물 3종)

잣[海松子]/석이버섯[石蕈], 송이[松蕈]/은어[銀口魚], 산무애뱀[白花蛇], 웅담(熊膽).

함창현(咸昌縣) 총 4종(식물 1종, 균류 1종, 동물 2종)

지황(地黃)/송이[松蕈]/은어[銀口魚], 산무애뱀[白花蛇]

진주목(晉州牧) 총 23종(식물 12종, 균류 1종, 동물 10종)

닥종이[楮], 감[槲], 차[茶], 생강[薑], 석류(石榴), 옷[漆], 대나무(죽[竹]), 매실(梅實). 『신증』 오미자(五味子), 대[竹], 미역[藷], 청각(靑角)/송이[松蕈]/대구(大口), 해삼(海蔘), 전복[鮑], 은어[銀口魚], 황어(黃魚). 『신증』 웅담(熊膽), 녹용(鹿茸), 문어(文魚), 낙지[絡繹], 조기[石首魚].

함천군(陝川郡) 총 10종(식물 5종, 균류 3종, 동물 2종)

감[槲], 닥종이[楮], 잣[海松子],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송이[松蕈],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蕈]/은어[銀口魚], 산무애뱀[白花蛇]

초계군(草溪郡) 총 9종(식물 9종, 동물 2종)

닥종이[楸], 감[柑], 대[竹], 안식향(安息香), 호두[胡桃], 잣[海松子], 석류(石榴)/산무애뱀[白花蛇], 붕어[鯽魚].

함양군(咸陽郡) 총 8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2종)

대[竹], 감[柑], 석류(石榴), 잣[海松子]. 『신증』 오미자(五味子)/석이버섯[石蕈]/벌[蜂蜜], 은어[銀口魚]

곤양군(昆陽郡) 총 24종(식물 7종, 균류 1종, 동물 16종)

감[柑], 유자[柚], 석류(石榴), 차[茶], 대[竹], 실미역, 김[海衣]. 『신증』 담채(淡菜)/표고[香菇]/문어(文魚), 대구[大口魚], 굴[石花], 전복[鮑], 은어[銀口魚], 오징어[烏賊魚], 전어(錢魚), 홍어(洪魚), 낙지[絡繹], 게[蟹], 해삼(海蔘), 송어(松魚), 『신증』 농어[鱸魚], 송어[秀魚], 조기[石首魚]

남해현(南海縣) 총 25종(식물 7종, 균류 2종, 동물 16종)

석류(石榴), 유자[柚], 애끼찌[弓幹棗], 비자(榲子), 닥종이[楸], 미역[藷]. 『신증』 치자(梔子)/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

살조개[江瑤柱], 문어(文魚), 홍어(洪魚), 오징어[烏賊魚], 전복[鮑], 조개(蛤), 대구[大口魚], 청어(靑魚), 모래무지[蠶魚], 홍합(紅蛤). 『신증』 낙지[絡繹], 준치[眞魚], 조기[石首魚], 송어[秀魚], 농어[鱸魚], 해삼(海蔘)

거창군(居昌郡) 총 8종(식물 7종, 동물 1종)

오미자(五味子), 감[柑], 밤[栗], 석이버섯[石蕈], 송이[松蕈], 잣[海松子]. 『신증』 당귀[當歸], 은어[銀口魚]. 『신증』 웅담(熊膽)

사천현(泗川縣) 총 22종(식물 8종, 균류 1종, 동물 13종)

석류(石榴), 유자(柚), 지황(地黃), 매실(梅實), 대[竹], 감[栲], 대나무(죽[竹], 미역[藿]/석이버섯[石蕈]/모래무지[鯊魚], 전복[鮑], 조개[蛤], 문어(文魚), 황어(黃魚), 은어[銀口魚], 게[蟹], 굴[石花], 해삼(海蔘), 홍어(洪魚) 『신증』 조기[石首魚], 송어[秀魚], 낙지[絡繹].

삼가현(三嘉縣) 총 6종(식물 4종, 동물 2종)

감[栲], 지황(地黃). 『신증』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은어[銀口魚]. 『신증』쏘가리[錦鱗魚].

의령현(宜寧縣) 총 10종(식물 7종, 동물 3종)

매실(梅實), 대[竹], 모시[苧], 옷[漆], 석류(石榴), 감[栲], 닥종이[楮]/산무애뱀[白花蛇], 은어[銀口魚], 붕어[鯽魚]

하동현(河東縣) 총 25종(식물 7종, 균류 1종, 동물 17종)

차[茶], 석류(石榴), 유자(柚), 대[竹], 감[栲], 실미역, 미역[藿]/백복령(白茯苓)/대구[大口魚], 전복[鮑], 문어(文魚), 은어[銀口魚], 조기[石首魚], 모래무지[鯊魚], 홍어(洪魚), 낙지[絡繹], 준치[眞魚], 굴[石花], 게[蟹], 해삼(海蔘), 가사리(加士里), 우무(牛毛). 『신증』조기[石首魚], 송어[秀魚], 농어[鱸魚]

산음현(山陰縣) 총 11종(식물 6종, 균류 2종, 동물 3종)

차[茶], 대[竹], 감[栲], 석류(石榴). 『신증』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은어[銀口魚], 산무애뱀[白花蛇] 『신증』웅담(熊膽)

안음현(安陰縣) 총 9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3종)

호두[호도(胡桃)], 오미자(五味子), 감[楮], 대[竹]. 『신증』 당귀[當歸]/석  
이버섯[石蕈]/은어[銀口魚], 산무애뱀[白花蛇]. 『신증』 웅담(熊膽)

단성현(丹城縣) 총 7종(식물 6종, 동물 1종)

매실(梅實), 감[楮], 비자(榧子), 대[竹], 차[茶], 석류(石榴)/은어[銀口  
魚].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총 23종(식물 6종, 동물 17종)

곤쟁이[紫蟻], 석류(石榴), 대나무(죽[竹]), 지치[紫草], 표고[香蕈], 미  
역[藜]/송어[秀魚], 전복[鮑], 맨뎡이[蘇魚], 병어[白魚], 농어[鱸魚], 붕  
어[鯽魚], 문어(文魚), 청어(靑魚), 웅어[葦魚], 대구[大口魚], 토화(土  
花), 굴[石花], 조개[蜆], 오사(烏蛇), 산무애뱀[白花蛇]

『신증』 홍어(洪魚), 잉어[鯉魚].

창원도호부(昌原都護府) 총 19종(식물 6종, 동물 13종)

대[竹], 석류(石榴), 옷[漆], 왜저(倭楮), 유자[柚], 감[楮]/굴[石花], 해삼  
(海蔘), 오징어[烏賊魚], 가사리(加士里). 『신증』 대구[大口魚], 청어(靑  
魚), 황어(黃魚), 홍어(洪魚), 송어[秀魚], 조기[石首魚], 낙지[絡繃], 웅  
어[葦魚], 붕어[鯽魚].

함안군(咸安郡) 총 10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3종)

대[竹], 옷[漆], 종이, 감[楮], 석류(石榴). 『신증』 대추[棗]/표고[香蕈]/  
은어[銀口魚], 붕어[鯽魚], 잉어[鯉魚].

거제현(巨濟縣) 총 23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16종)

왜닥(倭楮), 유자(柚), 석류(石榴), 옷[漆], 미역[藪], 지황(地黃)/표고(香  
蕈)/수달(水獺), 문어(文魚), 전복(鮑), 조개(蛤), 홍어(洪魚), 청어(青  
魚), 대구(大口魚), 산무애뱀(白花蛇), 해삼(海蔘), 모래무지(蠶魚), 전  
어(錢魚). 『신증』치자(梔子), 준치(眞魚), 조기(石首魚), 송어(秀魚), 농  
어(鱸魚), 낙지(絡縮)

고성현(固城縣) 총 28종(식물 10종, 균류 2종, 동물 16종)

대[竹], 석류(石榴), 유자(柚), 왜저(倭楮), 감(柑), 녹반(綠攀), 미역  
[藪], 맥문동(麥門冬), 차[茶], 김[海衣]/표고(香蕈), 송이(松茸)/대구(大  
口魚), 전복(鮑), 해삼(海蔘), 굴[石花], 청어(青魚), 문어(文魚), 전어(錢  
魚), 홍합(紅蛤). 『신증』곤쟁이(紫蜆), 황어(黃魚), 조기(石首魚), 송어  
[秀魚], 농어(鱸魚), 오징어[烏賊魚], 낙지(絡縮), 녹용(鹿茸)

칠원현(漆原縣) 총 11종(식물 4종, 동물 7종)

인삼(人蔘), 감(柑), 옷[漆]. 『신증』대[竹]/청어(青魚), 대구(大口魚), 산  
무애뱀(白花蛇). 『신증』해삼(海蔘), 조기(石首魚), 붕어(鯽魚), 홍어(洪  
魚)

진해현(鎭海縣) 총 13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13종)

유자(柚), 차[茶], 석류(石榴). 『신증』대[竹]/표고(香蕈)/홍어(洪魚), 문  
어(文魚), 대구(大口魚), 전복(鮑), 조개(蛤), 굴[石花], 모래무지(蠶魚),  
청어(青魚). 『신증』은어(銀口魚), 황어(黃魚), 조기(石首魚), 오징어[烏  
賊魚], 낙지(絡縮)

웅천현(熊川縣) 총 23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17종)

석류(石榴), 유자(柚), 대[竹, 미역[藷]. 『신증』담채(淡菜)/표고(香菇)/세모(細毛), 대구(大口魚), 청어(靑魚), 전어(錢魚), 홍어(洪魚), 문어(文魚), 전복(鮑), 오징어(烏賊魚), 조기(石首魚), 굴(石花), 오사(烏蛇), 산무애뱀[白花蛇], 해삼(海蔘). 『신증』 낙지(絡繹), 송어[秀魚], 농어[鱸魚], 모래무지[鯊魚].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해당 한자 표기
홍어(洪魚), 문어(文魚), 석류(石榴)	감(柿), 대[竹, 전복(鮑), 미역[藷], 조기(蛤), 차(茶), 대추(棗), 옷(漆)

### 내용 기술

항목	해당 지역	내용
① 생산지 역	울산군 (蔚山郡)	심중청(深中靑) 고을 성 북쪽 문 밖에서 난다. 대나무(죽[竹]) 죽도에서 난다. 차(茶) 우불산(于弗山)에서 난다.
	양산군 (梁山郡)	대나무(죽[竹]) 고성산에서 난다.
	흥해군 (興海郡)	대나무(죽[竹]) 성황산(城隍山)과 망창산(望昌山) 강 기슭에서 난다.
	동래현 (東萊縣)	대나무(죽[竹]) 소산(蘇山)에서 난다.
	영일현 (迎日縣)	대나무(죽[竹]) 대흥산(大興山)에서 난다.
	기장현	오해조(烏海藻) 가을포(加乙浦)에서 난다.

항목	해당 지역	내용
	(機張縣)	
	영해도호부(寧海都護府)	대나무(죽(竹) 축산도에서 난다.
	의성현(義城縣)	사(絲) · 슴(繭) 잠실(蠶室)은 현 북쪽 사진리(沙眞里)에 있다.
	영덕현(盈德縣)	대나무(죽(竹) 남산(南山) · 오보산(烏保山) · 구배산(臼背山)에서 난다.
	대구도호부(大丘都護府)	대나무(죽(竹) 왕산(王山)에서 난다.
	청도군(淸道郡)	젓대(筍竹) 군의 동쪽 와암리(臥巖里)에서 나온다. 석류황(石硫黃) 마곡산에서 나온다.
	영산현(靈山縣)	대나무(죽(竹) 병풍암(屏風巖)에서 난다.
	창녕현(昌寧縣)	대나무(죽(竹) 화왕산(火王山)에서 난다.
	선산도호부(善山都護府)	밤(栗) 동지 숲에서 난다.
	고령현(高靈縣)	비자(樵子) 반룡산(盤龍山)에서 난다.
	사천현(泗川縣)	대나무(죽(竹) 옥산(玉山)에서 생산된다.
	거제현(巨濟縣)	왜덕(倭楸) 유자도(柚子島)에 심는다.

항목	해당 지역	내용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대나무(죽(竹)) 덕지도와 죽도(竹島)에서 나온다.
	고성현(固城縣)	녹반(綠磬) 주악곶(住岳串) 바닷가 바위에서 난다. 왜저(倭楮) 자란도(自卵島)에 심는다.
	진해현(鎭海縣)	『신증』대(竹) 고현(古縣)에서 많이 난다.
	고성현(固城縣)	녹반(綠磬) 주악곶(住岳串) 바닷가 바위에서 난다.
	진주목(晉州牧)	대나무(죽(竹)) 망진산·적량(赤良)·청암(靑巖)·급암·영선(永善) 등에서 산출한다.
② 생산지역 + 특징	장기현(長鬐縣)	뇌록(磊錄 회록색(灰錄色)의 도료(塗料)) 뇌성산(磊城山)에서 난다.
③ 생산지역 + 문헌기록	진주목(晉州牧)	차 신라 흥덕왕(興德王) 때에 대렴(大廉)이 당(唐) 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면서 차 종자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게 하였더니, 성덕왕(聖德王) 때에 비로소 무성하였다.
④ 생산지역 + 문헌기록 + 특징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	젓대(筍竹) 영정사(靈井寺)에서 난다. 대나무(죽(竹)) 용두산에서 난다. 밤(栗) 앞 교외에 밤나무 숲이 있어 몇 리에 가득 찼는데, 해마다 수확이 매우 많고 그 품질 또한 좋아서 세상에서 밀(密)이라고 부른다.
	언양현	참외(槲) 북쪽 성 밑에서 난다. 그 종자가 서울의

항목	해당 지역	내용
	(彦陽縣)	적전(籍田 임금이 손수 경작하는 밭)에서 나왔으므로 적전 참외[籍田菘]라고 한다. 매년 겨울철에 심었다가 4월 그믐 전에 임금께 진상해 들이는데, 그 심고 기르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성종(成宗) 초에 없애 버렸다.
⑤특징	영천군 (永川郡)	입초(笠草) 풀로 갓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 지었다.
⑥종류 +특징	경주부 (慶州府)	바다 속에 나물이 있으니 속명(俗名)으로 미역(藷)이라고 한다. 그 종류는 곤포(昆布)·다시매(塔士麻)와 같은 것으로서 통틀어 미역(藷)이라 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全羅道)〉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6)</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

---

6)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제33권 전라도(全羅道)

전주부(全州府)

익산군(益山郡)

김제군(金堤郡)

고부군(古阜郡)

금산군(錦山郡)

진산군(珍山郡)

제34권 여산군(礪山郡)

만경현(萬頃縣)  
임피현(臨陂縣)  
금구현(金溝縣)  
정읍현(井邑縣)  
흥덕현(興德縣)  
부안현(扶安縣)  
옥구현(沃溝縣)  
용안현(龍安縣)  
함열현(咸悅縣)  
고산현(高山縣)  
태인현(泰仁縣)  
제35권 나주목(羅州牧)  
광산현(光山縣)  
영암군(靈巖郡)  
제36권 영광군(靈光郡)  
함평현(咸平縣)  
고창현(高敞縣)  
장성현(長城縣)  
진원현(珍原縣)  
무장현(茂長縣)  
남평현(南平縣)  
무안현(務安縣)  
제37권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진도군(珍島郡)  
강진현(康津縣)

해남현(海南縣)  
제38권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  
제39권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담양도호부(潭陽都護府)  
순창군(淳昌郡)  
용담현(龍潭縣)  
창평현(昌平縣)  
임실현(任實縣)  
무주현(茂朱縣)  
곡성현(谷城縣)  
진안현(鎭安縣)  
옥과현(玉果縣)  
운봉현(雲峯縣)  
장수현(長水縣)  
제40권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낙안군(樂安郡)  
보성군(寶城郡)  
능성현(綾城縣)  
광양현(光陽縣)  
구례현(求禮縣)  
흥양현(興陽縣)  
동복현(同福縣)  
화순현(和順縣)

## ■ 내용

분류 각 도의 연혁과 총론·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혁,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關防)·봉수·누정·학교·역원·교량위치·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名宦)·인물·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물 속에는 효자·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목·부·군·현의 '토산'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설명을 하였다.

수목종수 전주부(全州府): 총 5종(식물 4종, 동물 1종)

석류(石榴), 생강薑, 울금초(鬱金草), 웅어[葦魚], 옷[漆]

익산군(益山郡): 총 3종(식물 2종, 동물 1종)

대[竹], 붕어[鯽魚], 생강薑

김제군(金堤郡): 총 6종(식물 5종, 동물 1종)

마름[麩], 가시연[茨], 연(蓮), 붕어[鯽魚], 모시[苧], 순채[蓴]

고부군(古阜郡): 총 9종(식물 4종, 동물 5종)

조기[石首魚], 오징어[烏賊魚], 웅어[葦魚], 붕어[鯽魚], 게[蟹], 생강薑, 차[茶], 석류(石榴), 대[竹]

금산군(錦山郡): 총 4종(식물 1종, 균류 3종)

잣[海松子]/ 송이[松蕈],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蓴]

진산군(珍山郡): 총 2종(식물 1종, 균류 1종)

인삼(人蔘)/송이(松茸)

여산군(礪山郡): 총 1종(동물 1종)

게(蟹)

만경현(萬頃縣): 총 12종(식물 4종, 동물 8종)

청어(靑魚)·조기(石首魚), 붕어(鯽魚), 웅어(葦魚), 준치(眞魚), 가시연(芡), 게(蟹), 조개(蛤), 숭어(秀魚)/생강(薑), 마름(麩), 연(蓮), 순채(蓴)

임피현(臨陂縣): 총 6종(식물 1종, 동물 5종)

가시연(芡)/게(蟹), 붕어(鯽魚), 뱀어(白魚), 정어(釘魚), 준치(眞魚)

금구현(金溝縣): 총 6종(식물 5종, 동물 1종)

게(蟹)/모시(苧), 옷(漆), 석류(石榴), 생강(薑), 대(竹)

정읍현(井邑縣): 총 5종(식물 5종)

모시(苧), 대(竹), 감(柿), 석류(石榴), 생강(薑)

흥덕현(興德縣): 총 9종(식물 2종, 동물 7종)

조기(石首魚), 숭어(秀魚), 은어(銀口魚), 청어(靑魚), 오징어(烏賊魚), 가무락조개(黃蛤), 게(蟹)/차(茶), 지황(地黃)

부안현(扶安縣): 총 17종(식물 1종, 균류 1종, 동물 15종)

조기[石首魚], 오징어[鳥賊魚], 청어(靑魚), 은어[銀口魚], 홍어(洪魚),  
준치[眞魚], 웅어[葦魚], 붕어[鰍魚], 숭어[秀魚], 갈치[刀魚], 새우[蝦],  
조개[蛤], 게[蟹], 굴[石花], 사슴[鹿]/ 송이[松蕈]/ 모시[苧]

옥구현(沃溝縣): 총 14종(식물 2종, 동물 12종)

대하(大蝦), 대게[大蟹], 곤쟁이(紫蝦), 조기[石首魚], 조개[蛤], 토화(土  
花), 굴[石花], 전어(錢魚), 홍어(洪魚), 숭어[秀魚], 준치[眞魚], 붕어[鰍  
魚], 웅어[葦魚]/ 차[茶], 생강[薑]

용안현(龍安縣): 총 6종(동물 6종)

뱅어[白魚], 게[蟹], 붕어[鰍魚], 웅어[葦魚], 숭어[秀魚], 면어(綿魚)

함열현(咸悅縣): 총 10종(식물 2종, 동물 8종)

모시[苧], 순채[蓴]/ 숭어[秀魚], 정어리[釘魚], 면어(綿魚), 붕어[鰍魚],  
뱅어[白魚], 웅어[葦魚], 게[蟹], 농어[鱸魚]

고산현(高山縣): 총 6종(식물 4종, 균류 2종)

송이[松蕈], 석이[石蕈]/ 감[柿], 석류(石榴), 모시[苧], 옷[漆]

태인현(泰仁縣): 총 6종(식물 5종, 동물 1종)

게[蟹]/ 감[柿], 석류(石榴), 차[茶], 모시[苧], 생강[薑]

나주목(羅州牧): 총 18종(식물 10종, 균류 1종, 동물 7종)

전복[鮑], 숭어[秀魚], 은어[銀口魚], 오징어[鳥賊魚], 낙지[絡繹], 굴[石  
花], 웅어[葦魚], / 김[海衣], 황각(黃角), 비자(穉子) 감태(甘苔), 감초

(甘草), 미역[藷], 차[茶], 석류(石榴), 대[竹]·매산(葇山:매생이)), 표고[香蕈]

광산현(光山縣): 총 9종(식물 8종, 동물 1종)

감[柿], 차[茶], 석류(石榴), 지황(地黃), 대추[大棗], 호두[胡桃], 매실[梅], 밤[栗]/붕어[鯽魚]

영암군(靈巖郡): 총 22종(식물 11종, 균류 2종, 동물 9종)

감[柿], 석류(石榴), 유자[柚], 굴[石花], 새우[蝦], 낙지[絡繹], 전복[鮑], 붕어[鯽魚], 홍합[紅蛤], 조개[蛤], 승어[秀魚], 게[蟹], 감태[甘苔], 김[海衣], 매산(葇山), 황각(黃角), 미역[藷], 가사리(加士里), 안식향(安息香), 생강[薑], 표고[香蕈], 복령(茯苓)

영광군(靈光郡): 총 17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11종)

조기[石首魚], 넓치[廣魚], 오징어[烏賊魚], 조개[蛤], 맛조개[竹蛤], 낙지[絡繹], 굴[石花], 새우[蝦], 쌀새우[白蝦], 준치[眞魚], 뱀뱀이[蘇魚], 황각(黃角), 대[竹], 차[茶], 생강[薑], 지황(地黃), 복령(茯苓)

함평현(咸平縣): 총 19종(식물 9종, 동물 10종)

모시[苧], 왕골[莞草], 죽[竹], 석류(石榴), 감[柿], 비자(檉子), 황각(黃角), 차[茶], 감태[甘苔], 조기[石首魚], 쌀새우[白蝦], 민어(民魚), 뱀뱀이[蘇魚], 승어[秀魚], 낙지[絡繹], 굴[石花], 소합(小蛤), 준치[眞魚], 오징어[烏賊魚]

고창현(高敞縣): 총 5종(식물 4종, 동물 1종)

감[栲], 대[竹], 은어[銀口魚], 석류(石榴), 차[茶]

장성현(長城縣): 총 7종(식물 6종, 동물 1종)

생강[薑], 모시[蓆], 대[竹], 비자(榧子), 감[栲], 산무애뱀[白花蛇], 석류(石榴)

진원현(珍原縣): 총 3종(식물 3종)

매실[梅], 차[茶], 모시[蓆]

무장현(茂長縣): 총 9종(식물 1종, 동물 8종)

조기[石首魚], 새우[蝦], 상어[鯊魚], 송어[秀魚], 오징어[烏賊魚], 넙치(廣魚), 홍어(洪魚), 준치[眞魚], 차[茶]

남평현(南平縣): 총 5종(식물 4종, 동물 1종)

붕어[鯽魚], 차[茶], 석류(石榴), 매실(梅), 오죽(烏竹)

무안현(務安縣): 총 10종(식물 5종, 동물 5종)

낙지[絡繹], 굴[石花], 송어[秀魚], 모시조개[黃蛤], 감태(甘苔), 차[茶], 석류(石榴), 감초(甘草), 비자(榧子), 오징어[烏賊魚]

장흥도호부(長興都護府): 총 26종(식물 14종, 균류 2종, 동물 10종)

생강[薑], 옷[漆], 유자[柚], 비자(榧子), 치자(梔子), 석류(石榴), 낙지[絡繹], 농어[鱸魚], 물개[水獺], 송어[秀魚], 전복[鮑], 굴[石花], 오징어[烏賊魚], 맷[甘蛤], 우뭇가사리[牛毛], 참가사리[細毛], 은어[銀口魚], 홍합(紅蛤), 미역[藷], 김[海衣], 감태(甘苔), 매산(莓山), 황각(黃角),

오메(烏梅), 표고(香蕈), 송이(松茸)

진도군(珍島郡): 총 18종(식물 9종, 균류 1종, 동물 8종)

석류(石榴), 유자(柚), 낙지(絡繻), 대하(大蝦), 굴(石花), 홍합(紅蛤), 황각(黃角), 김(海衣), 해삼(海蔘), 비자(榲子), 송어(秀魚), 전복(鮑), 감태(甘苔), 매산(莓山), 참가사리(細毛), 우뭇가사리(牛毛), 미역(藪)/표고(香蕈)

강진현(康津縣): 총 27종(식물 15종, 균류 2종, 동물 10종)

인삼(人蔘), 지치(紫草), 석류(石榴), 유자(柚), 차(茶), 비자(榲子), 감태(甘苔), 김(海衣), 매산(莓山), 황각(黃角), 송이(松茸), 표고버섯(香蕈), 은어(銀口魚), 오징어(烏賊魚), 낙지(絡繻), 조개(蛤), 송어(秀魚), 우뭇가사리(牛毛), 참가사리(細毛), 전복(鮑), 굴(石花), 홍합(紅蛤), 미역(藪), 대(竹), 방풍(防風), 해삼(海蔘), 황어(黃魚)

해남현(海南縣): 총 26종(식물 16종, 균류 1종, 동물 9종)

모시(苧), 대(竹), 차(茶), 감초(甘草), 석류(石榴), 유자(柚), 해삼(海蔘), 김(海衣), 맛조개(竹蛤), 멧(甘蛤), 송어(秀魚), 우뭇가사리(牛毛), 참가사리(細毛), 미역(藪), 매산(莓山), 감태(甘苔), 황각(黃角), 굴(石花), 낙지(絡繻), 전복(鮑), 홍합(紅蛤), 오징어(烏賊魚), 지치(紫草), 비자(榲子), 감(柿), 표고버섯(香蕈)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 총 66종(식물 44종, 균류 2종, 동물 20종)

산도(山稻), 기장(黍), 피(稷), 조(粟), 콩(菽), 팥(豆), 메밀(蕎), 보리(麥),

밀[麴], 말[馬], 궤자[麿子], 미록[麋鹿], 해달[海獺], 지달[地獺], 환[獾], 대모[玳瑁], 자개[貝], 앵무라[鸚鵡螺], 귤[감, 柑]에는 황감[黃柑], 유감[乳柑], 귤[橘]에는 금귤[金橘], 산귤[山橘], 동정귤[洞庭橘], 왜귤[倭橘], 청귤[靑橘], 유자[柚], 비자[檉子], 치자[梔子], 밤栗에는 적률[赤栗], 가시울[加時栗], 무환자[無患子], 산유자[山柚子], 이년목[二年木], 노목[櫨木], 두충[杜冲], 지각[枳殼], 후박[厚朴], 영릉향[零陵香], 안식향[安息香], 향부자[香附子], 청피[靑皮], 해동피[海東皮], 초피나무[촉초, 蜀椒], 진피[陳皮], 필징가[葎澄茄], 팔각[八角], 석곡[石斛], 미역[藷], 우뚝가사리[牛毛], 게[蟹], 소라[螺], 전복[鮑], 석결명[石決明], 황합[黃蛤], 해의[海衣], 오징어[烏賊魚], 은어[銀口魚], 옥두어[玉頭魚], 상어[鯊魚], 갈치[刀魚], 고등어[古刀魚], 행어[行魚], 문어[文魚], 표고버섯[香蕈], 목의[木衣]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총 16종(식물 9종, 균류 4종, 동물 3종)  
호두[胡桃], 오미자[五味子], 감[柿], 생강[薑], 석류[石榴], 치자[梔子], 잣[海松子], 산무애뱀[白花蛇], 지황[地黃], 영양각[羚羊角], 은어[銀口魚], 게[蟹], 표고버섯[香蕈], 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 복령[茯苓]

담양도호부(潭陽都護府): 총 9종(식물 8종, 균류 1종)  
석류[石榴], 호두[胡桃], 감[柿], 대[竹], 차[茶], 매실[梅], 옷[漆], 모시[苧]/ 복령[茯苓]

순창군(淳昌郡): 총 6종(식물 3종, 균류 1종, 동물 2종)  
은어[銀口魚], 울금[鬱金], 대[竹], 차[茶], 산무애뱀[白花蛇], 복령[茯苓]

용담현(龍潭縣): 총 4종(식물 2종, 균류 2종)

웃[漆], 감[柿], 석이버섯[石蓴], 송이[松藈]

창평현(昌平縣): 총 5종(식물 5종)

대[竹], 감[柿], 석류[石榴], 대추[棗], 웃[漆]

임실현(任實縣): 총 9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2종)

은어[銀口魚], 지치[紫草], 생강[薑], 모시[苧], 산무애뱀[白花蛇], 지황[地黃], 울금[鬱金], 웃[漆]/석이버섯[石蓴]

무주현(茂朱縣): 총 5종(식물 3종, 균류 2종)

송이[松藈], 석이버섯[石蓴]/인삼(人蔘),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곡성현(谷城縣): 총 7종(식물 3종, 균류 2종, 동물 2종)

대[竹], 은어[銀口魚], 감[柿], 울금[鬱金], 산무애뱀[白花蛇], 송이[松藈], 복령(茯苓)

진안현(鎭安縣): 총 4종(식물 2종, 균류 2종)

석이버섯[石蓴], 송이[松藈], 지치[紫草], 웃[漆]

옥과현(玉果縣): 총 3종(식물 1종, 균류 1종, 동물 1종)

감[柿], 송이[松藈], 은어[銀口魚]

운봉현(雲峯縣): 총 7종(식물 5종, 균류 2종)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잣[海松子], 감[柿], 지치[紫草], 송이[松藈], 석이버섯[石蓴]

장수현(長水縣): 총 5종(식물 4종, 균류 1종)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지치(紫萁), 감(柿), 석이버섯(石蓴)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총 26종(식물 9종, 균류 2종, 동물 15종)

조기(石首魚), 송어(秀魚), 농어(鱸魚), 오징어(烏賊魚), 문어(文魚), 병어(兵魚), 낙지(絡繻), 전복(鮑), 은어(銀口魚), 굴(石花), 대하(大蝦), 홍합(紅蛤), 자하(紫蝦), 게(蟹), 해삼(海蔘), 미역(藷), 김(海衣), 모시(苧), 유자(柚), 대(竹), 치자(梔子), 매실(梅), 생강(薑), 차(茶), 표고버섯(香蕈), 송이(松茸)

낙안군(樂安郡): 총 17종(식물 6종, 균류 3종, 동물 8종)

송어(季魚), 민어(民魚), 병어(兵魚), 오징어(烏賊魚), 낙지(絡繻), 굴(石花), 대하(大蝦), 유자(柚), 석류(石榴), 감(柿), 대(竹), 치자(梔子), 차(茶), 산무애뱀(白花蛇), 복령(茯苓), 표고버섯(香蕈), 송이(松茸)

보성군(寶城郡): 총 26종(식물 12종, 균류 2종, 동물 12종)

감(柿), 비자(榲子), 매산(莓山), 차(茶), 모시(苧), 왕골(莞草), 유자(柚), 오징어(烏賊魚), 송어(季魚), 병어(兵魚), 낙지(絡繻), 준치(眞魚), 굴(石花), 대하(大蝦), 대(竹), 미역(藷), 감태(甘苔), 전복(鮑), 홍합(紅蛤), 감합(甘蛤), 토화(土花), 김(海衣), 석류(石榴), 보개어(寶開魚), 표고버섯(香蕈), 송이(松茸)

능성현(綾城縣): 총 9종(식물 7종, 균류 2종)

석류(石榴), 감(柿), 대(竹), 차(茶), 지황(地黃), 천남성(天南星), 맥문동(麥門冬), 송이(松茸), 표고버섯(香蕈)

광양현(光陽縣): 총 26종(식물 11종, 균류 4종, 동물 11종)

은어[銀口魚], 오징어[烏賊魚], 조기[石首魚], 송어[季魚], 농어[鱸魚], 병어[兵魚], 준치[眞魚], 낙지[絡繹], 대하[大蝦], 홍합[紅蛤], 전복[鮑], 미역[藪], 감태[甘苔], 김[海衣], 생강[薑], 차[茶], 감[柿], 석류[石榴], 유자[柚], 대[竹], 옷[漆], 울금[鬱金],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蓴], 표고버섯[香蕈], 송이[松藟]

구례현(求禮縣): 총 14종(식물 8종, 균류 4종, 동물 2종)

치자[梔子], 은어[銀口魚], 석류[石榴], 감[柿], 잣[海松子], 호두[胡桃], 산무애뱀[白花蛇], 지황[地黃], 영양각[羚羊角], 오미자[五味子], 석이버섯[石蓴], 송이[松藟], 표고버섯[香蕈], 복령[茯苓]

흥양현(興陽縣): 총 22종(식물 9종, 균류 2종, 동물 11종)

오징어[烏賊魚], 송어[季魚], 병어[兵魚], 낙지[絡繹], 해삼[海蔘], 대하[大蝦], 굴[石花], 전복[鮑], 맛[甘蛤], 홍합[紅蛤], 꼬막[江瑤柱], 유자[柚], 비자[榲子], 김[海衣], 미역[藪], 차[茶], 매산[莓山], 감태[甘苔], 황각[黃角], 방풍[防風], 표고버섯[香蕈], 송이[松藟]

동북현(同福縣): 총 8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1종)

대[竹], 감[柿], 은어[銀口魚], 옷[漆], 차[茶], 울금[鬱金], 표고버섯[香蕈], 생강[薑]

화순현(和順縣): 총 5종(식물 4종, 균류 1종)

석류[石榴], 감[柿], 대[竹], 차[茶], 송이[松藟]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훈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훈차	해당 한자 표기
병어(兵魚), 민어(民魚), 고등어(古刀魚), 송어(秀魚), 전어(錢魚), 뱀어(白魚)	우뭇가사리(牛毛, 참가사리(細毛), 갈치(刀魚)	감(樹), 대(竹), 진북(鰓), 미역(藷), 조개(蛤), 차(茶), 대추(棗), 옷(漆)

내용기술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하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생물별 부연 설명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해당 지역	내용
① 생산 지역	만경현(萬頃縣)	청어(靑魚)·조기(石首魚): 모두 군산도에서 난다.
	함평현(咸平縣)	비자(樵子): 현의 북쪽에 있는 가을고지리(加乙古之里)에서 난다.
	제주목(濟州牧)	대모(玳瑁)·자개(貝)·앵무라(鸚鵡螺): 이상 세 물건은 모두 우도(牛島)·대정(大靜)·가파도(加波島)에서 난다.
	보성군(寶城郡)	보개어(寶開魚): 왜진(倭津)에서 난다.
	무안현(務安縣)	감초(甘草): 철소리(鐵所里)에 심는다.
② 생산 지역+특징	제주목(濟州牧)	미록(麋鹿): 이 고을에서만 생산된다. 가죽이 세밀하고 질겨 가죽신을 만들 만하다.
	제주목(濟州牧)	무회목(無灰木): 우도(牛島)에서 난다. 바다 가운데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여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내려갔다 하다가 물 밖에 나오면 굳고 단단하여진다.

항목	해당 지역	내용
③ 생 산 지 역 + 문 헌 기 록	순천도호부 (順天都護府)	<p>차茶: 조계산(曹溪山)에서 난다.</p> <p>○ 이제현(李齊賢)의 사송광승기다(謝松廣僧寄茶) 시에, “갑자기 문 두드리고 대소쿠리 보내는데 놀랐더니, 향기롭고 신선한 것 얻으니 옥고(玉勝)보다 낫다. 향기 맑으니 일찍 한식전 봄에 만 것이요, 빛이 고우니 아직도 숲 아래 이슬 머금은 듯. 돌 숲에 솔바람 소리 울고, 사기 사발에 젓같은 방울 떠오른다. 산곡(山谷) 송 나라 문장 황산곡(黃山谷)의 운룡(雲龍 차 이름)을 기록한 것 용납하라. 설당(雪堂)의 월토(月兔 차 이름)가 부끄러움을 깨닫노라.” 하였다.</p>
④ 생 산 지 역 + 문 헌 기 록 + 특 징	제주목(濟州牧)	<p>말馬: 원 나라 지원(至元) 시대에 탐라를 방성(房星) 분야(分野)라 하여 목장을 두고 단사관(斷事官)이나 만호(萬戶)를 두어 목축을 주관하였다.</p> <p>○ 정이오(鄭以吾)의 기(記)에, “말이 생육되는 것이 진(晉) 나라의 굴산(屈産)과 같아서 여러 고을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목장이 4군 데인데, 정의(旌義)와 대정(大靜)도 같다. 소 검 정소 · 누런소 · 얼룩소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빨이 매우 아름다워 술잔을 만들 만하다.</p> <p>○ 집집마다 목축하여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룬다.</p>
⑤ 특 징	전주부(全州府)	석류(石榴): 종이 상품(上品)이다.
	제주목(濟州牧)	무환자(無患子) 잎사귀가 창백하다.
⑥ 종 류	제주목(濟州牧)	귤(柑, 柑): 황감(黃柑) · 유감(乳柑) 등 몇몇 종류가 있다.
⑦ 종 류 + 특 징	제주목(濟州牧)	귤(橘): 금귤(金橘) · 산귤(山橘) · 동정귤(洞庭橘) · 왜귤(倭橘) · 청귤(靑橘)의 다섯 종류가 있는데 청귤은 열매를 맺어 봄이 되어서야 익고 때

항목	해당 지역	내용
		가 지나면 다시 말랐다가 때가 이르면 다시 익는다.
	제주목(濟州牧)	밤(栗): 적물(赤栗) · 가시울(加時栗) 두어 종류가 있다. 과실이 과원(果園)에서 나오는데 과원은 모두 담을 쌓았다. 모두 열아홉 곳인데, 대정이 여섯 곳이고 정의가 다섯 곳이다.

인용문헌 《동국여지승람》, 《팔도지리지》, 《동문선》 등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충청도(忠淸道)〉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衍)·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7)</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

7)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를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 제 14권

충주목(忠州牧)/청풍군(淸風郡)/단양군(丹陽郡)/괴산군(槐山郡)/연풍현(延豐縣)/

음성현(陰城縣)/영춘현(永春縣)/제천현(堤川縣)

### 제 15권

청주목(淸州牧)/천안군(天安郡)/옥천군(沃川郡)/문의현(文義縣)

### 제 16권

직산현(稷山縣)/목천현(木川縣)/회인현(懷仁縣)/청안현(淸安縣)/진

천현(鎭川縣)/

보은현(報恩縣)/영동현(永同縣)/황간현(黃澗縣)/청산현(靑山縣)

제 17권

공주목(公州牧)/임천군(林川郡)/한산군(韓山郡)

제 18권

전의현(全義縣)/정산현(定山縣)/은진현(恩津縣)/회덕현(懷德縣)/진

삼현(鎭岑縣)/

연산현(連山縣)/이산현(尼山縣)/부여현(扶餘縣)/석성현(石城縣)/연

기현(燕岐縣)

제 19권

홍주목(洪州牧)/

서천군(舒川郡)/서산군(瑞山郡)/태안군(泰安郡)/면천군(沔川郡)/온

양군(溫陽郡)/

평택현(平澤縣)/홍산현(鴻山縣)/덕산현(德山縣)/청양현(靑陽縣)/

제 20권

대흥현(大興縣)/비인현(庇仁縣)/남포현(藍浦縣)/결성현(結城縣)/보

령현(保寧縣)/

아산현(牙山縣)/신창현(新昌縣)/예산현(禮山縣)/해미현(海美縣)/당

진현(唐津縣)

## ■ 내용

분류 각 도의 연혁과 총론·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혁,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關防)·봉수·누정·학교·역원·교량위치·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名宦)·인물·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물 속에는 호자·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목·부·군·현의 '토산'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설명을 하였다.

수록증수 충주목(忠州牧) : 총 10종(식물 5종, 균류 2종, 동물 3종)  
잣[海松子]·지치[紫草]·대추[棗]·인삼(人蔘)·안식향(安息香)『신증』 / 송이[松蕈]·석이버섯[石蕈]/수달(水獺)·쏘가리[錦鱗魚]·사향(麝香)

청풍군(淸風郡) : 총 8종(식물 3종, 균류 3종, 동물 2종)  
대추[棗]·지치[紫草]·인삼(人蔘)/복령(茯苓)·송이[松蕈]·석이버섯[石蕈]/산무애뱀[白花蛇]·영양(羚羊)

단양군(丹陽郡) : 총 15종(식물 10종, 균류 3종, 동물 2종)  
대[竹]·대추[棗]·잣[海松子]·옻[漆]·지치[紫草]·안식향(安息香)·오미자(五味子)·회양목[黃耨]·인삼(人蔘)·신감채(辛甘菜)/송이[松蕈]·석이버섯[石蕈]·복령(茯苓)/산무애뱀[白花蛇]·누치[訥魚]

괴산군(槐山郡) : 총 7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2종)  
옻[漆]·지치[紫草]·인삼(人蔘)·안식향(安息香)/복령(茯苓)/산무애뱀[白花蛇]·누치[訥魚]

연풍현(延豐縣) : 총 4종(식물 2종, 균류 2종)  
신감채(辛甘菜)·잣[海松子]/송이[松蕈]·석이버섯[石蕈]

음성현(陰城縣) : 총 1종(식물 1종)

대추[棗].

영춘현(永春縣) : 총 8종(식물 6종, 균류 2종)

대추[棗] · 잣[海松子] · 인삼(人蔘) · 지치[紫草] · 화양목[黃楊] · 안식향(安息香)/복령(茯苓) · 석이버섯[石蕈]

제천현(堤川縣) : 총 10종(식물 6종, 균류 2종, 동물 2종)

순채[蓴] · 대추[棗] · 지치[紫草] · 안식향(安息香) · 신감채(辛甘菜) · 방풍(防風)/복령(茯苓) · 송이[松蕈]/산무애뱀[白花蛇]. 『신증』 · 영양각(羚羊角).

청주목(淸州牧) : 총 8종(식물 4종, 균류 3종, 동물 1종)

지치[紫草] · 인삼(人蔘) · 안식향(安息香) · 지황(地黃)/복령(茯苓) · 송이[松蕈] · 석이버섯[石蕈]/산무애뱀[白花蛇]

천안군(天安郡) : 총 6종(식물 1종, 동물 5종)

지황(地黃)/송어[秀魚] · 조기[石首魚] · 산무애뱀[白花蛇] · 준치[眞魚] · 게[蟹]

옥천군(沃川郡) : 총 6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1종)

지치[紫草] · 인삼(人蔘) · 안식향(安息香) · 지황(地黃)/복령(茯苓)/사향(麝香)

문의현(文義縣) : 총 6종(식물 3종, 균류 1종, 동물 2종)

지치[紫草] · 인삼(人蔘) · 안식향(安息香)/복령(茯苓)/산무애뱀[白花蛇] · 누치[訥魚].

직산현(稷山縣) : 총 8종(식물 1종, 동물 7종)

안식향(安息香)/맨덩이[蘇魚] · 송어[秀魚] · 웅어[葦魚] · 준치[眞魚]  
· 산무애뱀[白花蛇]. 『신증』참조기[黃石首魚], 붕어[鯽魚]

목천현(木川縣) : 총 4종(식물 3종, 동물 1종)

대추[棗] · 지치[紫草] · 안식향(安息香)/은어[銀口魚]

회인현(懷仁縣) : 총 5종(식물 4종, 균류 1종)

잣[海松子] · 지치[紫草] ·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복령(茯苓)

청안현(淸安縣) : 총 4종(식물 4종)

지치[紫草] · 인삼(人蔘) · 지황(地黃) · 복령(茯苓)

진천현(鎭川縣) : 총 5종(식물 2종, 동물 3종)

지치[紫草] · 인삼(人蔘)/영양(羚羊) · 산무애뱀[白花蛇] · 사향(麝香)

보은현(報恩縣) : 총 7종(식물 3종, 균류 2종, 동물 2종)

잣[海松子] · 안식향(安息香) · 지황(地黃)/송이[松蕈] · 석이버섯[石蕈]/영양(羚羊) · 웅담(熊膽)

영동현(永同縣) : 총 7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2종)

지치[紫草] · 잣[海松子] · 인삼(人蔘) · 오미자(五味子)/송이[松蕈]/쏘

가리[錦鱗魚] · 누치[訥魚]

황간현(黃澗縣) : 총 8종(식물 4종, 균류 3종, 동물 1종)  
인삼(人蔘) · 안식향(安息香) · 신감채(辛甘菜) · 속새(목적, 木賊)/  
복령(茯苓) · 송이[松藓] · 석이버섯[石藓]/산무애뱀[白花蛇].

청산현(靑山縣) : 총 7종(식물 6종, 균류 1종)  
녹반(綠礬) · 보리(甫里) · 잣[海松子] · 지치[紫草] · 인삼(人蔘) · 안  
식향(安息香)/복령(茯苓)

공주목(公州牧) : 총 3종(식물 1종, 동물 2종)  
잣[海松子]/누치[訥魚] · 게[蟹]

임천군(林川郡) : 총 10종(식물 2종, 동물 8종)  
안식향(安息香) · 지황(地黃)/백어(白魚) · 웅어[葦魚] · 부레[魚鱔] ·  
조기[石首魚] · 청어(靑魚) · 게[蟹] · 새우[蝦] · 산무애뱀[白花蛇]

한산군(韓山郡) : 총 10종(식물 2종, 동물 8종)  
감[柿] · 대[竹]/뱅어[白魚] · 홍어(洪魚) · 상어[鯊魚] · 산무애뱀[白花  
蛇] · 조기[石首魚] · 송어[秀魚] · 웅어[葦魚] · 농어[鱸魚]

전의현(全義縣) : 총 3종(식물 2종, 균류 1종)  
지치[紫草] · 안식향(安息香)/복령(茯苓)

정산현(定山縣) : 총 3종(식물 1종, 균류 1종, 동물 1종)

지황(地黃)/복령(茯苓)/산무애뱀[白花蛇]

은진현(恩津縣) : 총 10종(식물 3종, 동물 7종)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 『신증』 감[槲]/은어[銀口魚] · 산무애뱀  
[白花蛇] · 뱀어[白魚] · 웅어[葦魚] · 송어[秀魚] · 붕어[鯽魚] · 게[蟹].

회덕현(懷德縣) : 총 5종(식물 3종, 균류 1종, 동물 1종)

지치[紫草] ·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복령(茯苓)/누치[訥魚]

진잠현(鎭岑縣) : 총 2종(식물 1종, 균류 1종)

안식향(安息香)/복령(茯苓)

연산현(連山縣) : 총 6종(식물 1종, 동물 5종)

지황(地黃)/은어[銀口魚] · 게[蟹] · 쏘가리[錦鱗魚] · 붕어[鯽魚].

이산현(尼山縣) : 총 2종(동물 2종)

게[蟹] · 붕어[鯽魚]

부여현(扶餘縣) : 총 7종(균류 1종, 동물 6종)

복령[茯苓]/웅어[葦魚] · 농어[鱸魚] · 조기[石首魚] · 송어[秀魚] · 뱀어  
[白魚] · 붕어[鯽魚].

석성현(石城縣) : 총 8종(식물 2종, 동물 6종)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웅어[葦魚] · 조기[石首魚] · 뱀어[白魚]  
· 게[蟹] · 송어[秀魚] · 붕어[鯽魚]

연기현(燕岐縣) : 총 1종(동물 1종)

게[蟹]

홍주목(洪州牧) : 총 30종(식물 5종, 동물 25종)

대나무[竹] · 왕골[莞草] · 김[海衣] · 청각[靑角]. 『신증』대나무(죽  
[竹]/청어(靑魚) · 넓치[廣魚] · 상어[鯊魚] · 홍어(洪魚) · 오징어[烏賊  
魚] · 전복[鮑] · 낙지[絡繻] · 조개[蛤] · 굴[石花] · 토화(土花) · 대하  
(大蝦) · 중하(中蝦) · 자하(紫蝦) · 황소어(黃小魚) · 전어(錢魚) · 삼  
치[麻魚] · 살조개[江瑤柱] · 조기[石首魚] · 승어[秀魚] · 황각(黃角) ·  
뱅어[白魚] · 준치[眞魚] · 뱀뎡이[蘇魚] · 농어[鱸魚] · 게[蟹]

서천군(舒川郡) : 총 27종(식물 5종, 동물 22종)

대[竹] · 대나무(죽[竹]) · 감[槩] · 안식향(安息香) · 김[海衣]/조개[蛤]  
· 석굴[石花] · 홍어(洪魚) · 상어[鯊魚] · 승어[秀魚] · 오징어[烏賊魚]  
· 갈치[刀魚] · 부레[魚鱈] · 조기[石首魚] · 웅어[葦魚] · 전어(錢魚) ·  
민어(民魚) · 준치[眞魚] · 삼치[麻魚] · 농어[鱸魚] · 청어(靑魚) · 전  
복[鮑] · 홍합(紅蛤) · 토화(土花) · 낙지[絡繻] · 황각(黃角) · 대하(大  
蝦).

서산군(瑞山郡) : 총 22종(동물 22종)

굴[石花] · 청어(靑魚) · 승어[秀魚] · 은어[銀口魚] · 농어[鱸魚] · 오징  
어[烏賊魚] · 전복[鮑] · 조기[石首魚] · 부레[魚鱈] · 상어[鯊魚] · 대하  
(大蝦) · 자하(紫蝦) · 조개[蛤] · 낙지[絡繻] · 삼치[麻魚] · 전어(錢魚)  
· 해삼(海參) · 조개살[江瑤柱] · 산무애뱀[白花蛇] · 준치[眞魚] · 붕  
어[鯽魚] · 게[蟹]

태안군(泰安郡) : 총 23종(식물 3종, 동물 20종)

대[竹] · 대나무(죽[竹]) · 김[海衣]/황각(黃角) · 참가사리[細毛] · 전어(錢魚) · 전복[鮑] · 숭어[秀魚] · 농어[鱸魚] · 청어(靑魚) · 갈치[刀魚] · 모래무지[蠶魚] · 조기[石首魚] · 부레[魚鰾] · 오징어[烏賊魚] · 굴[石花] · 새우[蝦] · 조개[蛤] · 맛조개[竹蛤] · 삼치[麻魚] · 해삼(海參) · 소라(小螺) · 꼬막[江瑤柱].

면천군(沔川郡) : 총 18종(식물 2종, 동물 16종)

지치[紫草] · 김[海衣]/숭어[秀魚] · 뱀어[白魚] · 석굴[石花] · 조기[石首魚] · 은어(銀口魚) · 오징어[烏賊魚] · 전복[鮑] · 조개[蛤] · 새우[蝦] · 부레[魚鰾] · 농어[鱸魚] · 민어(民魚) · 준치[眞魚] · 붕어[鯽魚] · 전어(錢魚) · 게[蟹]

온양군(溫陽郡) : 총 4종(식물 3종, 균류 1종)

옷[漆] · 대추[棗] · 김[柿]/복령(茯苓).

평택현(平澤縣) : 총 2종(식물 2종)

붕어[鯽魚] · 숭어[秀魚]

홍산현(鴻山縣) : 총 4종(식물 2종, 균류 1종, 동물 1종)

옷[漆] · 안식향(安息香)/복령(茯苓)/게[蟹]

덕산현(德山縣) : 총 4종(동물 4종)

붕어[鯽魚] · 숭어[秀魚] · 뱀어[白魚] · 산무애뱀[白花蛇].

청양현(靑陽縣) : 총 5종(식물 4종, 동물 1종)

지치(紫草) · 잣(海松子) · 지황(地黃) · 안식향(安息香)/게(蟹)

대흥현(大興縣) : 총 3종(식물 1종, 동물 2종)

지황(地黃)/붕어(鯽魚) · 게(蟹)

비인현(庇仁縣) : 총 19종(식물 3종, 동물 16종)

대[竹] · 대나무(죽[竹]) · 김[海衣]/조기[石首魚] · 송어[秀魚] · 전복[鮑]  
· 청어[靑魚] · 홍어[洪魚] · 상어[鯊魚] · 오징어[烏賊魚] · 삼치[麻魚]  
· 전어(錢魚) · 조개[蛤] · 민어(民魚) · 농어[鱸魚] · 낙지[絡繻] · 꼬  
막[江瑤柱] · 참가사리[細毛] · 산무애뱀[白花蛇]

남포현(藍浦縣) : 총 21종(식물 3종, 동물 18종)

대나무(죽[竹]) · 대[竹] · 김[海衣]/은어[銀口魚] · 홍합(紅蛤) · 청어  
(靑魚) · 상어[鯊魚] · 송어[秀魚] · 홍어(洪魚) · 조기[石首魚] · 전복  
[鮑] · 부레[魚鱗] · 오징어[烏賊魚] · 전어(錢魚) · 삼진[麻魚] · 민어  
(民魚) · 농어[鱸魚] · 조개[蛤] · 꼬막[江瑤柱] · 참가사리[細毛] · 산무  
애뱀[白花蛇].

결성현(結城縣) : 총 21종(식물 5종, 동물 16종)

대[竹] · 대나무(죽[竹]) · 지황(地黃) · 황각(黃角) · 김[海衣]/은어[銀  
口魚] · 청어(靑魚) · 전어(錢魚) · 삼치[麻魚] · 꼬막[江瑤柱] · 낙지[絡  
繻] · 게[蟹] · 민어(民魚) · 조기[石首魚] · 송어[秀魚] · 상어[鯊魚] · 오  
징어[烏賊魚] · 농어[鱸魚] · 부레[魚鱗] · 굴[石花] · 전복[鮑].

보령현(保寧縣) : 총 21종(식물 3종, 동물 18종)

안식향(安息香) · 김[海衣] · 지치[紫草]/상어[鯨魚] · 홍어(洪魚) · 청어(靑魚) · 굴[石花] · 조기[石首魚] · 삼치[麻魚] · 전어[錢魚] · 준치[眞魚] · 송어[秀魚] · 은어[銀口魚] · 꼬막[江瑤柱] · 민어(民魚) · 농어[鱸魚] · 오징어[烏賊魚] · 전복[鮑] · 조개[蛤] · 낙지[絡繹] · 참가사리[細毛]

아산현(牙山縣) : 총 8종(동물 8종)

황소어(黃小魚) · 세미어(細尾魚) · 조기[石首魚] · 웅어[葦魚] · 뱀어[白魚] · 새우[鰵] · 산우애뱀[白花蛇] · 송어[秀魚].

신창현(新昌縣) : 총 10종(식물 1종, 동물 9종)

김[柿]/송어[秀魚] · 웅어[葦魚] · 뱀어[白魚] · 조기[石首魚] · 복령(茯苓) · 붕어[鰱魚] · 게[蟹] · 황석어(黃石魚) · 세미어(細尾魚).

예산현(禮山縣) : 총 4종(균류 1종, 동물 3종)

복령(茯苓)/송어[秀魚] · 게[蟹] · 웅어[葦魚]

해미현(海美縣) : 총 10종(식물 2종, 동물 8종)

안식향(安息香) · 김[海衣]/굴[石花] · 넓치[廣魚] · 갈치[刀魚] · 조기[石首魚] · 홍어(洪魚) · 송어[秀魚] · 은어[銀口魚] · 오징어[烏賊魚]

당진현(唐津縣) : 총 12종(동물 12종)

굴[石花] · 송어[秀魚] · 홍어(洪魚) · 자하(紫鰈) · 조기[石首魚] · 조개[蛤] · 부레[魚鱗] · 농어[鱸魚] · 민어(民魚) · 꼬막[江瑤柱] · 게[蟹] · 붕어[鰱魚].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훈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훈차	해당 한자 표기
복령(茯苓) 민어(民魚), 세미어(細尾魚), 송어[秀魚], 전어(錢魚), 뱀어[白魚]	참가사리[細毛], 갈치[刀魚]	감[榭], 대[竹], 전복[鮑], 미역[藷], 조개[蛤], 차[茶], 대추[棗], 옷[漆]

### 내용 기술

항목	해당 지역	내용
① 생산 지역	제천현(堤川縣)	순채[蓴] 의림지(義林池)에서 난다.
	청산현(靑山縣)	보리(甫里) 석굴(石窟)에서 생산된다.
	서천군(舒川郡)	대나무(죽[竹]) 개야소도(開也召島)에서 난다.
	태안군(泰安郡)	대나무(죽[竹]) 죽도(竹島)와 탄항(炭項)에서 난다.
	비인현(庇仁縣)	대나무(죽[竹]) 현 동쪽 성 밑에서 난다.
	남포현 藍浦縣	대나무(죽[竹]) 입죽도에서 난다.
	결성현(結城縣)	대나무(죽[竹]) 죽도(竹島)에서 난다. 지황(地黃), 청옥(靑玉) 현 북쪽 용골리(龍骨里)에서 난다.
	당진현(唐津縣)	조개[蛤] 맹곶에서 난다.
② 생산 지역+문헌기록	은진현(恩津縣)	『신증』 감[榭] 일찍 익는다. 속칭 조홍(早紅)이라 이른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평안도(平安道)〉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8)</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

---

8)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제51권 평안도(平安道)

평양부(平壤府)

제52권 중화군(中和郡)

용강현(龍岡縣)

삼화현(三和縣)

함종현(咸從縣)

증산현(甌山縣)

순안현(順安縣)

강서현(江西縣)  
안주목(安州牧)  
정주목(定州牧)  
숙천도호부(肅川都護府)  
가산군(嘉山郡)  
영유현(永柔縣)  
제53권 의주목(義州牧)  
철산군(鐵山郡)  
용천군(龍川郡)  
창성도호부(昌城都護府)  
삭주도호부(朔州都護府)  
귀성도호부(龜城都護府)  
선천군(宣川郡)  
곽산군(郭山郡)  
제54권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  
운산군(雲山郡)  
희천군(熙川郡)  
박천군(博川郡)  
태천현(泰川縣)  
성천도호부(成川都護府)  
덕천군(德川郡)  
개천군(价川郡)  
자산군(慈山郡)  
제55권 순천군(順川郡)  
상원군(祥原郡)

삼등현(三登縣)  
 양덕현(陽德縣)  
 맹산현(孟山縣)  
 강동현(江東縣)  
 은산현(殷山縣)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  
 위원군(渭原郡)  
 이산군(理山郡)  
 벽동군(碧潼郡)  
 영원군(寧遠郡)

■ 내용

분류 각 도의 연혁과 총론·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혁,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關防)·봉수·누정·학교·역원·교량위치·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名宦)·인물·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물 속에는 효자·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목·부·군·현의 '토산'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설명을 하였다.

수록 종수 평양부(平壤府): 총 9종(식물 3종, 동물 6종)

숭어[秀魚], 조개[蚶], 백부자(白附子), 우여량(禹餘糧), 삼[麻], 웅어[葦魚], 면어(綿魚), 굴[石花], 쏘가리[錦鱗魚]

중화군(中和郡): 총 2종(식물 1종, 동물 1종)

삼[麻], 숭어[秀魚]

용강현(龍岡縣): 총 13종(식물 4종, 동물 9종)

삼[蔴], 옷[漆], 지치[紫草], 조기[石首魚], 상어[鯊魚], 조개[蛤], 홍어(洪魚), 넓치[廣魚], 승어[秀魚], 삼치[麻魚], 농어[鱸魚], 토화(土花), 새우[蝦]

삼화현(三和縣): 총 13종(식물 3종, 동물 10종)

옷[漆], 지치[紫草], 조기[石首魚], 상어[鯊魚], 홍어(洪魚), 넓치[廣魚], 조개[蛤], 굴[石花]·윤화(輪花)·쌀새우[細蝦]·곤쟁이[紫蝦], 승어[秀魚], 농어[鱸魚]

함중현(咸從縣): 총 11종(식물 1종, 동물 10종)

지치[紫草], 조기[石首魚], 승어[秀魚], 상어[鯊魚], 홍어(洪魚), 농어[鱸魚], 굴[石花], 조개[蛤], 소합(小蛤), 중하(中蝦), 곤쟁이[紫蝦]

증산현(甌山縣): 총 11종(식물 3종, 동물 8종)

삼[蔴], 옷[漆], 지치[紫草], 조기[石首魚], 조개[蛤], 승어[秀魚], 굴[石花], 새우[蝦], 홍어(洪魚), 상어[鯊魚], 농어[鱸魚]

순안현(順安縣): 총 2종(식물 2종)

삼[蔴], 지치[紫草]

강서현(江西縣): 총 4종(식물 1종, 동물 3종)

삼[蔴], 웅어[羣魚], 승어[秀魚], 조개[蛤]

안주목(安州牧): 총 10종(식물 3종, 동물 7종)

삼[麻], 왕골[莞草], 잣[海松子], 송어[秀魚], 은어[銀口魚], 준치[眞魚], 붕어[鯽魚], 굴[石花], 게[蟹], 새우[蝦]

정주목(定州牧): 총 18종(식물 3종, 동물 15종)

삼[麻], 맨대이[蘇魚], 송어[秀魚], 홍어[洪魚], 맛조개[竹蛤], 새우[蝦], 굴[石花], 토화[土花], 조기[石首魚], 낙지[絡繹], 은어[銀口魚], 민어[民魚], 준치[眞魚], 넓치[廣魚], 오징어[烏賊魚], 조개[蛤], 윤화[輪花], 지치[紫草]

숙천도호부(肅川都護府): 총 11종(식물 1종, 동물 10종)

삼[麻], 홍어[洪魚], 조기[石首魚], 송어[秀魚], 조개[蛤], 새우[蝦], 지치[紫草], 세어[細魚], 굴[石花], 민어[民魚], 농어[鱸魚]

가산군(嘉山郡): 총 6종(식물 3종, 동물 3종)

삼[麻], 옷[漆], 지치[紫草], 송어[秀魚], 게[蟹], 새우[蝦]

영유현(永柔縣): 총 12종(식물 3종, 동물 9종)

삼[麻], 옷[漆], 지치[紫草], 조개[蛤], 조기[石首魚], 송어[秀魚], 홍어[洪魚], 곤쟁이[紫蝦], 굴[石花], 윤화[輪花], 붕어[鯽魚], 농어[鱸魚]

의주목(義州牧): 총 9종(식물 3종, 동물 6종)

삼[麻], 누치[訥魚], 송어[秀魚], 은어[銀口魚], 쏘가리[錦鱗魚], 농어[鱸魚], 백지[白芷], 애끼찌[弓幹木], 게[蟹]

철산군(鐵山郡): 총 19종(식물 4종, 동물 15종)

삼[麻], 옷[漆], 지치[紫草], 삼치[麻魚], 송어[秀魚], 조기[石首魚], 홍어(洪魚), 밴댕이[蘇魚], 준치[眞魚], 민어(民魚), 상어[鯊魚], 넓치[廣魚], 낙지[絡締], 조개[蛤], 굴[石花], 수달(水獺), 농어[鱸魚], 붕어[鯽魚], 토화(土花)

용천군(龍川郡): 총 16종(식물 3종, 동물 13종)

삼[麻], 밴댕이[蘇魚], 조기[石首魚], 넓치[廣魚], 대하(大蝦), 송어[秀魚], 홍어(洪魚), 굴[石花], 토화[土花], 조개[蛤], 낙지[絡締], 민어(民魚), 준치[眞魚], 오징어[烏賊魚], 상어[鯊魚], 지치[紫草]

창성도호부(昌城都護府): 총 12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7종)

삼[麻], 담비[貂], 청서(靑鼠), 인삼(人蔘), 영양(羚羊), 잣[海松子], 백랍(白蠟), 복령(茯苓), 수달(水獺), 애끼찌[弓幹木], 은어[銀口魚], 여항어(餘項魚)

삭주도호부(朔州都護府): 총 10종(식물 4종, 동물 6종)

삼[麻], 담비[貂], 청서(靑鼠), 인삼(人蔘), 은어[銀口魚], 여항어(餘項魚), 잣[海松子], 영양(羚羊), 애끼찌[弓幹木], 수달(水獺)

귀성도호부(龜城都護府): 총 11종(식물 3종, 동물 8종)

삼[麻], 담비[貂], 청서(靑鼠), 인삼(人蔘), 지치[紫草], 홍어(洪魚), 준치[眞魚], 민어(民魚), 밴댕이[蘇魚], 굴[石花], 낙지[絡締]

선천군(宣川郡): 총 19종(식물 3종, 동물 16종)

삼[麻], 지치[紫草], 준치[眞魚], 청어(靑魚), 밴댕이[蘇魚], 송어[秀魚],

조기[石首魚], 홍어(洪魚), 은어[銀口魚], 민어(民魚), 넓치[廣魚], 오징어[烏賊魚], 상어[鯊魚], 낙지[絡繹], 새우[蝦], 굴[石花], 토화(土花), 윤화(輪花), 조개[蛤]

곽산군(郭山郡): 총 16종(식물 3종, 동물 13종)

삼[麻], 지치[紫草], 은어[銀口魚], 밴댕이[蘇魚], 송어[秀魚], 조기[石首魚], 오징어[烏賊魚], 상어[鯊魚], 민어(民魚), 홍어(洪魚), 넓치[廣魚], 준치[眞魚], 새우[蝦], 굴[石花], 토화(土花), 낙지[絡繹]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 총 9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2종)

삼[麻], 오미자(五味子), 은어[銀口魚], 인삼(人蔘), 잣[海松子], 지치[紫草], 애끼찌[弓幹木], 복령(茯苓), 영양(羚羊)

운산군(雲山郡): 총 10종(식물 4종, 균류 3종, 동물 3종)

궁간상(弓幹桑), 삼[麻], 영양(羚羊), 복령(茯苓),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송이[松藓], 석이버섯[石蕈], 쏘가리[錦鱗魚], 여항어(餘項魚)

희천군(熙川郡): 총 15종(식물 6종, 균류 2종, 동물 7종)

삼[麻], 영양(羚羊), 옷[漆], 여항어(餘項魚), 쏘가리[錦鱗魚], 누치[訥魚], 복령(茯苓),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잣[海松子], 담비[貂], 청서(靑鼠), 송이[松藓], 수달(水獺), 애끼찌[宮幹木]

박천군(博川郡): 총 9종(식물 4종, 동물 5종)

삼[麻], 옷[漆], 왕골[莞草], 붕어[鰱魚], 송어[秀魚], 홍어(洪魚), 굴[石花], 조개[蛤], 지치[紫草]

태천현(泰川縣): 총 9종(식물 7종, 균류 1종, 동물 1종)

삼[麻], 인삼(人蔘), 지치[紫草], 오미자(五味子), 잣[海松子], 복령(茯苓), 애끼찌[弓幹木], 옷[漆], 영양(羚羊)

성천도호부(成川都護府): 총 8종(식물 6종, 균류 2종)

삼[麻], 인삼(人蔘), 송이[松茸], 잣[海松子], 옷[漆],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복령(茯苓)

덕천군(德川郡): 총 9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2종)

삼[麻], 지치[紫草],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잣[海松子], 안식향(安息香), 영양(羚羊), 여항어(餘項魚), 복령(茯苓)

개천군(价川郡): 총 9종(식물 5종, 동물 4종)

삼[麻], 인삼(人蔘), 영양(羚羊), 지치[紫草], 궁간상(弓幹桑), 수달(水獺), 잣[海松子], 은어[銀口魚], 여항어(餘項魚)

자산군(慈山郡): 총 2종(식물 2종)

삼[麻], 안식향(安息香)

순천군(順川郡): 총 8종(식물 7종, 동물 1종)

삼[麻], 인삼(人蔘), 지치[紫草], 옷[漆], 영양(羚羊), 석창포(石菖蒲), 안식향(安息香), 오미자(五味子)

상원군(祥原郡): 총 2종(식물 2종)

삼[麻], 지치[紫草]

삼등현(三登縣): 총 2종(식물 2종)

삼[麻], 지치[紫草]

양덕현(陽德縣): 총 9종(식물 5종, 균류 4종, 동물 1종)

삼[麻], 송이[松茸], 인삼(人蔘), 지치[紫草],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수달(水獺), 석이버섯[石蕈], 복령(茯苓)

맹산현(孟山縣): 총 9종(식물 4종, 균류 2종, 동물 3종)

삼[麻], 지치[紫草], 잣[海松子], 수달(水獺), 복령(茯苓), 석이버섯[石蕈], 오미자(五味子), 누치[訥魚], 여항어(餘項魚)

강동현(江東縣): 총 2종(식물 2종)

삼[麻], 지치[紫草]

은산현(殷山縣): 총 10종(식물 8종, 동물 2종)

삼[麻], 옷[漆], 지치[紫草],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안식향(安息香), 잣[海松子], 애끼찌[弓幹木], 수달(水獺), 영양(羚羊)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 총 11종(식물 5종, 동물 6종)

삼[麻], 송어[秀魚], 여항어(餘項魚), 담비[貂], 청서(靑鼠), 수달(水獺), 영양(羚羊), 인삼(人蔘),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위원군(渭原郡): 총 10종(식물 5종, 동물 5종)

삼[麻], 담비[貂], 청서(靑鼠), 수달(水獺), 영양(羚羊), 인삼(人蔘),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여항어(餘項魚), 애끼찌[弓幹木]

이산군(理山郡): 총 8종(식물 4종, 동물 4종)

삼[麻], 담비[貂], 청서(靑鼠),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잣[海松子], 수달(水獺), 여항어(餘項魚)

벽동군(碧潼郡): 총 11종(식물 5종, 동물 6종)

삼[麻], 담비[貂], 청서(靑鼠), 영양(羚羊), 수달(水獺), 옷[漆], 지치[紫草], 인삼(人蔘), 잣[海松子], 은어[銀口魚], 누치[訥魚]

영원군(寧遠郡): 총 10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4종)

삼[麻], 담비[貂], 청서(靑鼠), 영양(羚羊), 인삼(人蔘), 석이버섯(石蕈),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여항어(餘項魚), 애끼찌[弓幹木]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훈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훈차	해당 한자 표기
면어(綿魚), 준치(眞魚)	삼치[麻魚]	상어[鯨魚], 오미자(五味子)

내용 기술 이 지역은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하였을 뿐, 생물별 부연 설명이 없다.

인용문헌 《동국여지승람》, 《팔도지리지》, 《동문선》 등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함경도(咸鏡道)〉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僎)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9)</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

---

9)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제48권 함경도(咸鏡道)

함흥부(咸興府)

영흥대도호부(永興大都護府)

정평도호부(定平都護府)

고원군(高原郡)

제49권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덕원도호부(德源都護府)

문천군(文川郡)

북청도호부(北靑都護府)  
 단천군(端川郡)  
 이성현(利城縣)  
 홍원현(洪原縣)  
 갑산도호부(甲山都護府)  
 삼수군(三水郡)  
 제50권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  
 길성현(吉城縣)  
 명천현(明川縣)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회령도호부(會寧都護府)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  
 온성도호부(穩城都護府)  
 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

■ 내용

분류 각 도의 연혁과 총론·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  
 혁,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關  
 防)·봉수·누정·학교·역원·교량위치·불우·사묘·능묘·고  
 적·명환(名宦)·인물·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물 속에는 호자·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목·부·군·현의 ‘토산’ 부분에 기  
 록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나열하고, 필요한 경  
 우 부연설명을 하였다.

수록 증수 함흥부(咸興府): 총 37종(식물 7종, 균류 3종, 동물 27종)

삼[麻], 영양(羚羊), 지치[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안식향(安息香), 오미자(五味子), 송이[松蕈], 석이버섯[石蕈], 잣[海松子], 연어(鱒魚), 송어(松魚), 황어(黃魚), 전복[鮑], 조개[蛤], 홍합(紅蛤), 빙어[瓜魚], 고등어[古刀魚], 해삼(海蔘), 은어(銀口魚), 도루묵(銀魚), 청어(靑魚), 넓치(廣魚), 자해(紫蟹), 승어[秀魚], 굴[石花], 여항어(餘項魚), 홍어(洪魚), 방어(魴魚), 게[蟹], 삼치[麻魚], 담비[貂], 청서(靑鼠), 산달(山獺), 해달(海獺), 수달(水獺), 미역[藿]

영흥대도호부(永興大都護府): 총 28종(식물 7종, 균류 2종, 동물 19종)

삼[麻],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안식향(安息香), 인삼(人蔘), 송이[松蕈], 복령(茯苓), 여항어(餘項魚), 승어[秀魚], 삼치[麻魚], 연어(鱒魚), 게[蟹], 은어(銀口魚), 송어(松魚), 홍합(紅蛤), 넓치(廣魚), 황어(黃魚), 홍어(洪魚), 빙어[瓜魚], 청어(靑魚), 전복[鮑], 방어(魴魚), 굴[石花], 조개[蛤], 도루묵(銀魚), 고등어[古刀魚], 해삼(海蔘), 미역[藿]

정평도호부(定平都護府): 총 27종(식물 7종, 균류 1종, 동물 19종)

삼[麻], 지치[紫草], 인삼(人蔘), 복령(茯苓), 오미자(五味子), 안식향(安息香), 은어(銀口魚), 삼치[麻魚], 도루묵(銀魚), 게[蟹], 송어(松魚), 연어(鱒魚), 고등어[古刀魚], 황어(黃魚), 청어(靑魚), 전복[鮑], 조개[蛤], 미역[藿], 뱀어[白魚], 빙어[瓜魚], 홍합(紅蛤), 청서(靑鼠), 담비[貂], 승어[秀魚], 전어(錢魚), 방어(魴魚), 잣[海松子]

고원군(高原郡): 총 8종(식물 4종, 동물 4종)

삼[麻],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연어(鱒魚), 송어(松

魚), 빙어[瓜魚], 황어(黃魚)

안변도호부(安邊都護府): 총 27종(식물 6종, 균류 2종, 동물 19종)  
삼[麻], 지치[紫草], 송이[松蕈],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안식향(安息香), 복령(茯苓), 영양(羚羊), 배[梨], 홍어(洪魚), 게[蟹], 송어(松魚), 연어(鱒魚), 삼치[麻魚], 전복[鮑], 은어[銀口魚], 홍합(紅蛤), 숭어[秀魚], 빙어[瓜魚], 청어(靑魚), 도루묵[銀魚], 여항어(餘項魚), 넓치[廣魚], 해삼(海蔘), 굴[石花], 고등어[古刀魚], 조개[蛤]

덕원도호부(德源都護府): 총 27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20종)  
삼[麻], 지치[紫草], 감초(甘草), 인삼(人蔘), 안식향(安息香), 영양(羚羊), 복령(茯苓), 오미자(五味子), 송어(松魚), 연어(鱒魚), 청어(靑魚), 빙어[瓜魚], 넓치[廣魚], 고등어[古刀魚], 방어(魴魚), 꼬막[江瑤柱], 조개[蛤], 해삼(海蔘), 삼치[麻魚], 홍합(紅蛤), 게[蟹], 황어(黃魚), 도루묵[銀魚], 굴[石花], 은어[銀口魚], 홍어(洪魚), 숭어[秀魚]

문천군(文川郡): 총 24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18종)  
삼[麻], 지치[紫草], 잣[海松子], 복령(茯苓),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연어(鱒魚), 홍어(洪魚), 방어(魴魚), 넓치[廣魚], 숭어[秀魚], 송어[松魚], 도루묵[銀魚], 황어(黃魚), 은어[銀口魚], 고등어[古刀魚], 조개[蛤], 홍합(紅蛤), 삼치[麻魚], 굴[石花], 청어(靑魚), 게[蟹], 빙어[瓜魚], 해삼(海蔘)

북청도호부(北靑都護府): 총 35종(식물 8종, 균류 1종, 동물 26종)  
삼[麻], 영양(羚羊), 석이버섯[石蕈],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잣

[海松子, 지치[紫草], 옷[漆], 송어[秀魚], 홍어[洪魚], 연어[鱒魚], 삼치[麻魚], 송어[松魚], 청어[靑魚], 황어[黃魚], 방어[紡魚], 고등어[古刀魚], 넓치[廣魚], 꼬막[江瑤柱], 미역[藿], 전복[鮑], 홍합[紅蛤], 문어[文魚], 대구[大口魚], 은어[銀口魚], 게[蟹], 여항어[餘項魚], 도루묵[銀魚], 자해[紫蟹], 해삼[海蔘], 담비[貂], 청서[靑鼠], 수달[水獺], 해달[海獺], 감초[甘草]

단천군(端川郡): 총 29종(식물 7종, 균류 2종, 동물 20종)

삼[麻], 영양[羚羊], 복령[茯苓], 오미자[五味子], 잣[海松子], 인삼[人蔘], 지치[紫草], 석이버섯[石蕈],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은어[銀口魚], 전복[鮑], 방어[紡魚], 삼치[麻魚], 조개[蛤], 홍합[紅蛤], 자해[紫蟹], 게[蟹], 연어[鱒魚], 송어[松魚], 고등어[古刀魚], 황어[黃魚], 미역[藿], 다시마[塔士麻], 해삼[海蔘], 해달[海獺], 담비[貂], 청서[靑鼠], 수달[水獺]

이성현(利城縣): 총 29종(식물 7종, 균류 1종, 동물 21종)

삼[麻],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옷[漆], 대구[大口魚], 조개[蛤], 홍합[紅蛤], 꼬막[江瑤柱], 송어[松魚], 고등어[高刀魚], 홍어[洪魚], 방어[紡魚], 삼치[麻魚], 도루묵[銀魚], 문어[文魚], 전복[鮑], 연어[鱒魚], 게[蟹], 청어[靑魚], 해달[海獺], 수달[水獺], 담비[貂], 청서[靑鼠], 미역[藿], 다시마[塔士麻], 은어[銀口魚], 해삼[海蔘], 석이버섯[石蕈]

홍원현(洪原縣): 총 27종(식물 6종, 균류 1종, 동물 20종)

삼[麻], 석이버섯[石蕈], 잣[海松子],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지치

[紫草], 연어(鱧魚), 송어(松魚), 고등어[古刀魚], 은어(銀口魚), 필어(筆魚), 청어(靑魚), 꼬막[江瑤柱], 넙치[廣魚], 홍어(洪魚), 복어(鰻), 홍합(紅蛤), 해삼(海蔘), 황어(黃魚), 문어(文魚), 삼치[麻魚], 대구[大口魚], 게[蟹], 도루묵[銀魚], 자해(紫蟹), 미역[藷], 해달(海獺)

갑산도호부(甲山都護府): 총 10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5종)  
삼[麻], 구맥(瞿麥), 오미자(五味子), 석이버섯[石蓴], 잣[海松子], 영양(羚羊), 담비[貂], 청서(靑鼠), 수달(水獺), 여항어(餘項魚)

삼수군(三水郡): 총 12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6종)  
삼[麻], 오미자(五味子), 석이버섯[石蓴], 잣[海松子], 인삼(人蔘), 구맥(瞿麥), 영양(羚羊), 스라소니[土豹], 수달(水獺), 담비[貂], 청서(靑鼠), 여항어(餘項魚)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 총 33종(식물 7종, 균류 1종, 동물 25종)  
구맥(瞿麥), 삼[麻], 스라소니[土豹], 낭미(狼尾), 담비[貂], 청서(靑鼠), 영양(羚羊), 해달(海獺), 수달(水獺), 고등어[古刀魚],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아양록(阿羊鹿), 송어(松魚), 황어(黃魚), 홍어(洪魚), 삼치[麻魚], 연어(鱧魚), 방어(魴魚), 송어[秀魚], 대구[大口魚], 은어[銀口魚], 문어(文魚), 붕어[鰱魚], 게[蟹], 조개[蛤], 홍합(紅蛤), 곤포(昆布), 다시마[塔土麻], 미역[藷], 해삼(海蔘), 송이[松蕈], 무태어(無泰魚)

길성현(吉城縣): 총 30종(식물 7종, 균류 1종, 동물 22종)  
삼[麻], 영양(羚羊),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연어(鱧魚), 송어(松魚), 황어(黃魚), 은어[銀口魚], 고

등어[古刀魚], 전복[鮑], 조개[蛤], 홍합(紅蛤), 홍어(洪魚), 삼치[麻魚],  
방어(魴魚), 임연수어(臨淵水魚), 자해(紫蟹), 게[蟹], 해삼(海蔘), 미  
역[藿], 다시마[塔土麻], 해달(海獺), 수달(水獺), 청서(靑鼠), 담비[貂],  
홍화(紅花), 송이[松藷]

명천현(明川縣): 총 27종(식물 6종, 균류 2종, 동물 19종)  
삼[麻], 석이버섯[石蕈], 복령(茯苓), 옷[漆], 인삼(人蔘), 오미자(五味  
子),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홍합(紅蛤), 전복[鮑], 은어[銀口魚], 삼  
치[麻魚], 송어(松魚), 연어(鱒魚), 황어(黃魚), 자해(紫蟹), 게[蟹], 해  
삼(海蔘), 다시마[塔土麻], 수달(水獺), 미역[藿], 담비[貂], 청서(靑鼠),  
방어(魴魚), 무태어(無泰魚), 해달(海獺), 쌍어(雙魚)

경원도호부(慶源都護府): 총 20종(식물 5종, 동물 15종)  
삼[麻], 오미자(五味子), 인삼(人蔘), 해달(海獺), 수달(水獺), 대구(大  
口魚), 문어(文魚), 연어(鱒魚), 삼치[麻魚], 방어(魴魚), 홍어(紅魚), 청  
어(靑魚), 해삼(海蔘), 홍합(紅蛤), 백합(白蛤), 송어(松魚), 고등어[古  
刀魚], 굴[石花], 미역[藿], 다시마[塔土麻]

회령도호부(會寧都護府): 총 17종(식물 5종, 동물 12종)  
삼[麻],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송어  
(松魚), 연어(鱒魚), 홍합(紅蛤), 조개[蛤], 미역[藿], 다시마[塔土麻], 방  
어(魴魚), 삼치[麻魚], 청어(靑魚), 해삼(海蔘), 담비[貂], 청서(靑鼠)

종성도호부(鍾城都護府): 총 12종(식물 3종, 동물 9종)  
삼[麻], 인삼(人蔘),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홍합(紅蛤), 미역[藿], 해

삼(海參), 방어(魴魚), 청어(靑魚), 송어(松魚), 은어[銀口魚], 연어(鱒魚)

온성도호부(穩城都護府): 총 16종(식물 4종, 동물 12종)

삼[麻],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연어(鱒魚), 송어(松魚), 홍합(紅蛤), 백합(白蛤), 꼬막[江瑤柱], 미역[霍], 해삼(海參), 담비[貂], 청서(靑鼠), 수달(水獺), 인삼(人蔘), 오미자(五味子), 황어(黃魚)

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 총 23종(식물 4종, 동물 19종)

삼[麻], 인삼(人蔘), 해달(海獺), 수달(水獺),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송어(松魚), 연어(鱒魚), 황어(黃魚), 고등어[古刀魚], 홍어(洪魚), 홍합(紅蛤), 백합(白蛤), 굴[石花], 송어[秀魚], 자해(紫蟹), 곤쟁이[紫蝦], 다시마[塔士馬], 미역[霍], 방어(魴魚), 삼치[麻魚], 넙치[廣魚], 청어(靑魚)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 총 31종(식물 7종, 동물 24종)

구맥(瞿麥), 삼[麻], 인삼(人蔘), 스라소니[土豹], 낭미(狼尾), 담비[貂], 청서(靑鼠), 해달(海獺), 수달(水獺), 잣[海松子], 오미자(五味子), 대구[大口魚], 문어(文魚), 방어(魴魚), 송어(松魚), 황어(黃魚), 삼치[麻魚], 은어[銀口魚], 청어(靑魚), 연어(鱒魚), 홍합(紅蛤), 굴[石花], 미역[霍], 백합(白蛤), 게[蟹], 붕어[鯽魚], 다시마[塔士麻], 고등어[古刀魚], 송어[秀魚], 해삼(海參), 진북[鰻]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훈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훈차	해당 한자 표기
다시마[塔士麻], 고등어[古刀魚]	삼치[麻魚]	수달(水獺), 담비[貂], 해삼(海參)

내용 기술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하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생물별 부연 설명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해당 지역	내용
①생산지역 +이칭	안변도호부 (安邊都護府)	배[梨: 석왕사(釋王寺)에서 나므로 세칭 석왕배[釋王梨]라 한다.
②생산지역 +특징	덕원도호부 (德源都護府)	꼬막[江瑤柱: 용진현(龍津縣)에서 나는데 채취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현민 50여 호가 이 때문에 업을 잃고 거의 다 도망해 흩어진 것을 고려 유석(庾碩)이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가 되어 그 채취령을 일체 금지하니 유리해 도망했던 백성들이 다 돌아왔다.

인용문헌 《동국여지승람》, 《팔도지리지》, 《동문선》 등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황해도(黃海道)〉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 성격

이 책은 세 차례의 수교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원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다고,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僉)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며,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新增)'의 두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集成編)으로 속에 실린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사회·민속·예술·인물 등 지방 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므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 ■ 편저자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책임을 맡은 이행 등 모두 20명이다. 편찬 당시 이들의 관직은 예문관대제학(이행), 지춘추관사(윤은보), 병조판서(신공제), 이조참판(황효헌), 경연시강관(심사순), 춘추관편수관 한학교수(신윤개),

이조정랑(이억손), 사헌부지평(이임), 승문원교리(박광우)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의 이상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로, 성리학이 지닌 학풍과 사상을 바탕으로 지리지 편찬에 임하였다.<sup>10)</sup>

■ **제작 시기** 1530년(중종 25)

■ **권수 책수** 55권 25책

■ **판본** 일본 경도대학소장본이 유일하며,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 규장각도서 등 국내에 소장되어 있다. 1455년(단종 3)의 을해자로 인쇄된 《동국여지승람》의 초간본 중 권37·38은 김두중(金斗鍾)이 소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어, 1906년 후지가미(淵上貞助)가 활판본 A5판으로 인쇄하였고, 1912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활판본으로 간행한 바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대상 지역은 한반도 전역이다. 권1에 경도(京都) 상, 권2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이 수록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고,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방법**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

---

10) 범선규(2005), 『新增東國輿地勝覽』(경상도 편)이 갖는 自然地理 研究資料의 意義, 문화역사지리17,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가하였으며, 체제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 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풍속·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 중국의 지리지에는 없는 성씨·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하였다. 그 뒤 1499년에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였다.

경도 앞에 조선 전도인 팔도 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를 삽입하였다. 이 지도들은 실측 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본래 지지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 ■ 목차

- 제41권 황해도(黃海道)
- 황주목(黃州牧)
- 평산도호부(平山都護府)
- 서흥도호부(瑞興都護府)
- 봉산군(鳳山郡)
- 제42권 안악군(安岳郡)
- 재령군(載寧郡)
-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천군(信川郡)  
 신계현(新溪縣)  
 우봉현(牛峯縣)  
 문화현(文化縣)  
 토산현(兔山縣)  
 장련현(長連縣)  
 제43권 해주목(海州牧)  
 연안도호부(延安都護府)  
 풍천도호부(豐川都護府)  
 배천군(白川郡)  
 용진현(甕津縣)  
 송화현(松禾縣)  
 은율현(殷栗縣)  
 강음현(江陰縣)  
 강령현(康翎縣)  
 장연현(長淵縣)

## ■ 내용

분류 각 도의 연혁과 총론·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  
 혁,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관방(關  
 防)·봉수·누정·학교·역원·교량위치·불우·사묘·농묘·고  
 적·명환(名宦)·인물·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물 속에는 효자·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각 목·부·군·현의 '토산' 부분에 기  
 록되어 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나열하고, 필요한 경

우 부연설명을 하였다.

수록 증수 황주목(黃州牧): 총 8종(식물 2종, 동물 6종)

뽕나무[桑], 지치[紫草], 웅어[葦魚], 송어[秀魚], 붕어[鯽魚], 누치[訥魚],  
쏘가리[錦鱗魚], 게[蟹]

평산도호부(平山都護府): 총 8종(식물 2종, 균류 1종, 동물 5종)

석이[石葯], 지치[紫草], 오미자(五味子), 누치[訥魚], 송어[秀魚], 게[蟹],  
조개[蛤], 붕어[鯽魚]

서흥도호부(瑞興都護府): 총 11종(식물 7종, 균류 2종, 동물 2종)

석이버섯[石葯], 잣[海松子], 삼[麻], 애끼찌[弓幹木], 누치[訥魚], 쏘가  
리[錦鱗魚], 옷[漆],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복령(茯  
苓)

봉산군(鳳山郡): 총 7종(식물 1종, 동물 6종)

삼[麻], 뱀어[白魚], 송어[秀魚], 붕어[鯽魚], 누치[訥魚], 쏘가리[錦鱗魚],  
게[蟹]

안악군(安岳郡): 총 11종(식물 5종, 균류 1종, 동물 5종)

삼[麻], 지치[紫草], 송이[松葯], 인삼(人蔘), 송어[秀魚], 게[蟹], 뱀어[白  
魚], 붕어[鯽魚], 토화(土花), 윤화(輪花), 꽃게(紫蟹)

재령군(載寧郡): 총 10종(식물 4종, 균류 1종, 동물 5종)

삼[麻], 지치[紫草], 오미자(五味子), 하수오(何首烏), 누치[訥魚], 게  
[蟹], 뱀어[白魚], 송이[松葯], 붕어[鯽魚], 송어[秀魚]

수안군(遂安郡): 총 10종(식물 5종, 균류 3종, 동물 2종)

삼[麻], 인삼(人蔘), 복령(茯苓), 지치[紫草], 영양(羚羊), 오미자(五味子), 송이[松茸], 석이[石蕈], 애끼찌[弓幹木], 누치[訥魚]

곡산군(谷山郡): 총 10종(식물 6종, 균류 3종, 동물 2종)

영양(羚羊), 누치[訥魚], 잣[海松子], 황양(黃楊), 송이[松茸], 석이버섯[石蕈], 오미자(五味子), 지치[紫草], 인삼(人蔘), 애끼찌[弓幹木]

신천군(信川郡): 총 4종(식물 2종, 동물 2종)

삼[麻], 지치[紫草], 붕어[鰕魚], 게[蟹]

신계현(新溪縣): 총 6종(식물 4종, 균류 2종, 동물 1종)

인삼(人蔘), 지치[紫草], 복령(茯苓), 오미자(五味子), 송이[松茸], 누치[訥魚]

우봉현(牛峯縣): 총 3종(식물 2종, 균류 1종)

석이버섯[石蕈], 인삼(人蔘), 잣[海松子]

문화현(文化縣): 총 3종(식물 2종, 균류 1종)

삼[麻], 잣[海松子], 송이[松茸]

토산현(兔山縣): 총 3종(식물 3종)

인삼(人蔘), 옷 [漆], 지치[紫草]

장련현(長連縣): 총 7종(식물 2종, 균류 1종, 동물 4종)

맛조개[竹蛤], 미역[藿], 지치[紫草], 송이[松藁], 은어[銀口魚], 숭어[秀魚], 전복[鮑]

해주목(海州牧): 총 24종(식물 6종, 동물 18종)

거서[拒黍], 삼[麻], 지치[紫草], 미역[藿], 사곽[絲藿], 청각[靑角], 백하[白蝦], 곤쟁이[紫蝦], 대하[大蝦], 굴[石花], 홍어[洪魚], 게[蟹], 홍합[紅蛤], 은어[銀口魚], 조기[石首魚], 삼치[麻魚], 농어[鱸魚], 붕어[鯽魚], 청어[靑魚], 뱀덩이[蘇魚], 조개[蛤], 낙지[絡繹], 소라[少螺], 숭어[季魚]

연안도호부(延安都護府): 총 8종(동물 8종)

곤쟁이[紫蝦], 쌀새우[白蝦], 홍합[紅蛤], 조개[蛤], 숭어[季魚], 붕어[鯽魚], 굴[石花], 게[蟹]

풍천도호부(豐川都護府): 총 9종(식물 6종, 균류 2종, 동물 1종)

삼[麻], 옷[漆], 석이버섯[石藁], 송이[松藁], 지치[紫草], 청어[靑魚], 사곽[絲藿], 지황[地黃], 왜저[倭楮]

배천군[白川郡]: 총 3종(동물 3종)

숭어[季魚], 붕어[鯽魚], 게[蟹]

옹진현(甕津縣): 총 14종(식물 6종, 동물 8종)

삼[麻], 지치[紫草], 미역[藿], 황각[黃角], 조기[石首魚], 청어[靑魚], 죽합[竹蛤], 복어[鮓], 홍합[紅蛤], 낙지[絡繹], 소라[少螺], 굴[石花], 청각[靑角], 사곽[絲藿]

송화현(松禾縣): 총 3종(식물 2종, 동물 1종)

지치[紫草], 은어[銀口魚], 옷[漆]

은율현(殷栗縣): 총 6종(식물 4종, 동물 2종)

삼[麻], 지치[紫草], 잣[海松子], 죽합[竹蛤], 은어[銀口魚], 사괘[絲藿]

강음현(江陰縣): 총 3종(식물 1종, 동물 2종)

지치[紫草], 송어[季魚], 담비[山獺]

강령현(康翎縣): 총 17종(식물 8종, 동물 9종)

모시[苧], 삼[麻], 미역[藿], 황각[黃角], 지치[紫草], 참가사리[細毛], 청각[靑角], 사괘[絲藿], 굴[石花], 해삼[海蔘], 소라[少螺], 홍합[紅蛤], 낙지[絡締], 맛조개[竹蛤], 청어[靑魚], 조기[石首魚], 전복[鮑]

장연현(長淵縣): 총 14종(식물 6종, 동물 8종)

삼[麻], 미역[藿], 사괘[絲藿], 청각[靑角], 황각[黃角], 참가사리[細毛], 소라[少螺], 홍합[紅蛤], 은어[銀口魚], 청어[靑魚], 전복[鮑], 상어[鯊魚], 맛조개[竹蛤], 송어[季魚]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훈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훈차	해당 한자 표기
송어[季魚], 누치[訥魚]	삼치[麻魚], 참가사리[細毛]	계[蟹], 복어[鮑], 모시[苧]

### 내용 기술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하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생물별 부연 설명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해당 지역	내용
①생산 지역	서흥도호부 (瑞興都護府)	궁간목(弓幹木): 구정리(俱井里)에서 생산된다.
	수안군(遂安郡)	애끼찌(弓幹木): 언진산에서 생산된다.
	곡산군(谷山郡)	애끼찌(弓幹木): 고을 북쪽 도삼며(刀三旃)에서 생산된다.
②유래 + 문헌 기록	해주목(海州牧)	거서(租黍 검은 기장): 세종 때에 거서를 해주에서, 경석(磬石)을 남양(南陽)에서 얻어서 박연(朴堧)을 명하여 편경(編磬)을 제조하게 하였다. 박연이 밀납을 녹여서 거서의 알 형태를 만들되 약간 크게 하여 분(分)을 모아 관(管)을 만드는데, 한 알로 한 분을 하며 열 알을 모아 촛(寸)을 하였다. 법에는 황종(黃鐘)의 길이는 9촌으로 하되, 3분을 덜하고 더하여서 12율(律)을 이루게 하여 새 경(磬) 두 틀을 지어 드렸다. 세종이 이르기를, “새 경이 바로 되어 소리가 맑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척(夷則) 소리 하나가 조화되지 않으니 어쩐 일인가.” 하니, 연이 곧 자세히 보고 말하기를, “먹금이 아직 남아 다 갈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곧 가니 먹금이 다 없어지고 소리가 제대로 조화되었다.

인용문헌 《동국여지승람》, 《팔도지리지》, 《동문선》 등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 성격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이 즉위한 1494년 12월 25일부터 폐위된 1506년 9월 2일까지 약 12년간의 실록이다. 일기의 체제는 대개 한 달을 한 권으로 하고, 기사가 적은 달은 합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것이 12월 25일로 그 달의 기사가 9장에 불과하나 한 권으로 한 것이 예외이다. 제1권의 초두에는 각항 1자씩을 낫춘 7항의 글로 연산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는 항을 가는 일이 없이 날이 바뀌거나 기사가 바뀔 때마다 그 앞에 아표를 붙이고 있으며, 사관의 평도 후기의 실록과 같이 별항으로 각항 1자 낫추어 적는 일 없이 그대로 해당 기사의 말미에 쓰고 있다.

### ■ 편저자

일기청(日記廳) 연산군이 죽은 직후인 1506년(중종 1) 11월에 일기청(日記廳)이 설치되고, 대제학 김감(金勘)이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임명되면서 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1월 김감이 박경(朴耕)암살사건에 관련되어 유배됨으로써 편찬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507년(중종 2) 6월 성희안(成希顔)을 총재관, 신용개(申用溉)·김전(金銓)을 도청당상(都廳堂上), 김봉(金封)·성세순(成世純)·성세명(成世明)·조계상(曹繼商)을 각방당상(各房堂上)에 임명하고 작업을 재개하여 동 4년 9월에 완성하였다.

■ 제작 시기 1507년(중종 2)

- 권수 책수 63권 46책
- 판본 활자본.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 1,707권, 1,187책과 오대산본 27책, 산엽본 등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태백산본 실록 1,707권, 848책이 보관되어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들  
방법 연산군 시대의 다양한 실제 기록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물 등장
- 목차 연산군 즉위년 1494 12월  
연산군 1년 149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2년 1496 1월 2월 3월 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3년 149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4년 149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윤 11월 12월  
연산군 5년 149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6년 15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7년 150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8년 150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9년 150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10년 1504 1월 2월 3월 4월 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11년 150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산군 12년 150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 내용

분류 생물에 대해 따로 분류한 바는 없으며, 실록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생물이 등장함.

수록 종수 총 106종(식물 51종, 균류 1종, 동물 54종)

쑥[艾], 황두(黃豆), 개암[榛], 보리[牟麥], 곰[熊], 소[牛], 잡어(雜魚), 말[馬], 굴[石花], 망아지[兒馬], 여우[狐], 표범[豹], 청어(靑魚), 조기[石首魚], 돼지[豕], 호초(胡椒), 비둘기[鳩], 참새[雀], 백청밀(白淸密), 청밀(淸蜜), 잣[栝], 호도(胡桃), 앵두[櫻桃], 양(羊), 물소[水牛], 토끼[兔], 공작[孔雀], 야생기러기[野雁], 거북[龜], 송아지[犢], 자라[鱉], 소목(蘇木), 포도(葡萄), 목통(木通), 살구[杏子], 호랑이[虎], 노루[獐], 복숭아[桃], 오얏[李], 노새[驢], 나귀[驢子], 개[狗], 순나물[蓴菜], 파[葱], 마늘[蒜], 상추[高菘], 무[菁], 감자(柑子), 시감채(辛甘菜), 영산홍(映山紅), 동백(冬栢), 보리수(甫里樹), 당개[唐狗], 추등응(秋等鷹), 해별(海鰲), 강돈(江豚), 옥복(玉腹), 삼백초[藪菜], 우렁이[螺], 살쥔이[狸], 전복[鮑], 매[鷹], 너새[鶉], 조개[蛤], 귤[柑子], 유감(乳柑), 대추[棗], 산포도(山葡萄), 다래[獼猴桃], 석류(石榴), 피나무[楸木], 은어(銀口魚), 들국

화[野菊花], 밤[栗], 유자(柚子), 수박(西瓜), 홍시(紅柿), 계[蟹], 담비[貂], 청서(靑鼠), 두충나무(杜沖), 오메나무(烏梅), 맥송심(麥松茸), 사다새[鶻], 고니[鵠], 산 누에 고치[山繭], 연홍시(軟紅柿), 배[梨], 평[雉], 금굴(金橋), 수리[鸞], 모란(牧丹), 왜철쭉(倭躑躅), 치자(梔子), 동백(冬栢), 장미(薔薇), 스라소니[土豹], 승냥이[豺狼], 담비[獺鼠], 매[松鷲], 오리[鴨], 호랑이[虎], 새매[鷓鴣], 영귀(靈龜), 황새[鶴]/송이[松茸] 명칭 표기 해당 생물에 대한 다양한 종(種)을 볼 수 있다.

굴	매
굴(柑子), 유감(乳柑), 금굴(金橋) 등	매[鷹], 매[松鷲], 새매[鷓鴣] 등

### 내용 기술

항목	날짜	내용
① 과학 (생물)	5년 6월 6일	강화부에서 수족(水族)을 진상하였는데, 형상은 거북과 같고, 두상에는 갑각(甲殼)이 있으며, 눈은 송아지와 같고, 목은 자라와 같으면서 짙막하되 능히 뾰다 오므렸다 할 수 있으며, 네 발은 날짐승의 날개와 같되 갑각이 있고, 무늬는 천산갑(穿山甲)과 같으며, 앞발에는 발톱 하나가 있고 뒷발에는 발톱 두 개가 있으며, 복갑(腹甲)은 자라와 같고 천식(喘息)은 소와 같았다.
	6년 7월 9일	살구(杏子)를 승정원에 내리며 이르기, “살구가 지금까지 나무에 있으니 괴이한 일이 아닌가. 그대들은 옛일을 많이 알고 있으니, 재앙인지 상서(祥瑞)인지를 상고하여 아뢰고, 또 이것으로 제목(題目)을 삼아 각기 율시(律詩)를 짓게 하라.” 하니, 승지들이 이기기를, “이것이 무슨 괴이한 일이 되겠습니까. 신 등의 생각에는 좋은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우연히 늦은

항목	날짜	내용
		열매가 오래도록 견딘 것이니, 이것은 곧 9월에 배꽃이 피는데 비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이계동(李季叟)에게 살구를 내려 주면서 이르기를, “경은 옛일을 알 것인데, 이것이 재이(災異)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니, 이계동(李季叟)은 아뢰기를, “역대(歷代)의 일은 지금에 와서 비록 상고할 수 없지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것은 좋은 일이고 재이(災異)는 아닙니다.” 하였다.
	11년 3월 21일	전교하기를, “경기(京畿)의 범이 있는 곳은 자취를 찾아서 아뢰라.” 하였다.
	12년 3월 15일	노루가 타락산(駝駱山) 성문에서 후원으로 들어오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간신이 이미 제거되고 정치와 교화가 융성하여 아무리 미물이라 하지만 스스로 성중으로 들어왔으니, 이 뜻으로 시를 지어 바치라.”
② 재정	3년 1월 21일	호조에 전교하기를, “청어와 조기를 잡는 어전(魚箭)을 내수사(內需司)에 주라.”
	3년 4월 7일	호조에 전교하기를, “백청밀(白淸密) 20말, 청밀(淸蜜) 15말, 잣·개암 각각 20석, 호도 15말을 대내(大內)로 들이라.” 하였다.
	5년 9월 1일	전교하기를, “포도와 목통(木通) 열매 등을 상강(霜降) 후에 외방에서 채취하여 대궐 안으로 들이되 해마다 늘 하도록 하라.” 하였다.
	6년 3월 1일	전라도 감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동백(冬柏) 5~6 그루를 각기 화분에 담고 흙을 덮어 모두 조운선(漕運船)에 실어보내고, 보리수(甫里樹) 열매를 익은 다음에 봉하여 올려보내라.” 하였다.

항목	날짜	내용
	6년 3월 11일	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해별(海獮)·강돈(江豚)·옥복(玉腹) 각두 마리씩을 산 채로 잡아 봉진(封進)하라.” 하였다.
③ 농업	3년 6월 24일	각도 감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우리 나라에서 물소(水牛)를 많이 기르는데 밭갈이에 익숙하지 못하니 실용에 도움될 것 같지 않다. 각 고을에서 농구를 갖추어 갈기를 익혀 보게 하여, 밭갈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아뢰라.” 하였다.
	11년 3월 25일	경기 감사(京畿監司)에게 명하여 산나물(蓴菜·파[葱]·마늘[蒜]·상치[蒿])를 봉진(封進)하게 하고, 모든 채소는 각도(各道)로 하여금 뿌리채로 흙을 덮어서 마르지 않도록 하여 봉진하게 하였다. 각도는 드디어 우리(糶)를 만들어서 흙을 넣고 심었다가 끊임없이 번갈아 들어 날랐으나, 서울에 이르러서는 말라서 바칠 수 없었기에 드디어 저자에서 사게 되니, 그 값이 뛰어올라서 재력(財力)을 다하여도 갚아낼 수 없었다. 또 내관(內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산나물 및 민간의 여러 채소를 채취하게 하였다.
	11년 10월 15일	전교하기를, “주문사가 사온 노새 12마리는 기구(麒麇)에서 기르게 하라.”
	11년 10월 18일	전교하기를, “나귀는 북경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갈 때마다 사오게 하여 번식시켜라.”
	12년 1월 25일	전교하기를, “영산홍(映山紅)은 그늘에서 잘 사니, 그것을 땅에 심을 때는 먼저 땅을 파고 또 움막을 지어, 추위에 부딪쳐도 말라 죽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 〈탐라지(耽羅志)〉 해제

###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

### ■ 성격

이 읍지는 이원진이 《동국여지승람》 및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참고하고 도내 상황과 시문을 수집하여 만든 읍지이다. 이 책은 현전하는 제주도의 가장 오랜 읍지로서 이후 제주도에 관한 문헌들의 저본이 되었다. 또한, 17세기에 전국적으로 활발한 편찬을 보이는 사찬읍지의 전형을 지닌 책으로도 의의를 지닌다. 내용면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으로부터 인물·시문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특징을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17세기 중엽의 제주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 편저자

이원진(李元鎭) 조선 중기의 문신. 광해군 때 대북의 폐모론에 반대, 이원익 등과 귀양갔다가 인조반정 후 풀려났다. 효종 때 제주 목사로 하멜 등 표착한 30여 명의 네덜란드인들을 서울로 압송했다. 《탐라지》를 편수했다. 벼슬은 관찰사에 이르렀다.

### ■ 제작 시기 1653년(효종 4)

### ■ 권수 책수 1책

### ■ 판본 목판본

###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제주도 전역

방법 《탐라지(耽羅志)》는 《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산정을 가하고, 《제주풍토록》, 《동문감》, 《고려사》 등의 문헌 내용

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기>와 사객들이 남긴 <제영>을  
 채록하고 있다. 이원진이 편술한 뒤, 사인(士人) 고흥진에게 교정  
 을 보고 간행하게 하였다.

■ 목차

제주(濟州) : 건치연혁(建置沿革)/진관(鎭管)/관원(官員)/읍명(邑  
 名)/성씨(姓氏)/풍속(風俗)/형승(形勝)/산천(山川)/교량(橋梁)/토산  
 (土産)/전결(田結)/성곽(城郭)/방호소(防護所)/수전소(水戰所)/봉수  
 (烽燧)/궁실(宮室)/누정(樓亭)/창고(倉庫)/학교(學校)/향약(鄉約)/사  
 묘(祠廟)/불우(佛宇)/장관(將官)/군병(軍兵)/공장(工匠)/노비(奴婢)/  
 과원(果園)/목양(牧養)/의약(醫藥)/공헌(貢獻)/고적(古跡)/명환(名  
 宦)/인물(人物)/효자(孝子)/열녀(烈女)/제영(題詠)

정의현(旌義縣) : 건치연혁(建置沿革)/관원(官員)/산천(山川)/교량  
 (橋梁)/성곽(城郭)/방호소(防護所)/수전소(水戰所)/봉수(烽燧)/궁실  
 (宮室)/누정(樓亭)/창고(倉庫)/학교(學校)/향약(鄉約)/사묘(祠廟)/불  
 우(佛宇)/장관(將官)/군병(軍兵)/노비(奴婢)/과원(果園)/목양(牧養)/  
 공헌(貢獻)/고적(古跡)/명환(名宦)/열녀(烈女)

대정현(大靜縣) : 건치연혁(建置沿革)/관원(官員)/성씨(姓氏) · 풍속  
 (風俗) · 토산(土産)/산천(山川)/교량(橋梁)/성곽(城郭)/방호소(防護  
 所)/수전소(水戰所)/봉수(烽燧)//궁실(宮室)/누정(樓亭)/창고(倉庫)/  
 학교(學校)/향약(鄉約)/사묘(祠廟)/불우(佛宇)/장관(將官)/군병(軍  
 兵)/노비(奴婢)/과원(果園)/목양(牧養)/공헌(貢獻)/고적(古跡)/발(跋)

## ■ 내용

수록 종 수

동물 : 36종

갈치[刀魚], 고등어[古刀魚], 고라니[麋], 너구리[地獺], 노루[獐], 녹장포[鹿長脯], 대모[玳瑁], 대회복[大灰鰻], 돼지[豬], 말[馬], 말힘줄(馬筋), 멸치[行魚], 모시조개[黃蚶], 문어[文魚], 바다거북껍질[玳瑁甲], 사슴[鹿], 사슴꼬리[鹿尾], 사슴혀[鹿舌], 사향뒤쥐[香鼠], 살쥬이[狸], 상어[鮫魚], 생선[生魚], 석결명자[石決明], 소[牛], 소회복[小灰鰻], 양무조개[鸚鵡螺], 오징어[烏賊魚], 옥돔[玉頭魚], 응어[望魚], 은어[銀口魚], 전복[鰔], 조개[貝], 중회복[中灰鰻], 진주[瑣珠], 쾌포[快脯], 해달(海獺)

식물 : 102종

가시울(加時栗), 감국(甘菊), 감자[柑], 감초(甘草), 거망웃나무[樸木], 견우(牽牛), 굴씨[橋榭], 굴잎[橋葉], 금굴(金橋), 금동(金桐), 금동목(金桐木), 기각[枳殼], 기장[粱], 기실[枳實], 꾸지뽕나무열매[赤栗], 끼무릇[半夏], 녹각실(鹿角實), 녹두(菘豆), 닥나무[楮], 당귀(當歸), 당유자(唐柚子), 동백(冬柏), 동정굴(洞庭橋), 두충(杜沖), 등자(橙子), 만향목(蔓香木), 만형자(蔓荊子), 맥문동(麥門冬), 메기장[鯰], 메밀[蕎麥], 모밀жат나무[赤栗], 목환자(無患子), 무환자(無患子), 무회목(無灰木), 미역[藷], 미역귀[藷耳], 밀[小麥], 반하(半夏), 백규화(白葵花), 백랍(白蠟), 백일홍(百日紅), 강남콩(백편두, 白扁豆), 보리[大麥], 보리열매[菩提實], 붓순(八角), 비자(榧子), 뽕나무[桑], 사과(絲瓜), 사상자(蛇床子), 산굴(山橋), 산유자[山柚], 석곡(石斛), 석골풀[石斛], 석금

굴(石金橘), 석류(石榴), 소나무담쟁이동굴(松寄生), 소태나무(苦楝), 안식향(安息香), 앵숙(豐粟), 엄나무껍질(海東皮), 연근(練根), 연실(練實), 연자(연밥), (蓮子), 영릉향(零陵香), 영주열매(瀛洲實), 오미자(五味子), 올벼(稗), 옷나무(漆), 유안식향(油安息香), 왜굴(倭橘), 우무(牛毛), 유감(乳柑), 유자(柚), 으름(燕覆子), 이깔나무(赤木), 자단나무(紫檀木), 차즈기(자소, 紫蘇), 종가시나무(二年木), 지황(地黃), 진피(陳皮), 차남(菴), 찰기장(稷), 천문동(天門冬), 천초(蜀椒), 청굴(靑橘), 청동(靑桐), 청목향(靑木香), 청양(靑楊), 청피(靑皮), 치자(梔子), 칠나무(漆木), 팥(小豆), 표고(蓴膏), 필징가(葎澄茄), 향부자(香附子), 향유(香薷), 형개(荊芥), 홍규화(紅葵花), 회향(茴香), 후박(厚朴), 휘나무(槐)

균류: 1종

목이버섯(木衣),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다른 문헌의 일반 생물의 표기와 같다. 이 문헌 안에서 이칭이나 별칭은 따로 발견되지 않는다.

내용 기술

항목	내용
① 생산지역	고라니, 사슴, 노루, 돼지, 살팽이, 해달: 큰화탈섬과 작은화탈섬에서 난다. 대모, 조개, 앵무조개: 이상 세 종류는 모두 '웨섬'과 대정 '더바섬'에서 난다.
② 종류	소(牛): 검은 소, 황소, 얼룩소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뿔이 매우 아름다워 뿔간이 될 만하다.
③ (생산)시기 +특징	감자, 유자, 금굴: 9월에 익으므로 가장 이른 것이다.

항목	내용
④ 특징	<p>사향뒤쥐: 체구가 매우 작다. 털 뿔이 뽀족하고 꼬리가 가늘다. 그 냄새가 사향과 매우 비슷해서 취하여 차고 다니면 오래도록 향기가 멈추지 않는다.</p> <p>산골: 열매가 작고 씨는 유자와 같으나 맛은 달다.</p>

주로 토산(土産), 과원(果園), 목양(牧養), 의약(醫藥) 부분에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인용문헌

《풍토록》, 《본초강목》, 《제주풍토록》, 《동문감》, 《고려사》

# 문학류





문학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간이집(簡易集)〉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본 (奎 1679) '간이집(簡易集)'

### ■ 성격

1631년 교서관(校書館)에서 9권 9책의 활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는데 병자호란을 겪으며 유실되어 1643년 목판으로 복간되었다. 장유(張維)의 서문이 들어있다. 1권부터 5권까지는 산문이 들어 있고 이후에 시가 들어 있어서 일반적인 문집의 편집 순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공적인 기능을 하는 산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배치가 되었다고 추측된다. 주(奏)에 임진왜란 전황에 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는 글로 문집이 시작하고 있다. 산문도 논변류에 관한 글은 적고 다수가 공적인 임무로 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글이 많다. 시도 형식에 따른 분류는 아니고 지은 계기에 따른 분류로 되어 있다.

### ■ 편저자

최립(崔崧) 최립(崔崧, 1539~161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통천(通川), 자(字)는 입지(立之), 호는 동고(東皐)였고 만년에 간이(簡易)라 하였다. 최립의 부친은 진사(進士) 최자양(崔自陽)이다.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1555년 17세의 나이로 진사가 되고 1559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명에 원군을 요청하고 전황에 대해 알리는 등의 일로 외교문서 작성할 일이 많아 졌는데 그 때 중요한 활동을 했다. 당대를 풍미했으며 고문적(古文的) 글쓰기에 능했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문장을 쓴다는 평가도 받았다.

■ 제작 시기 1631년

■ 권수 책수 9권 9책

■ 판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9권 9책 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것과 별도로 1책, 4책의 2책이 없는 한 질이 소장되어 있다. 1978년 영인되었으며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49~52로 영인되었다. 김우정 역, 『간이집』(지식을만드는지식, 2008)으로 번역되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별히 어느 지역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경험 또는 지식이 반영되었다.

방법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면서 일부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추가하였다.

■ 목차

간이문집서(簡易文集序)/ 권1 주(奏)/봉사(封事)/진언(陳言)/공사(控辭)/투진(投進)/표전(表箋)/증서(呈書)/계첩(揭帖)/요송(謠誦)/제문(祭文)/상량문(上梁文)/격(檄)/책(策)/평(評)/설(說)/비(碑)/권2 신도비(神道碑)/묘지(墓誌)/묘갈(墓碣)/기(記)/ 권3 서(序)/지(識)발(跋)/권4 사행문록(四行文錄)/권5 괴원문록(槐院文錄)/권6 초미록(焦尾錄)/유습(拾遺)/정축행록(丁丑行錄)/신사행록(辛巳行錄)/분진록(分津錄)/진양록(晉陽錄)/호행록(扈行錄)/난후록(亂後錄)/계사행록(癸巳行錄)/권7 갑오행록(甲午行錄)/공산록(公山錄)/송도록(松都錄)/여강록(麗江錄)/마포록(麻浦錄)/권8 서도록전(西都錄前)/서도록후(西都錄後)/환경록(還京錄)/동군록(東郡錄)/환조록(還朝錄)/휴가록(休假錄)/권9 희년록(稀年錄)/부록(附錄)

## ■ 내용

분류 생물 정보를 주로 다룬 문집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분류는 생물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집의 분류 기준이 적용되어 있다. 보통 운문을 앞에, 산문을 뒤에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1차 분류되어 있는 점은 다른 문집과 같으나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산문을 앞에 배치하고 운문을 뒤에 배치하고 있다. 운문을 다시 분류하면 형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짓게 된 계기가 적용되어 사행(使行)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수록종수 식물 : 55종

조(藻), 이맥(二麥), 송(松), 추(楸), 연(蓮), 가(茄), 가(葎), 류(柳), 괴(槐), 대나무(죽(竹)), 란(蘭), 매(梅), 조(속, 栗), 은행나무(행, 杏), 유자(柚子), 석류(石榴), 초(椒), 백(柏), 앵(櫻), 규(葵), 국(菊), 굴(橘), 계요등(갈, 葛), 미(薇), 면화(綿花), 파초(芭蕉), 감당(甘棠), 면죽(綿竹), 만년향(萬年香, 만년송(萬年松)), 사계화(四季花), 노송(老松), 오죽(烏竹), 홍련(紅蓮), 백련(白蓮), 해류(海柳), 복숭아나무(도, 桃), 자두나무(리, 李), 창포(菖蒲), 부평(浮萍), 풍(楓), 칠(漆), 형(荊), 삼(杉), 회(檜), 동(桐), 해(薙), 포도(葡萄), 화조(火棗), 계(桂), 향일화(向日花), 석죽(石竹), 혜초(蕙草), 라(蘿)

동물 : 45종

양(羊), 경아(鯨鯢), 기슬(蟻蝨), 서(鼠), 비(貔), 호(虎), 표(豹), 연(鳶), 학(鶴), 마(馬), 교(蛟), 악(鰐), 사(蛇), 시(豕), 려(藜), 괘(藿), 두견(杜鵑), 토(兔), 섬(蟾), 구(鳩), 선(蟬), 아(鴉), 안(雁), 공(蛩), 계(鷄), 견(犬), 안(鷄), 슬(蝨), 승(蠅), 시(豺), 황(蝗), 연(燕), 작(雀), 봉(鳳), 주

(蛛), 우(牛), 호(狐), 응(鷹), 치(雉), 원(黿), 타(鼉), 목(鶯), 려(驢), 흥(鴻), 초(貂)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생물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俗稱’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만년송
萬年香: 俗稱萬年松

내용 기술 생물의 명칭과 분류, 관리, 한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	내용
① 명칭/분류	만년향(萬年香)은 속칭 만년송(萬年松)이며 실제로는 향나무 종류이다.
② 관리	동정굴(洞庭橋) 이 굴나무는 씨를 심는데, 이따금씩 씨를 가지고 가서 살려 내곤 하였다.
③ 면죽 한시	(면죽(綿竹)) 몇 년 동안 대나무를 꽤나 길러 보았는데 / 年來頗養竹 멋들어진 놈일수록 살기 더욱 힘들더군 / 美者尤難活 그대여 면죽이라 가볍게 보지 마소 / 綿竹君莫輕 한겨울 찬바람도 죽이지를 못하리니 / 歲寒不能殺
④ 석죽 한시	(석죽(石竹))개울 길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피는 꽃들 / 川路尋常點點紅 아이늬미 아양 떨며 뜰로 끌고 가 보여 주네 / 奚童媚我入園中 가련토다 촌티를 끝내 못 벗어나는 품격이여 / 可憐風格終田野 흰머리 벼슬살이 강마른 이 몸과 똑같구나 / 白首官居疎瘦同

항목	내용
⑤ 석류 한시	(석류(石榴)) 바다를 멀리 건너와야 열매를 맺지 / 結實須重海 성 안에 가득한 건 꽃만 피는 것뿐 / 開花只滿城 새로 맛보시게 절물(節物)로 바친 열매 / 嘗新供節序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그 공이 으뜸이라 / 解渴策功名 내시가 분부 받들고서 하사를 하였나니 / 內侍承言賜 미천한 신하의 분수에 넘치는 영광일세 / 微臣過望榮 아무렴 무일 편을 얻은 멋지게 써 올려서 / 惟應寫無逸 만 그루 나무로 은혜를 갚아야 하고말고 / 萬本報恩情

인용문헌 論語, 詩經, 書經, 杜少陵詩集, 史記, 後漢書, 白樂天詩集, 李太白集 등

## 〈도문대작(屠門大嚼)〉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도문대작(屠門大嚼)》

■ 성격

1611년에 허균이 우리나라 8도의 명물 토산품과 별미음식을 소개한 책이다. 서문에서 “내가 죄를 짓고 귀양살이를 하게 되니 지난 날에 먹었던 음식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다. 이에 유(類)를 나누어 기록해 놓고 때때로 보아가며 한 번 맛보는 것이나 못지 않게 한다...”고 밝혔다. ‘도문대작(屠門大嚼)’의 뜻은 책 끝에 1611년 4월에 쓴 저자의 제사(題辭)에서 볼 수 있다. ‘《도문대작》이라는 제목은 고기를 먹고 싶으나 먹을 수가 없으므로 도문(도살장의 문)이나 바라보고 대작(질경질경 씹는다)하며 자위한다는 것’으로, 허균이 귀양살이 가운데 8도의 별미 음식을 소개하면서 가당치 아니한 것을 부러워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편저자

허균(許筠) 허균(許筠, 1569~1618)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형조판서와 의정부참판을 지냈다. 이 책은 허균이 바닷가로 귀양을 갔을 때, 그곳에서 거친 음식을 먹게 되자 전에 먹었던 좋은 음식을 떠올리며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 제작 시기 1611년(광해군 3), 1961(영인본)

■ 권수 책수 1권 1책

■ 판본 필사본(1611년)과 영인본(1961년)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전국 8도의 다양한 별미 음식을 선정하였다. 기술된 지역들

의 명물을 알 수 있고, 당시의 식생활 및 별미 음식을 알 수 있다. 방법 허균 자신이 직접 그곳을 찾아 음식을 맛본 것을 회상하여 기술하였다. 떡(병이)류, 채소와 해조류, 어패류, 조수육류, 기타 차, 술, 꿀, 기름, 약밥 등의 명산지와 식품의 소재, 해당 식품 및 음식에 대한 관습까지 언급하였다. 따라서 간략한 해설이지만 식품과 음식의 실상을 알 수 있다.

#### ■ 목차

목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술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떡류(餅餌之類)/과실류(果實之類)/새와 짐승의 고기류(飛走之類)/수산물류(海水族之類)/채소류(蔬菜之類)/기타(其他)

#### ■ 내용

**분류** 방풍죽(防風粥:강릉), 석이병(石耳餅:개성), 엿, 대만두(大饅頭), 두부, 다식(茶食), 웅지정과(熊脂正果) 등 병이류(餅餌類) 11종, 강릉의 천사배[天賜梨, 전주의 승도(僧桃) 등 과실류 28종, 곰의 발바닥[熊掌], 표범의 태[豹胎], 사슴의 혀와 꼬리 등 비주류(飛走類) 6종, 붕어, 청어, 복어, 송어, 광어, 방어, 도루묵, 홍합, 대하 등 해수족(海水族) 46종, 무, 배추 등 채소류 33종, 기타 5종을 나열하고, 이들 식품의 특징과 명산지를 밝혔으며, 끝으로 서울 음식 28종을 계절과 재료에 따라 분류하였다.

**수록 종수** 떡류(餅餌之類): 총 5종(식물 5종)

방풍(防風), 구맥(瞿麥: 귀리), 감[槲], 밤[栗], 포도(蒲桃)

과실류(果實之類): 총 29종(식물 29종)

하늘 배[天賜梨, 금색배[金色梨, 검은배[玄梨, 붉은배[紅梨, 대숙배  
[大熟梨, 금귤(金橘), 감귤(甘橘), 청귤(靑橘), 유감(柚柑), 감자(柑子),  
유자(柚子), 감류(甘榴), 조홍시(早紅柿), 각시(角柿), 오시(烏柿: 먹  
감), 밤(栗), 죽실(竹實), 대추(大棗), 앵두(櫻桃), 살구(唐杏), 자두(紫桃),  
황도(黃桃), 녹이(綠李: 오얏), 반도(盤桃), 승도(僧桃), 포도(蒲桃), 수  
박(西瓜), 참외(話瓜), 모과(木瓜]

새와 짐승의 고기류(飛走之類): 총 8종(동물 8종)

곰(熊), 표범(豹), 사슴(鹿), 꿩(雉), 거위(鵝), 돼지(豕), 노루(驢), 닭(鷄)

수산물류(海水族之類): 총 49종(동물 49종)

숭어(水魚), 붕어(鯽魚), 웅어(葦魚), 백어(白魚), 노란조기(黃石魚), 오  
징어(烏賊魚), 해양(海臙), 죽합(竹蛤), 소라(小螺), 청어(靑魚), 큰전  
복(大鰻魚), 꽃전복(花鰻), 홍합(紅蛤), 해삼(海蔘), 은어(銀口魚), 여항  
어(餘項魚), 금린어(錦鱗魚), 누치[訥魚, 킨어(鰪魚), 복어(河豚), 방어  
(魴魚), 연어(鱒魚), 송어(松魚), 황어(黃魚), 가자미[鰈魚, 광어(廣魚),  
대구(大口魚), 문어(八帶魚), 정어(丁魚), 은어(銀魚), 고등어[古刀魚,  
미어(微魚), 제곡(齊穀), 살조개[江瑤柱, 자합(紫蛤), 게(蟹), 동해(凍  
蟹), 석화(石花: 굴), 운화(輪花), 왕새우[大蝦, 곤쟁이새우[紫蝦, 도  
하(桃蝦), 민어(民魚), 조기[石首魚, 밴댕이[蘇魚, 낙지(絡繹), 준치(眞  
魚), 병어(瓶魚), 변종(變宗)

채소류(蔬菜之類): 총 42종(식물 39종, 균류 3종)

죽순(竹筍), 황화채(黃花菜), 순채(蓴), 석전(石蓴), 무(蘿蔔), 거요목  
[苜蓿, 고사리(蕨), 아욱·콩잎(葵藿), 부추·미나리(薤芹), 배추

[菘菹, 홍채(紅菜), 황각(黃角), 청각(靑角), 참가사리(細毛), 우무(牛毛), 초시(椒豉), 삼(蔘), 여뀌[蓼], 동과(冬瓜: 동아), 가지·외(茄瓜), 호박·무(匏蘆), 산개재(山芥菹), 다시마(昆布), 미역[藷], 올미역[早藷], 감태[甘苔], 해의(海衣), 토란(芋), 생강(薑), 겨자(芥), 파(蔥), 부추(韭), 작은마늘[小蒜], 고수(葱), 마늘[蒜]

송이[松茸], 참버섯[眞菌, 표고(蓴古)의 균류 3종

기타(其他): 총 14종(식물 12종, 동물 2종)

차(茶), 작설(雀舌), 까마귀(烏), 쑥[艾], 소나무(松), 괴엽[槐葉], 두견화(杜鵑花), 이화(梨花), 장미(薔薇), 쌍화(雙花), 국화(菊花), 감(柑), 밤[栗], 찰벼[糯]

명칭 표기 명칭 표기는 음차 표기, 훈차 표기, 해당 한자의 표기로 나뉜다.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차	훈차	해당 한자 표기
동과(冬瓜: 동아)	우무(牛毛)	곰(熊), 표범(豹), 사슴(鹿), 꿩(雉), 거위(鵝), 돼지(豕)

### 내용 기술

항목	해당 생물	내용
① 품질 좋은 생산지역	감류(甘榴)	영암(靈巖)과 함평(咸平)에서 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밖에는 그만 못하다.
	대추(大棗)	보은(報恩)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크고 씨가 적다. 붉고 물기가 많아 달다. 그 밖에는 모두 이만 못하다.
	뱅어(白魚)	얼음이 언 때 한강에서 잡은 것이 가장 좋다. 임한(林韓)·임피(臨陂) 지방에서는 1~2월에 잡는데 국수처럼 희고 가늘어 맛이 매우 좋다.

항목	해당 생물	내용
	해의(海衣)	남해에서 나는데, 동해 사람들이 주먹으로 찢아서 말린 것이 가장 좋다.
② 특징	오시(烏柿  먹감)	검푸른 색에 둥글고 끝이 뾰족하다. 맛은 그런 대로 좋으나 물기가 적다. 꼬챙이에 꿰어 말려 곶감으로 만들어 먹으면 더욱 좋다.
	복어(河豚)	한강에서 나는 것이 맛이 좋은데 독이 있어 사람이 많이 죽는다. 영동(嶺東) 지방에서 나는 것은 맛이 조금 떨어지지만 독은 없다.
	방어(魴魚)	독이 있어 입금께는 올리지 않는다.
	연어(鱣魚)	동해에서 나는데 알것이 좋다.
	송어(松魚)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데 바다에서 잡은 것은 좋지 않다. 알은 연어만 못하다.
	살조개(江瑤柱)	북청(北靑)과 홍원(洪原)에서 많이 난다. 크고 살이 연하여 맛이 좋다. 고려 때에는 원(元) 나라의 요구에 따라 모두 바쳐서 국내에서는 먹을 수 없었다.
	왕새우(大蝦)	평안도에서 나는 새우알로 것을 담그면 매우 좋다.
	우무(牛毛)	열을 가하면 녹는다.
③ 맛	붕어(鯽魚)	어느 곳에나 있지만 강릉의 경포(鏡浦)가 바닷물과 통하기 때문에 흙냄새가 안 나고 가장 맛있다.
	미어(微魚)	가늘고 짧지만 기름져서 먹을 만하다.
	무(蘿蔔)	맛이 배와 같고 물기가 많다.
	감(甘藷)	호남에서 나는데 함평·무안·나주에서 나는 것이 썩 맛이 좋아 옛처럼 달다.
④ 종류	청어(靑魚)	네 종류가 있다. 북도에서 나는 것은 크고 배가 희고, 경상도에서 잡히는 것은 등이 검고 배가

항목	해당 생물	내용
		북다. 호남에서 잡히는 것은 조금 작고 해주(海州)에서는 2월에 잡히는데 매우 맛이 좋다.
	대구(大口魚)	동·남·서해에서 모두 나는데 북쪽에서 나는 것이 가장 크고 누른색이며 두껍다. 동해에서 나는 것은 붉고 작은데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 서해에서 나는 것은 더욱 작다.
	곤쟁이새우 [紫蝦]	옹강(瓮康)의 것은 짜고, 통인(通仁)의 것은 달고, 호서(湖西)의 것은 매우면서 크다. 의주(義州)에서 나는 것은 가늘고 달다.
⑤ 색	제곡(齊穀)	작은 조개로 껍질이 자색(紫色)이다.
	도하(桃蝦)	색이 복숭아꽃 같은데 맛이 매우 좋다.
⑥ 이칭	대숙배(大熟梨)	속칭 부리(腐梨)라고 한다.
	홍합(紅蛤)	중국인들은 ‘동해부인(東海夫人)’이라 한다.
	해삼(海蔘)	이는 옛날에 이(泥)라고 하던 것이다.
	꺄어(鰈魚)	속칭 염만어(廉鰻魚)라고 한다.
	가자미(鰈魚)	옛날 ‘비목(比目)’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정어(丁魚)	곧 소수어(小水魚)이다.
	황화채(黃花菜)	원추리[萱草]이다
⑦ 유래	수박(西瓜)	고려 때 홍다구(洪茶丘)가 처음 개성(開城)에 다 심었다. 연대를 따져보면 아마 홍호(洪皓)가 강남(江南)에서 들여온 것보다 먼저일 것이다.
	금린어(錦鱗魚)	처음 이름은 천자어(天子魚)였는데 동규봉(董圭峯)이 먹고는 맛이 좋아 이름을 물으니 통역관이 얼떨결에 금린어라고 하였는데 모두 좋다고 하여 금린어가 되었다.
	은어(銀魚)	처음 이름은 목어(木魚)였는데 고려 때 좋아하는 임금에 있어 은어라고 고쳤다가 많이 먹어 싫증이 나자 다시 목어라고 고쳤다가 하여 환목

항목	해당 생물	내용
		어(還木魚 도로목)라 한다.
	제곡(齊穀)	작은 조개로 껍질이 자색(紫色)이다. 경포(鏡浦)에 있는데 흉년에는 이것을 먹으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곡식과 같다는 뜻에서 제곡이라 한 것이다.

생물의 생산지역, 특징과 맛, 종류 및 색, 이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일례로 생물별 기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서애집(西厓集)〉 해제

■ 원전 출처 성균관대학교도서관 소장본 (D03B-0489) ‘서애선생문집 (西厓先生文集)’

### ■ 성격

총 27권인데 문집 권 1~20까지, 별집이 권 21~24까지, 연보가 권 25~27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 동안 외교, 비상 행정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순수한 시문 위주의 문집보다 외교적 작품, 군사 업무 관련 기록,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 각종 제도 등에 관한 글의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이다. 물론 전쟁 기간에 시문이 많이 분실되었고 하니 그러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명학에 관한 글이 보이는데 양명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 저자

유성룡(柳成龍)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 시호는 문충(文忠)으로 의성 출생이다. 대사헌, 병조판서, 이조판서, 좌의정, 영의정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이황의 문인으로 김성일과 친분이 있었다. 왜란에 대비해서 권율과 이순신을 천거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자를 정하는 문제로 정철이 처벌 받게 되자 온건한 태도를 취하여 강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인 강경파 이산해와 대립하였다. 학문, 인품, 글씨로 유명했다. 저서로 『서애집』, 『징비록(懲毖錄)』 등을 남겼다.

■ 제작 시기 1633년

■ 권수 책수 27권 14책

■ **판본** 1633년 초간본이 간행되었고, 1894년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초간본과 중간본의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20권 10책 본이 소장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27권 14책 본이 소장되어 있다. 1958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초간본을 영인하였고, 1991년 서애선생기념사업회에서 중간본, 초고본 등을 모아 『서애전서(西厓全書)』를 간행했다. 1977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체를 다 진행한 것은 아니고 일부 제외하였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특별히 조사한 지역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방법 기존 문헌을 참고하고 일부 경험을 추가하였다.

■ **목차**

- 서애선생문집권지일(西厓先生文集卷之一) 시(詩)
- 서애선생문집권지이(西厓先生文集卷之二) 시(詩)
- 서애선생문집권지삼(西厓先生文集卷之三) 주문(奏文)  
소(疏)
- 서애선생문집권지사(西厓先生文集卷之四) 소(疏)
- 서애선생문집권지오(西厓先生文集卷之五) 차(筴)
- 서애선생문집권지육(西厓先生文集卷之六) 서장(書狀)
- 서애선생문집권지칠(西厓先生文集卷之七) 계사(啓辭)
- 서애선생문집권지팔(西厓先生文集卷之八) 계사(啓辭)
- 서애선생문집권지구(西厓先生文集卷之九) 정문(呈文)  
서(書)

서애선생문집권지십(西厓先生文集卷之十) 서(書)  
 서애선생문집권지십일(西厓先生文集卷之十一) 서(書)  
 서애선생문집권지십이(西厓先生文集卷之十二) 서(書)  
 서애선생문집권지십삼(西厓先生文集卷之十三) 잡저(雜著○독사려  
 측(讀史蠡測))  
 잡저(雜著○상장질의(喪葬質疑))  
 서애선생문집권지십사(西厓先生文集卷之十四) 잡저(雜著)  
 서애선생문집권지십오(西厓先生文集卷之十五) 잡저(雜著)  
 서애선생문집권지십육(西厓先生文集卷之十六) 잡저(雜著)  
 서애선생문집권지십칠(西厓先生文集卷之十七) 서(序)  
 기(記)  
 론(論)  
 발(跋)  
 서애선생문집권지십팔(西厓先生文集卷之十八) 발(跋)  
 전(箋)  
 명(銘)  
 서애선생문집권지십구(西厓先生文集卷之十九) 제문(祭文)  
 비갈(碑碣)  
 서애선생문집권지이십(西厓先生文集卷之二十) 묘지(墓誌)  
 행장(行狀)  
 서애집발(西厓集跋) 발(跋)  
 서애선생별집권지일(西厓先生別集卷之一) 시(詩)  
 서애선생별집권지이(西厓先生別集卷之二) 소(疏)  
 차(筭)  
 계사(啓辭)

자문(咨文)

정문(正文)

서애선생별집권지삼(西厓先生別集卷之三) 서(書)

서애선생별집권지사(西厓先生別集卷之四) 잡저(雜著)

발(跋)

명(銘)

제문(祭文)

세계도(世系圖)

서애선생연보권지일(西厓先生年譜卷之一)

서애선생연보권지이(西厓先生年譜卷之二)

서애선생연보권지삼(西厓先生年譜卷之三)

부록(附錄○행장(行狀))

부록(附錄○교서(敎書))

부록(附錄○사제문(賜祭文))

부록(附錄○제문(祭文))

부록(附錄○봉안문(奉安文))

부록(附錄○만사(挽詞))

■내용 분류 글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어서 특별히 생물 종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특별히 생물 종을 주된 대상으로 한 글도 없다.

수록 종수 총 80종(균류 1종, 식물 42종, 동물 37종)

균(菌)의 균류 1종

국화(菊花), 만초(蔓草), 보리(맥, 麥), 상(橡), 관(菅), 계(蒯), 차(茶), 왕손초(王孫草), 태(苔), 조(속, 粟), 콩(두, 豆), 목면(木棉), 계요등(갈, 葛), 거(藁), 형극(荊棘), 송(松), 계(桂), 풍(楓), 임(荏), 매(梅), 복

송아나무(도, 桃), 뽕나무(상, 桑), 료(蓼), 아(莪), 모(茅), 산다(山茶), 해당(海棠), 작약(炸藥), 규(葵), 장미(薔薇), 황화(黃花), 백(栢), 과(瓜), 지(芝), 대나무(죽, 竹), 흰(萱), 해(薤), 유(莠), 수유(萊菔), 러(藜), 산국(山菊), 행화(杏花), 과(苳)의 식물 42종

한아(寒鴉), 우(牛), 마(馬), 호(狐), 리(狸), 란(鸞), 학(鶴), 양(羊), 경예(鯨鯢), 봉(蜂), 채(蠶), 누의(螻蟻), 헤계(醢鷄), 구(鷗), 안(鴈), 홍(鴻), 연(燕), 접(鰈), 연(鳶), 역(蝥), 계(鷄), 윈(鸚), 교리(蛟螭), 작(雀), 견(犬), 봉(鳳), 문승(蚊蠅), 두우(杜宇, 두견(杜鵑), 제결(鷓鴣)), 민(鼈), 려(蠶), 와(蝸), 치(鴟), 효(鴞), 효(梟), 선(蟬), 실술(蟋蟀), 윈(猿)의 동물 37종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생물 명칭의 속명 표기는 없고 기타 일부 속명 표기가 있다.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俗號’, ‘名’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화석정	백중
花石亭: 栗谷亭名	七月十五日: 俗號百種

내용 기술 생물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룬 경우는 없다. 다만 비유적 표현, 생물 제재의 한시, 일부 생태 관찰, 계절 감각, 풍경, 생물을 통한 성선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내용
① 비유	(매미) 사람이 물 위에서 그 옷과 신발을 보면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과 같다. / 人見其衣履於水上。若蟬蛻然。
② 한시1	(허난설현 시1) 비단띠 비단 옷에 눈물 자국뿐이니 / 錦帶羅衣積淚痕

항목	내용
	한해살이 꽃다운 풀 왕손을 원망함이어 / 一年芳草怨王孫 요금으로 강남곡을 다 타니 / 瑤琴彈罷江南曲 배꽃을 적시는 비 낮에 문을 걸었노라 / 雨打梨花晝掩門
③ 한시2	(허난설헌 시2) 달 비친 누에 가을 깊고 옥병은 비었는데 / 月樓秋盡玉屏空 서리친 갈대 물가에 저문 기러기 내리다 / 霜打蘆洲下暮鴻 비파 한 곡 다 타도록 사람 구경 못하는데 / 瑤瑟一彈人不見 연꽃은 들 연당 위에 시나브로 지누나 / 藕花零落野塘中
④ 생태	(관동 지방) 그 땅에는 해당화가 많은데 여름을 지나도 시들지 않는다. / 其地多海棠花。經夏不凋
⑤ 계절 감각	(버드나무, 매화) 봄이 왔는데 연이어 눈비 오고 / 春來連雨雪。 한기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네 / 寒氣未全衰。 버들색을 맞이하기 때가 급한데 / 柳色迎時急。 매화를 보니 일이 늦어짐을 알겠네 / 梅花見事遲。(이때는 매화는 아직 피지 않았고 버들은 이미 누랬다. 時梅未發而柳已黃)
⑥ 귀뚜라미 울음소리	(음실술(吟蟋蟀)) 귀뚜라미 울음소리 하도 급해서 / 蟋蟀鳴何急。 소리소리 정이 있는 듯하네. / 聲聲如有情。 사람은 저녁에 일어났고 / 幽人半夜起。 밝은 달은 서쪽 뜰에 있네 / 明月在西庭。
⑦ 성선설	(고분(荏分)) 나무에 연리가 있고 보리에 양 갈래가 있는데 다기가 화하여 느끼는 바가 있으니 이만 어찌 유독 그러한가. 이것은 줄의 성품이 선한 때문이니, 고로 옛 사람이 이를 일러 고분이라고 한다. 두 줄에 같은 꼭지가 있으니 그 나뉘는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인용문헌 詩經, 論語, 資治通鑑綱目, 紀效新書, 周禮, 唐書, 史記 등

## 〈용재총화(慵齋叢話)〉 해제

■ **원전 출처**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도서관에 분산 보관된 목판본과 국립도서관과 규장각에 전하는 필사본을 대조해 오탈자와 기사의 중복 등을 바로잡아 참고함.

■ **성격**

고려에서 조선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형성, 변화된 민간 풍속이나 왕가(王家)·사대부·문인·문물·제도·문화·역사·지리·학문·종교·문학·음악·소화(笑話)등 사회, 문화 전반의 내용이 잡다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대동야승》에 수록되어 있다.

■ **편저자**

성현(成僔) 성현(1439~1504)은 예문관, 성균관의 최고 관직을 역임한 학자이자 관료로서 폭넓은 학식과 관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저술할 수 있었다. 또한 당대 관료층 문인들의 잡기류에 대한 큰 관심은 그가 이 책을 저술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서거정과 강희맹 등도 필기잡록류를 저술했으며, 성임(成任), 성간(成侃)의 두 형도 잡록에 관심이 컸다. 특히 성임은 《태평광기상절(太平廣記詳節)》, 《태평통재(太平通載)》를 엮기도 하였다. 성현은 경전(經典)만 추종하는 도학자(道學者)와는 다른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 환경과 여건 또한 필기잡록류 저술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 **제작 시기** 1525년(중종 20년)(간행), 1909년(간행): 1525년 경주에서 간행되어 3권 3책의 필사본으로 전해 오던 것이, 1909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간행한 《대동야승 大東野乘》에 채

록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권수 책수 10권

■ 판본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3권 3책의 필사본과 석판본 두 종류, 《대동야승(大東野乘)》 소재본, 연세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5권 5책의 목판본, 고려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낙질본 등이 있다. 연세대 소장본은 낙질로 권1~5까지만 전한다. 이 부분까지는 대동야승 본과 일치한다. 규장각 본과 대동야승 본을 대조해 본 결과 자료의 편수와 내용은 같으나 수록 체재에 차이가 있다. 이 두 판본 모두 서문이 없이 발문만 붙어 있다. 규장각 본은 권2 끝 부분에 황필의 발문이 붙어 있는 등 체재상의 문제가 있는 반면, 대동야승 본의 결자 부분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들

방법 고려에서 조선 성종대까지의 다양한 일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물 등장

■ 목차 제1권~제 10권

■ 내용

분류 각 권은 편차(編差) 없이 서술되어 있으며, 권별의 구분도 내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생물에 대해 따로 분류한 바는 없으며, 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생물이 등장함.

수록 종수

1권: 총 3종(식물 2종, 동물 1종)

소나무[松], 두견[杜鵑], 복숭아나무[桃]

2권: 총 14종(식물 10종, 동물 4종)

까마귀[烏], 밤[栗], 대추[棗], 고사리[蕨], 잣[點松子], 호두[胡桃], 익모초[益母草], 닭[雞], 호랑이[虎], 다복쑥[蒿], 빈대[蟲], 창포[菖蒲], 쑥[艾], 회화나무[槐]

3권: 총 13종(식물 2종, 동물 11종)

동과(冬瓜), 구더기[蟲蛆], 복숭아[桃], 매[鷹], 개[犬], 사냥개[獵狗], 소[牛], 꿩[雉], 사슴[鹿], 멧돼지[豕], 말[馬], 새[鳥], 피꼬리[黃鳥]

4권: 총 10종(식물 2종, 동물 8종)

새[鳥], 매[鷹], 토끼[兔], 지렁이[蚯蚓], 참새[雀], 비둘기[鴿], 싸리나무[柎], 회나무[槐], 말[馬], 호랑이[虎]

5권: 총 28종(식물 11종, 동물 17종)

말[馬], 비둘기[鳩], 참새[雀], 동과(冬瓜), 칩[葛], 까마귀[烏], 피꼬리[黃鳥], 가시나무[刺楡], 까치[鵲], 감[楸], 가을보리꽃[秋麥花], 뱀[蛇], 닭[雞], 명아[藜], 거위[鵝], 오리[鴨], 닭[雞], 꿩[雉], 개[狗], 사슴[鹿], 노루[獐], 곰[熊], 호랑이[虎], 도토리[橡], 가재[小蟹], 소나무[松], 개[種荏子], 면화[棉花]

6권: 총 9종(식물 2종, 동물 7종)

맹호(猛虎), 백마(白馬), 사슴[鹿], 닭[雞], 매[鷹], 꿩[雉], 오미자(五味子), 개암[松榛子], 뱀[蛇]

7권: 총 94종(식물 52종, 동물 42종)

검정콩[黑豆], 쓴 나물[苦菜], 솔싹[松芽], 말[馬], 꿩[雉], 닭[鷄], 오리  
 [鴨], 기러기[雁], 거위[鵝], 따오기[鵪鶉], 나귀[驢], 개[犬], 이리[狼], 양[羊],  
 양양[羚羊], 멧돼지[猪], 돼지[豕], 쥐[鼠], 죽서[竹鼠], 고양이[猫], 살쥔  
 이[狸], 할미새[鴿], 호랑이[虎], 표범[豹], 노루[獐], 사슴[鹿], 매[鷹], 솔  
 개[鶻], 붕어[鰱], 잉어[鯉], 큰 미꾸라지[鮠], 뱀장어[鰻鱺], 게[蟹], 거  
 미[蛛], 파리[蠅], 등에[龜], 도롱뇽[蝮], 해계[醢鷄], 개구리[蛙], 두꺼비  
 [蟾], 파[蔥], 마늘[蒜], 생강[薑], 심황[鬱金], 앵무새[鸞], 딱따구리[啄木],  
 노야기[香薷], 갯荊芥, 모란[牡丹], 작약[芍藥], 배[梨], 돌배[林檎], 개  
 암[榛], 밤[栗], 오얏[李], 사과[奈], 가지[茄], 오이[菘], 감[柑], 귤[橘],  
 복숭아[桃], 살구[杏], 소나무[松], 잣나무[柏], 전나무[檜], 해당화[海棠  
 花], 모과꽃[木瓜花], 금전화[金錢花], 꿩랭이꽃[石竹相], 고비[薇], 고  
 사리[蕨], 도라지[桔梗], 인삼[人蔘], 부들[蒲], 창포[菖蒲], 도마뱀[蜥蜴],  
 버들[楊], 무[蕪菁], 순무[蘿蔔], 배추[白菜], 토란[蹲鴟], 다료[茶蓼], 홍  
 아[紅芽], 파[蔥菜], 마늘[蒜], 생강[薑], 대추[棗], 밤[栗], 잣[海松子], 감  
 [楸], 파리[蠅], 조[粟], 아욱[葵]

8권: 총 8종(식물 5종, 동물 3종)

배[梨], 대두[大豆], 소두[小豆], 석균[石菌], 한새[鸕鳥], 피꼬리[黃鳥],  
 각조[噓鳥], 소나무[松]

9권: 총 1종(식물 1종)

소나무[松]

10권: 22종(식물 10종, 동물 12종)

쪽[藍], 연[蓮], 누에[蠶], 뽕나무[桑柘], 밤나무[栗木], 참새[雀], 꿩[雉],

순무[蘿蔔], 말[馬], 멧돼지[豕], 갈대[葦蘆], 구맥[瞿麥], 칩[葛], 고사리[蕨], 개[狗], 밤[栗], 노루[獐], 사슴[鹿], 소[牛], 돼지[豕], 잉어[鯉魚], 호랑이[虎]

명칭 표기 동일 생물에 대한 이칭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작	개	비둘기	멧돼지
點松子, 海松子	犬, 狗	鶉, 鳩	猪, 豕

### 내용 기술

항목	내용
① 일화 소개 내 의 생물 기술	상좌(上座)가 사승(師僧)을 속이는 것은 옛날부터 흔히 있는 일이었다. 옛날에 어떤 상좌가 있었는데 그의 사승에게 말하기를, “까치가 은수저를 입에 물고 문 앞에 있는 가시나무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하니, 중이 이를 믿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니 상좌가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 스승이 까치새끼를 잡아 구워 먹으려 한다.” 하였다(5권).
	대모지(大毛知)란 사람은 거위·오리·닭·꿩 등의 소리를 흉내내어, 소리를 내기만 하면 이웃 닭들이 날개를 치며 몰려들어 왔다(5권).
	김숙시(金束時)는 여진(女眞) 사람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 그의 아버지를 따라왔었는데, 무예(武藝)가 뛰어나고 자못 경사(經史)에 밝았다. 집이 조종현(朝宗縣 경기도 가평(加平)) 산골에 있어서 날마다 사냥을 일삼았다. 일찍이 그는 나에게 사슴을 잡는 요령을 얘기하기를, “여름이 되어 풀이 우거질 때에는 노루와 사슴이 새벽에 나와서 풀을 먹고 배가 부르면 숲속에 들어가 누워 있소. 내가 사냥꾼 몇 명을 데리고 짐승의 자취를 찾아내어 사방에 그물을 치고, 또 한두 사람을 산 위에 올려 보내어 혹은 노래하고, 혹은 소리를 질러 발갈고 소모는 시늉을 하게 한다오. (중략) 또 곰을 잡는 요령을 얘기하기를, “대개 곰은 용감하고 힘이 세어 호랑이를 만나면 한 쪽 앞발로 큰 돌을 들

항목	내용
	<p>고, 한 쪽 앞발로는 호랑이의 목줄기를 움켜쥐고 치며, 또 나뭇가지를 꺾어 때린 뒤에는 다시 다른 나무를 꺾어서 친다오. (중략) 그는 또 호랑이를 잡는 요령을 얘기하기를, “평생에 호랑이를 쏜 일은 그 수효를 셀 수 없다. 옛날에 세조(世祖)께서 온양(溫陽)에 머무르셨는데, 한 선비가 와서 아뢰기를, ‘열여섯 살쯤 된 여자가 어젯밤에 안방에 있다가 마침 창문이 열려서 호랑이가 물어갔사오니, 성덕(聖德)은 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여 세조께서 장수들에게 명하시어 잡으라 하셨는데, 역시 나를 따라가게 하셨다네. (하략)</p>
<p>② 생물에 대한 의견 피력</p>	<p>물건에는 서로 비슷한 것이 아주 많다. 닭과 꿩이 서로 비슷하고, 오리와 기러기가 비슷하고, 거위와 따오기(鵝)가 비슷하고, 말과 나귀가 비슷하고, 개와 이리가 비슷하고, 양과 양양(羚羊)이 비슷하고, 멧돼지와 돼지가 비슷하고, 쥐와 죽서(竹鼠)가 비슷하고, 고양이와 살쥬이가 비슷하고, 할미새와 따오기가 비슷하고, 호랑이와 표범이 비슷하고, 노루와 사슴이 비슷하고, 매와 솔개가 비슷하고, 봉어와 잉어가 비슷하고, 큰미꾸라지(鱒)와 뱀장어가 비슷하고, 게(蟹)와 거미가 비슷하고, 파리와 등에(蠃)가 비슷하고, 도롱뇽(蛟)과 해계(醜鷄)가 비슷하고, 개구리와 두꺼비가 비슷하고, 파와 마늘이 비슷하고, 생강과 심황이 비슷하고, 앵무새와 딱따구리가 비슷하고, 노아기(香薷)와 갯(荊芥)이 비슷하고, 모란과 작약이 비슷하고, 배와 돌배가 비슷하고, 개암과 밤이 비슷하고, 오얏과 사과가 비슷하고, 가지와 오이가 비슷하고, 감과 꿀이 비슷하고, 복숭아와 살구가 비슷하고, 소나무와 잣나무 진나무가 비슷하고, 예지(荔支)와 용안육(龍眼肉)이 비슷하고, 해당화와 모과꽃이 비슷하고, 불구슬(玫瑰)과 사계(四季)가 비슷하고, 금전화(金錢花)와 패랭이꽃이 비슷하고, 고비와 고사리가 비슷하고, 도라지와 인삼이 비슷하고, 부들과 창포가 비슷하고, 주사(朱砂)와 옹황(雄黃)이 비슷하고, 소뇌(消腦)와 용뇌(龍腦)가 비슷하니,</p>

항목	내용
	<p>그밖의 물건으로 대소와 장단이 비록 다르나 형체가 서로 비슷한 것은 한이 없다.</p> <p>무릇 채소와 과실은 알맞은 흙에 따라서 모두 심어야 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동대문 밖 왕십리는 무, 순무, 배추 따위를 심고 있으며, 청과(靑坡)·노원(蘆原) 두역(驛)은 토란이 잘 되고, 남산의 남쪽 이태원(李泰院) 사람들은 다료(茶蓼)를 잘 심어 홍아(紅芽)를 만들고, 경기 삭령(朔寧) 사람들은 파를 잘 심고, 충청도 사람은 마늘을 잘 심으며, 전라도 사람들은 생강을 잘 심는다. 정선(旌善)의 배와 영춘(永春)의 대추와 밀양의 밤과 순흥(順興)의 잣과 함양(咸陽), 진양(晉陽)의 감은 다른 곳에도 이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고을 것처럼 많은 맛도 좋지 못하다.</p>

인용문헌 《논어(論語)》, 《법화경(法華經)》 등

##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본 (奎7320)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 ■ 성격

제주 지역의 지리 등 전반을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문명적인 관점에서서는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아직 낮은 수준이라 무속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지에 비해서 이곳에만 있거나, 또는 이곳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식물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술하고 있다. 머문 기간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정도 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 ■ 편저자

김정(金淨) 김정(金淨, 1486~1521)은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충(元冲), 호 충암(冲庵), 고봉(孤峯)이며, 시호는 처음에는 문정(文貞), 나중에 문간(文簡)이다. 당시 사림의 대표적 인물로 사림의 성장에 따라 순창군수, 대사헌, 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조광조를 도와 현량과(賢良科) 실시를 주장하였다. 정국공신(靖國功臣)에 과도하게 많은 사람이 실제 공과 상관없이 이름을 올렸다고 삭제를 주장하였다. 결국 훈구파의 반격으로 기묘사화가 일어나 금산에 유배되었다가 결국 제주로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1545년 복관되었고 1624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금산, 청주, 제주 등 서원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충암집(冲庵集)』이 있다.

■ 제작 시기 1636년

■ 권수 책수 5권 5책

■ **판본** 1552년 초간본이 간행되었으며 1600년 없어진 부분을 보충하였다. 본집(本集) 4권 3책, 외집(外集) 2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 일부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존경각문고(尊經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의 영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古3648-10-576). 1636년 잘못 수록된 작품을 삭제하고 외집의 편차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을 수정하여 본집에 창작 시기에 따라 통합하는 방식으로 중간본을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세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47년 연보(年譜) 2권을 추가하여 삼간하였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72년 조선왕조실록의 기술을 연보에 추가하여 사간하였다.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김정은 1520년 8월 21일에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1521년 10월 30일 사사될 때까지 1년 정도 머물렀다. 제주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관찰 및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제주 전역을 조사 지역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주를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마다 각각 다른 측면까지 접근하지는 않고 있다.

**방법** 누이의 아들로부터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써 보냈다고 한다. 이전에 제주에 대한 변변한 연구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특별히 여러 문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육지의 일부 지역과 비교하는 기술이 보인다.

## ■ 목차

특별한 목차 없이 구성되어 있다. 문단을 바꿔서 항목별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문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다.

총설/집/종교/뱀의 관념/목소리/짐 지는 방법/학식/지형/물/토산물/곡물 등/표고/말응(末應)/주 산물/굴과 유자/나무/자신의 생활/거주지 주변/닭시/외로움/처량함

## ■ 내용

분류 처음부터 어떤 체계를 고려해서 서적을 집필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명한 분류 기준이 보이지는 않는다. 대체로 앞부분에서 제주도만의 특색으로 독특하게 보이거나 괴이하게 보이는 것이 배치되고 산물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배치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회가 기록되어 있다. 민물고기와 바다고기, 산나물과 토산물을 구분하고 있다. 굴, 유자를 묶어 2차 분류하고 있다.

수록 종수 제주에 있다고 기술한 생물 중 향심(香葷, 표고)의 균류 1종, 오미자(五味子), 말응(末應, 명), 굴(橋), 유(柚), 치자(梔子), 비자(榘子), 무환자(無患子), 산유자(山柚子), 이년목(二年木), 무회목(無灰木), 즈(藪, 멸), 켈(蕨), 괄(藿), 우모(牛毛), 청각(靑角), 야자(椰子), 핵(杏核), 가시울(加時栗), 적울(赤栗), 금굴(金橋), 유감(乳柑), 동정굴(洞庭橋), 청굴(靑橋), 산굴(山橋), 감자(柑子), 당유자(唐柚子), 왜굴(倭橋), 녹각목(鹿角木), 고죽(苦竹), 노위(蘆葦), 모(茅)의 식물 30종, 의승(蠅), 문(蚊), 오공(蜈蚣), 의(蟻), 인(蚓), 사(蛇), 장(獐), 록(鹿), 저(猪), 단(獐, 오아리(吾兒里)), 치(雉), 오(烏), 치(鷓), 작(雀), 은구(銀口), 생복(生腹), 오적(烏賊), 옥두(玉頭), 도어(刀魚), 고도어(古刀魚), 우(牛), 앵무(鸚鵡), 라(螺), 양마(良馬)의 동물 24종

제주도에 없거나 또는 매우 드물다고 기술한 생물 중 향소(香蔬, 취), 삼주(출, 朮), 인삼(人蔘), 당귀(當歸), 도라지(길경, 桔梗), 해의(海衣), 감태(甘苔), 황각(黃角), 리(梨), 조(棗), 시(柿), 밤나무(울, 栗), 해송자(海松子), 송목(松木)의 식물 14종, 호(狐), 토(兔), 호(虎), 관(鶴), 작(鵲), 낙제(絡蹄), 모려(牡蠣), 합(蛤), 해(蟹), 하(蝦), 청어(靑魚), 은어(銀魚), 석수어(石首魚)의 동물 13종

단순히 언급된 생물(본문에서 유무를 밝히지 않은 명칭)로 산도포(山葡萄), 목과(木瓜), 임하부인(林下夫人), 회로(檜老)의 식물 4종

생물 표기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 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어 외에 물고기 명칭 중 속명의 표기는 ‘一名’, ‘俗言’, ‘謂之’, ‘俗名’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별도 표현 없이 주의 형태로 속명이 바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표고	오소리	야자
香葷: 俗名薰古	獮: 吾兒里	椰子: 謂之杏核

내용 기술 생물의 최다 산출, 맛, 없는 산물, 형태와 맛, 수확시기, 등을 다루고 있다.

항목	내용
① 최다	산나물은 삼백초와 고사리가 최고로 많다.
② 맛	(소) 맛은 육지의 것만 못하다.
③ 없는 산물	가장 우스운 것은 땅이 큰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나 소금이 나지 않는 일이다.
④ 형태, 맛	오미자 또한 많은데, 열매가 매우 검고 커 잘 익은 산 포도와 같아 구분하기 어렵고, 맛 또한 진하고 달다.
⑤ 수확시기	(금귤(金橘)) 9월에 익으니 가장 이르다.

항목	내용
⑥ 고기잡이 방법	은구어가 나는데 혹은 그물로 혹은 낚시로 낚고 바다에는 작은 작은 물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 역시 언덕에 앉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인용문헌 本草綱目 등

## 〈패관잡기(稗官雜記)〉 해제

■ 원전 출처 규장각 소장, 『대동야승(大東野乘)』 수록본

### ■ 성격

6권. 『광사(廣史)』에 6권 완본이 들어 있고, 『대동야승(大東野乘)』에 4권까지, 『시화총림(詩話叢林)』에 시화(詩話) 부분만 발췌, 수록되었다. 『광사』의 원본이 오래 전에 일본 동경에서 소실되었으므로 『대동야승』 수록의 4권본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권두에 주원장(朱元璋)의 홍무(洪武) 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 왕조의 건국과 함께 명나라에 내왕한 사절들과 요동(遼東)·일본·대마도·유구(琉球) 등지에 관련된 유사(遺事)·풍속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당시의 사환(仕宦)·일사(逸士)·시인·묵객들의 언행과 재인·기예(技藝)·축첩(蓄妾)·동요(童謠) 등에 관한 사실들을 보고들은 그대로 기술하였다.

패관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 전기의 사실(史實)을 이해하는 데 요긴한 자료가 되고, 풍부한 설화적 소재와 간결하고도 진솔한 서술은 문학작품으로서도 평가받고 있다.

### ■ 편저자

어숙권 본관은 함중(咸從). 호는 야족당(也足堂), 예미(曳尾). 할아버지는 좌의정세겸(世謙)이며 아버지는 감찰(監察)맹렴(孟濂)이다. 평릉찰방(平陵察訪)숙정(叔貞)의 아우이다. 서얼 출신으로 중국어에 뛰어나 외교에 이바지했으며 시를 평론하는 데에 일가를 이루었다.

### ■ 제작 시기 조선 중기

■ 권수 책수 6권

■ 판본 필사본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한반도~중국 및 일본

방법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 내용

분류 별다른 분류 기준은 없다.

수록 종수 식물 4종, 동물 1종

소합유(蘇合油), 곽향(藿香), 독활(獨活), 유향(乳香), 사향(麝香)

명칭 표기 별다른 이칭은 보이지 않는다.

내용 기술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인 패관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생물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다.

약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사신이 중국에 갈 때마다 의관 2사람을 보내어 사 가지고 오게 하였는데, 거간꾼이 속하여 팔아 이익을 노리었다. 소합유(蘇合油), 곽향(藿香), 독활(獨活), 유향(乳香), 사향(麝香) 같은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이 가장 많았다.

# 가정·조리서류





가정 · 조리서류에 수록된 대표 생물자원



## 〈규곤시의방(閩壺是議方)〉 해제

■ 원전 출처 한글 필사본 〈규곤시의방(閩壺是議方)〉

■ 성격

이 책은 앞 뒤 표지 2장을 포함하여 전체가 30장으로 된 필사본인데 장씨 부인이 직접 쓴 친필본으로 알려져 있다. 표지에는 한문으로 '규곤시의방(閩壺是議方)'이라 쓰여 있고 내용 첫머리에는 한글로 '음식디미방'이라 쓰여 있다.

이 책은 집안의 딸과 며느리를 위하여 쓴 것이다. 안동장씨는 곁표지 안에 “새색시가 삼 일 만에 부엌에 내려가 손을 씻고 국을 끓이니, 아직 시어머니의 식성을 몰라서 시누이를 시켜 먼저 맛보게 하였다(三日入廚下 洗手作羹湯 未諳姑食性 先遣少婦嘗).”라는 한시가 있다. 뒤표지 안에는 “이 책을 이리 눈이 어두운데에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잘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자식들은 각각 베껴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말고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더럽히지 말라.”는 저술동기와 당부를 적고 있다.

이 책에는 국수·떡·만두·김치·찜·국·약과 등 25종류의 음식 만드는 법과 술·초 만드는 법, 고기·과일·채소·해산물 저장하는 법 등이 적혀 있다.

■ 편저자

안동 장씨 이현일(李玄逸)의 어머니이다. 안동장씨(安東張氏)는 안동 서후면 금계리에서 1598년(선조 31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참봉을 지내고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쳤던 성리학자 경당(敬堂) 장홍효(張興孝)이고 어머니는 첨지 권사온(權士溫)의 딸이다. 19세에 출

가하여 재령(載寧) 이씨인 석계(石溪) 이시명(李詩名)의 계실(繼室)이 되었다. 장씨 부인은 전설 김씨의 소생을 포함하여 칠남 삼녀를 훌륭히 양육하였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부인은 1680년(숙종 6년)에 83세를 일기로 향년을 마쳤다.

■ 제작 시기 1670년(현종 11)

■ 권수 책수 1책

■ 판본 한글 필사본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안동 장씨가 살았던 경북 안동과 영양 일대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일 것으로 생각된다.

방법 안동 장씨가 알고 있는 자기 집안의 조리 비결을 저술한 것이다.

■ 목차

면병류(麪餅類)

어육류(魚肉類)

주류(酒類) 및 초류(醋類)

■ 내용

분류 조리법에 따라 필요한 재료로써 생물을 나열할 뿐 이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수록 증수

총 103종 (식물 75종, 동물 23종, 균류 5종)

식물: 모밀[蕎麥], 녹도[菘豆, 녹두], 의이(薏苡), 개곰[榛子], 빻자(柏子, 실빻자(實柏子)), 호초(胡椒, 후추, 후초), 천초(川椒, 전초), 싱강(生薑, 싱각), 밀[小麥], 오미즈(五味子), 닛[紅花], 모시[苧], 참서[胡麻], 보리[麥], 외[瓜], 박[瓠, 박고지], 참버섯[眞菌, 眞耳], 풋[小豆], 불근 풋

[赤小豆], 밋다니밭, 오려밭[早稻], 낭경즈밭, 빅미(白米), 촉밭[糯米], 콩[太, 豆], 산삼(山蔘, 더덕), 두견화(杜鵑花), 장미화(薔薇花), 출단화(黓壇花), 꽃감, 밤[栗], 대추(大棗), 죽대남그[竹], 독엽(竹葉), 잉도(櫻桃), 마늘[蒜], 만물, 마늘, 골파[胡葱], 걸파, 파[葱], 갈[蘆], 우무, 즈소(紫蘇), 염고[薤], 석뉴(石榴), 무[蘿蔔], 무우, 춤무우, 미나리[水芹], 신무우[蔓菁], 동화(冬瓜), 이스랏남[山櫻桃], 썩[桑, 뽕나무, 뽕나무], 슬고[杏], hing화(杏花), 히인[杏仁], 복성[桃, 복성나무[桃花木, 복성나무], 가지[茄子, 가디], 년근(蓮根), 숙[艾], 순[蓴], 산갓[山茶], 땃무우[唐蓴], 도랏[桔梗], 계목[苜蓿], 나이[薺], 들흙, 고사리[蕨], 식엄초[辛甘草], 당귀(當歸), 만도라미[鷄冠花], 슈박[西瓜], 솔[松, 송화[松花], 니화[梨花], 빅곳, 싹[楮葉, 닥], 오가피(五加皮), 대추(大棗), 계피(桂皮), 싱삼[大麻], 다붓[蓬], 옷[漆], 미즈(梅子, 오미[烏梅])의 75종

동물: 싱치(生雉, 싱티), 승에어[秀魚, 슈어], 히슴(海蔘), 돛[鷄, 대합(大蛤), 모시조개, 가막조개, 싱포[生鰻, 전복(全鰻), 게[蟹], 벌[鼈, 자라], 붕어[鮪魚], 대구(大口), 올희[鴨], 소[牛, 황육(黃肉), 웅(熊), 야제[野豬, 野獺, 가데[家獺, 개[犬, 새이[蝦, 사이], 년어(鱧魚), 춤새[雀, 청어(靑魚), 망어(魴魚)의 23개 항목

균류: 누룩[麴, 누룩, 국말[麴末], 표고, 송이[松耳], 성이[石耳] 버섯[菌]의 총 5개 항목

명칭 표기 표기된 명칭과 현재 명칭이 달라진 것들이 있다.

: 동화(冬瓜), 울무(의이), 핑(싱치), 잣(빅즈)

두 가지 명칭으로 혼용된 것들이 있다.

: 녹두(녹도/녹두), 승어(승에어, 슈어), 무(무/무우)

내용 기술 조리 과정 상에 생물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단지 조리  
에 쓰이는 재료로써 언급되고 있어 여기에 다룰 만한 부분은 없다.

## 〈수운잡방(需雲雜方)〉 해제

■ 원전 출처 한문 필사본 《수운잡방(需雲雜方)》

### ■ 성격

조선 전기 당시의 식생활 및 조리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당시에 유포되고 있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의 각종 요리서에 나오는 요리법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 각종 요리서를 참고하여 저술된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각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미하고 향간에 나돌고 있는 속방(俗方)을 수록하기도 하였으며, 양반가문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착화된 조리법도 기록하고 있다. 술과 관련된 항목이 반 이상을 차지하며, 술 빚기, 김치, 장류, 식초류, 채소저장하기(藏菜), 재료의 사용에서 조리, 가공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상편(17장)은 행서로 쓰여 있으며, 하편(7장)은 초서로 작성되어 있다. 김유의 손자인 김령에 의해 뒷부분이 보완되어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편저자

김유(金綏) 김유(金綏, 1481~1552)는 조선 중기에 안동 예안의 외내 마을에서 살았다. 그가 식품 가공 및 조리 방법을 적은 이 저술은 당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식생활 형태를 확실히 알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식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 제작 시기 1540년 경

■ 권수 책수 1책

■ 판본 필사본. 김유의 셋째 아들 김부륜(金富倫, 1531~1598)의 15세 손인 김영탁(안동 광산김씨 설월당 종가)이 소장하고 있다.

## ■ 조사 지역 및 방법

지역 조선 중기 안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방법 식품 가공 및 조리 방법 기술

## ■ 목차

### 주류

상편에 41종과 하편에 18종 등 모두 59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양용주(釀容酒)가 10종, 가미주(加味酒)와 가향주(加香酒) 각각 1종이 있다. 내용을 보면 각각의 특징을 지닌 술을 만들기 위해 쌀을 이용하는 법, 누룩을 만드는 법, 술을 만드는 기간, 각 술의 특성이 각각 기술되어 있다.

### 초류

상편에 5항이 있는데 고리초, 사절초, 병정초, 창포초 등에 초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제조법이 기술되어 있다.

### 김치

상편에 14항과 하편에 3항 등 모두 17항이 있는데 사용된 채소의 종류와 양념의 종류, 그리고 물의 사용법, 발효법, 김치를 담그는 시기 등 김치를 담그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장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메주를 쓰고 장을 담그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상·하편에 모두 9가지가 설명되어 있다.

### 기타

이 외에도 국수 빼는 법, 과자를 만드는 법, 엿을 만드는 법, 음식을 저장하는 법, 다식을 만드는 법, 식혜를 만드는 법 등 다양하고도 독특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 ■ 내용

분류 이 책은 음식에 대한 내용으로, 음식에는 생물이 재료가 되므로, 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생물이 등장한다.

### 수록 종수

주류(酒類): 총 9종(식물 9종): 잣[柏子], 호두[胡桃], 상수리[榲, 복숭아[桃], 배꽃[梨花], 소나무[松], 포도[葡萄], 쑥[艾], 황국(黃菊)

비주류(非酒類): 총 52종(식물 43종, 동물 9종): 박나무[千金木], 닥나무[楮], 삼[麻], 복숭아[桃], 보리[麥], 창포(菖蒲), 순무[蔓菁], 토란[芋], 가지[茄子], 콩[大], 동아[東瓜], 오이[瓜], 오이[菹], 할미꽃[白頭翁], 산초[椒], 팽[糶], 생강(生薑), 무[眞菁], 살구꽃[杏花], 갈대[葦箔], 머위[白菜], 참외[眞瓜], 연(蓮), 천어(川魚), 배[梨], 무[蘿蔔], 파[蔥], 소[牛], 송아지[犢], 누런 소[黃牛], 누런 콩[黃豆], 검은 콩[黑豆], 더덕[山蓼], 녹두(菘豆), 마늘[蒜], 밤[栗], 계란(鷄卵), 영계[鷄兒], 천초[川椒], 후추[胡椒], 겨자[芥子], 미나리[芹], 도라지[蓴], 팥[小豆], 잣[實栢], 잣[柏子], 개암[榛], 은어(銀魚), 송어[首魚], 다시마[藷], 박초(朴草), 버드나무[柳] [상] 백미(白米), 나미(糯米), 이화(梨花), 백자(栢子), 호도(胡桃), 상실(橡實), 목단(牡丹), 장미(薔薇), 진맥(眞麥), 복숭아나무(도, 桃), 호초(蒿草), 애(艾), 삼주(백출, 白朮), 정향(丁香), 천금목(千金木), 저(楮), 마(麻), 보리(맥, 麥), 창포(菖蒲), 목통(木通), 만청(蔓菁), 향채(香菜), 백채(白菜), 토란(土卵, 우(芋)), 가지(茄子, 가(茄)), 태(太), 동과(東瓜, 冬瓜), 과(菹, 수과(水菹, 瓜), 백두옹(白頭翁), 산초(山椒), 생강(生薑, 생강(강, 薑)), 위(葦), 진청근(眞菁根, 청근(菁根)), 행화(杏花), 진과(眞瓜), 연(蓮), 감귤(柑橘), 나복(蘿蔔, 당나복(唐蘿蔔)), 총(蔥), 호초(胡椒), 황두(黃豆), 류(柳), 흑두(黑豆), 산삼(山蓼)의 42

종, [하] 백미(白米), 진자(榛子), 복숭아나무(도, 桃), 황정(黃精), 천문동(天門冬), 송(松), 삼주(백출, 白朮), 구기(枸杞), 포도(葡萄), 애(艾, 진애(眞艾)), 황국(黃菊), 나미(糯米), 오두(烏頭), 생강(生薑), 계피(桂皮), 지황(地黃), 밀(우슬, 牛膝), 죽도리풀(세신, 細辛), 야당(野棠), 녹두(菘豆), 산(蒜), 서여(薯蕷), 형개(荊芥), 호초(胡椒), 천초(川椒), 향유(香薷), 개(芥, 개자(芥子)), 가자(茄子), 수근(水芹), 길경(菩更), 충(蔥), 소두(小豆), 실백(實栢, 백자(栢子)), 호향(胡香), 보리(맥, 麥), 저(楮), 광(藿)의 36종, 총 66개 항목(중복 12개 항목 제외)

동물: [상] 압(鴨), 마(馬), 치(雉), 잠(蠶), 방(蚌), 우(牛)의 6개 항목, [하] 아(鵝), 계(鷄), 은어(銀魚), 수어(首魚), 대하(大蝦)의 5개 항목, 총 11개 항목

균류: [상] 국(麩(또는 곡, 麴), 모(毛)의 2개 항목, [하] 곡(曲, 麴)의 1개 항목, 총 3개 항목(중복 1개 항목 제외)

명칭 표기 동일 생물에 대한 다른 표기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

오이	잣	산초나무
오이[瓜], 오이[苺]	잣[實栢], 잣[柏子]	천초[川椒], 산초[椒]

### 내용 기술

항목	음식명	내용
① 주류	이화주(梨花酒)	멥쌀 1말을 여러 번 씻어 곱게 가루내어 체로 거둬 쳐서 구멍 떡을 만들어 폭 찢다. 식으면 걸걸질을 벗기고 곱게 가루내어 체로 곱게 친 누룩가루 1되 3홉과 함께 힘을 주어 고무 섞어 항아리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입구를 막고 공기가 빠지도록 구멍을 낸다. 15일이 지나면 쓰는데, 맛이 매우 달고 향기롭다. 냉수에 타서 마시기도 한다.

항목	음식명	내용
② 초류	창포초 (菖蒲醋)	창포 흰 줄기 또는 뿌리 잘게 썬 것 3되와 쌀 3되를 가루로 내어 구멍 떡을 만들고 좋은 누룩 3되와 고루 섞어 항아리 바닥에 놓아 둔다. 곰팡이가 피기를 기다려 청주나 탁주 1동이를 부어 넣었다가 이칠일(14일) 후에 쓴다.
③ 김치	늙은 오이 김치 [老瓜菹]	늙은 오이를 따서 반으로 갈라 수저로 속을 긁어내고 잘게 썰어 약간의 소금을 뿌린다. 다음날 다시 꺼내어 독안의 물기를 없애고 소금을 많이 뿌린 다음 산초와 쪼쪼이 섞어 독에 담는다. 걸물을 붓지 않아도 역시 자연히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할미꽃으로 독의 입구를 막고 돌로 무겁게 눌러 두는 것으로 1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대체로 오이김치는 박초를 엮어 독 입구를 막고 돌로 눌러 두기를 많이 한다.
④ 장	청근장 (菁根醬)	겉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무 1동이를 무르게 삶고 메주 1말을 곱게 가루내어 소금 1말과 같이 익혀 찼어서 독에 담는다. 손가락 굵기의 버드나무 가지로 독 밑바닥까지 10여 개의 구멍을 뚫고 무를 통째로 삶아 메주와 섞어 일상의 방법대로 담가 익혀 갈아서 메주를 만들어도 좋다. 반드시 월초 8일과 23일에 하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 마땅히 만평정성 수 개일에 하는 것이 좋다.

인용문헌 《거가필용(居家必用)》, 《식경(食經)》 등

■ 해제 작성 대상 문헌 개관 (가나다순) ■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1. 간이벽 온방	16세기	의서	동물 6종, 식물 30종의 명칭 수록.	생물의 직접적인 약용, 세시풍속으로 기원의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주의사항의 설명도 없음.
2. 간이집	17세기	개인 문집	식물 55종, 동물 45종	생물의 명칭과분류, 관리한 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경세 유표	19세기	실학서 (實學書)	동물 30종, 식물 52종	생물의 명칭, 지역별특산물, 습성, 세원 확보, 자원관리, 생산지역, 국내 명칭문제, 수익성 등을 다루고 있음.
4. 고금 설원	16세기	유서 (類書)	동물 48종, 식물 12종 명칭	생물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생물을 통해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5. 고려사(1권 조선전기)	15세기	역사서	동물 38종, 식물 29종	생물 정보에 관한 분류는 없으나 이름, 형태, 색 등에 관한 정보
6. 고사 신서	18세기	유서	동물 2종, 식물 22종+ 벼, 보리, 콩 등 품종 기재, 동물 1종, 식물 42종.....	생물의 명칭, 크기, 습성, 종류, 재배방법, 색깔, 주의사항, 재배지역, 약용 등뿐만 아니라 재배방법 등도 다루고 있음.
7. 고사십 이집	18세기	농서	경실제도(京室制度) 국도 한성부(國都漢城府) 토산(土產)에 동물 7종, 식물 6종, 강화유부(江華留府) 토산 동물 16종, 식물 3종 등등...	각 지역별 세밀히 나누고 각 토산품을 동식물의 이름을 나열하였음. 특별히 어떤 동식물의 생태 등 생물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는 않음.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8. 과농 소초	18세기	농서	총76종 곡식명칭이 인용, 소개되고 있다.	생물 종을 정리,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농업 자체인 만큼 생물의 분류가 1차적 기준으로 되어 있지는 않음.
9. 광재 물보	19세기	유서 (類書)	물(物)부분에서 식물과 동물의 순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식물은 초(草)산초류(山草類): 식물72종/(방초류(芳草類): 식물46종 / 습초류(濕草流): 108종 명칭이 보인다. / 취초(臭草): 식물 14종 /(독초류(毒草類): 식물 56종 / (만초류(蔓草類) 식물 107종/(수초류(水草類): 식물 35종 / 석초류(石草類): 식물 31종 명칭 / (태류(苔類) 식물 17종 (잡초류(雜草類): 식물 75종, 곡(穀), 채(菜), 목(木), 대나무(죽, 竹), 과(果)의 여섯 개 하위 항목, 동물은 린(鱗), 개(介), 금(禽), 수(獸), 충(蟲)의 다섯 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고 항목별로 많은 종류를 다루고 있음	분류, 형태, 유사종, 서식 등 생물적 지식이 기록됨.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10. 구급간 이방(1권 조선전기)	15세기	의서	동물 43종, 식물 179종의 명칭	특정 증세를 보일 때에는 어떠한 약을 먹으라고 약 이름으로 적혀 있는 방식이고, 주의사항, 처방 등이 기술됨. [명칭에 우리명, 한자명 참고기능: 천남성(天南星, 두아머주저기), 남목향(南木香), 삼주(창출, 蒼朮, 삼두), 백양(흰 양), 반하(半夏, 꼬모릅), 족도리풀(세신, 細辛, 세신).]
11. 구급이해방	16세기	의서	탕약을 조제할 때 필요한 생물기록.	처방의 약재 구성됨.
12. 규곤시 의방	17세기	조리서	식물 72종, 동물 25종	조리 과정상에 생물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단지 조리에서 쓰이는 재료로써 언급
13. 규곤요람	19세기	조리서	식물 35종, 동물 11종	조리 과정상에 생물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단지 조리에서 쓰이는 재료로써 언급.
14. 규합총서	19세기	가정지침서	총 382종(식물 256종, 동물 126종)	생물 명칭에 이명을 적어 놓음.
15. 금양잡록(1권 조선전기)	15세기	농서	식물 20종, 총며 27종의 명칭/총 53종의 식물/식물 4종)	아주 상세하지는 않지만 항목별로 일정한 내용이, 일정한 순서로 기록되도록 노력.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16. 난호어 목지	19세기	어서	총 154종의 동물 명칭	물고기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뿐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매번 해당 물고기에 대한 내용 기술 뒷부분에 '牛山雜曲'이라고 해당 물고기와 관련된 시를 지어 덧붙이고 있음.
17. 남환 박물	18세기	읍지	동물 89종, 식물 127종	제주지역, 실제 관찰을 통해 항목을 기술
18. 농사 직설(1권 조선전기)	15세기	농서	식물 29종	내용기술에 생물의 길일, 기일, 약용, 명칭, 속설, 파종 시기, 수확과 저장, 잡초 제거 등을 다루고 있음.
19. 농정서	19세기	농서	동물 65종, 식물 226종	생물의 명칭, 종류, 저장법, 맛, 김매기 방법, 수명, 주의사항, 속설, 약용 등을 다루고 있음..
20. 농정 회요	19세기	농서	동물 100종, 식물 1005종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뿐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음
21. 대동운부군 옥	16세기	백과 전서	동물 198종, 식물 230종	인물, 역사, 생물,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정보가 등장한다. 일명, 형태, 습성, 맛, 종류, 냄새, 주의사항, 유사종, 이용법 등을 다루고 있음.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22. 대동지지	19세기	지리서	한성부(漢城府)식물 5종, 동물5종, 경기도(京畿道) 수 원부(水原府), 식물2종; 광주부(廣州府) 식물6종, 동물7종; 개성부(開城府), 동물4종; 강화부(江華府) 동물 중 등 각 지역 별로 2-77종, 동물 2-30종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뿐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다.
23. 도문대작	17세기	도문대작	해수족(海水族) 46종, 무, 배추 등 채소류 33종, 기타 5종을 나열하며 류(解餌之類): 총 5종(식물 5종)/과실류(果實之類): 총 29종(식물 29종)/ 새와 짐승의 고기류(飛走之類): 총 8종(동물 8종) / 수산물류(海水族之類): 총 49종(동물 49종) / 채소류(蔬菜之類): 총 42종(식물 42종)/기타(其他): 총 14종(식물 12종, 동물 2종)	전국 8도의 다양한 별미음식을 선정하였다. 허균 자신이 직접 그곳을 찾아 음식을 맛본 것을 회상하여 기술하였다. 생물의 생산 지역, 특성과 맛, 종류 및 색, 이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기술해 놓았음.
24. 동국세시기	19세기	풍속집	식물 57종, 동물 37종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세시풍속들을 월별로 정연하게 기록
25. 동의보감	17세기	의서	식물 456종, 동물 225종,	한자어로 쓰였다. 특징이나 유사종, 분포 등의 생물적 지식에 관한 내용기술은 없고 단지 종들에 대한 약재 사용 용도만 쓰였다.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26. 동의 수세보원	19세기	의서	탕약을 조제할 때 필요한 생물기록.	문헌 안에서 이칭이나 별칭은 따로 발견되지 않음.
27. 만기 요람	19세기	재정·군정 기록서	재용편1공상(供上): 총82종(식물62종, 동물20종)/재용편1각공(各貢)선혜청57공(宣惠廳五十七貢): 총163종(식물127종, 동물36종) 재용편2적전(積田): 총15종(식물15종)/재용편3호조공물(戶曹貢物)별무1년공가(別買一年貢價): 총48종(식물43종, 동물5종)/군정편4해방(海防): 총17종(식물11종, 동물6종)	특별한 분류체계는 없다. 각 항목마다 해당 식품 및 생물을 단순 나열로 정리하였음.
28. 물명고	19세기	어휘집	우리말 명칭이 수록된 것은 1천6백여종	생물의 일부분(예: 날개, 다리) 및 특성을 표제항으로 삼은 경우도 많다. 표제어는 대부분 생물 명칭이며, 한자어 이칭 및 고유어 명칭을 부기하였다. 생물의 일부분 및 특성에 대한 어휘도 수록되어 있다.
29. 물명괄	19세기	유서	초목류 320항, 조수류 152항, 충어류 184항, 총 656항이다.	한자어를 표제어로 삼고, 한자어 이칭 및 고유어 명칭을 부기하였다. 간혹 한문으로 설명을 덧붙인 경우도 보인다.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30. 물명유해	19세기	물명서	지도부(地道部)에 해송자(海松子), 추자(人), 물(物)의 분류체계를(楸子), 등 122항, 수부(獸部)에 선마(驢馬), 과하마(果下馬) 등 29항, 금부(禽部)에 독룡(毒龍), 어응(魚鷹) 등 35항, 비충주충부(飛虫走虫部)에 표각문(豹脚蚊), 등 50항, 어부(魚部)에 축항어(縮項魚), 치어(鱸魚) 등 29항	전통적인 천(天), 지(地), 인(人), 물(物)의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세분화하였다. 표제어는 모두 한자이며, 각주를 통해 한자어 이칭과 우리말 명칭, 그리고 방언을 밝혔음.
31. 물명찬	19세기말	유서	식물 9종의 명칭, 초류(草類)식물 9종 명칭, 목류(木類)식물 8종, 화류(花類)식물 10종, 소류(蔬類)식물 12종, 채과(菜菓) 76개의 식물명칭, 목류(木類) 식물 36명, 금류(禽類) 동물 65종, 수류(獸類) 동물 22종, 혈충(趨蟲) 동물 15종, 우수(又獸) 동물 16종, 충류(蟲類)동물 69종, 어류(魚類)동물 37종, 목과(木果)식물 11종.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俗名,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생물의 명칭, 종류, 오류 시정, 잘못된 명칭, 출생 과정, 신체 특징, 특별 능력, 유사종 등을 다루고 있다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32. 물명휘	19세기	어휘집	주수(走獸) 115종, 비금(飛禽) 81종, 수어(水魚) 69종, 백충(百蟲) 80종, 초목(草木) 99종, 백곡(百穀) 24종, 백과(百果) 163종, 총631종	각 생물의 부분명칭 및 행위에 대한 표제어도 있다. 길짐승에 해당하는 주수(走獸)와 날짐승에 해당하는 비금(飛禽)을 예시로 열거함.
33. 물보	18세기	유서	초목부는 식물, 충어부는 어류, 충치부는 곤충, 조수부는 동물에 해당하며, 초목부에 494종, 충어부에 115종, 충치부에 95종, 조수부에 131종, 총 835종	주석의 내용은 한자어 이칭 및 한글명칭이다. 주석의 내용은 한자어 이칭 및 한글명칭이다. 대부분의 항목에 한글명칭이 부기되어 있다.
34. 박물신서	19세기	유서	목부(木部) 47종, 화부(花部) 50종, 초부(草部) 77종, 채속(菜屬) 43종, 약염(藥鹽) 21종, 수부(獸部) 101종, 조부(鳥部) 131종, 어부(魚部) 107종, 익충부(翼蟲部) 38종, 과충부(瓜蟲部) 89종의 10개 항목 704종이다.	이밖에 곡식(穀食), 식물(食物), 과실(果實) 등 기타 항목에 부분적으로 생물명이 보인다. 표제어는 모두 한자어이며, 한자어 이칭 및 고유 명칭을 주석으로 부기하였다. 표제항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으로서의 기능은 다소 부족하다. 가급적 많은 물명을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35. 박물 잡지	조선 후기	박물지	총 2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내용은 동식물의 명칭 및 형태와 습성, 그리고 용도에 관한 것. 생물의 명칭, 특성, 용도를 간략히 설명하였음.
36. 벽은방 언해	16세기	의서	동물 7종, 식물 47종 명칭	생물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생물의 일명, 치료방법, 민간처방, 예방 등을 다루고 있다.
37. 벽은신방	17세기	의서	동물 4종, 식물 42종.	단순히 동식물종 나열과 달이는 방법 적어 놓았음.
38. 본사	18세기	농서	동물 19종, 식물 801종	생물의 일명, 특성, 활용, 시기, 유래의 고찰, 형태와 습성 등도 다루고 있다.
39. 본초정화	미상	의서	초부(草部): 산초류(山草類), / 방초류(芳草類)/ 습초류(濕草類)/ 독초류(毒草類), / 만초류(蔓草類), / 수초류(水草類) / 석초류(石草類), / 태류(苔類), 곡부(穀部): 마맥류(麻麥類), / 서직류(黍稷類)/ 숙두류(菽豆類), / 조양류(造釀類), 채부... 많은 종들..	단순히 동식물종 나열과 계절에 맞는 약과 맛에 관하여 쓰여졌음.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40. 북학의	18세기	건문서	글속에서 자연스럽 게 해당생물 1,2종이 나열.	물에 대해 따로 분류한 바는 없으며, 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생물이 등장함. 동일 생물에 대한 다른 표기보임.
41. 사류 박해	19세기	유서	동물 635개 명칭 향 목, 식물 913개 명칭	생물의 명칭, 형태, 습성, 비 교, 설화 소개, 역사, 신체 지 식, 관련 용어, 재배기간 등 을 다루고 있음.
42. 사시찬요초	미상	농서	동물 25종, 식물 75 종.	생물의 분류기준은 없음,
43. 산가 요록(1권 조선전기)	15세기	고조 리서	양잠: 총 1종(식물 1종 / 과일나무 기르기: 총 13종(식물 13종) / 나무 기르기: 총 8종 (식물 8종) 등	조리 대상과 방법 기술. 이 책은 농업과 음식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 업에는 생물이 소재가 되 고, 음식에는 생물이 재료
44. 산림 경제	18세기	농서	복거(卜居), 식물 60종 /복식(服食), 식물 50 종/치농(治農), 동물 1 종, 식물 44명/ 조도 (早稻, 올벼), 총 29종 의 벼 / 올벼(조도, 早 稻), 2종 / 중도(中稻), 4종 / 만도(晩稻, 총 10 종(1종 중복)의 벼 명 칭이 보인다. 전체적 으로 등장하는 벼의 종 수는 41종이다. ....../ 치선(治膳), 동물 23종, 식물 94종/ 구급(救急), 동물 32 종, 식물 126종 명칭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 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 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 법 등뿐만 아니라 재배방 법 등도 다루고 있음.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45. 삼재도회	17세기	유서	조수(鳥獸)1권, 동물 45종; 조수(鳥獸)2권, 동물 68종; 조수(鳥獸)3권, 동물 49종; 조수(鳥獸)4권, 동물 78종; 조수(鳥獸)5권, 동물 69종; 조수(鳥獸)6권, 동물 76종; 초목(草木)1권 식물 43종; 초목(草木)2권, 식물 42종; 초목(草木)3권 46종; 초목(草木)4권, 식물 40종; 초목(草木)5권 식물 40종; 초목(草木)7권, 식물 41종; 초목(草木)8권 식물 400종; 초목(草木)10권 식물 63종; 초목(草木)11권 식물 46종; 초목(草木)12권 식물 55종.	생물의 명칭, 형태, 습성, 맛, 설화, 색깔, 능력, 유사종, 약용, 명칭 유래, 산지 등을 다루고 있다.
46. 상마경	1634년 이후일 가능성	수의 학서	동물 25종, 식물 151종	말의 질병 치료에 따른 처방을 제시.
47. 색경	1676년	농서	동물 8종, 식물: 92종.	상권에서는 주로 심는 시기, 방법, 토지의 조건, 추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48. 서애집	17세기	개인 문집	동물 37종 명칭, 식물 43종 명칭	생물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증점적으로 다룬 경우는 없다. 다만 비유적 표현, 생물 제재의 한시, 일부 생태 관찰, 계절 감각, 풍경, 생물을 통한 성선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49. 성호 사설	1761년경	시문집, 유서학	천지문(天地門): 총18종(식물 13종, 동물 5종); 만물문(萬物門): 총211종(식물88종, 동물123종); 인사문(人事門): 총16종(식물14종, 동물2종);	독특한 생물의 명칭은 본문에서 모두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50.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지리지) (1권 조선전기)	1452~1454년	전국 지리지	경기도(41)·충청도(55)·경상도(66)·전라도(56)·황해도(24)·강원도(24)·평안도(47)·함길도(21)등의 334개 고을에 토산항목에 많은 생물들을 기록함.	전국 전도에 걸쳐 334고을에 토산품명, 식물, 동물명이 나열됨.
51. 소문 사설.	18세기	전문록	식물 101종, 동물 34종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2~30종에 달한다. 모두 한자어 물명이며, 간혹 한글을 주석으로 부기한 예도 보인다. 본문은 해당생물의 명칭, 종류, 특성 및 용도 등을 설명하였다.
52. 수운 잡방	1540년 경	고조 리서	주류(酒類): 총 9종(식물 9종)/비주류(非酒類): 총 52종(식물 43종, 동물 9종)	음식에 대한 내용으로, 음식에는 생물이 재료 나열.
53.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	1838년	역사서	총 7종(식물 5종, 동물 2종).	순조 시대의 다양한 실제 기록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물 등장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54. 신증동국여지승람·강원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26지역(목, 부, 군, 현)에 토산품이 각 지역마다 식물이 5-14종, 동물이 3-19종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하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55. 신증동국여지승람·개성부	1530년	관찬지리지서	'토산' 항목이 없음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56. 신증동국여지승람·경기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37역(목, 부, 군, 현)에 토산품이 각 지역마다 식물 14종, 동물이 1-32종이 명시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57. 신증동국여지승람·함경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식물류 57종, 동물류 45종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58. 신증동국여지승람·경상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67지역(목, 부, 군, 현)에 토산품이 각 지역마다 식물 3-13종, 동물이 1-17종이 명시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59. 신증동국여지승람·전라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55현의 각 지역별 토산품을 나열하고 있으며 약 70여 종의 식물.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들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60. 신증동국여지승람·충청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54역(목, 부, 군, 현)에 토산품이 각 지역마다 식물이 1-4종, 동물이 1-32종이 명시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61. 신증동국여지승람·평안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43지역(군, 현, 부)에 토산품이 각 지역마다 식물이 1-8종, 동물이 1-15종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62. 신증동국여지승람·한성부	1530년	관찬지리지서	'토산' 항목이 없음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63. 신증동국여지승람·함경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23지역(목, 부, 군, 현)에 토산품이 각 지역마다 식물이 2-9종, 동물이 2-18종이 명시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64. 신증동국여지승람·황해도	1530년	관찬지리지서	23지역(목, 부, 군, 현)에 토산품이 각 지역마다 식물이 2-9종, 동물이 2-18종.	각 지역의 목·부·군·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단편적으로 열거, 상세하게 여러 특성이 거론되지 않음
65. 신편휘어	1653년	유서	백금(百禽), 동물 64종, 식물 18종; (백수(百獸)), 동물 32종, 식물 1종; (인충(鱗蟲)), 동물 8종, 식물 1종/ (갑충(甲蟲), 동물 13종/ (치충(多蟲), 동물 19종/ (백곡(百穀), 식물 8종/ (채(菜) 식물 8종/ (백수(百樹) 식물 10종/ (백과(百果),	생물명칭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음.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식물 8종/(백화(百花), 식물 4종/(백초(百草)); 식물 9종/(지란(芝蘭), 식물 2종	
66. 아연 각비	1819년	어원 연구서	식물 58개 항목과 동물 22개 항목	생물의 명칭, 형태, 오류, 작품 검토, 종류, 재배, 이용, 중국음(中國音), 유사 종 구별 등을 다루고 있는데 항목마다 기술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67. 역어 유해	1690년	사전	화곡(禾穀), 식물33가지;(채소(菜蔬), 식물80가지;(비금(飛禽), 동물94가지명칭;(주수(走獸), 동물119가지명칭;(곤충(昆蟲), 파충류, 동물77가지;(수족(水族), 동물73가지;(화초(花草), 식물96가지명칭;(수목(樹木), 식물59가지.	異名, 별종, 일명, 새끼명칭, 중국어발음, 색깔, 방언을 기술하였다.
68. 조선왕조실록(연산군 일기)	1507년	역사서	총 106종(식물 52종, 동물 54종)	실록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생물이 등장함.
69. 오주연문장전산고	1856년	백과사전	동물 100종, 식물 187종	생물의 명칭, 생태, 분류, 명칭, 원산지 등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다.
70. 용재 총화	1525년	필기잡록	총 94종(식물 52종, 동물 42종)	생물에 대한 의견 피력.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71. 우해이 어보	19세기	어보	물고기 52종 외에 갑각류 8종, 패류 10여종 등을 수록.	물고기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뿐만 아니라 어획법등도 다루고 있으며, 특징적으로 매번 해당 물고기에 대한 내용기술 뒷부분에 '牛山雜曲'이라고 해당 물고기와 관련된 시를 지어 덧붙이고 있다.
72. 유원 총보	1643년	유서.	미곡문(米穀門): 식물 31종, 동물 3종; (초목문(草木門)), 식물 125종, 동물 13종; (조수문(鳥獸門)), 동물 71종; (충어문(蟲魚門))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을 다루고 있음.
73. 의림촬요	1635년	의서	식물 339종, 동물 97종	생물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생물의 일명, 원료, 일반처방, 맛, 고사, 주의사항, 약용자격, 치료방법, 가공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74. 의방유취	15(19)세기	의서	동물 71종, 식물 309종 명칭.	생물명칭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생물의 일명, 반대성질, 사용조건, 가공방법, 관리방법, 암수구별, 판별법, 주의사항, 약용, 성질과 맛 등을 다루고 있다.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74. 의방 활투	1869년	의서	동물 23종, 식물 187종	특정 약을 만들기 위한 약재의 가공법을 제외한 생물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음.
75. 의방 활투	19세기	의서	식물 187종 명칭. 동물 23종	특정 약을 만들기 위한 약재의 가공법을 제외한 생물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76. 의본	미상	의서	동물 63종, 식물 202종	생물의 명칭, 이 책의 추가 사항, 금기, 활용, 가공법, 사용범위, 색깔, 성질, 채집시기 등을 다루고 있음.
77. 의휘	1871년	의서	식물 260종, 동물 90종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한자어 등이 있다.
78. 이아 주소	10세기	경전, 백과사전, 어휘집, 방언자료집의 차원으로 이해	식물 203종/ 식목(釋木), 68종(1종 중복)/ 식충(釋蟲), 54종/ 식어(釋魚), 동물 26종/ 식조(釋鳥), 동물 71종/ 식축(釋畜), 동물 4종 / 식수(釋獸), 동물 8종.	생물의 명칭, 형태, 종류, 습성, 종류, 맛, 주의사항, 성질, 유사종, 약용, 이용과적용법 등을 다루고 있다.
79. 임원경제지	19세기 초	박물학서	식물 145종	명칭에 특이사항없음.
80. 임하 필기	1871년.	잡록	동물 81종, 식물 125종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뿐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음.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81. 입연기	1778년	입연기	정조 2년 4월: 총 10종 (식물 5종, 동물 5종) / 정조 2년 5월: 총 18종 (식물 18종) / 정조 2년 6월: 총 8종 (식물 1종, 동물 7종)	생물에 대해 따로 분류한 바는 없으며, 건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물이 등장함.
82. 자산 어보	19세기	어보	인류(鱗類): 75종, 2, 무린류(無鱗類): 48종, 3. 개류(介類): 71종, 4. 잡류(雜類): 49종	속명(俗名)과 방언을 표시한 경우가 있다. 내용 기술은 각 생물에 대해 외형, 맛, 특징, 어획 시기, 어획 방법, 속명, 약재나 음식으로써의 쓰임, 효험 등이 설명되어 있다.
83. 잡설 (시문초)	1742~1801	잡설	동물 4종, 식물 11종 총 15종	본문의 내용에 한자어 이칭 및 우리말 명칭이 있다. 사물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명칭을 제시하고 바로잡기도 하였음.
84. 채물보	1798년	유서	우충(羽蟲), 동물 90종 / 모충(毛蟲), 동물 84종 / 인충(鱗蟲), 동물 71종 / 개충(介蟲), 동물 25종 / 곤충(昆蟲), 동물 63종 / 곡(穀), 식물 80종 / 채(菜), 식물 71종 / 과(果), 식물 50종 / 초(草, 풀), 식물 263종 / 목(木, 나무), 식물 116종 / 대나무(죽, 竹), 식물 3종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어종, 주의사항, 이용법 등뿐만 아니라 어획법 등도 다루고 있음.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85.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	1805년	역사서	총 28종(식물 11종, 동물 17종).	다양한 실제 기록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물 등
86. 제주 계록	1846년 2월~1884년 10월	계문 (啓文)	동물 9종, 식물: 31종	중요한 진상물품은 각 양굴과(各樣橘果)로서 삼읍과 원의금굴·대굴·산굴 등의 계수가 기재되었다. 굴의 다양한 종류가 재배되고 있음.
87. 제주풍토록	1636년	기행문, 풍토록	생물: 동물 24종, 식물 31종 명칭/제주도에 없거나 또는 매우 드물다고 기술한 생물: 동물 12종, 식물 14종 / 그 외에 단순히 언급된 생물 동물 종, 식물 4종	최다 산출, 맛, 없는 산물, 형태와 맛, 수확시기, 등을 다루고 있음
88. 제중신편	1799년	의서	동물 84종, 식물 225종	약재에 대해 설명과 고어표기; 생물의 명칭, 분류, 성질, 맛, 가공방법, 방언, 색깔, 이용법 등을 다루고 있음.
89. 조선부	1492년	문학 중에서 특히 기행문	동물 36종, 식물 43종	생물의 활용, 형태, 색, 유사종 등뿐만 아니라 어휘법 등도 다루고 있다. 운문으로 된 본문이 있고 따로 주석이 있음.
90. 주례고공기	(3세기)18세기초	경진주해	동물 12종, 식물 8종 명칭	생물 명칭 표기의 종류로는 표제어, 俗名, 異名, 방언 등이 있다. 그중 표제어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다. 생물의 희생, 지기(地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氣), 방위의 상징, 제품수명, 분류, 형태, 습성, 원료 등급 등을 다루고 있다.
91. 주촌신방	17세기	의서	식물 308종, 동물 76종.	명칭은 음차, 훈차, 혼합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92. 지구전요	1857년.	지리서	동물 40종, 식물100종	생물의 일명, 형태, 서식지, 향, 유래, 색깔과 맛, 생식, 음용, 활용 등을 다루고 있음.
93. 지봉유설	1615년	백과사전	식물 71종, 동물 100종	생물의 명칭, 형태, 이름, 개화시기. 종류, 색채, 원산지, 용법 등을 다루고 있다.
94. 청관물명고	미상	유서	야초류(野草類): 식물295종/조수류(鳥獸類): 동물100종/충어류(蟲魚類): 동물 144종/?류 동물 46종	생물의 일명, 형태, 운서, 고사, 색깔, 먹이, 자생지역, 습성, 역서 등을 다루고 있다
95. 청령국지	1778년	국지	세계(世系): 총2종(식물1종, 동물1종) /성씨(姓氏): 총1종(식물1종) /예문(藝文): 총22종(식물9종, 동물13종) /여지(輿地): 총10종(식물8종, 동물2종) /풍속(風俗): 총8종(식물7종, 동물1종) /물산(物産): 총47종(식물27종, 동물20종) /이국(異國): 총23종(식물 18종, 동물 5종) 등	생물에 대해 따로 분류한 바는 없으나, 일본과 일본 주변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산물이나 관련 생물을 기술.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96. 활요 신서	조선 전기	가정 지침서	경가(耕稼): 총 46종 (식물 39종, 동물 7 종). / 잡상(蠶桑): 총 12종(식물 7종, 동물 5종)	생물을 따로 분류한 것은 아니고, '경가(耕稼)'와 '잡 상(蠶桑)'의 내용 가운데 자 연스럽게 생물이 등장함.
97. 탐라지	1653년 (효종 4)	읍지	동물 33종, 식물 96종	이문헌안에서 이칭이나 별 칭은 따로 발견되지 않는 다. 특징은 참고가 됨.
98. 패관 잡기	조선 중기	잡기	약재 5종, 한반도~ 중국 및 일본	패관에 의해 기록된 이야기 를 패관잡기라고 불렀다. 별다른 분류 기준은 없음.
99. 한정록	1618년	휘집	식물 69종, 17종 등 총 86종의 명칭	동식물로 나누고, 단지 명 칭만 나열, 작물 재배 및 가 축 사육과 질병 치료에 대 한 생물 지식이 정리됨.
100. 한죽당 섭필	1783년	견문기	식물 3종, 동물 30여종.	영남지방의 명승· 고적과 고금인물· 풍속 등에 관하 여 기술한 것. 자연스럽게 해당 생물을 주제로 하여 기술함. 단점·종수가 적음.
101. 해동 농서	1798년	농서	동물 88종, 식물 488종	명칭, 형태, 異名, 별종, 습 성, 종류, 맛, 색채, 성질, 근 어종, 주의사항 등이 기술 되었음.
102. 해동 역사	1810년.	사서	동물 50종, 식물 총 123분류군	지(志)에 지역적 특성을 기 록하면서 동식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격적으로 생물정보만을 다 룬 것은 아니지만 지(志)를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 다.

해제 문헌명	시기	종류	생물기록종수	특이사항
103. 향약 구급방	미상	전통 의약서	동물 24종, 식물 153종	생물의 명칭, 약재가공방법, 보석, 맛· 온도· 독성, 주술적의의, 크기, 약용등도 다루고 있다.
104. 향약집성방	1433년	전통 의약서	동물 81종, 식물 263종	생물의 명칭, 형태, 異名, 질병 증세, 위험성, 처방, 주의사항, 근어종, 약용, 맛과 독성 등의 정보가 다루어지고 있다.

## ❁ 참고문헌

- 김영진 역주(1984), 조선시대 전기 농서 : 撮要新書, 農事直說, 衿陽雜錄, 閑情錄, 農家集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문웅 역주(2009), (역주)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온방, 벽온신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유 저·윤숙자 편(2006), 수운잡방 : 一五00년대 한국전통음식, 백산출판사.
- 김홍석(2008),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 연구, 한국문화사.
- 농촌진흥청 편역(2002), 농정서.
- 농촌진흥청 편역(2014), 규곤요람 외, 진한엠앤비.
- 동월 저·김영국 역(2013), 조선부, 심미안.
- 민족문화추진회(1969), 국역 신증 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 민족문화추진회(1971), 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 박세당 저·농촌진흥청 역(2001), 색경, 농촌진흥청.
- 박제가 저·안대회 교감역주(2013), (완역정본) 북학의, 돌베개.
- 빙허각이씨 저·이민수 역(1988), 규합총서, 기린원.
- 빙허각이씨 원저·정양완 역(1975), 규합총서, 보진재.
-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1994), 고사촬요, 증보산림경제, 고사신서, 오름.
- 서유구 저·노평규, 김영 역주(2010), 임원경제지1, 2, 4, 소와당.
- 서호수 저·노재준, 윤태순, 홍기용 역(2008), 해동농서, 농촌진흥청.
- 신안군기획감사실(1998), (상해) 자산어보 : 附行狀 書簡 圖譜集.
- 이기봉(2003),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물 항목에 대한 검토, 문

- 화역사지리15(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이덕무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1997), 청장관전서, 숲.
- 이수광 저 · 남만성 역(1994), 지봉유설, 을유문화사.
- 이원진 저 · 김찬흡 외 공역(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 이준영 역(2014), 주례, 자유문고.
- 이충구 외 공역(2005), 이아주소, 소명출판.
- 이형상 저 · 이상규, 오창명 역주(2009), 남환박물 : 남쪽 벼슬아치가 쓴 18세기 제주 박물지, 푸른역사.
- 장지연(2013), 조선 전기 개념어 분석을 통해 본 수도의 성격, 서울학 연구52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전순의 저 · 한복려 편(2007), (다시 보고 배우는) 산가요록, 궁중음식 연구원.
- 정부인 안동 장씨 저 · 백두현 역주(2006),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 최한기 저 · 노재준, 윤태순, 홍기용 역(2005), 농정회요, 농촌진흥청.
- 허성도 외 역(2009), 유원총보역주1, 2, 4,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허준 저 · 동의과학연구소 역(2002), 東醫寶鑑. 第1卷, 內景篇, 휴머니스트.
- 허준 저 · 동의과학연구소 역(2008), 東醫寶鑑. 第2卷, 外景篇,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허준 저 · 동의문헌연구실 역 · 진주표 주석 · 권영규, 김광중 외 감수(2007), (신대역)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 홍석모 저 · 정승모 역(2009), 동국세시기 : 한 권으로 집대성한 우리나라 세시풍속, 풀빛.
- 황도연(1988), 方藥合編解說 新增補辨證版, 成輔社.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해제로 보는 조선시대 생물자원 2 - 조선중기(16~17세기)

1판1쇄 발행 2016년 2월 12일

지 은 이 정종우, 정소연, 여성희, 이창숙, 이종석, 오경희,  
최봉수, 남기흠, 김병직, 이지연, 조수현, 김양선

펴 낸 이 국립생물자원관장 김상배

펴 낸 곳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 22689

전 화 032-590-7000

전 송 032-590-7040

이 메 일 [nibr@korea.kr](mailto:nibr@korea.kr)

제 작 한국문화사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ISBN 978-89-6811-239-3 93470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083-01